

各司膳錄

각사등록 충청도편 1 역사기후 자료집

忠淸監營啓錄
錦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 1

各司臚錄 7책 6책, 忠淸監營啓錄·錦營啓錄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4년(철종 5)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충청도편 자료집 1

忠清監營啓錄
錦營啓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목 차

해제 | 7

일러두기 | 19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시등록(책)	쪽수
0001-0045	헌종 1년, 1835년	충청감영계록 9책	각시등록 7책	22
0046-0070	헌종 2년, 1836년	금영계록 1책	각시등록 6책	112
0071-0105	헌종 3년, 1837년	금영계록 1책	각시등록 6책	146
0106-0148	헌종 10년, 1844년	금영계록 2책	각시등록 6책	189
0149-0179	헌종 11년, 1845년	금영계록 2책	각시등록 6책	236
0180-0219	철종 3년, 1852년	금영계록 3책	각시등록 6책	271
0220-0275	철종 4년, 1853년	충청감영계록 4책	각시등록 7책	317
0276-0301	철종 5년, 1854년	충청감영계록 4책	각시등록 7책	380

해제

1. 시간을 담은 문서의 질감 : 『각사등록』의 자료적 특징과 현황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과 지방 간의 왕복 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정리하여 영인한 조선시대 기초 사료집으로서, 계록(啓錄), 등록(謄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전 일부를 비롯해 1910년 대한제국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기록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각사등록』에 수록된 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있다. 198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101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최근 국역화 및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여 자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01책 중 1책에서 55책까지는 도별 행정문서들을 총집해 놓았는데,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관아의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각사등록』의 도별 자료는, 경기도(1~6책), 충청도(6~10책), 경상도(11~17책), 전라도(18~21책), 황해도(22~26책), 강원도(27~28책), 평안도(29~41책), 함경도(42~46책)의 순으로 영인되었으며, 이밖에도 48~55책까지는 경기도 보유편(47책), 충청도 보유편(48책), 경상도 보유편(49~52책), 전라도 보유편(53~54책), 황해도·강원도 보유편(55책) 등으로 1~46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유편으로 성책되어 있다. 이중 1~46책에는 우택, 측우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상 정보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한편 『공문편안(公文編案)』은 1894년 7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 사이에 오간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총 9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공문편안』에는 갑오개혁 이후 제도개혁에 따른 중앙의 훈령과 지시 사항에 대해 지방에서의 처리 방안 및 문제점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생들의 동학교도 비난, 수재와 흥년으로 인한 민정의 피해 상황, 이서배들의 중간 수탈, 역둔토의 조사 및 정부로의

귀속 조치 등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공문편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문편안』에는 『각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측우, 우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공문편안』이 근대이행기 『각사등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록자료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각사등록』과 그것의 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공문편안』은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료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문서행정의 보고이자 지방사회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회사자료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2. 『각사등록』에 담긴 측우 기록의 역사성

1) 하늘에서 온 데이터, 땅에서의 응답 : 조선 전기 농업정책과 측우 행정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국왕의 통치행위에 접목시켜 해석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켜왔다. 국왕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자로서 각종 의례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통치자로서, 농업, 부세, 진휼정책을 추진하여 수신(修身)과 애민(愛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성립된 조선왕조는 특히 기상천문과 관련된 의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혹은 재이론(災異論)에 입각한 감선(減膳), 기우제 설행 등의 도덕적 통치 행위를 일상화해갔다. 또한 건국 초부터 유교적 농본국가를 표방하였기에,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별, 계절별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질환경과 수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고려말부터 연작 상경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파종법, 시비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농서를 편찬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지질 특성상 수차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조선에서는 제언, 천방을 설치하는 선에서 관개시설의 보급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큰 제언을 조성하려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제언 주변의 농지만이 물대기에 용이할 뿐더러 천방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의 논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의 농지는 강우량의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天水畓)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절기별, 지역별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각도 군현의 지방관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우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보고하는 우택 정보는 ‘읍진(浥塵)’, ‘1서(鋤)’, ‘1려(犁)’,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이 지역에 소재한 농지와 하천을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화된 강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441년(세종 23) 문종의 주도로 측우기를 제작하여 각도 군현에 보급함으로써 우택 정보를 보완하는 측우기의 측량값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1441년(세종 23) 4월 29일 『세종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에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分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分寸을 조사하였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측우기를 통한 강우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 이후 중앙에 보고되는 측우, 우택 기록은 한 해의 농형(農形)을 진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도 감사와 각읍 수령의 주요 행정 업무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우택, 측우 기록은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과 재해 대응, 부세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측우기는 선초부터 중앙에 보고된 우택 정보를 계량화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강우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강우 데이터 및 농형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세입 산정과 진휼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의 수세 가능 면적이 감소하고 행정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측우 행정 또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2) 강우기록, 국가를 다시 세우다 : 양난 이후 측우 행정의 복원과 활용

17세기 양난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경신·을병 대기근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농업정책과 진휼 및 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전세 및 대동세의 수취 기반을 정비해나갔으며,

전국의 교통 요지에 진휼창을 설치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어 1770년(영조 46)에는 측우기를 복원하여 각 도의 감영과 유수부에 설치하고, 강우량과 농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위해 전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세종대 측우기가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위 46년 5월 1일, 세종조의 옛 제도를 모방해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각각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설치해 강우량의 척촌(尺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각도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택과 농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올리면서 측우기의 측량값도 함께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 내용에는 강우뿐 아니라,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홍수·지진·해일·충해 같은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는 전국 군현에 모두 설치되지 않고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료 상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배경 요인을 들자면, 18세기 이래 고도화된 도단위 행정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 비충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각읍에 풍흉의 정도와 재해 상황을 반영해 도별로 급재(給災)를 인정해주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 단위 행정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우선 1713년(숙종 39) 이래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를 시행하고 전임 감사를 해당 도의 구관당상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감사·수령의 행정 체계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조치가 주목된다. 각도 감사 외에 비변사에서 각도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도의 현안을 현실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65년(영조 41) 무렵에는 비록 313개 군현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지도서』라는 전국 단위 관찰 지리지를 편찬함으로써 호구, 토지, 물산, 조세, 환곡, 군역 등의 부세 자원에 관한 도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충제 역시 이러한 지방통치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부세제도로서 각도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를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한 것은 이러한 도 단위 부세행정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 기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770년(영조 46) 측우기 복원 이후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 내외 관상감은 물론 지방 감영과 각도 유수부에 측우기가 보급됨으로써 계량화된 강우량이 조정에 보고

되었으며, 각 군현에서 수집된 우택 정보 역시 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조선후기 측우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존하는 『각사등록』의 우택, 측우 기록은 조선후기 측우 행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문서행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우 행정 시스템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 근대적 공문첩인 『공문편안』에까지 우택과 측우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복원된 조선왕조의 측우행정 시스템이 근대적인 기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10여 년간 장기지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측우 행정의 성립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각사등록』 상에 우택, 측우 기사가 실리게 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기록을 총집, 번역한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3.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대상자료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당해 11월 17일에 걸쳐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 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의 결과물로 간행된 번역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우택 관련 기록들을 검출하여 도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측우 기록을 검토하고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기상학 분야에서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1차 수집, 정리하고 도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번역 상의 오류와 기사 누락이 많고, 자료 출처와 DB 작성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既번역 자료 및 통계 DB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개월에 걸쳐 既번역된 『각사등록』의 우택·측우 기록을 검토해 번역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일관된 번역 원칙에 따라 용례를 통일하여 번역한 후 교차 검토를 통해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원문 자료를 찾아내어 OCR작업으로 원문을 추가로 입력하고 새로 번역함으로써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총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15권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 출판하고 통계 DB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번역 총서는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 경상도편, 전라도편, 강원도편, 황해도편(1·2), 평안도편(1·2·3·4), 함경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대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번역 총서는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해만 번역 대상 연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자료에 수록된 전체 작성 연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번역 대상 자료

지역	각사등록 등	서명	작성연대
경기도	각사등록 1책	기영장계등록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각사등록 4책	광주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각사등록 5책	광영계록	1870년(고종 7)~1893년(고종 30)
		화영계록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각사등록 4책	개성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
	각사등록 4책	이등계록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
		강화부유영장계등록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82책	공문편안	1895년(고종30)
충청도	승정원일기 탈초본 138~141책	승정원일기	1894년(고종 31)~1907년(순종 1)
	각사등록 6~7책	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고종 32)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32책	공문편안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경상도	각사등록 11책	경상감영계록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각사등록 17책	통제영계록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6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전라도	각사등록 18책	전라감사계록	1829년(순조 29), 1845년(헌종 11), 1847년(헌종 13), 1849년(헌종 15), 1854년(철종 5), 1876년(고종 13),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호남계록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4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강원도	각사등록 27책	강원감영계록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관동계록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춘천유영계첩록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황해도	각사등록 22~24책	황해감영장계등록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공문편안 52책	공문편안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평안도	각사등록 29책	관서계록	1822년(순조 22)
	각사등록 29~33책	평안감영계록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1843년(헌종 9), 1844년(헌종 10)~1843년(헌종 11),

			1848년(헌종 14)~1850년(철종 1), 1852년(철종 3)~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70년(고종 7), 1873년(고종 10)~1874년(고종 11), 1883년(고종 20)~1884년(고종 21)
함경도	각사등록 42책	함경감영계록	1856년(철종 7), 1862년(철종 13)~1867년(고종 4)
	각사등록 43책	함경북병영계록	1846년(헌종 12)~1847년(헌종 13), 1850년(철종 1), 1851년(철종 2), 1888년(고종 25)~1890년(고종 27)
	공문편안 78·91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원산해관관측소	원산해관관측소	1885년(고종 22)~1907년(융희 원년)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 1>에 실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4.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은 『각사등록』 중에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충청도 지역에서 관측된 기후 및 농형 자료를 총집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충청감영에서 작성한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과 『금영계록(錦營啓錄)』, 근대 공문서인 『공문편안(公文編案)』에 기록된 측우기 및 우택 자료를 알기 쉽게 번역함으로써 당대 기후 변화와 농사 활동의 관계는 물론 기후 패턴을 복원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편찬 체제와 내용 구성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 수록된 자료는 앞서 언급한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조선후기 충청감영에서 작성한 『충청감영계록』과 『금영계록』이다. 이 자료에는 누락된 해들이 있기는 하지만, 1835년부터 1895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강우, 서리, 우박, 결빙, 해빙, 가뭄, 기우제 등의 기상 정보와 농사 활동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갑오개혁 이후 탁지부(度支部)에 보고된 『공문편안(公文編案)』을 들 수 있다. 『공문편안』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근대적인 기후 관측과 행정 문서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공문편안』에는 1896년, 1897년, 1898년, 1900년 네 해에 충청도 기상 정보가 확인된다.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는 조선 후기와 근대 초기 충청도 지역의 우택 정보와 측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당시 기후 변화와 농업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실제로 봄철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가을 수확기까지의 기후와 농업 상황을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았으며, 강우, 가뭄, 서리, 우박 등 농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상 요건과 관부의 대응 방식 역시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예컨대, 1835년은 여름 동안의 긴 장마와 해일로 도내 각읍이 대부분이 흉년을 면치 못한 해였다. 6월과 윤6월에 지속된 강우와 바닷가 해일로 독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염병으로 도내에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당해 윤6월 3일에는 충청도 내 각 고을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들의 명수가 기록되었는데, 충청감영에서 파악한 도내 사망자수는 총 42,630명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사망자가 발생한 44개 고을에서는 사망자의 추모를 위한 별여제(別厲祭)가 시행될 정도였다. 여기에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다시 비가 내려 충주와 연풍 등 22개 고을에서 민가가 무너지거나 떠내려가고, 물에 휩쓸려 사망한 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당해 9월 충청감영에서 중앙에 보고한 재실분 등 양상을 살펴보면, 농사의 작황이 우심(尤甚)한 읍은 충주·공주·청풍 등 16개 고을이, 그에 버금가는 지차(之次) 읍은 홍주·청주·천안 등 29개 고을이 포함되었으며, 그나마 작황이 괜찮은 초실(稍實)한 읍은 한산·임천·대흥 등 10개 고을에 그쳤다.

1835년 농형 보고를 통해 충청도의 주요 농작물과 경작방식을 살펴보면, 논농사는 벼씨를 못자리에서 기르는 주앙(注秧)과 논에 직접 벼씨를 심는 부종(付種)이 병행되었다. 밭농사의 경우 봄보리와 가을보리, 올기장과 올조, 콩, 팥, 목화 등이 재배되었으며, 올기장·올조와 콩·팥·목화는 섞어짓기로 경작되었다.

이처럼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는 도내 각 고을의 우택과 측우, 농형

보고가 9~10월까지 꾸준히 중앙에 보고되고 있는 해가 많고, 기상 정보뿐 아니라 전염병의 유행과 그에 따른 피해 복구 상황 등 측우 행정과 재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한 기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문편안』의 경우, 보고 주체가 공주부 관찰사 혹은 충청남도 관찰사로 변경된 것 외에는 앞서 『충청감영계록』이나 『금영계록』의 우택, 측우 보고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관찰사는 각군에서 올린 우택 상황을 종합해 중앙에 보고하는 한편, 관찰부(옛 감영)에 소재한 측우기의 수심도 함께 보고하였다. 이때 강우량이 상당하여 도내 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찰부 인근의 평야와 하천의 우택 상황도 살펴서 측우기 수심이 어느 정도의 수해 상황을 야기하는 측량값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도내 각군에서 기우제를 설행한 내역도 중앙에 보고하였다.

2) 자료의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은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충청도의 강우량과 농업 작황, 재난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역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향후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기후사 연구에서 충청도 지역의 강우 패턴과 재해 발생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도의 경우 한 해 동안 감영에서 작성한 우택, 측우 기록이 비교적 상세한 편이며, 그 시기도 19세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 우택, 측우 기록을 통해 과연 19세기에 전과 다른 위기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재검토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농업사 연구에서 기후와 농업활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는 측우와 농형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종류뿐 아니라 파종, 제초, 이앙, 추수에 관한 절기별 농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에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 실린 측우-농형 기사의 분석을 통해 충청도 지역의 기후환경과 농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재정사 연구에서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구조와 부세행정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 측우기 제작이 공법제도의 시행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영조대 측우기 복원 역시 1760년(영조 36) 비총제가 법제화되고, 도별 부세행정체계가 고도화된 조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존의 재정사 연구가 토지의 생산량과 부세 수취와의 관계만을 다루었다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 실린 우택, 측우 기사는 토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요인과 이를 행정 시스템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우-농형-부세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재해정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의 대응 방식과 중앙 보고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해정책과 재난관리체계의 실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는 기상 정보 외에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충해, 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우제, 여제 설행 및 구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후기 지역별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 연구에서 환경사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에 실린 도내 기후환경과 농업 정보, 재난 상황과 대책 등은 전근대 충청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충청도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 극복해갔으며 한편으로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은 조선시대 기후환경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할 수 있는 원천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충청 지역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일러두기

- 이 책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록류 등을 영인 간행 한 『각사등록』에서 기상 자료를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저본으로 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원본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사등록』은 음력 날짜로 되어있고, 1896년 양력사용 개정 이후 자료인 『공문편안』은 양력 날짜로 되어있다.
- 이 책은 각사등록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총 8도의 측우자료를 번역검증하여 역사기후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경상도편·전라도편·강원도편·황해도편(1·2)·평안도편(1·2·3·4)·함경도편으로 총 15권으로 엮었다.
-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과 보충역을 했다.
-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학계의 관례를 따랐다.
- 편집순서는 영인본의 순서를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전근대 기후 자료는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있어, 이를 그대로 살려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번역문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문 독자들이 원문의 독특한 표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번역문은 일반 독자가 전근대 기상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통용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었다.
-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독자가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현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해당 일자의 기사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기상 현상과 거리가 먼 경우 생략하였다.
- 원문의 단순 오탈자의 경우 내용에 파악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교정, 교감하지 않았다.
- 문건별로 일련번호를 달았고, 영인본 면수를 표기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곡물 명칭과 도량형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 지침』을 따랐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충청도편 1

0001. 1835년(헌종 1) 2월 25일(양력 3월 23일)

忠淸監營啓錄 9책(5a~5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33d~434a)

勸農一事，歲首綸綍，既懇且摯。其所奉行，尤宜警惕乙仍于，助給種糧，勸借農器，俾各服勤，期有實效之意，另加申飭於列邑守宰爲白遣，近接各邑所報，則農形，秋牟[秋麴]始發青色，春牟[春麴]間或耕播，治墜修堤，次第經紀是如爲白乎跡。今月二十四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辰時乃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各邑雨降，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농사를 권장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연초에 내린 임금님의 말씀은 매우 간절하고 진지하였었습니다. 받들어 거행하는 도리상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종자와 양식을 도와주고 농기구를 빌려주도록 권장하고 각자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여 기어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라는 뜻으로 별도로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요즘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밭두렁을 고치고 방죽을 수리하는 일을 차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2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2. 1835년(헌종 1) 3월(양력 4월)

忠淸監營啓錄 9책(5a~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34a~434b)

道內農形及臣以左右道各邑巡審事. 今月初五日離發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臣行自公州, 歷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文義·燕岐·全義·木川, 方到溫陽郡, 而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 則秋牟[秋耑]新葉方抽, 青色頓發, 春牟[春耑]已盡耕播, 間或立苗, 濬沙修堤, 到處方張, 畓庫鋤役及秧坂翻耕, 間間爲之, 民柝于野, 服事頗勤是白乎旃. 今月十二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卯時開霽, 所得纔過浥塵是白如乎, 列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제가 좌도·우도 각 고을을 순시하는 일로 이번 달 초5일에 출발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공주에서 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문의·연기·전의·목천을 거쳐 막 온양군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니, 가을보리는 새잎이 막 나와 푸른빛을 문득 띠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간혹 싹이 돋았습니다. 모래를 파내고 방죽을 수리하는 일은 가는 곳마다 한창이었습니다. 논에 가래질하는 것 및 못자리갈아엮는 일을 간간히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들에 흠어져 자못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이번 달 1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다가 같은 날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내린 것은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3. 1835년(헌종 1) 3월 30일(양력 4월 27일)

忠淸監營啓錄 9책(6b~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34d~434d)

今月二十九日戌時量始雨，間間霏灑，至翌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而見今陰雲不解，餘意頗緊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9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이튿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현재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더 내릴 조짐이 자못 농후합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4. 1835년(헌종 1) 4월 4일(양력 5월 1일)

忠淸監營啓錄 9책(6b~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34d~435a)

去月二十九日雨澤，公州等十九邑所得分數，今月初一日酉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二日卯時以後，間間霏灑，至同日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五分，前後所得合爲三寸二分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二十九日之雨，前啓外，瑞山·泰安兩邑，得一犁，木川·牙山·石城·藍浦·保寧·結城·平薪等七邑鎮，得一犁，淸州·溫陽·沔川·韓山·林川·稷山·平澤·新昌·唐津·庇仁·黃澗·靑山·靑陽·陰城等十四邑鎮，得一鋤，沃川·報恩·槐山·懷仁·文義等五邑，沍塵是如爲白遣，初一日之雨，公州·全義·木川·連山·魯城等五邑，得二犁，淸州·天安·溫陽·大興·扶餘·定山·靑陽·燕岐·懷德·牙山等十邑，得一犁，林川·韓山·稷山·禮山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牟[秋耨]方始胚胎，春牟[春耨]漸次向茁，早黍粟幾盡耕播，畚庫次第初耕，注秧付種，方張爲之是如爲白有如乎，向後形止，待邑報，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19개 고을에 내린 양과 이번 달 초1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2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5푼이었으니, 지금까지 내린 것은 총 3치 2푼이 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과 태안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아산·석성·남포·보령·결성·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청주·온양·면천·한산·임천·직산·평택·신창·당진·비인·황간·청산·청양·음성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옥천·보은·괴산·회인·문의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1일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연산·노성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주·천안·온양·대흥·부여·정산·청양·연기·회덕·아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임천·한산·직산·예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막 알을 배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점차 싹이 나왔고, 올기

장·울조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논은 차례로 초벌갈이하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범씨 뿌리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고을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궐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5. 1835년(헌종 1) 4월 12일(양력 5월 9일)

忠淸監營啓錄 9책(10b~1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37b~437b)

今月十一日辰時量始雨，間間霏灑，至酉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6. 1835년(헌종 1) 4월 15일(양력 5월 12일)

忠淸監營啓錄 9책(11a~1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37d~438a)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辰時量始雨, 至酉時乃霽, 測雨器水深爲四寸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洪州·淸州·淸風·溫陽·瑞山·泰安·全義·木川·平澤·牙山·德山·唐津·藍浦·海美·保寧·結城·鎭川·陰城·延豐等十九邑, 得一犁. 公州·忠州·天安·大興·沔川·稷山·新昌·禮山·定山·靑陽·扶餘·庇仁·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懷仁·文義·燕岐·堤川等二十一邑, 得一鋤, 林川·韓山·舒川·報恩·沃川·石城·鴻山等七邑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 秋牟[秋麴]幾皆胚胎, 間或發穗, 春牟[春麴]漸就茁茂, 早黍粟方始立苗, 和種豆太及木花, 方張耕播, 畚庫初耕及注秧付種, 幾至了畢是如爲白有在乎,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1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4치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홍주·청주·청풍·온양·서산·태안·전의·목천·평택·아산·덕산·당진·남포·해미·보령·결성·진천·음성·연풍 등 1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충주·천안·대흥·면천·직산·신창·예산·청양·부여·비인·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회인·문의·연기·제천 등 2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천·한산·서천·보은·옥천·석성·홍산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알을 뻗는데 간혹 이삭이 뻗고, 봄보리는 점점 싹이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는 막 싹이 돋기 시작했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논이 초벌갈이 및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 뿌리기는 거의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7. 1835년(헌종 1) 4월(양력 5월)

忠淸監營啓錄 9책(11b~1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38a~438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方張入實, 春牟[春麴]漸次胚胎, 畓庫間或再耕, 注秧付種, 方始向青, 早黍粟, 和種豆太及木花, 次第立苗是如爲白有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봄보리는 점차 알을 배고, 논은 간혹 두벌갈이하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막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8. 1835년(헌종 1) 4월 28일(양력 5월 25일)

忠淸監營啓錄 9책(19a~1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2b~442c)

今月二十七日酉時量始雨，或霏或灑，至亥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7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9. 1835년(헌종 1) 5월 4일(양력 5월 30일)

忠淸監營啓錄 9책(20a~2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3b~443b)

去月二十七日酉時量始雨，至亥時乃止，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洪州·淸州·瑞山·報恩·全義·平澤·牙山·黃澗·靑山等十邑，得一犁，忠州·槐山·天安·溫陽·沔川·泰安·沃川·文義·木川·稷山·新昌·禮山·扶餘·結城·定山·靑陽·德山·海美·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永同·懷仁·燕岐·淸安·延豐等二十八邑，得一鋤，韓山·大興·石城·鴻山·庇仁·保寧·唐津·鎭川·陰城等九邑，浥塵是如爲白有在乎，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홍주·청주·서산·보은·전의·평택·아산·황간·청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충주·괴산·천안·온양·면천·태안·옥천·문의·목천·직산·신창·예산·부여·결성·정산·청양·덕산·해미·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영동·회인·연기·청안·연풍 등 2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한산·대흥·석성·홍산·비인·보령·당진·진천·음성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0. 1835년(헌종 1) 5월 7일(양력 6월 2일)

忠淸監營啓錄 9책(20b~2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3b~443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方始向熟, 春牟[春麴]漸次發穗, 畚庫方張再耕, 注秧付種, 次第青茁, 早黍粟, 和種豆太及木花, 間或初除草是如爲白有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막 익어가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점차 이삭이 패고, 논은 한창 두벌갈이하고 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른 싹이 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1. 1835년(헌종 1) 5월 17일(양력 6월 12일)

忠淸監營啓錄 9책(21a~2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3c~443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漸次成熟, 春牟[春麴]方張入實, 注秧付種, 漸就茁長, 汚下洞畝有水根處, 間始移秧,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次第初除草, 而雨澤久闕, 風陽連曝, 牟[麴]麥多有枯損之患, 秧坂皆至乾涸之境, 畝之翻耕, 田之鋤耘, 亦多愆時, 民事悶然是如爲白有在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익어가고, 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있습니다.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나고, 지대가 낮은 동네 논과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은 그사이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우택이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고 바람과 햇볕이 연이어 쬘니 보리는 시들어 마르는 근심이 많고, 못자리는 모두 메마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논을 갈아엎고 밭에 김매는 것 또한 시기를 많이 놓쳐 농사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2. 1835년(헌종 1) 5월 26일(양력 6월 21일)

忠淸監營啓錄 9책(26b~2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7b~447b)

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而見今同雲薰風，霏意頗緊是白如乎，久旱渴望之餘，甘澍伊始，爲民事誠爲多幸，而繼此霈然，方切顯祝爲白乎脉，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6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현재 먹구름이 끼고 후텁지근한 바람이 부니 비가 주룩주룩 내릴 조짐이 자못 농후합니다. 오랫동안 가물어 갈망하던 끝에 단비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백성들 사정상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후로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3. 1835년(헌종 1) 5월 27일(양력 6월 22일)

忠淸監營啓錄 9책(27a~27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47c~447d)

道內農形悶旱緣由及今二十六日丑時量始雨，至卯時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形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卯時以後，霏微陰暄，至同日申時，仍爲開霽是白遣，先接近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得一犁，淸州·天安·林川·大興·全義·木川·定山·青陽·石城·扶餘·鴻山·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燕岐等十七邑，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乎旃。農形段，邑報皆在始雨之前，而秋牟[秋麴]方張刈獲，春牟[春麴]漸次向熟，而初多含縮，終至枯損。間有全棄者，注秧付種，幾皆乾涸，未得茁茂，或至龜坼而萎黃，汚下洞畚之如干早移者，弱根未着，嫩葉先枯，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土壤漸硬，鋤耘多廢是如爲白有臥乎所，今番雨澤，得之亢旱之餘，而暫霑旋止。仍卽陽曝，列邑所得多寡，姑未及知，而第以臣營下見之，向萎之各種，幸得霑潤之效，近水之畚庫，少添灌溉之益，而原野高燥之地，無望生水，夏至奄屆，秧節將晚，言念民事，誠切憂悶是白如乎，各邑得雨及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 및 이번 달 26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묘시 이후로 부슬부슬 내리거나 짙은 구름이 끼었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이내 개였습니다. 먼저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는 1려가 내렸고, 청주·천안·임천·대흥·전의·목천·정산·청양·석성·부여·홍산·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연기 등 17개 고을은 우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왔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고을 보고는 모두 비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봄보리는 점차 익어가는데, 처음에는 많이 오그라들었다가 끝내 시들고 마르니 그사이에 전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거의 다 메말라서 싹이 무성하지 못했고, 더러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낮은 지대의 동네 논에 약간 일찍 모내기한 것은 약한 뿌리는 내리지 못했고 어린잎은 먼저 말랐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땅이 점점 딱딱해져 김매기를 포기한 곳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의 경우, 매우 가문 끝에 내렸는데 잠깐 주룩주룩 내리다가 바로 그치고 곧바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의 감영으로 보건대 시들어가던 각종 곡식은 다행히 촉촉이 적셔주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물 가까이 있는 논은 물을 대는 이점이 조금 더해졌지만, 벌판이나 높고 메마른 땅은 물이 생길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가 닳치고 모내기철이 늦어졌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 걱정입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 및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4. 1835년(헌종 1) 5월 28일(양력6월 23일)

忠淸監營啓錄 9책(27b~2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7d~448a)

今月二十六日雨澤, 公州得一犁, 淸州等十七邑, 先以始雨形止報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 木川·定山·鴻山·連山·鎭岑·燕歧等六邑, 得一犁, 淸州·大興·天安·全義·靑陽·扶餘·魯城·恩津·懷德等九邑, 得一鋤, 石城·林川兩邑溫塵. 前啓外, 溫陽·牙山·洪州·德山·唐津·海美·瑞山·藍浦·結城·懷仁·忠州·陰城等十二邑, 得一犁, 禮山·沔川·韓山·庇仁·保寧·沃川·靑山·報恩·文義·淸安·鎭川·槐山·延豐·淸風·堤川·丹陽等十六邑, 得一鋤, 稷山溫塵, 而久旱之餘, 暫霑而止. 雖其犁雨所得處, 僅爲田種之救急, 無望畝庫之生水, 至於鋤溫之邑, 殆同焦釜點滴, 目前解渴, 亦爲不足, 乾涸之土, 未見霑潤之益, 枯萎之穀, 少無蘇醒之效, 秧苗移插, 非所可論. 節候向晚, 群情遑急, 是列邑所報, 幾皆同然, 而其中石城·懷德·沃川·淸州·淸安等五邑, 以祈雨祭設行之意, 先爲請報是白乎等以, 使之觀勢量宜, 不卜日虔誠祈禱, 期得冥應之地爲白乎旃, 外此諸邑, 隨其請報, 亦令次第設行, 行祭日字, 待報來鱗次陳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6일의 우택으로 공주는 1려가 내렸고, 청주 등 17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온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비가 시작됐다고 보고한 고을 중 목천·정산·홍산·연산·진잠·연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주·대흥·천안·전의·청양·부여·노성·은진·회덕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석성·임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아산·홍주·덕산·당진·해미·서산·남포·결성·회인·충주·음성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예산·면천·한산·비인·보령·옥천·청산·보은·문의·청안·진천·괴산·연풍·청풍·제천·단양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잠깐 주룩주룩 내리다가 그쳤는데, 비록 비가 1려 정도 내린 것으로 밭에 씨앗을 뿌린 것은 겨우 위급함을 구제했지만 논은 물이 생길 가망이 없습니다.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만 내린 고을의 경우, 거의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격이어서 눈앞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부족합니다. 메마른 흙은 촉촉이 젖는 이로움을 보지 못했고, 말라 시든 곡식은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날 효과가 없습니다. 못자리의 모를 옮겨 심는 것은 따질 것이 아니며 절기도 늦어졌으니 못 백성들의 사정은 매우 다급합니다. 이는 여러 고을에서 보고한 것이 거의 다 같습니다.

그 중 석성·회덕·옥천·청주·청안 등 5개 고을은 기우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요청하는 보고를 앞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세를 보고 적절히 헤아려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려 기어이 신령의 감응을 얻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은 요청하는 보고대로 또한 차례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기우제를 시행한 날짜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5. 1835년(헌종 1) 5월 29일(양력 6월 24일)

忠淸監營啓錄 9책(29a~2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8c~448c)

今月二十九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而見今陰雲四低，霏灑不已，將有優渥之望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9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여 그치지 않으니, 앞으로 넉넉하게 내릴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6. 1835년(헌종 1) 6월 1일(양력 6월 26일)

忠淸監營啓錄 9책(29a~2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8c~449a)

去月二十六日雨澤，公州等四十七邑所得分數，石城等五邑祈雨祭請報緣由及二十九日丑時量始雨，至同日卯時，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二十九日卯時以後，間間霏灑，連爲陰暄，至三十日未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一寸四分，竝計前後，合爲二寸六分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六日之雨，前啓外，泰安·永同·平薪等三邑鎮，得一犁，平澤·新昌·黃澗·永春等四邑，得一鋤，舒川浥塵，祈雨祭請報邑中，石城二十九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二十九日之雨，公州得二犁，全義·木川·天安·稷山·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青陽·大興·德山·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舒川·庇仁·保寧·結城·魯城·恩津·連山·懷德·沃川·懷仁·文義·燕歧·清州·清安等三十一邑，皆以始雨形止，先爲報來，而第以臣營下所見言之，旱田向萎之穀，庶可蘇醒，洞畚已移之秧，俱得霑潤，汚下近水之坪，或添灌溉，或用桔槔，次第移秧，而若其高燥之地，終未生水，尙難移插，幸此甘澍，恨未優洽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6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47개 고을에 내린 양과 석성 등 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한 연유 및 29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9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연달아 검은 구름이 끼었다가 30일 미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한 1치 4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2치 6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태안·영동·평신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평택·신창·황간·영춘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한 고을 가운데 석성은 29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의 비로, 공주는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덕산·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서천·비인·보령·결성·노성·은진·연산·회덕·

옥천·회인·문의·연기·청주·청안 등 31개 고을은 모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다만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밭은 시들어 가던 곡식이 거의 살아났고, 동네 논은 이미 모내기한 것은 모두 촉촉이 젖었으며, 낮은 지대나 물가의 땅은 더러 물을 대거나 더러 두레박질하여 차례로 모내기하였습니다. 높고 메마른 땅의 경우, 끝내 물이 생길 수 없어 아직 옮겨심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단비가 내렸지만 넉넉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7. 1835년(헌종 1) 6월 3일(양력 6월 28일)

忠淸監營啓錄 9책(29b~3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9a~449c)

道內石城等五邑, 請報祈雨祭, 而石城去月二十九日爲始設行形止及去月二十九日雨澤, 至三十日未時開霽, 測雨器水深, 合爲二寸六分, 而公州得二犁, 全義等三十一邑, 皆以始雨形止報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 德山·石城兩邑, 川渠漲滿, 木川·靑陽·林川·韓山·庇仁·保寧·結城·魯城·恩津·懷德·沃川·燕岐等十二邑得二犁. 全義·天安·稷山·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大興·扶餘·鴻山·舒川·連山·懷仁·文義·淸州·淸安等十七邑, 得一犁, 前啓外, 洪州·海美·泰安等三邑, 得二犁. 平澤·沔川·唐津·瑞山·藍浦·鎭岑·永同·黃澗·靑山·鎭川·槐山·平薪等十二邑鎭, 得一犁, 而川漲兩邑, 無論高低周洽, 二犁之邑, 高燥之處, 雖或不足, 原野之地, 幾皆生水, 至於一犁之邑, 除非近水引溉處外, 無望移秧是如爲白遣, 祈雨祭段, 石城二十九日設行後, 因得雨之優渥, 還爲停止, 請報邑中淸安, 雨澤之所得既少, 秧苗之未移最多, 去月三十日爲始設行, 淸州雨雖未洽, 猶爲救急, 姑爲不行, 沃川·懷德兩邑, 觀勢舉行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二日未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寅時, 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 而尙此霏灑不止是白如乎, 向後形止及各邑所得,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석성 등 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고, 석성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경위 및 지난달 29일의 우택이 30일 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2치 6푼이었으며, 공주는 2려가 내렸고, 전의 등 31개 고을은 모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온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고한 고을 중 덕산·석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목천·청양·임천·한산·비인·보령·결성·노성·은진·회덕·옥천·연기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대흥·부여·홍산·서천·연산·회인·문의·청주·청안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홍주·해미·태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택·면천·당진·서

산·남포·진잠·영동·황간·청산·진천·괴산·평신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시내
가 불어난 2개 고을은 높고 낮은 지역을 따질 것 없이 두루 넉넉하였습니다. 2려가 내린
고을은 높고 메마른 곳은 더러 부족했지만 벌판은 거의 다 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1려가 내린 고을의 경우, 물가나 물을 끌어낼 수 있는 곳을 제외하면 모내기할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석성은 29일에 시행한 뒤 내린 비가 넉넉하여 다시 중지하였습니다.
요청하는 보고를 한 고을 가운데 청안은 내린 우택이 이미 적어 모내기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 청주는 비가 비록 흠족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다급한 것이 해결되어 잠시 시행하지 않으며, 옥천·회덕 2개 고을은 형세를 보아 거행하겠
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초2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이튿날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8. 1835년(헌종 1) 6월 5일(양력 6월 30일)

忠淸監營啓錄 9책(30b~3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9d~450a)

去月二十九日雨澤，公州等四十七邑鎮所得分數，祈雨祭請報邑中淸安，去月三十日爲始設行，沃川·懷德兩邑，觀勢舉行計料緣由，及今月初二日未時量始雨，至翌日寅時，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形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初三日寅時以後，或霏或灑，暫止旋霏，至初五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三寸七分，竝計前後，合爲六寸六分，而尙此霏微不已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九日之雨，前啓外，報恩·丹陽·延豐等三邑，得一犁6책 忠州·淸風·陰城·堤川·永春等五邑，得一鋤。今月初二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定山·石城·結城·連山·恩津·淸州·鎭川·淸安等十二邑，川渠漲滿，溫陽·扶餘·林川·韓山等四邑，得二犁，禮山·靑陽·沔川·魯城等四邑，得一犁，而所報皆是始雨當日所得是白遣，稷山·新昌·鎭岑·燕岐等四邑，先以始雨形止馳報，外他諸邑，竝無報來，似或緣雨阻水而滯程是白乎旃。祈雨祭段，淸安今月初三日再次設行後，仍爲停止，沃川·懷德兩邑，姑無更報是白如乎，今番之雨，卽一大霏，第以臣營下所見言之，高低幾皆周洽，遠近想必均被，秧節不至太晚，民事誠甚多幸，移秧一款，不容少緩乙仍于，發倉助糧，勸隣借器，隨處董飭，亟圖畢移之意，另加申飭於列邑爲白乎旃，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47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비의 양과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한 고을 가운데 청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고, 옥천·회덕 2개 고을은 형세를 봐서 거행할 계획이라는 연유 및 이번 달 초2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9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2일 인시 이후로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잠깐 그쳤다가 바로 부슬부슬 내리면서 초5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7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6치 6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보은·단양·연풍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충주·청풍·음성·제천·영춘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정산·석성·결성·연산·은진·청주·진천·청안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온양·부여·임천·한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예산·청양·면천·노성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보고한 것은 모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당일의 것입니다. 직산·신창·진잠·연기 등 4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보고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비 때문에 물에 막혀 일정이 지체되는 듯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청안은 이번 달 초3일에 두 차례 시행한 뒤에 이내 중지했고, 옥천·회덕 2개 고을은 아직 다시 보고가 없습니다. 이번 비는 바로 한꺼번에 크게 퍼부었습니다. 다만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거의 다 두루 흡족했으니, 멀고 가까운 곳도 생각건대 틀림없이 골고루 혜택을 입었을 것입니다. 모내기철이 그다지 크게 늦기에 이르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모내기한 가지 사항의 경우, 조금도 늦출 수 없으므로 창고를 열어 양식을 도와주고, 이웃에 권유하여 농기구를 빌려주도록 어디서나 독려하고 지시하면서 빨리 모내기를 마치도록 도모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여러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9. 1835년(헌종 1) 6월 14일(양력 7월 9일)

忠淸監營啓錄 9책(31a~3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50a~450b)

今月初九日子時量始雨，至同日酉時乃霽，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舒川·連山·槐山等三邑，川渠漲滿，天安·牙山·定山·海美·恩津·燕岐·陰城等七邑，得二犁，公州·青陽·洪州·德山·沔川·瑞山·鴻山·結城·沃川·永同·淸安·忠州·堤川·平薪等十四邑鎮，得一犁，溫陽·禮山·大興·韓山·保寧·懷德·淸州·延豐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待邑報，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서천·연산·괴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아산·정산·해미·은진·연기·음성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청양·홍주·덕산·면천·서산·홍산·결성·옥천·영동·청안·충주·제천·평신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온양·예산·대흥·한산·보령·회덕·청주·연풍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0. 1835년(헌종 1) 6월 16일(양력 7월 11일)

忠淸監營啓錄 9책(44a~4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58b~458b)

今月十五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1. 1835년(헌종 1) 6월 18일(양력 7월 13일)

忠淸監營啓錄 9책(45b~4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59a~459b)

道內農形及今月十五日戌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十六日卯時以後，間間霏微是白如可，自十七日申時，或霏或灑，至十八日寅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二寸四分，竝計前後，合爲三寸七分，而尙此霏灑不止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五日之雨，公州·牙山·定山·扶餘·鴻山·連山·燕岐等七邑，得一犁。溫陽·林川·魯城·恩津·懷德·天安·報恩·懷仁等八邑，得一鋤。青陽·石城·韓山·舒川·鎭岑等五邑，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遣。農形段，春牟[春麴]幾皆登場，付種乾播，方張茁長，早移秧漸次初鋤，晚移秧方始向青，而秧不足力不逮，仍歸未移者，間多有之。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次第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及各邑雨澤，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이번 달 15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6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더니 17일 신시부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18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4푼이었고, 지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총 3치 7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5일의 비로 공주·아산·정산·부여·홍산·연산·연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온양·임천·노성·은진·회덕·천안·보은·회인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청양·석성·한산·서천·진잠 등 5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타작했습니다. 무논에 볍씨 뿌리기와 밭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찍 모낸 것은 점차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모낸 것은 막 푸르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가 부족하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결국 모내지 못한 것들이 그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2. 1835년(헌종 1) 6월 20일(양력 7월 15일)

忠淸監營啓錄 9책(46a~4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59b~459d)

自今月十五日雨澤, 至十八日寅時, 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 而十五日之雨, 公州等七邑得一犁, 溫陽等八邑, 得一鋤, 青陽等五邑, 先以始雨形止報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十八日寅時以後, 連爲霏灑, 至同日申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五分, 通計前後, 合爲六寸二分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五日之雨, 前啓始雨邑中, 青陽·鎭岑兩邑得一犁, 石城·韓山·舒川等三邑, 得一鋤. 前啓外, 大興·唐津·德山等三邑, 川渠漲滿, 平澤·保寧兩邑, 得二犁, 全義·禮山·洪州·沔川·結城等五邑, 得一犁, 清州·忠州·庇仁·清安·槐山·清風等六邑, 得一鋤. 十七八日之雨, 公州·全義·禮山·定山·青陽·洪州·沔川·石城·扶餘·結城·魯城·鎭岑·懷德·文義·燕岐等十五邑, 川渠漲滿, 稷山·溫陽·韓山·舒川·恩津·連山·清州等七邑, 得一犁是如爲白遣, 牙山·沔川·韓山·舒川·結城等五邑段, 十五日夜, 風雨兼作, 海潮汎溢, 堤堰潰決, 沿浦面里, 多被沈墊, 方將摘奸更報計料是如乙仍于, 遍加審察, 續卽詳報之意, 申飭題送爲白乎旆. 又於今月二十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 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부터 우택이 18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7푼이었고, 15일의 비로 공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온양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청양 등 5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온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 습니다.

18일 인시 이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5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6치 2푼이 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5일의 비로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먼저 아뢴 고을 가운데 청양·진잠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석성·한산·서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대흥·당진·덕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택·보령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예산·홍주·면천·결성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주·충주·비인·청안·괴산·청풍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
다. 17·18일의 비로 공주·전의·예산·정산·청양·홍주·면천·석성·부여·결성·노성·진잠·회
덕·문의·연기 등 1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직산·온양·한산·서천·은
진·연산·청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아산·면천·한산·서천·결성 등 5개 고을은 15일
밤에 바람 불고 비가 내렸고, 바닷물이 범람하여 독과 방죽이 터져 바닷가 포구 주변
마을은 잠긴 곳이 많았는데, 막 캐보고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루 살피고
계속해서 즉시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번 달 20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같은
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고,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3. 1835년(헌종 1) 6월 24일(양력 7월 19일)

忠淸監營啓錄 9책(47b~4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0a~460d)

今月十五日雨澤，公州等三十六邑所得分數，十七八日之雨，公州等二十二邑所得分數，牙山等五邑，十五日海潮汎溢緣由，及二十日丑時量始雨，至同日辰時，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形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二十日辰時以後，間間霏微，連爲陰暄是白如可，自二十三日寅時，更爲霏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四寸八分，竝計前後，合爲六寸二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五日之雨，前啓外，稷山·新昌·海美·瑞山·泰安·藍浦·丹陽·平薪等八邑鎮，得一犁，沃川·永同·文義·陰城·延豐·堤川等六邑，得一鋤。十七八日之雨，前啓外，木川·牙山·新昌·德山·唐津·瑞山·藍浦·保寧·沃川·靑山·黃澗·忠州·延豐·槐山·陰城·淸安·鎭川·丹陽等十八邑，川渠漲滿，報恩·淸風·堤川·永春等四邑，得二犁，林川·鴻山·庇仁·懷仁等四邑，得一犁。二十日之雨，牙山·平澤·沃川·文義·燕岐·槐山等六邑，川渠漲滿，禮山·舒川·藍浦·懷德等四邑，得二犁，公州·靑陽·洪州·扶餘·恩津·連山·鎭岑·淸州·淸安等九邑，得一犁，林川·報恩·懷仁等三邑，得一鋤，而上項諸邑中，公州·平澤·牙山·靑陽·唐津·扶餘·沃川·靑山·燕岐等九邑，沿江傍川之地，間多有潰決沈覆之患是如爲白有如乎，蓋自十五日以後，至今一句，殆乎無日不雨，而二十三日之雨，又若是過霏，姑以臣營下見之，宿水未退，新漲繼添，原野漸多沈墊，道路或未通涉，各穀之受損，想必不少，而尙無霽意，便成長霖，言念民事，誠爲悶然是白乎旆，前啓海溢是白在牙山等五邑，摘奸後形止，姑無更報，而前啓外，稷山·天安·平澤·新昌·唐津·海美·瑞山·泰安·庇仁·藍浦·保寧等十一邑，亦於十五日夜風雨，潮水汎溢，堰堤潰破，沿浦之坪，多致沈沒，或至有民戶頽壓，什物漂失之境是如乙仍于，詳審摘奸區別馳報之意，竝加題飭爲白乎旆，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36개 고을에 내린 양과 17·18일의 비로 공주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과 아산 등 5개 고을은 15일에 바닷물이 범람했다는 연유 및 20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0일 진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고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었다가 23일 인시부터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면서 다음 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4치 8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6치 2푼인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직산·신창·해미·서산·태안·남포·단양·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옥천·영동·문의·음성·연풍·제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7·1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아산·신창·덕산·당진·서산·남포·보령·옥천·청산·황간·충주·연풍·괴산·음성·청안·진천·단양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보은·청풍·제천·영춘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임천·홍산·비인·회인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20일의 비로, 아산·평택·옥천·문의·연기·괴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예산·서천·남포·회덕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청양·홍주·부여·은진·연산·진잠·청주·청안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임천·보은·회인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위 항의 여러 고을 가운데 공주·평택·아산·청양·당진·부여·옥천·청산·연기 등 9개 고을은 강가와 시냇가의 지역은 그사이에 독이 터져 물에 잠기거나 모래로 덮일 걱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10일간 거의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23일의 비로 또 이처럼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일단 저의 감영으로 보자면 묵은 물이 채 빠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불어나 벌판이 잠기는 것이 점차 많아지고 도로는 더러 건널 수가 없었으니, 각종 곡물이 손상되는 것은 생각건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일 조짐은 없고 바로 장마를 이루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앞서 해일이 있었다고 보고한 아산 등 5개 고을은 캐본 뒤의 경위를 아직 다시 보고하지 않았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직산·천안·평택·신창·당진·해미·서산·태안·비인·남포·보령 등 11개 고을도 또한 15일 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바닷물이 범람하고 독과 방죽이 터져 바닷가 포구 주변의 들이 많이 물에 잠겼고, 더러 백성들의 집은 무너지고 살림살이는 떠내려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캐본 다음에 구별하여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4. 1835년(헌종 1) 6월 27일(양력 7월 22일)

忠淸監營啓錄 9책(48b~4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0d~461b)

今月十七八日雨水, 公州等四十八邑所得分數及二十日丑時量始雨, 至二十四日卯時, 測雨器水深, 合爲六寸二分, 而二十日之雨, 牙山等二十二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二十四日卯時以後, 間間霏微, 自二十六日申時, 一直霑灑, 間或滂沱, 至二十七日寅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六寸九分, 通計前後, 合爲一尺三寸一分, 而見今陰雲不解, 尙無開霽之意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七八日之雨, 前啓外, 泰安·永同·海美·平薪等四邑鎮, 川渠漲滿, 大興·天安·平澤等三邑, 得二犁. 二十日之雨, 前啓外, 瑞山·淸風·堤川等三邑, 川渠漲滿, 溫陽·新昌·石城·鴻山·結城等五邑, 得二犁, 德山·海美·韓山等三邑, 得一犁. 二十三日之雨, 公州·木川·天安·溫陽·新昌·禮山·石城·扶餘·林川·舒川·保寧·結城·定山·青陽·洪州·德山·海美·魯城·恩津·連山·懷仁·燕岐·淸安·槐山等二十四邑, 川渠漲溢, 而潰決沈覆之患, 在在夥然是如爲白遣, 外他諸邑, 姑無所報, 似緣阻水之致是白如乎, 跨旬長霖, 積水未退之際, 又如是大霑. 第以臣營下見之, 江川舉皆汎漲, 平陸幾至沈沒, 田畝之被傷, 各穀之受損, 想必益甚於前, 言念民事, 誠切憂民是白乎旆, 牙山等十六邑, 今月十五日夜海溢緣由, 已陳於前啓, 而連因雨水, 摘奸形止, 姑無更報. 前啓外, 洪州·德山兩邑, 亦於十六日曉, 潮溢堰潰, 沿海面里, 多被沈墊, 民戶頽壓, 間亦有之是如乙仍于, 一一詳審, 更卽馳報之意, 申飭題送爲白乎旆.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18일의 빗물로 공주 등 48개 고을에 내린 양 및 20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4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총 6치 2푼이었고 20일의 비로 아산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4일 묘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26일 신시부터 줄곧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간혹 콕콕 쏟아지더니 27일 인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6치 9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3치 1푼입니다. 현재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1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태안·영

동·해미·평신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대흥·천안·평택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2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청풍·제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온양·신창·석성·홍산·결성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덕산·해미·한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23일의 비로, 공주·목천·천안·온양·신창·예산·석성·부여·임천·서천·보령·결성·정산·청양·홍주·덕산·해미·노성·은진·연산·회인·연기·청안·괴산 등 2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는데, 터치고 잠기고 뒤덮일 걱정이 곳곳에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일단 보고한 것이 없는데, 아마도 물에 막힌 탓인 듯합니다.

열흘에 걸친 장마로 쌓인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즈음에 또 이처럼 크게 쏟아졌습니다. 다만 저의 감영으로 보진대 강과 시내가 대부분 범람하고 불어나 평지가 거의 잠기는데 이르렀습니다. 논밭이 손상을 입고 각종 곡물이 손상을 입은 것은 생각건대 분명히 이전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백성들에 대한 근심이 절실합니다.

아산 등 16개 고을은 이번 달 15일 밤에 해일이 있었다는 연유는 이미 앞서 보고에서 아뢰었습니다. 연달아 빗물로 인해 캐본 경위는 일단 다시 보고가 없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홍주·덕산 2개 고을도 또한 16일 새벽에 조수가 범람하여 둑이 터져서 바닷가 마을이 많이 잠겼고 백성의 집이 무너진 것이 간혹 또 있다고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 다시 즉시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5. 1835년(헌종 1) 6월 29일(양력 7월 24일)

忠淸監營啓錄 9책(51b~5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2a~462c)

道內農形及今月二十日丑時量始雨，至二十七日寅時，測雨器水深，合爲一尺三寸一分，而二十三日之雨，公州等二十四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二十七日寅時以後，載陰載陽，至二十八日辰時開霽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二十三日之雨，前啓外，全義·稷山·平澤·牙山·鴻山·韓山·庇仁·藍浦·大興·沔川·唐津·瑞山·泰安·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青山·報恩·文義·淸州·鎭川·陰城·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三十一邑鎭，川渠漲滿，二十六日之雨，公州·牙山·平澤·定山·扶餘·石城·林川·韓山·庇仁·魯城·恩津·連山·燕岐·淸州等十四邑，川渠又復漲溢，潰決沈覆之患，去益夥多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漸就茁茂，早移方張再鋤，晚移漸次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幾皆立苗。而低下田畝之屢被沈墊，連日渟滯處，各穀多有腐爛而消澌，鋤耘亦致停廢而愆時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0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1자 3치 1푼인 것과 23일의 비로 공주 등 24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7일 인시 이후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8일 진시에 이르러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전의·직산·평택·아산·홍산·한산·비인·남포·대흥·면천·당진·서산·태안·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문의·청주·진천·음성·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31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26일의 비로 공주·아산·평택·정산·부여·석성·임천·한산·비인·노성·은진·연산·연기·청주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또다시 불어나 넘쳐 독이 터지고 모래로 덮일 걱정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 뿌린 것과 밭에 씨앗을 뿌린 것은 점차 싹이 무성해졌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점차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밭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

이한 콩·팥 및 늫기장·늫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습니다. 낮은 곳의 논밭은 여러 차례 물에 잠겼고 연일 물이 고였던 곳의 각종 곡식은 싹이 문드러지고 녹아 없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김매기 또한 그만두어 때를 놓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6. 1835년(헌종 1) 윤6월 3일(양력 7월 28일)

忠淸監營啓錄 9책(52a~5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2c~463d)

前矣到付禮曹啓下關據,別厲祭,臣設行於公州牧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一依該曹關辭,各邑則詳探病氣之熾熄,死亡之多寡,可以設行處,各該邑倅操文侑之之意,措辭關飭是白加尼,續接列邑所報,則淸州·大興·溫陽·泰安·沔川·天安·林川·舒川·報恩·瑞山·文義·石城·恩津·全義·青陽·鎭川·海美·連山·定山·牙山·魯城·木川·燕岐·堤川·結城·德山·平澤·淸安·懷仁·唐津·稷山·庇仁·鴻山·禮山·新昌·鎭岑·藍浦·保寧·永同·青山·延豐·永春·平薪等四十三邑鎭段,雖不熾盛,尙多方痛是如,別厲祭已皆不卜日設行是白遣,外此各邑段,近無蔓延之患,幾至寢熄之境,不爲行祭是如,竝只報來是白乎跡.今年正月以後,癘疫死亡名數,道內列邑鎭次第修報乙仍于,一一開錄于後,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後〉

別厲祭設行邑鎭

公州,死亡二千三百六十六名.

淸州,死亡三千六百五十九名.

大興,死亡五百九十七名.

溫陽,死亡七百三十七名.

泰安,死亡七百九名.

沔川,死亡七百二十六名.

天安,死亡七百五十八名.

林川,死亡八百七十九名.

舒川,死亡一千三十四名.

報恩,死亡一千二百九十六名.

瑞山,死亡七百六十名.

文義,死亡五百九十九名.

石城,死亡五百三十六名.

恩津，死亡一千二百五十五名。
全義，死亡三百三十八名。
青陽，死亡五百名。
鎭岑，死亡三百二十九名。
海美，死亡四百四十五名。
連山，死亡九百八十三名。
定山，死亡五百六十六名。
牙山，死亡六百八十四名。
魯城，死亡四百十名。
木川，死亡六百十六名。
燕岐，死亡六百十二名。
堤川，死亡六百三十名。
結城，死亡四百十八名。
德山，死亡五百八十七名。
平澤，死亡三百六十八名。
清安，死亡七百六十二名。
懷仁，死亡四百七十八名。
唐津，死亡七百六十名。
庇仁，死亡五百七十二名。
稷山，死亡七百六十三名。
鴻山，死亡九百十一名。
禮山，死亡四百十二名。
新昌，死亡三百三十四名。
鎭川，死亡一千二十四名。
藍浦，死亡五百九十四名。
保寧，死亡八百七十一名。
永同，死亡五百五十六名。
青山，死亡四百七十九名。

延豊, 死亡三百六十九名.
永春, 死亡三百二十五名.
平薪, 死亡一百九十二名.
別厲祭不行邑
忠州, 死亡二千五百四十四名.
洪州, 死亡一千四百六十五名.
淸風, 死亡八百四十九名.
韓山, 死亡七百四十七名.
沃川, 死亡一千二百二十八名.
槐山, 死亡六百十七名.
丹陽, 死亡四百九十五名.
扶餘, 死亡六百七十二名.
陰城, 死亡三百三十六名.
黃澗, 死亡四百三十五名.
已上死亡四萬二千六百三十名.

앞서 도착한 예조에서 임금님께 보고해 재가가 내린 공문에 의거하여 별여제를 제가 공주목에서 시행하겠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예조의 공문 내용 그대로 각 고을은 전염병의 형세가 얼마나 심한지와 사망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상세하게 탐지하여 시행할 만한 곳의 해당 수령은 문안을 다듬어 권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청주·대흥·온양·태안·면천·천안·임천·서천·보은·서산·문의·석성·은진·전의·청양·진천·해미·연산·정산·아산·노성·목천·연기·제천·결성·덕산·평택·청안·회인·당진·직산·비인·홍산·예산·신창·진잠·남포·보령·영동·청산·연풍·영춘·평신 등 43개 고을과 군영은 비록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한창 앓는 이가 많아서 별여제를 이미 다 날짜를 가리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이밖의 각 고을은 요즈음 세차게 번져나가는 근심은 없고 거의 사그라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모두 보고해 왔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전염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충청도 내 여러

고을과 군영이 차례로 작성해 보고하였으므로, 하나하나 아래에 기록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아래〉

별여제를 시행한 고을과 군영

공주 사망 2,366명

청주 사망 3,659명

대흥 사망 597명

온양 사망 737명

태안 사망 709명

면천 사망 726명

천안 사망 758명

임천 사망 879명

서천 사망 1,034명

보은 사망 1,296명

서산 사망 760명

문의 사망 599명

석성 사망 536명

은진 사망 1,255명

전의 사망 338명

청양 사망 500명

진잠 사망 329명

해미 사망 445명

연산 사망 983명

정산 사망 566명

아산 사망 684명

노성 사망 410명

목천 사망 616명

연기 사망 612명
제천 사망 630명
결성 사망 418명
덕산 사망 587명
평택 사망 368명
청안 사망 762명
회인 사망 478명
당진 사망 760명
비인 사망 572명
직산 사망 763명
홍산 사망 911명
예산 사망 412명
신창 사망 334명
진천 사망 1,024명
남포 사망 594명
보령 사망 871명
영동 사망 556명
청산 사망 479명
연풍 사망 369명
영춘 사망 325명
평신 사망 192명

별여제를 시행하지 않은 고을

충주 사망 2,544명
홍주 사망 1,465명
청풍 사망 849명
한산 사망 747명
옥천 사망 1,228명

괴산 사망 617명
단양 사망 495명
부여 사망 672명
음성 사망 336명
황간 사망 435명
이상 사망 42,630명

0027. 1835년(헌종 1) 윤6월 3일(양력 7월 28일)

忠淸監營啓錄 9책(55a~5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3d~464a)

去月二十六日雨水, 公州等十四邑川漲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稷山·溫陽·全義·木川·天安·新昌·禮山·靑陽·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鴻山·舒川·藍浦·保寧·結城·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文義·鎭川·靑安·陰城·槐山·延豐·忠州·靑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四十一邑鎭, 川渠漲溢, 近水之地, 依山之處, 潰決沈覆汰落之患, 種種有之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二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見今陰雲不解, 姑無霽意是白如乎, 向後形止及列邑所得,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6일의 빗물로 공주 등 14개 고을의 시내가 불어난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직산·온양·전의·목천·천안·신창·예산·청양·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홍산·서천·남포·보령·결성·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진천·청안·음성·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41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는데, 물과 가까이 있는 땅과 산자락은 터지고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날 우려가 이따금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초2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일단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8. 1835년(헌종 1) 윤6월 9일(양력 8월 3일)

忠淸監營啓錄 9책(57b~58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65a~465b)

道內農形及今月初二日雨水, 至初六日午時乃霽, 而全義等三十五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沔川·唐津·瑞山·泰安·忠州·平澤·平薪等七邑鎮, 川渠漲滿. 溫陽·木川·石城·鴻山·庇仁·藍浦·保寧·沃川·黃澗·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三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付種乾播, 一向苗茂, 早移已盡再鋤, 晚移次第初鋤, 早黍粟方張胚胎, 和種豆太及木花, 間始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漸次除草, 而連值霖潦, 久不見晞, 各穀之糜爛消澌者, 種種有之. 淳湍之畝, 泥濘之田, 鋤役亦至停廢, 至於木花, 素忌潦濕, 尤多傷損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初八日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申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의 빗물은 초6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고, 전의 등 3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먼천·당진·서산·태안·충주·평택·평신 등 7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온양·목천·석성·홍산·비인·남포·보령·옥천·황간·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줄곧 싹이 무성했습니다. 일찍 모내기한 것은 이미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그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점차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장마를 만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각종 곡식 중 썩어 문드러지고 녹아 없어진 것이 이따금 있습니다. 물이 고인 논과 진흙탕 받은 김매기 또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목화의 경우, 본래 축축한 습기를 꺼리므로 더욱 손상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초8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9. 1835년(헌종 1) 윤6월 11일(양력 8월 5일)

忠淸監營啓錄 9책(62a~6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7c~467c)

今月初八日巳時量始雨，至同日申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燕岐·禮山兩邑，川渠漲滿，公州·全義兩邑，得一犁，溫陽·定山·連山·稷山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初九日酉時量始雨，間間霏灑，至翌日未時乃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所得，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사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기·예산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전의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온양·정산·연산·직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미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0. 1835년(헌종 1) 윤6월 14일(양력 8월 8일)

忠淸監營啓錄 9책(64a~6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8b~468c)

今月初八日雨水, 燕岐等八邑所得分數及初九日酉時量始雨, 至翌日未時乃霽, 測雨器水深爲一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前啓外, 新昌·結城兩邑, 川渠漲滿, 洪州·德山兩邑, 得二犁, 木川·平澤·牙山·靑陽·大興·海美·瑞山等七邑, 得一犁, 文義·淸安·陰城·槐山等四邑, 得一鋤. 初九日之雨, 木川·平澤·牙山·溫陽·大興·槐山等兩[六]邑, 川渠漲滿, 保寧·燕岐·淸安·延豐等四邑, 得二犁, 公州·定山·德山·海美·瑞山·扶餘·連山·鎭岑·報恩·淸州·懷仁·文義等十二邑, 得一犁是如爲白遣, 又於今月十三日戌時量始雨, 連爲滂沱, 至翌日寅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六分, 而陰雲不解, 尙無霽意是白如乎, 蓋自去月十五日以後, 至今一朔, 便成長霖, 乍霽旋雨, 纔洩復漲, 田畝之被傷, 各穀之受損, 邑邑夥然, 而今番之雨, 又如是過霍, 姑以臣營下言之, 汎漲沈墊, 所見甚悶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의 빗물로 연기 등 8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초9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미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였던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신창·결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주·덕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평택·아산·청양·대흥·해미·서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문의·청안·음성·괴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9일의 비로 목천·평택·아산·온양·대흥·괴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보령·연기·청안·연풍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정산·덕산·해미·서산·부여·연산·진잠·보은·청주·회인·문의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짹짹 쏟아지더니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풀리지 않으니 아직 갭 조짐이 없습니다. 대개 지난달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바로

장마가 되어 잠깐 개었다가 곧바로 비가 내렸는데 겨우 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불어나 논밭은 손상을 입었는데, 손상을 받은 각종 곡식은 고을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린 비가 또 이처럼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일단 저의 감영으로 말한다면 물이 불어나 잠겨서 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1. 1835년(헌종 1) 윤6월 17일(양력 8월 11일)

忠淸監營啓錄 9책(65b~6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9b~469d)

今月初八日雨水, 燕岐等二十四邑所得分數, 初九日雨水, 木川等二十二邑所得分數及十三日戌時量始雨, 至翌日寅時,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十四日寅時以後, 乍歇旋霏, 間間滂沱, 至十七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四寸四分, 竝計前後, 合爲八寸, 而尙此霏微不止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前啓外, 沔川·唐津兩邑, 得二犁6책 忠州·淸州·鎭岑·懷仁·藍浦·保寧等六邑, 得一犁. 初九日之雨, 陰城·忠州·沔川·唐津·淸風·堤川等六邑, 川渠漲溢, 洪州·泰安兩邑, 得二犁, 潰決沈覆之患, 在在夥然, 而其中洪州·淸風·堤川等三邑, 尤有甚焉, 沿江〈則〉汎漲瀾漫, 依峽則崩頽汰落, 阡陌俱沈, 區域多換是如爲白遣, 十三日之雨, 公州·溫陽·石城·扶餘·林川·鴻山·結城·魯城·連山·懷德·懷仁·文義·燕岐·淸州·恩津等十五邑, 皆以始雨形止, 先爲報來, 外他諸邑, 姑無所報, 似緣於阻水之致是白如乎, 踰朔霖雨, 雨輒過霏, 今以臣營下見之, 積水未洩, 新漲轉添, 江川汎濫, 衝亘於邑里, 原野沈墊, 難辨其高低, 目下所見, 已極驚悶是白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의 빗물로 연기 등 24개 고을에 내린 양과 초9일의 빗물로 목천 등 22개 고을에 내린 양 및 1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4일 인시 이후로 잠깐 그쳤다가 바로 주룩주룩 내렸고 간간이 콕콕 쏟아지더니 1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4치 4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8치였습니다.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면천·당진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충주·청주·진잠·회인·남포·보령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초9일의 비로 음성·충주·면천·당진·청풍·제천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홍주·태안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는데 독이 터져 물에 잠기고 모래로 덮일 걱정이 곳곳마다 많습니다. 그 가운데 홍주·청풍·제천 등 3개 고을은 더욱 심합니다. 강가는

물이 불어나 넘실댔으며 산골짜기는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밭두둑이 모두 잠기고 구역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3일의 비로, 공주·온양·석성·부여·임천·홍산·결성·노성·연산·회덕·회인·문의·연기·청주·은진 등 15개 고을은 모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한 바가 없는데, 아마도 물에 막힌 탓인 듯합니다. 한 달 넘게 장맛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면 번번이 지나치게 쏟아졌습니다. 지금 저의 감영으로 보자면 쌓인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새롭게 물이 불어나 점점 더해져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고을과 마을까지 물려들었고 벌판은 물에 잠겨 높낮이를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으로 본 바 이미 놀랍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2. 1835년(헌종 1) 윤6월 20일(양력 8월 14일)

忠淸監營啓錄 9책(66b~6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69d~470a)

道內農形及今月初九日雨水, 木川等三十邑形止, 十三日雨水, 至十七日卯時, 測雨器水深合爲八寸. 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七日卯時以後, 間間霪灑, 至二十日寅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寸一分, 通計前後, 合爲一尺一寸一分, 而見今陰雲散合, 尙無快霽之意是白乎旃, 續接各邑所報, 則初九日之雨, 前啓外, 丹陽·永春兩邑, 川渠漲溢. 十三日之雨, 前啓中始雨之公州·溫陽·石城·扶餘·林川·鴻山·結城·魯城·連山·懷德·懷仁·文義·燕岐·清州·恩津等十五邑及前啓外全義·木川·平澤·定山·洪州·唐津·瑞山·韓山·舒川·庇仁·鎭岑·沃川·永同·黃澗·報恩·清安·忠州等十七邑, 自十三日以後, 連日過霪, 大小川渠, 舉皆漲溢, 潰決沈覆之患, 益復夥然, 民家亦或有漂頽者是如乙仍于, 田畝之被傷者, 隨加疏築, 舍家之漂頽者, 卽令結構之意, 這這申飭爲白乎旃. 農形段, 早稻方張胚胎, 中稻晚稻之早移者, 漸就茁長, 晚移者, 幾皆再鋤, 早黍粟, 間或發穗, 和種豆太, 方始結殼, 木花漸次結顆, 根耕豆太及晚黍粟, 次第除草, 而無論田畝各穀, 屢經沈墊, 多日渟滯者, 腐爛消澌, 已判全棄, 至若田種, 又因泥濘, 久停鋤役, 蕪沒草萊, 難望成就者, 種種有之. 公州·保寧·連山·恩津·禮山·德山·溫陽·全義等八邑, 早移之畝, 間多有愆蠶蹲縮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의 빗물로 목천 등 30개 고을의 경위와 13일의 빗물이 17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8치가 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7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0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3치 1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1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은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며 아직 말끔하게 겹조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단양과 영춘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공주·온양·석성·부여·홍산·결성·노성·연산·회덕·회인·문의·연기·청

주·은진 등 15개 고을 및 앞서 보고한 것 이외의 전의·목천·평택·정산·홍주·당진·서산·한산·서천·비인·진잠·옥천·영동·황간·보은·청안·충주 등 17개 고을은 13일 이후로 연일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모두 다 불어나 넘쳐 독이 터지고 물에 잠겨 모래로 덮일 걱정이 다시 더욱 많아졌습니다. 백성 집도 또한 더러 떠내려간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상을 입은 논밭은 그에 따라 물길을 내고 독을 쌓고 떠내려간 집은 즉시 지으라는 뜻으로 날날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중벼와 늦벼 중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점점 싹이 자라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이 뻗었습니다. 섞어 짓는 콩·팥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고, 목화는 점차 다래를 맺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논밭의 각종 곡식을 따질 것 없이 여러 차례 물에 잠겼거나 여러 날 물이 고였던 것은 썩어 문드러지거나 녹아 없어져서 전부 포기해야 할 것으로 이미 판가름하였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린 경우, 또 진흙으로 인해 오랫동안 김매기를 중지하여 온통 풀이 우거져서 여물기를 바라기 어려운 것이 이따금 있습니다. 공주·보령·연산·은진·예산·덕산·온양·전의 등 8개 고을의 경우, 일찍 모내기한 논은 간혹 건잠준축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3. 1835년(헌종 1) 윤6월 22일(양력 8월 16일)

忠淸監營啓錄 9책(67b~6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70b~470c)

今月十三日雨水,至二十日寅時,測雨器水深,合爲一尺一寸一分,而公州等三十二邑被災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二十日寅時以後,載陰載陽,至翌日辰時,始乃開霽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前啓外,鎭川·槐山·陰城·稷山·牙山·新昌·禮山·天安·大興·靑陽·沔川·海美·藍浦·靑山·延豐等十五邑,自十三日以後,連日過霖,川渠舉皆漲溢,平陸幾至成江,田畝之潰者益潰,沈者愈沈,家舍漂頽,種種有之.人命亦或有淹死者,積水之中,姑難辨審,而目下所見,已驚悶是如爲白有等以,淹死人命助需掩埋,漂頽民戶結構奠接,田畝之破傷者,卽加疏改修築,水退後災形淺深,詳細審察,這這牒報之意,另加題飭爲白乎旆,向後形止,待邑報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의 빗물은 20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1자 1치 1푼이었고, 공주 등 32개 고을의 재해를 입은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0일 인시 이후로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비로소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진천·괴산·음성·직산·아산·신창·예산·천안·대흥·청양·면천·해미·남포·청산·연풍 등 15개 고을은 13일 이후로 연일 장맛비가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대부분 불어나 넘쳐서 평평한 땅은 거의 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밭 중 터진 것은 더욱 터지고 물에 잠긴 것은 더욱 잠겼습니다. 집은 떠내려간 것이 이따금 있고, 사람 역시 더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는데, 물이 차 있는 중이어서 일단 조사하여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미 놀랍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품을 도와주어 파묻게 하고, 떠내려간 백성 가구는 집을 지어 머물러 살게 하고 무너지거나 손상된 논밭은 즉시 물길을 고쳐 내고 독을 수리하고, 물이 빠진 뒤 재해 상황의 정도를 상세히 살펴 낱알이 문서 보고 하라는 뜻을 별도로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4. 1835년(헌종 1) 윤6월 24일(양력 8월 18일)

忠淸監營啓錄 9책(68a~6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70c~471a)

自今月十三日至二十日雨水, 公州等四十七邑被災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啓外, 淸風·堤川·丹陽·永春·德山·保寧·泰安·平薪等八邑鎮, 自十三日至二十日, 連日過霖, 大小川渠, 無不漲溢, 而其中淸風·堤川·丹陽·永春等四邑, 尤有甚焉. 急水驟至, 平陸成江, 各穀之受損, 水退之前, 姑難詳審, 而或全坪渾被沈覆, 或舉村幾至漂頽, 人命之淹壓致死者, 亦多有之是如乙仍于, 漂戶結構之方, 渰屍拯埋之節, 另加申飭爲白乎旣. 又於今月二十三日寅時量始雨, 挾風霖灑, 至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一分, 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 長霖纔濟, 積水未洩, 而又此過霖, 兼以淒風, 其所傷稼, 想必轉甚.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부터 20일까지 빗물로 공주 등 47개 고을이 재해 입은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청풍·제천·단양·영춘·덕산·보령·태안·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3일부터 20일까지 연일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려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넘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청풍·제천·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더욱 심했습니다. 급한 물살이 순식간에 이르자 평평한 땅은 강이 되어 각종 곡식이 손상되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전에는 일단 상세히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러 들관 전체가 온통 물에 잠기기거나 모래로 뒤덮였고 더러 마을 전체가 거의 떠내려 가게 되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또한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간 가구는 집을 짓는 방안과 물에 빠져 죽은 시체는 건져 파묻는 대목에 대해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23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바람을 끼고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처럼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습니다. 장맛비는 잠시 개었지만 쌓인 물이 빠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렸고 아울러 서늘한 바람까지 부니 손상된 곡식은 생각건대 틀림없이 점차 심각해질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니

정말로 절실하게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5. 1835년(헌종 1) 7월 3일(양력 8월 26일)

忠淸監營啓錄 9책(77b~7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75d~476a)

去月二十三日雨水,至今月初一日乃霽,測雨器水深,合爲六寸二分,而二十三日之雨,公州等四十七邑所得分數,二十八日之雨,恩津等九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自去月二十三日,至二十五日之雨,前啓外,木川·天安·德山·靑山·平薪等五邑鎮,川渠漲滿,場川·丹陽·永春等三邑,得一犁. 自二十八日,至二十九日之<雨>,前啓外,大興·沔川·瑞山·連山等四邑,川渠漲滿,洪州·鴻山兩邑,得二犁. 木川·靑陽·林川·舒川·結城·報恩·文義·淸州·淸安等九邑,得一犁,而積水添漲,潰決沈覆之患,又復夥然是如爲白乎旆,自今月初一日酉時量,更爲始雨,或霏或灑,至初三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而尙此霏微不止是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3일의 빗물은 이번 달 초1일에 이르러 이내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6치 2푼이었고, 23일의 비로 공주 등 47개 고을에 내린 양과 28일의 비로 은진 등 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천안·덕산·청산·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제천·단양·영춘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28일부터 29일까지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대흥·면천·서산·연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주와 홍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청양·임천·서천·결성·보은·문의·청주·청안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는데, 쌓인 물이 더 불어나 독이 터져 물에 잠기고 모래에 덮이는 걱정이 또다시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1일 유시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6. 1835년(헌종 1) 7월 11일(양력 9월 3일)

忠淸監營啓錄 9책(78a~7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76a~476c)

道內農形及自今月初一日至初五日雨水, 測雨器水深, 合爲三寸三分緣由, 公州等十一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自初一日, 至初五日之雨, 前啓外, 牙山·溫陽·定山·靑陽·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懷德·鎭岑·丹陽·永春·泰安·平薪等十五邑鎭, 川渠漲滿. 全義·稷山·平澤·新昌·洪州·舒川·恩津·鎭川·延豐·淸風·木川·天安·大興·庇仁·保寧·陰城等十六邑, 得二犁, 扶餘·石城·魯城·沃川·永同·黃澗·靑山·懷仁·文義·忠州·淸安·塊山·堤川等十三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田畝之全庫川沙者, 更無可論, 各穀之偏被災傷者, 已判全棄, 而其外早稻及早黍粟和種豆太, 次第入實, 中稻漸次發穗, 晚稻間或胚胎, 木花連爲結穎, 根耕豆太方始起花, 晚黍粟漸就茁茂是如爲白乎旃, 又於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戌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 待邑報,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일부터 초5일까지 빗물로 측우기 수심이 총 3치 3푼인 연유와 공주 등 11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부터 초5일까지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아산·온양·정산·청양·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회덕·진잠·단양·영춘·태안·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직산·평택·신창·홍주·서천·은진·진천·연풍·청풍·목천·천안·대흥·비인·보령·음성 등 1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부여·석성·노성·옥천·영동·황간·청산·회인·문의·충주·청안·괴산·제천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모든 곳이 시내 모래인 것은 다시 따질 것이 없습니다. 심하게 재해를 입은 각종 곡식은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관가름했습니다. 그 밖의 올벼 및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중벼는 점차 이삭이 났고, 늦벼는 간혹 알을 났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는 점차 싹이 무성해졌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7. 1835년(헌종 1) 7월 16일(양력 9월 8일)

忠淸監營啓錄 9책(78b~7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76c~476c)

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至同日戌時，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隣邑所報，則伊日之雨，禮山得二犁，青陽·扶餘·舒川·藍浦·結城·恩津·連山·沃川·報恩·文義等十邑，得一犁。公州·定山·大興·洪州·鴻山·韓山·鎭岑·懷德·懷仁·燕歧·淸州·鎭川·淸安·槐山等十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五日巳時量始雨，間間霏灑，至翌日辰時乃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예산은 2려가 내렸고, 청양·부여·서천·남포·결성·은진·연산·옥천·보은·문의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정산·대흥·홍주·홍산·한산·진잠·회덕·회인·연기·청주·진천·청안·괴산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5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8. 1835년(헌종 1) 7월 20일(양력 9월 12일)

忠淸監營啓錄 9책(79a~81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76c~477d)

道內牙山等十八邑，六月十五六日風雨，海潮汎溢，堤堰潰決，沿浦面里，多被沈墊，民戶亦有頽壓。緣由，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同被災處遍審詳報之意，連爲申飭，從又發遣臣營褊裨，逐處摘奸是白乎矣，兩朔之間，潦雨連仍，沿邊之地，沈洩無常，遲待水退，隨續審察諸邑形止，今纔齊報乙仍于，以臣營所摘奸，參互邑報是白乎則，被溢田畝中，沈不多日，頻得雨洗，姑不至全棄，猶幸有餘望者，並不舉論。就其沈淹日久，全無穀形處，詳審而精抄，民戶段置，只抄其全家漂頽者是白如乎，牙山段，五面被災畝庫，合爲一百八十三石落，而量其結數，則爲七十九結二十一負一束，民家頽壓爲五戶。平澤段，四面被災畝庫，合爲一百四十六石落，而量其結數，則爲六十六結七十四負四束，民家頽壓爲二十戶。稷山段，三面被災畝庫，合爲一百七十五石落，而量其結數，則爲九十八結二十八負，民家頽壓爲十二戶，鹽盆頽破爲八坐。泰安段，八面被災畝庫，合爲一百九十三石落，而量其結數，則爲七十九結三十九負七束，民家頽壓爲十一戶。庇仁段，四面被災畝庫，合爲二十五石落，而量其結數，則爲十一結八十一負九束，民家漂頽爲十三戶。天安段，三面被災田畝，合爲九十二石落，而量其結數，則爲五十結十一負七束。新昌段，三面被災畝庫，合爲一百十八石落，而量其結數，則爲九十五結九十三負六束。沔川段，六面被災畝庫，合爲一百十三石落，而量其結數，則爲七十八結四十一負九束。唐津段，六面被災畝庫，合爲八十一石落，而量其結數，則爲五十九結六十一負一束。海美段，三面被災畝庫，合爲七石落，而量其結數，則爲四結十八負三束。瑞山段，十一面被災畝庫，合爲六十三石落，而量其結數，則爲三十四結二十四負五束。洪州段，九面被災畝庫，合爲一百石落，而量其結數，則爲五十八結四十七負。結城段，五面被災畝庫，合爲四十六石落，而量其結數，則爲十一結三負一束。舒川段，四面被災畝庫，合爲九十九石落，而量其結數，則爲七十九結四十一負六束。藍浦段，五面被災畝庫，合爲六十石落，而量其結數，則爲二十八結四十八負三束。保寧段，六面被災畝庫，合爲五十三石落，而量其結數，則爲三十一結五十二負。韓山段，三面被災畝庫，合爲八石落，而量其結數，則爲三結九十二負二束。德山段，一面被溢處，初不甚多，而連因雨水之洗滌，漸有蘇醒之效，民家頽壓爲三戶。統計其數，則被災田庫，合爲一千五百六十二石落，而量其結數，則爲八百四十四結八十一負四束，民家頽壓爲五十戶，漂

壓爲十三戶，鹽盆頽破爲八坐是白遣。堰堤潰決處，各面各里，種種有之，多小不一，而或蕩無形止，或幾半頽缺是如爲白有臥乎所，蓋此海潮之溢，卽因潦水所拍，而海陸之水，一時汎濫，則此與丁卯海溢有間焉是白乎乃，全災田畝，合計甚夥，而若其鹹氣深透之處，非但當年之失農，將難來頭之耕種，雖以民戶言之，全家頽壓者外，又多有墻壁之頽落，家產之漂失者，言念民情，極爲矜憫。同被災民人等，使之各別慰撫，覓給空石，許斫材木，助以役糧，借以隣保，修築潰堰，結構頽戶之節，這這另飭於各該邑守宰處是白加尼，堤堰則陸續完築，家舍則次第改構。而霖雨支離，民力艱窘，尙或有未了處是如乙仍于，連加董督，從速畢完之意，更爲別般申飭爲白遣，漂頽戶元恤典，爲先依式例題給，而同役姓名開錄，修成冊上送于常賑廳爲白去乎，令該廳會減施行爲白乎旆，被災田畝結數，則今此審驗，雖曰詳盡，秋事尙遠，亦不可以此作爲硬定之摠。且待秋成後，更爲審核，區別登聞於年分勘災時計料爲白遣，稷山鹽盆八坐頽破者，以今民勢，猝無復業之路，白地之稅，誠難強徵，先從今秋等稅錢，特許頗免之意，依該縣所報，論報均役廳，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아산 등 18개 고을에 6월 15·16일의 비바람으로 바닷물이 범람하고 방죽과 독이 터져 포구 주변 마을이 많이 물에 잠겼는데 백성 집도 무너진 연유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위 재해를 입은 곳을 두루 살펴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연이어 단단히 지시하였고 따라서 또 저의 감영 비서를 보내 곳곳마다 캐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장맛비가 계속되어 가는 길 주변 지역의 경우, 물에 잠기거나 물이 새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니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그에 따라 계속해서 여러 고을을 상황을 살펴서 지금에야 겨우 일제히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감영에서 캐본 것과 고을의 보고를 참고해 보니, 해일이 덮친 논밭 가운데 잠긴 것이 며칠 안 된 곳은 자주 비에 씻겨 일단 전부 못쓰게 되는데 이르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히도 희망이 남아있어 아울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잠긴 날이 오래되어 곡식의 모습이 전혀 없는 곳을 상세히 살펴 정밀하게 뽑았습니다. 백성 집의 경우, 다만 집 전체가 떠내려간 것만 뽑았습니다.

아산의 경우, 재해를 입은 5개 면의 논은 총 183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79결 21부 1속이고, 무너진 백성 집은 5가구입니다. 평택의 경우, 재해를 입은 4개 면의 논밭은 총 146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66결 74부 4속이고, 무너진 백성 집은 20가구입니

다. 직산의 경우, 재해를 입은 3개 면의 논은 총 175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98결 28부이고, 무너진 백성 집은 12가구이고, 무너져 깨진 소금가마가 8개입니다. 태안의 경우, 재해를 입은 8개 면의 논은 총 193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79결 39부 7속이고, 무너진 백성 집은 11가구입니다. 비인의 경우, 재해를 입은 4개 면의 논은 총 25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11결 81부 9속이고, 무너진 백성 집은 13가구입니다. 천안의 경우, 재해를 입은 3개 면의 논밭이 총 92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50결 11부 7속입니다. 신창의 경우, 재해를 입은 3개 면의 논은 총 118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95결 93부 6속입니다. 먼천의 경우, 재해를 입은 6개 면의 논은 총 113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78결 41부 9속입니다. 당진의 경우, 재해를 입은 6개 면의 논은 총 81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59결 61부 1속입니다. 해미는 재해를 입은 3개 면의 논은 총 7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4결 18부 3속입니다. 서산의 경우 재해를 입은 11개 면의 논은 총 63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34결 24부 5속입니다. 홍주의 경우, 재해를 입은 9개 면의 논은 총 1백 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58결 47부입니다. 결성의 경우, 재해를 입은 5개 면의 논은 총 46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11결 3부 1속입니다. 서천의 경우, 재해를 입은 4개 면의 논은 총 99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79결 41부 6속입니다. 남포의 경우, 재해를 입은 5개 면의 논은 총 60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28결 48부 3속입니다. 보령의 경우, 재해를 입은 6개 면의 논은 총 53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31결 52부입니다. 한산의 경우, 재해를 입은 3개 면의 논은 총 8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3결 92부 2속입니다. 덕산의 경우, 해일이 덮친 1개 면의 경우, 애초에 그다지 많지 않았고 연이어 빗물에 씻겨서 점차 되살아나는 효과가 있었으며, 무너진 백성 집은 3가구입니다. 그 숫자를 통틀어 계산해보면 재해를 입은 밭은 총 1,562섬지기로 그 면적을 헤아려 보면 844결 81부 4속이고, 무너진 백성 집은 50가구이고, 떠내려간 것은 13가구입니다. 무너져 깨진 소금가마는 8개입니다. 독과 제방이 터진 곳의 경우, 각 면과 각 리에 이따금 있는데 많고 적음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더러 전혀 형태가 없는 것도 있고, 더러 거의 반쯤 무너진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번에 바닷물이 넘친 일은 바로 장맛비가 닥쳐 바다와 육지의 물이 한꺼번에 범람했기 때문이니, 이는 정묘년 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재해를 입은 논밭을 합하

여 계산하면 매우 많습니다. 소금기가 깊이 침투한 곳은 올해 농사를 농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백성 가구에 대해서 말하지만, 집 전체가 무너진 것 이외에 또 담벼락이 무너져 떨어지거나 살림살이가 떠내려간 것도 있었으니, 백성들의 정황을 생각하면 매우 불쌍하고 걱정입니다. 위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각각 별도로 위로하도록 했고, 빈 가마니를 찾아 주고 재물을 배도록 허락하며, 공사 식량을 도와주고 가까운 이웃에게 빌리며, 터진 제방을 수리해 쌓고 무너진 집을 세우는 대목에 대해서는 날날이 별도로 각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둑과 제방은 계속해서 완전히 쌓았고 집은 차례로 고쳐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백성들은 힘이 힘들고 궁색해져 아직 더러 끝내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감독해서 빨리 다 완성하라는 뜻으로 다시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떠내려간 가구에 대한 기본 구호는 우선 규정에 따라 결정문을 써주고, 직역과 성명을 기록해서 성책으로 작성해 상진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상진청에서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재해를 입은 논밭의 면적의 경우, 지금 조사한 것이 비록 매우 상세하지만, 추수가 아직 멀었으니 또한 이것이 확정된 총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곡식이 익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조사하고 구별해서 풍흉을 나누고 재해를 파악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직산의 소금가마 8개가 무너져 깨진 것은 지금 백성의 형세로서는 갑자기 생업을 다시 할 길이 없으니, 근거 없는 세금을 정말로 강제로 징수하기는 곤란합니다. 우선 올해 가을철 세금부터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뜻으로 해당 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균역청에 따져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9. 1835년(헌종 1) 7월 22일(양력 9월 14일)

忠淸監營啓錄 9책(81b~8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477d~479a)

道內列邑連被水災，民家漂頽人命渰壓緣由，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蓋自去月十三日，至十九日雨水，在於跨朔成霖之餘，而霈勢尤爲暴驟，間間醵盆滂沱，漂頽之患，自初已多，而前水未退，後漲連添，村閭之處在稍高者，亦多被沈，家舍之初焉半頽者，竟至全頽，其數到處夥然。人命之渰壓致死者亦多，而其中忠州段，江川汎濫，迅波瀾漫於平陸，山麓汰落，亂石驅積於原野，民戶之漂失者頽壓者，殆難勝數，人命之渰死壓死，亦爲夥然，而次第摘奸，統計數爰，家舍之漂失爲一百八十四戶，頽壓爲一百五十戶，人命之渰死爲四十四名，壓死爲九名是如爲白遣。淸風段，沿江則平陸成海，依峽則峰壑汰落，甚或全災盡漂，間多人命致死，摘奸計數，則家舍之漂失爲五十七戶，頽壓爲三十九戶，人命之渰死爲八名，壓死爲一名是如爲白遣。堤川段，山面處處崩汰，野心在在沈沒，壓死之變，漂頽之患，滿目愁慘，統以計之，則家舍之漂失爲三十五戶，頽壓爲七十戶，人命之壓死爲十七名是如爲白遣。鎭川段，衆流橫溢，急水奔馳，崖岸崩頽，沙礫積驅，家舍之漂頽，人命之渰壓，在在驚慘，或至一村空虛，而計其都數，則家舍之頽壓爲二百七十七戶，人命之渰死爲六名，壓死爲十七名是如爲白遣。木川段，本縣介在山麓之間，一經驟雨，輒致崩汰，而連日大雨，處處汰落，衆流合勢，湍急橫亘，民戶頽壓，自致夥然，而人命又多致死。詳審統計，則家舍之頽壓爲一百五十五戶，人命之渰死爲一名，壓死爲八名是如爲白乎跡。他餘諸邑所報，數爰之多寡，雖有不同，景色之愁慘，幾皆無異，而邑邑枚舉，反涉煩屑，不爲一一論列是白乎矣，計其所報數爰，則公州段，家舍漂失爲二戶，頽壓爲七十三戶，而先從附近面里之摘奸停當者修報，稍遠面里，姑未詳審，待其畢摘奸入來，當爲隨續牒報是如爲白遣。丹陽段，家舍漂失爲十一戶，頽壓爲十二戶，永春段，家舍漂失爲二十一戶，稷山段，家舍漂失爲二戶，頽壓爲七十五戶，人命渰死爲一名，壓死爲八名，槐山段，家舍漂失爲三戶，頽壓爲三十一戶。淸安段，家舍頽壓爲二十四戶，牙山段，家舍頽壓爲一百二十一戶，天安段，家舍頽壓爲九十二戶，新昌段，家舍頽壓爲六十二戶，扶餘段，家舍頽壓爲四十戶，燕岐段，家舍頽壓爲四戶，韓山段，家舍頽壓爲十三戶，恩津段，家舍頽壓爲一戶，人命壓死爲一名，連山段，人命壓死爲二名，報恩段，家舍頽壓爲十一戶，泰安段，家舍頽壓爲二戶，人命壓死爲一名，平澤段，家舍頽壓爲三十五戶，而統計各邑所報之數，則家

舍之漂失爲三百十五戶，頽壓爲一千二百八十七戶，人命之渰死爲六十名，壓死爲六十四名是白乎所，今此水災，雖淺深之別，而若以最甚處言之，則便是挽近所罕，田畝之潰覆，各穀之傷損，已無暇論，而此則猶屬遠憂，惟彼漂渰之類，目下情景，尤極慘矜，渰壓屍身及漂頽民戶原恤典，爲先以精實穀，使之準式題給，屍身段，助需掩埋，家舍段，私養山材木，量宜斫給，空石亦宜優數覓給，期於從速結構入處，得以安心奠接之意，連加申飭於各該邑守宰處爲白遣，列錄成冊一件，修送常賑廳爲白去乎，恤典段，令該廳會減施行爲白乎旆，上項諸邑所報之俱未免稽滯，無怪其潦雨連仍摘奸未易之致，而外他各邑，尙無修報，公州之稍遠面里，姑未遍審是如爲白乎等以，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여러 고을이 연이어 수재를 입어 백성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연유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대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내린 빗물은 한 달 넘게 내려 장마가 진 끝에 주룩주룩 내리는 기세는 더욱 폭우가 되었고 간간이 동이를 뒤집듯이 짹짹 쏟아져 떠내려갈 걱정이 애당초 이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빗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뒤에 물이 불어나 연달아 더해져 시골 마을 중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곳도 또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집이 처음에는 반쯤 무너졌던 것이 결국에는 끝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숫자는 도처에 많았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자 또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충주의 경우,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빠른 물결이 평평한 육지에 넘실거렸고 산기슭이 산사태가 나서 돌이 어지럽게 벌판에 몰려들어 쌓였으며, 떠내려간 백성 가구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차레로 캐보고 숫자를 통틀어 계산해보니 떠내려간 것은 184가구이고, 무너진 것은 150가구였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44명, 깔려 죽은 사람은 9명이라고 합니다. 청풍의 경우 강가 주변의 경우, 평평한 육지는 바다가 되고, 산골짜기는 봉우리와 골짜기가 사태가 나서 심한 곳은 더러 전부 재해를 입어 다 떠내려갔고 그사이에 죽은 사람도 많았으니, 캐보고 숫자를 계산해보니, 떠내려간 집이 57가구이고, 무너진 집은 39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8명이고, 깔려 죽은 사람은 1명이라고 합니다.

제천의 경우, 산비탈 곳곳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갔고 들 복판은 곳곳이 잠겼으며, 깔려

죽는 변고와 떠내려갈 걱정이 눈에 가득 참혹합니다. 통틀어 계산해보니, 떠내려간 집이 35가구, 무너진 집이 70가구, 깔려 죽은 사람이 17명이라고 합니다. 진천의 경우, 수많은 물줄기가 멋대로 넘쳐 세찬 물이 치달려 벼랑은 무너지고 자갈은 쌓였으며,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물에 빠져 곳곳마다 놀랍고 참혹했으며, 심지어 온 마을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 총 숫자를 계산해보니, 무너진 집이 277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6명, 깔려 죽은 사람이 17명이라고 합니다. 목천의 경우, 해당 현은 산기슭 사이에 끼어 있어 소나기라도 한번 겪게 되면 번번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나갑니다. 연달아 매일 큰비가 내려 곳곳이 산사태가 나고 여러 물줄기가 세력을 합치면 세찬 여울이 되어 멋대로 뻗쳐 백성의 가구 중 무너진 것이 자연히 많고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상세히 살펴서 통틀어 계산해보니, 무너진 집은 155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1명, 깔려 죽은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머지 여러 고을에서 보고한 숫자의 경우, 많고 적음은 비록 같지 않지만 처참한 모습은 거의 다 다름이 없었습니다. 고을마다 낱낱이 거론하는 일은 도리어 번거로워 일일이 따져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고한 수효를 계산해보니, 공주의 경우, 떠내려간 집이 2가구, 무너진 집이 73가구였습니다. 먼저 가까운 마을은 캐보기를 마친 곳부터 작성해 보고하고, 조금 먼 마을은 아직 상세하게 살피지 못했으니 캐보는 것을 마치고 들어오기를 기다려 그에 따라 문서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양의 경우, 떠내려간 집이 11가구, 무너진 집이 12가구이고, 영춘의 경우 떠내려간 집이 21가구이고, 직산의 경우 떠내려간 집이 2가구, 무너진 집이 75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깔려 죽은 사람이 8명이고, 괴산의 경우 떠내려간 집이 3가구, 무너진 집이 31가구, 청안의 경우, 무너진 집이 24가구, 아산의 경우, 무너진 집이 121가구, 천안의 경우, 무너진 집이 92가구, 신창의 경우, 무너진 집이 62가구, 부여의 경우, 무너진 집이 40가구, 연기의 경우, 무너진 집이 4가구, 한산의 경우, 무너진 집이 13가구, 은진의 경우, 무너진 집이 1가구, 깔려 죽은 사람이 1명, 연산의 경우, 깔려 죽은 사람이 2명, 보은의 경우, 무너진 집이 11가구, 태안의 경우, 무너진 집이 2가구, 깔려 죽은 사람이 1명, 평택의 경우, 무너진 집이 35가구였습니다. 각 고을에서 보고한 숫자를 통틀어 계산해보니, 떠내려간 집이 315가구, 무너진 집이 1,287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60명, 깔려 죽은 사람이 64명이었습니다.

이번 수재는 비록 정도의 구별은 있으나 만약 가장 심한 것으로 말한다면 바로 근래에 드문 일입니다. 논밭이 독이 터져 모래로 덮이고 각종 곡식이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따질 겨를도 없으니 이는 오히려 지나친 걱정해 해당합니다. 오직 떠내려갔거나 물에 빠져 죽은 부류의 경우, 눈앞의 정황이 더욱 참혹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 및 떠내려간 백성 가구의 경우, 기본 구호는 우선 좋은 품질의 곡식으로 규정대로 결정문을 써주고 시체의 경우 장례 비용을 도와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집의 경우 개인 산의 재물을 적절히 베어서 주고, 빈 가마니도 넉넉하게 구해 주어 기어이 빨리 집을 짓고 들어가 마음 편히 살도록 하라는 뜻으로 연달아 각 해당 고을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죽 기록한 성책 1건을 만들어 상진청에 보냈습니다. 구호의 경우, 해당 상진청으로 하여금 회계 처리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위 향의 여러 고을의 보고가 모두 지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장맛비가 계속 해서 내려 캐보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그 밖의 다른 각 고을은 아직 작성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에서 조금 먼 마을은 아직 두루 살피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0. 1835년(헌종 1) 7월 29일(양력 9월 22일)

忠淸監營啓錄 9책(85b~8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80b~480c)

去月十三日十九日以後雨水6척 忠州·延豐等二十二邑, 民家漂頽, 人命湮壓死數爰,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牒報, 則前啓中, 恩津·連山兩邑, 追加遍審, 更有所報, 而恩津段, 家舍頽壓爲三十四戶, 連山段, 家舍頽壓爲八戶是白遣, 前啓外, 淸州段, 家舍漂失爲四戶, 頽壓爲一百五十二戶, 瑞山段, 家舍頽壓爲七十五戶, 林川段, 家舍漂失爲三戶, 頽壓爲四十六戶, 大興段, 家舍頽壓爲四十三戶, 保寧段, 家舍頽壓爲四十一戶, 唐津段, 家舍頽壓爲三十九戶, 石城段, 家舍頽壓爲二十一戶, 文義段, 家舍頽壓爲十三戶, 全義段, 家舍頽壓爲十三戶, 德山段, 家舍頽壓爲十一戶, 禮山段, 家舍頽壓爲六戶, 永同段, 家舍頽壓爲三戶, 平薪段, 家舍頽壓爲九戶. 而統計其數, 則家舍之漂失爲七戶, 頽壓爲五百十四戶是白乎所, 改構奠接之方, 各別申飭于各該邑守宰處, 使之着意舉行爲白遣, 恤典段, 各依式例, 爲先題給列錄, 修成冊上送常賑廳爲白去乎, 令該廳會減施行爲白乎旆. 蓋此漂頽, 非皆一里之多戶, 亦非同日之被災, 水退潦收之後, 隨其民訴, 次第摘奸修報, 則自致遲滯, 容或無怪, 而屢煩關飭, 許久稽緩者, 揆以舉行, 萬萬駭然. 各該邑首吏鄉, 自臣營從重科治爲白乎旆,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13일부터 19일 이후 빗물로 충주와 연풍 등 22개 고을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숫자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중 은진·연산 2개 고을은 추가로 두루 살펴 다시 보고했는데, 은진의 경우, 무너진 집이 34가구, 연산의 경우 무너진 집이 8가구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청주의 경우 떠내려간 집이 4가구, 무너진 집이 152가구, 서산의 경우 무너진 집이 75가구, 임천의 경우 떠내려간 집이 3가구, 무너진 집이 46가구, 대흥의 경우 무너진 집이 43가구, 보령의 경우 무너진 집이 41가구, 당진의 경우 무너진 집이 39가구, 석성의 경우 무너진 집이 21가구, 문의의 경우 무너진 집이 13가구, 전의의 경우 무너진 집이 13가구, 덕산의 경우 무너진 집이 11가구, 예산의 경우 무너진 집이 6가구, 영동의 경우 무너진 집이 3가구, 평신의 경우 무너진 집이

9가구였습니다. 그 숫자를 통틀어 계산해보니, 떠내려간 집이 7가구, 무너진 집이 514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고쳐 지어 살도록 하는 방법을 각각 별도로 각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하여 유념해 거행토록 하였습니다. 구호의 경우 각 규정에 따라 우선 결정문을 준 다음 죽 기록하고 성책하여 상진청에 올려 보냈습니다. 해당 상진청으로 하여금 회계 처리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대개 이번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모두 한 마을의 많은 가구가 아니고, 또한 같은 날 재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물이 빠지고 장마가 걷힌 뒤에 백성들의 하소연에 따라 차례로 캐보며 작성해 보고하다 보니 자연히 지체되었으니, 조금도 괴상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번거롭게 공문으로 지시했는데도 오랫동안 지체한 것은 거행하는 도리를 헤아려 볼 때 매우 매우 놀랍습니다. 각 해당 고을의 우두머리 아전과 우두머리 향임은 저의 감영에서 무거운 죄목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1. 1835년(헌종 1) 8월 6일(양력 9월 27일)

忠淸監營啓錄 9책(87a~8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81a~481a)

今月初五日亥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2. 1835년(헌종 1) 8월 22일(양력 10월 13일)

忠淸監營啓錄 9책(93b~9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84c~484d)

臣巡行自公州，至保寧等六邑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行〉自保寧，又歷結城·洪州·青陽·定山，今月二十二日還營，而沿路農形，連加詳審是白乎則，畚穀之早移者居多，比諸前啓中六邑，瘠損差歇，成就稍勝是白乎矣，若其晚移與依峽處，初未茁長，尙帶秋色，含而未發，發而不實，沈覆之患，未移之畚，多少雖異，便是通患，結城·洪州兩邑海湓處中，乍沈旋退者，頗能蘇醒，略可食實，而至若多日渟滯者，仍爲消灑，更未萌蘖，田種各穀，較看彼此，雖有差等之別，統論大概，未免失稔之歎，木花慘歉，到處同然，莖葉徒存，穎房零星，罕有晚綻之絮，未見摘取之狀，公州·定山兩邑，今二十一日夜霜降是如報來是白乎所，至若晚就之穀，或冀桑榆之收，霜信太早，更無餘望，言念民事，去益憂悶，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순행하며 공주에서부터 보령 등 6개 고을까지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보령에서부터 또 결성·홍주·청양·정산을 거쳐 이번 달 22일에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연이어 상세하게 살펴보았더니, 논곡식은 일찍 모내기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서 보고한 6개 고을과 비교하면 피해는 조금 가볍고 여문 정도가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나 늦게 모내기한 것과 산골짜기는 아예 싹이 자라지 못해 아직 모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오그라들어 패지 못하고 뻗더라도 알이 들지 못했습니다. 물에 잠기거나 모래로 덮일까 하는 걱정애 모내기하지 못한 논은 비록 다소 다르지만 바로 일반적인 걱정거리입니다. 결성과 홍주 2개 고을의 해일이 발생했던 곳에서 잠깐 바닷물에 잠겼다가 바로 물이 빠진 것은 자못 되살아날 가망이 있어 조금이나마 낱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물에 괴어 잠긴 경우에는 그대로 녹아 없어져 다시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이것저것을 비교해 보니 비록 등급이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통틀어 따지자면 흉년이 들었다는 탄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화는

참혹하게 흉년이 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똑같았습니다. 한갓 줄기와 잎만 남아있고 다래가 엉성하고 늦게 터지는 솜이 드물게 있지만 따는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주와 정산 2개 고을은 이번 달 21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늦게 수확하는 곡식 경우 더러 늦게나마 거두기를 기대했는데 서리가 너무 일찍 내려가 내려 다시 끝내 가망이 없으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3. 1835년(헌종 1) 8월 29일(양력 10월 20일)

忠淸監營啓錄 9책(94a~9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85a~485b)

道內公州·定山兩邑, 今月二十一日夜霜降形止及臣以左道各邑災實巡審事, 今月二十六日離發. 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列邑所報, 則前啓外, 全義·木川·天安·稷山·新昌·大興·洪州·扶餘·鴻山·林川·庇仁·藍浦·保寧·結城·魯城·恩津·連山·鎮岑·永同·黃澗·文義·燕歧·鎮川·淸安·陰城等二十五邑, 亦於二十一日夜霜降. 平澤·牙山·溫陽·禮山·靑陽·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舒川·懷德·淸州·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二十三邑鎮, 二十一日夜霜降, 石城·沃川·靑山·報恩·懷仁等五邑, 二十三日夜霜降是如爲白乎旆. 臣巡行自公州, 歷魯城·連山·鎮岑·懷德·沃川, 方到報恩郡, 而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中稻方將刈穫, 晚稻漸次成熟, 而若其當初移秧之稍晚者, 根未完着, 莖不及茁, 而積傷於累旬潦霖, 無論中晚稻, 舉多含縮, 終不曲垂, 而肅霜遽隕, 仍皆枯白, 無可掛鎌. 根耕豆太及晚黍粟, 鋤耘多廢, 狼莠徒繁, 而或反實而向黃, 或虛殼而徑枯, 木花疎枝殘顆, 早已判歟, 而霜後敗絮, 尤無可摘是白遣, 秧乏力窘, 間有未移之畚, 傍川依峽, 亦多汰覆之處是白如乎, 前路邑形止, 待審察,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공주·정산 2개 고을은 이번 달 21일 밤에 서리가 내린 경위 및 제가 좌도 각 고을의 재해 실상을 살피는 일로 이번 달 26일에 출발했다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전의·목천·천안·직산·신창·대흥·홍주·부여·홍산·임천·비인·남포·보령·결성·노성·은진·연산·진잠·영동·황간·문의·연기·진천·청안·음성 등 25개 고을도 또한 21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평택·아산·온양·예산·청양·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서천·회덕·청주·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23개 고을과 군영은 21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석성·옥천·청산·보은·회인 등 5개 고을은 23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순행하며 공주에서 노성·연산·진잠·회덕·옥천을 거쳐 막 보은군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중벼는 이제 곧 베어 수확하겠고,

늦벼는 점차 익어갑니다. 애초에 조금 늦게 모내기한 것은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 못했고 줄기는 미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확 일 동안 내린 장맛비로 거둬 손상되어 중벼나 늦벼를 따질 것 없이 거의 다 오그라들어 끝내 고개를 수그리지 못했는데 된서리가 갑자기 떨어져 그대로 다 하얗게 말라 낫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의 경우, 김매기를 대부분 포기하여 강아지풀만 한것 우거졌고, 더러 반쯤 알이 들다가 누렇게 되거나 더러 빈 꼬투리인 채로 지레 시들었습니다. 목화의 경우, 가지는 영성하고 다래는 자잘해 일찌감치 이미 흉년으로 판가름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뒤에는 숨은 못쓰게 되니 더욱 딸 것이 없었습니다. 모는 부족하거나 힘이 달려 간혹 모내기하지 못한 논이 있고, 시냇가와 산골짜기는 또한 산사태로 덮인 곳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는 고을 경위는 살피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4. 1835년(헌종 1) 9월 7일(양력 10월 28일)

忠淸監營啓錄 9책(94b~9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85b~485d)

臣巡行到報恩郡，所經邑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行自報恩，又歷槐山·延豐·淸風·丹陽·堤川，方到忠州牧，而沿路農形，連加詳審是白如乎，其中淸風·丹陽·堤川·忠州等四邑，夏間水災，比他尤甚。淸風·丹陽則環山挾江，堤川則山形陡高，野面低窄，易浸而難洩⁶。忠州則峽野交錯，江川相連，而數旬長霖，屢次暴霖，汰落則巖石墜轉，驅積於郊野，潰覆則阡陌變換，莫辨其形址。或掘畝而爲坎，或堆沙而成阜，多日渟滯而沈墊者，穀又糜爛而無形，所見之驚慘，有甚於所聞。若其水患交淺之處，潦收水退之後，庶冀桑榆之收，而其奈積被瘁損，且多愆時，晚移無論，中稻晚稻，初未發穗者，殆居其半，或短穗僅發，而直立不垂，間有入實曲垂者，而山高水冷，成就差遲，霜信太早，亦皆枯白。根耕豆太及晚黍粟，卽是峽農之尤緊者，而始多腐消，終皆蕪穢，穗疎穀稀，又多徑枯，槐山·延豐兩邑，被水之災，雖小遜於淸風等四邑，而晚就各穀之在全棄，別無異同。至於木花，雖以峽邑之素尙，到處慘歉，殘絮無可摘取，晚顆已皆枯落是白乎所，臣行所過，民人輩抱狀遮道，皆言穀旣告歉，綿又大凶，餬口掩體，亦無其望。還穀身布，將何辦納，呼訴而不已，念其情景，誠切矜惻，臣以切勿騷擾，安心奠居之意，面而慰諭爲白乎旂，前路邑農形，待看審，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는 순행하며 보은군에 도착했는데 지나온 고을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가다가 보은에서 또 괴산·연풍·청풍·단양·제천을 거쳐 막 충주목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연달아 더 상세히 살폈는데, 그 가운데 청풍·단양·제천·충주 등 4개 고을은 여름 동안의 수재가 다른 고을에 비해 더욱 심했습니다. 청풍·단양은 산이 둘러싸고 강을 끼고, 제천은 산의 형세가 우뚝 높고 들판이 낮고 좁아 물에 잠기기는 쉬우나 물이 빠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충주는 골짜기와 들판이 서로 섞이고 강과 시내가 서로 이어졌는데, 수집 일 동안의 긴 장마에 여러 차례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난 것은 암석이 굴러떨어지다가 성 밖과 들판에 몰려 쌓였고 둑이 터지고 모래로 덮인 경우, 밭 두둑이 바뀌어서 그 형태를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러 이랑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기도 하고 더러 모래를 쌓아 언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날 물이 고여 잠긴 것은 곡식이 또 문드러져 형태가 없었으니, 본 것으로는 놀랍고 참혹하기가 소문보다 심했습니다. 수재가 비교적 얇은 곳은 장마가 걷히고 물이 빠진 뒤에 늦게나마 조금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입은 손상이 쌓이고 시기를 많이 놓쳤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늦게 모내기한 것은 따질 것도 없고 중벼와 늦벼의 경우, 애당초 이삭이 아예 패지 않은 것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더러 짙막하게 이삭이 겨우 뻗으나 곳곳이 선 채로 고개를 수그리지 않았으며, 간혹 알이 들어 고개를 숙인 것도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물이 차가워서 여문 것이 조금 늦은 데에다 서리가 너무 일찍 내려 또한 모두 시들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바로 골짜기 농사에는 매우 중요한데 처음부터 대부분 썩어 없어졌고 끝내 모두 잡초만 무성하고 이삭은 엉성하여 꼬투리가 맺힌 것은 드물었고 또 대부분 지레 말랐습니다. 괴산과 연풍 2개 고을은 수재를 입은 것이 청풍 등 4개 고을보다 조금 덜하지만 늦게 여문 각종 곡식은 곳곳마다 전부 포기해야 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목화의 경우는 산골 고을에서 본디 중요시하는 것이지만 가는 곳마다 참혹하게 흉년이 들어 열악한 숨은 딸 만한 것이 없었고, 늦게 맺은 다래는 이미 다 시들어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순행하며 지나던 곳의 백성들이 소장을 안고 길을 막아 모두 다 말하기를, “곡식은 이미 흉년을 고했는데, 면화도 크게 흉년이니, 입에 풀칠하거나 몸을 가리는 것도 또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환곡과 군포를 장차 어떻게 마련하여 바치겠습니까?”라고 하며 호소해 마지않았습니다. 정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안심하고 살라는 뜻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위로하며 타일렸습니다. 앞으로 가는 고을의 농사 상황은 살피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5. 1835년(헌종 1) 9월(양력 10월)

忠淸監營啓錄 9책(104a~112a) /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90b~494c)

道內農形，已爲概陳於前後狀聞中是白在果，一雨一暘，考驗於邑報，以沿以峽，看審於巡路，深迂僻遠之處，分遣編裨，別加探察，一道災實，庶可領略是白如乎，今年穡事之難望占豐，其幾早見，而亦不料其涉夏徂秋，反覆卒瘡，終未免此歉荒也。蓋自昨冬以後，毒厲遍熾，死亡殆難勝計，沈痛或至屢朔，家乏饁畝之資，野罕服田之夫，縱天時之無愆，其奈人力之莫逮是白去乙，自春雨澤，一未浹洽，入夏亢旱，數旬惜乾，間有涸鋤之霑潤，殆同焦釜之滴點，秧坂渴涸，穉苗萎枯，裕水洞畚，川汎之引溉，不無及時早移者，而或纔插苗而卽萎，或未着根而仍枯，雲漢憂切，圭璧始舉，幸自五月之晦，甘雨連降，沛然普洽矣。夏至已過，秧事雖恨差晚，六月以閏，節序猶冀稍遲，怠惰者知勸，呻吟者亦起，隨力服勤，襁褓竝出，而夫何一雨成霖，三朔不霽，纔收而更始，乍歇而旋霖，或達夜暴驟，或連日滂沱。以列邑言之，雖有淺深之異，通一路言之，均是巨浸之災，就其深處而見之，則急流所激，巖石亦爲驅轉，奔波所蕩，阜陵多至變遷，沙覆則全坪盡白，浦決則廣野無青，非徒當面愁慘，無望來頭壅闢。雖其不甚處，從天之雨，縱或不齊，在地之水，終有所歸，潰決焉汰覆焉。瀕洞而無際，淳滯而不退，屢沈之苗，幾盡消泯，方胚之禾，如經蹂躪。及至潦收水退之後，除非已判全棄者外，日候頗調，生意頓發，間或有土沃而善苗者，惟望桑榆之收，庶歸穴農之稱是白加尼，秋序載屆，成就大愆，胚者不穗，含縮而向枯，穗者不實，直立而無穎。又多有短短其莖，無意胚胎者，此皆積傷於旱澇之祟，而至此之甚，則殆亦老農之所未測也。節候莫淹，冷意漸促，寒露纔過，肅霜遽隕，向之直立者，仍而枯白而空殼已矣。向之含縮者，終焉萎黃而瘦莖已矣，於是乎年形又大變矣。略具穎穗，可施銓艾者，姑未多見，而刈打之場，穰秣過半，春籴之際，完粒無幾，農民輩，又袖手而徊徨，仰天而噓唏，此而又復失望矣。若其趁移而早苗，薄浸而卽洩，善就先成於隕霜之前，穎粟堅硬者，百畝一稀，而早移之畚，又發愆蹲之患，亦多全災之處，右沿諸邑海溢處，汎濫浩漫，驚心駭目，而沈不多日者，連因雨水，漸有洗滌之效，至若沈淹日久處，曝暘而鹹氣大肆，望秋而災形益著，枯莖荒草，一望蕭索是白遣，旱田各種，卽是窮民之旨蓄，裕食之捷徑也。豆太之和種者，黍粟之最早者，頗多食實，而所業不專，其種未廣，根耕豆太，自是素尚，而先早後澇，晚播愆鋤，病葉瘦蔓，蕪沒草萊，莖無多殼，殼無完實，晚黍粟自來惡濕。又被早霜，未實徑枯，菑畚之

收，只爲目前之救急，瓶甕之儲，無可方來之資活。此是田畝災實之概略，而田穀比畝穀則差勝是白遣，綿農之最爲慘歉，已悉於軍布請代狀本中，今不必更事煩陳，而片絮如錦，買賣便絕是白乎旆，第其左右沿峽，較其深淺，則極備爲災，沿海沿江爲最，而峽深湍急之地，或反有甚焉。野邑則不至太甚，晚穀之全棄，未移之間多，沿峽原野，幾皆同然，而水患甚處，晚災亦多，未移則沿多於峽是白如乎，自臣巡行時，民人輩抱狀呼訴，皆言身布何以辦納，契活何以聊賴？請蒙停代，哀乞不已，觀其野聽其言，實非恐希望之計，誠未知將何措劃而接濟。不負委畀之至意是白乎乙喻，夙宵憂惕，若隕淵谷是白乎旆，各邑分等，所關不輕，而全道失稔，雖無優劣之懸殊，逐邑細究，猶有分數之差異。較絜彼此，絕補短長，以忠州等十六邑鎮，置之尤甚，洪州等二十九邑，置之之次，韓山等十邑，置之稍實，開錄于後爲白〈有〉在果，仍伏念，檢田給災，有國大政，上而國計之贏縮關焉，下而生靈之休戚係焉。況當此經費匱竭？民勢倒懸之時，濫約皆罪，審慎宜倍，而參以時措輕重之宜，亦當寧約無濫，爲第一義諦，且廟堂別飭，又爲申復，卽已措辭行會於列邑，面對守宰，又丁寧勉飭，申加約束，使之躬檢精抄，期無一毫漏濫。及當行部，隨處詳審，以其所見，反隅於所未見，以其所同，推類於所不同，領會而斟量，仍於概狀之際齊報也。參互聞見，計較毫分，點退而操切，爬櫛而剝削，積費商度，今纔報摠，則續還陳爲四十九結二十八負，川浦爲二百八結四十二負三束，水沈爲二千一百九十八結十三負七束，未移爲三千八百六十三結六負九束，海溢爲八百十九結六十八負九束，晚移未發穗爲一千七百七十八結八十三負五束，枯損爲一百五十五結四負一束，愆蠶蹲縮(爲)爲八十八結四負五束，都合各樣災頃，爲一萬四千六百四十八結十五負四束。以此較量於劃下事目災五百結，則不足爲一萬四千一百四十八結十五負四束是白乎所，今年長霖，挽近所罕，以水被災，宜其極夥，而川浦卽是永災，法不得輕易懸錄，覆沙或致仍頃，竝極難慎。故初旣別般嚴束，終又量存酌減，以至水沈之災，而專以精約爲主，雖較之常年，庶不至太過，雨雖稍晚，節不甚愆，則未移一條，似不甚多，而苗多枯損。乏秧而未移者有之，水未洩退，而過時而未移者有之，死者相續，則有其土而無其人矣。病者未蘇，則有其人而無其力矣。自皆歸於陳廢，尤不容其僞冒，雖以晚災各名言之，形形色色，爲災不一，而或涉內災者，一切勿論，只抄其全無穀形。初未掛鎌者，舉重統稱，務盡精核，牙山等十八邑海溢災結，前已摘奸別啓者，合爲八百四十四結八十一負四束，而其後稍得蘇醒，僅索種稅者，更爲查減，比前啓，所減爲二十五結十二負五束，合計各災都數，溯考已往農[豐]儉。比年而較摠，則今所停當，見其精而未見其濫是白乎矣，經用之窘，絲粟是爭，共濟之義，中外無間，而加請之數，乃爲一萬四千一百四十八結零之多，人或疑

其踰濫，臣亦自知悚悶，而是豈可已而不已者哉？臣於此，若徒懷嚴畏，不盡導達，使我聖朝懷保涵育之赤子，或不免扶携怨咨，而如傷若痾之惠澤，緣臣而不能下究，則臣雖萬被誅罰，何以自贖其辜？茲敢不避猥越，枚陳實狀，冒昧登聞爲白去乎，事目災五百結外，不足災一萬四千一百四十八結十五負四束，特許加劃教是，則臣謹當宣楊德意，塗抹分俵，使彼失農之民，均蒙益下之澤是白乎旂，詳探物情，參據已例，謹以民事之切急者，拈出條件，附陳于左爲白去乎，竝只令廟堂稟旨分付爲白只爲。

〈後〉

尤甚十六邑鎮

忠州·公州·清風·沔川·瑞山·泰安·牙山·平澤·稷山·新昌·木川·鎮川·堤川·石城·扶餘·平薪。

之次二十九邑

洪州·清州·天安·溫陽·舒川·報恩·丹陽·槐山·文義·禮山·庇仁·藍浦·保寧·結城·永同·青山·永春·連山·鎮岑·海美·燕歧·清安·陰城·懷德·定山·懷仁·延豐·黃澗·唐津。

稍實十邑

韓山·林川·大興·沃川·青陽·德山·恩津·全義·魯城·鴻山。

一·還餉卽是民命攸關，遇歉捧糴，尤當加意，如非萬不獲已，則豈敢以停退二字，遽然仰煩，而惟彼被災之民，糊口尙沒其策，納還又何得辦？懷保之方，勿擾爲先，既無備納之勢，而強施椎剝之政，必將不死則逃，終至民穀俱失，無寧早許分停，使之專意當納是白如乎，邑分三等，不過拘於格例，強立名目。究其實則之次，既與尤甚，別無異同，而所謂稍實，亦不懸殊，況其中貧窮之類？其所切矜，不以邑之差等，少有間焉是白乎矣，近年還摠，益致枵竭，嗣歲濟〈接〉，豫宜深慮，則亦不敢徒循目下民情，援引往例，逐等茲舉乙仍于，茲以從略酌量，冒昧仰請爲白去乎，只就尤甚邑中，精抄其最尤甚至難辦之戶，當納新還餉，限折半特許限明秋停退，得蒙紓力之澤，恐未知何如是白齊。

〈一〉，各樣軍身役中，納米之軍，最爲矜惻，蓋其一名所納，雖云六斗，竝計雜費，洽滿十斗，雖在樂歲，比之錢布，所徵倍多。且遠貿於場市，運致於浦所，勞費有難勝言，軫恤宜先於他，而況如今之歲，本色責納，實無其路是白如乎，三軍門保米及樂工保米，守摠兩營牙兵收米，尤甚邑純錢，之次邑限三分二，稍實限折半，代錢捧納，使彼偏苦之軍民，得蒙曠絕之惠澤爲白齊。

一，今年海溢牙山等十八邑中，韓山·德山·海美等三邑，濱海〈之〉壤，本不甚廣，被溢之災，比他稍淺是白乎矣，其外牙山·平澤·稷山·新昌·沔川·瑞山·泰安·洪州·天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唐津等十五邑，統論一境農形，雖分尤甚之次，而單舉海溢災損，則舉皆孔酷，別無異同是白如乎，漂頽民戶已蒙軫恤之澤，而雖非全家漂頽者，畝庫之全棄，已矣勿論，而家舍〈之〉傾圮，牆壁之頽落，什物之漂失，堤堰之潰決，修葺改築，勢窮力竭，已自方秋，舉懷荷擔，尤宜有別般優恤是白乎所，同牙山等十五邑海溢面里中，最尤甚戶，另爲查抄，當納秋還餉及各樣軍身米布錢，限折半特許限明秋停退，俾得安意奠接之地，恐未知何如是白齊。

一，還餉代捧，固係難愼，而在前亦多許施之例，今年田畝各穀，俱爲失稔，而田穀比畝穀，則尙云差勝，以其價直之多寡，求貿之難易，較之，則隨宜代捧，亦可爲一分紓力之道是白如乎，尤甚邑限三分二，之次邑折半，稍實邑限三分一，許令從民願，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之地爲白齊。

一，各年條舊還餉，年條久遠，幾皆流亡，每當歉歲，輒〈蒙〉仍停，其中最近年，卽壬辰條，而仍之以癸巳之歉荒，加之以今春之癘疫，逃故者過半，雖其時在者，皆是經劫僅存之類，當年還穀，猶難備納，舊條責徵，其勢末由是白如乎，同各年條舊還餉，無論久近條三等邑，特令一併仍停，待年豐收捧爲白乎旆。上黨山城己丑未捧條還餉，至昨年捧上後，餘在各穀，爲一千八百二十二石零，未捧條之與秋還一體捧上，自是法例之當然是白乎矣，此皆年久之積逋也。且其地方邑清州，今雖入於分等中之次，而災形也民勢也，與尤甚別無異焉而指徵旣無其處，隣族將被其害是白如乎，同上黨己丑未捧條餘在各穀一千八百二十二石零，亦許停退，待明秋準捧之地爲白齊。

一，各年停退軍米布錢中癸巳停退條，昨秋特蒙區別寬限之命，更爲分等抄戶，或限當年歲前捧納，或限今年麥秋，或限今秋仍停是白如乎，限以歲前及麥秋者，當納之期限已過矣。雖或有如干未收，只當董督準納，而至於限今秋仍停者，今將發令收捧是白乎矣，當初旣抄窮而入停矣，昨年又就其中抄出最窮而停矣。當年身布，猶患難捧，舊條竝徵，誠難議到，同癸巳停退軍米錢中，限今秋仍停條，無論三等，更許限明秋仍停爲白乎旆，其外各年停退，俱是久遠之條，當納軍民，死亡殆盡，徒載簿書之中，實無指徵之處，雖遇豐歲，輒蒙仍停是白如乎，同各年停退軍米布錢三等邑，竝許依前仍停爲白齊。

一，漁箭鹽盆船隻稅錢，壬辰秋等條及癸巳春等條中停退者，癸巳·甲午分等時，皆許仍停是白如乎，浦戶之窮殘，有甚於陸民，昨年之小康，而亦得蒙仍停，如今之年，又無可捧之稅，同漁

鹽船稅錢壬辰秋等及癸巳春等停退條三等邑，竝許仍停爲白齊。

一，拯劣米太之斂民上納，便是白徵之物，實爲切骨之癢，每當歉歲，輒許仍停是白加尼，自丙戌不計久近條，每年百石式，以每石三兩收納，事有定式，而其後亦多遇歉停退之例，如今之歲，舊條冤徵，宜有闊狹是白如乎，已往各年拯劣米太當納條所在處，竝限明秋特許仍停爲白遣，至於今年致敗拯劣，竝令依例準納，恐爲合宜是白齊。

一，安興軍餉之散各邑者，固當使之還納是白乎矣，非但遠輸之爲弊，本穀所在之邑，穀摠自來不敷，分還每患絕巡，及今還納，有難議到，依近例姑許仍留，待年豐次次輸納之地爲白齊。

一，軍保歲抄，雖是應行之事，而搜括推捉，易致騷擾，歲抄磨勘，勿爲定限，以春夏間所得，相換閑丁，流伊充定各鎮屬偏伍軍歲末成冊，亦一體退限爲白齊。

一，沿海各邑鎮戰龜防兵船改造改梁時，材木之斫運，物力之措辦，亦爲民弊，歉歲退限，多有已例，同戰龜防兵船改造改梁者，竝許限明秋退行爲白齊。

一，洪州·瑞山·泰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平薪·安興·馬梁·所斤·舒川浦等邑鎮，有年例箭竹之納于各司者，竹田瘠薄，素不蕃茂，斂價遠貿，民弊不少，分數權減，每年爲例，而況陳根凍死於昨冬，新叢枯損於今夏，雖偏[徧]索全島，可合箭材者，絕無僅有是如，依近例權減之意，具由論報是白如乎，竹田既無所收，元數末由準納，上項洪州等十三邑鎮所納各司箭竹，特許量宜權減，以除島民徵斂之弊爲白齊。

一，貢津倉所屬邑大同與田稅同載漕船上納，曾有啓下定式，而大同出浦，例在田稅畢納之後，大同段，依近例使之追後裝發爲白齊。

一，定配罪人之保授責供，亦足爲弊，尤甚之次邑，限明秋勿定配所爲白齊。

一，推奴徵債，亦係擾民之端，限明秋勿定配所爲白齊。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지금까지 장문 가운데 대강 진숴했습니다. 한번 비가 왔다 한번 별이 났다 한 것은 고을의 보고를 참고하여 바닷가와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던 길에서 살폈고, 깊은 오지와 먼 외딴 곳은 비서를 나누어 보내 별도로 살펴보게 하여 한 도의 재해 실상을 거의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을 점칠 가망이 없다는 것은 거의 일찍 알았지만, 또한 여름을 겪고 가을로 접어들어 자주 병이 들어 끝내 이런 흉년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작년 겨울 이후로 지독한 전염병이 두루 세차게 번져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이루

해야릴 수 없어서 여러 달 동안 침통하기도 했습니다. 집에는 들에 밥을 나를 밭천이 부족하고, 들에는 밭에서 일하는 지아비가 드물었으니, 비록 천시가 어김이 없더라도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봄부터 비가 한 번도 넉넉하게 내리지 않았고, 여름에 들어와서 심한 가뭄이 수십 일 동안 들었으며, 간혹 먼지를 적시거나 호미로 땅을 팔 만큼 내리기는 했지만 거의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격으로 못자리가 말라 어린썩이 시들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동네 논외의 경우는 시내와 보의 물을 끌어다 대어서 제때 일찍 모내기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더러 모를 심자마자 바로 시들고 더러 뿌리를 붙이기도 전에 바로 시들어 가뭄에 대한 근심이 간절하여 기우제를 비로소 거행하였더니, 다행히 5월 그믐부터 단비가 계속 시원스럽게 내려 두루 넉넉하게 적셨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나 모내기하는 일이 조금 늦은 것이 한스러웠지만, 6월이 윤달이어서 절기가 오히려 조금 더디기를 기대하여, 게으른 사람은 권면을 알고 신음하던 사람들도 일어나 힘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여 도롱이를 걸치고 모두 나왔었습니다. 어찌하여 한차례 내린 것이 장마가 되어 석 달 동안 개이지 않고, 겨우 걷히자마자 다시 시작하고, 잠깐 그쳤다가 곧바로 주룩주룩 내리며 더러는 밤새 세차게 쏟아지고 더러는 연일 콧속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고을로 말하자면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한 도를 통틀어 말하면 모두 크게 잠긴 수재입니다. 그 깊은 곳에 나아가서 보면 급류에 부딪혀 바윗돌이 또한 몰아서 구르고 달리는 물결에 씻겨 언덕이 많이 변천되었습니다. 모래로 덮인 곳은 온 들판이 모두 하얗고, 포구가 터진 곳은 너른 들판에 푸른빛이 없으니, 눈앞의 모습이 시름겹고 처참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개간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비록 심하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린 것은 더러 같지는 않으나 땅에 있는 물은 끝내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둑이 터지거나 사태로 덮인 곳은 아득하여 끝이 없고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았으니 자주 잠긴 썩은 거의 다 녹아버렸고, 막 이삭이 패려던 벼는 짓밟힌 것과 같았습니다.

장마가 걷히고 물이 빠진 뒤에 전부 포기할 것으로 이미 판가름한 것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조금 조화로워 살아날 조짐이 문득 들었고, 간혹 토지가 비옥하여 썩이 잘 터서 늦게나마 거두기를 바라여 풍흉이 일정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을 절기를 맞이하여 여무는 것이 크게 어긋나 알은 벼는 이삭이 패지 않고 오그라들어 시들어가고, 이삭이 팼 것은 알이 들지 않고 쫄쫄이 선 채로 영근 것이 없었습

니다. 또 대부분 줄기가 찢막찢막하여 알을 뱉 조짐이 없었으니, 이는 모두 가뭄과 장마의 발미에 오랫동안 상처가 쌓여서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노련한 농부라도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기는 오래 머물지 않았고 찬 기운이 점차 재촉하여 한로가 지나자마자 된서리가 갑자기 내려 지난번에 꽃꽂이 섰던 것은 그대로 시들어 하얗게 되어 빈껍데기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오그라들었던 것은 끝내 시들어 누렇게 되어 여윈 줄기뿐이었으니, 이에 올해 농사 상황은 또 크게 변했습니다.

대략 이삭을 갖추어서 낫을 대 뱉 수 있는 것은 아직 많이 보지 못했고, 베어서 타작하는 마당에도 준축이 반을 넘었고 방아를 찧고 키로 까불 즈음에 난알이 온전한 것은 거의 없었으니, 농사짓는 백성들이 또 팔짱을 끼고 방황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며 이렇게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제때 모내기하여 일찍 싹이 나오고 살짝 잠겼다 바로 물이 빠져서 잘 자라고 여물어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이삭이 단단한 것은 백 이랑 중에 하나도 드물었고, 일찍 모내기한 논은 또 건잠준축의 근심이 생겨 또한 전부 다 재해를 입은 곳이 많았습니다. 충청도 오른쪽인 바닷가의 여러 고을에 해일이 발생하였는데, 넘쳐흐르는 것이 끝이 없어 마음이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겼지만 여러 날이 되지 않은 것은 연이어 빗물이 점차 씻어주는 효과가 있었고, 잠긴 날이 오래된 곳은 피약별을 췌 데에다 소금기에 크게 젖어 가을을 바라보는데도 재해의 형태가 더욱 드러나 줄기는 시들고 풀은 거칠어져 온통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밭의 각종 곡식은 바로 불쌍한 백성들이 준비해 둔 것이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섞어짓기한 콩·팥과 기장·조 중 가장 이른 것은 자못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생업을 삼지 않아 심은 것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은 본래 하던 것이지만 앞서는 가뭄이 들고 나중에는 장마가 지자 늦게 파종하여 김매 시기를 놓쳐 오히려 병들고 덩굴이 잎사귀가 없고 줄기에는 꼬투리가 많지 않고 꼬투리가 있더라도 온전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늦기장·늦조는 본래 축축한 것을 싫어하는데 또 일찍 내린 서리를 만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레 시들었고, 묵정밭에서 거둔 것은 눈앞의 위급함을 구할 뿐이어서 항아리에 저장해둔 것으로는 이후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논밭 재해 실상의 대강입니다.

밭곡식이 논곡식에 비하면 조금 낮고, 묵화 농사가 가장 참혹하게 흉년이 든 것은 이미 군포를 대납해 달라고 청원한 문서 속에 이미 다 있으니 지금 다시 번거롭게 아뢴 필요가

없습니다. 솜 조각은 비단과 같아져서 매매는 번번이 끊어졌습니다. 다만 좌도와 우도의 바닷가와 산골짜기는 그 정도를 비교하면 그지없이 갖가지 재해를 입었습니다.

바닷가와 강가가 가장 심한데 깊은 산골짜기에 여울이 급한 곳이 더러 도리어 심한 곳도 있습니다. 시골 고을은 매우 심하지는 않지만 늦곡식은 전부 포기하게 되고 모내기하지 못한 것이 군데군데 많았으니 바닷가와 산골짜기, 벌판은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 대한 근심이 심한 곳은 늦은 재해가 심했으니, 모내기하지 못한 곳은 바닷가가 산골짜기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순행할 때부터 백성 무리는 소장을 안고 호소하는데 모두 말하기를, “군포는 어찌 마련하여 바칠 것이며, 생활은 무엇에 의지해 꾸려가겠습니까? 청컨대 기한을 물리거나 대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애걸해 마지않았습니다. 들판을 보고 말을 들으니 진실로 아마도 바람직한 계책이 아닐 것이니, 참으로 장차 어떻게 조처하고 머물러 살도록 해야만 한 도를 맡긴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을지 몰라,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각 고을의 등급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도 전체로 보면 흉년은 뚜렷하게 우열의 차이는 없으나 고을마다 상세하게 캐보면 오히려 사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여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보충하여 충주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우심에, 홍주 등 29개 고을은 지차에, 한산 등 10개 고을은 초실에 두어 뒤에 죽 기록하였습니다. 이어 삼가 생각건대, 받을 조사하여 재해에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책이니, 위로는 국가 재정의 남고 모자람과 관계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과 관계됩니다. 더구나 경비가 고갈되어 백성의 형세가 거꾸로 매달린 때를 만나 지나치게 하거나 간략하게 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되니 훨씬 더 살피고 삼가야 하고, 때에 따른 조치는 경중의 마땅함을 참고하여 또한 마땅히 차라리 간략하게 할지언정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이 제일 근본 뜻입니다. 또 묘당에서 특별히 단단히 지시하여 또 신신당부하여 이미 말을 만들어 여러 고을에 행회했고, 수령을 대면하여 또 간곡히 힘쓰도록 지시하여 거듭 더 약속하여 직접 조사하여 정확하게 뽑아 꼭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누락시키거나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을을 순행하기에 미처서 곳곳마다 상세하게 살펴서 본 것으로 보지 못한 것을 짐작하고, 그 같은 것으로 감지 못한 것을 유추한

다음 이해하고 참작하여 그대로 개략적인 상황을 일제히 보고하였습니다.

견문을 참고하고 털끝만 한 것이라도 비교하고 계산하여 물리칠 것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단절하고 살살이 찾아내어 삭감하여 오랫동안 생각한 다음 지금에야 겨우 총계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 묵힌 것이 49결 28부, 시냇가 포락이 208결 42부 3속이고, 물에 잠긴 것이 2,198결 13부 7속이고, 모내기하지 못한 것이 3,863결 6부 9속이고, 해일이 819결 68부 9속이고, 늦게 모내기하여 이삭이 패지 않은 것이 1,778결 83부 5속이고, 시들어 마른 것이 155결 4부 1속이고, 건잠준축이 88결 4부 5속으로 도합 각종 재해로 면세된 것이 1만 4,648결 15부 4속이니, 이를 획한 사목재와 비교하면 1만 4,148결 15부 4속이 부족합니다.

올해의 긴 장마는 근래에 드문 일이니, 물 때문에 재해를 입은 것이 매우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시냇가 포락은 바로 영구한 재해이지만 법으로 볼 때 경솔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 모래로 덮인 곳은 더러 탈이 난 대로 두었습니다. 모두 매우 신중하게 했으므로 처음에 이미 특별히 엄중히 검사하였고 끝에 또 남았거나 감소된 것을 헤아렸고, 물이 잠긴 재해에 이르러서도 오로지 정밀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삼았으니, 비록 상년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데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가 조금 늦었지만 절기가 심하게 어긋난 것이 아니니 모내기하지 못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듯하지만, 싹이 말라 감손된 것이 많아 모가 부족하여 모내기하지 못한 것이 있고 물이 빠지지 않아 시기가 지나 모내기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서로 속출하니 토지는 있는데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이 소생하지 못하니 사람은 있는데 힘이 없어 저절로 모두 묵혀서 내팽개치는 데로 돌아가니, 더욱 그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록 늦은 재해의 각종 명목으로 말하더라도 형형색색이니, 재해가 된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더러 내재에 속하는 것이더라도 일체 따지지 않고 전혀 곡식 형태가 없어서 아예 낫을 댈 수 없는 것을 뽑았으니, 무거운 쪽을 들어 통칭하여 되도록 자세히 조사하여 철저히 밝히기를 다했습니다. 아산 등 18개 고을의 해일로 인한 재결은 앞서 벌써 캐보아 특별히 아뢴 것이 모두 844결 81부 4속이고, 그 뒤에 조금 되살아나 겨우 종자세를 낸 것을 다시 조사해 줄이니, 앞서 아뢰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 25결 12부 5속입니다.

각종 재해의 총 숫자를 합계하고 지나간 풍흉을 거슬러 올라가 상고하여 해마다 총수를

비교하니, 지금 정당하게 처리되어 그 정밀한 것은 보이지만 지나친 것은 발견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경상 비용이 군색하여 길쌈과 곡식을 경쟁하니 함께 구제하는 의리가 서울이나 지방이 차이가 없어 추가로 청원하는 수효가 바로 1만 4,148결 남짓이나 많습니 다. 사람들이 더러 외람됨을 의심하고 저도 송구스럽고 민망한 줄은 스스로 알지만,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에 만약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서 넉넉히 알려주기를 다하지 못해 우리 성조에서 회보하고 함육하는 적자들로 하여 금 부족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더러 면하지 못하게 하여 내 몸이 다친 듯이 여기고 아픈 듯이 여기는 은택이 신 때문에 아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제가 만 번 형벌을 받더라도 어찌 그 허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실상을 낱낱이 아뢰며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사목재 5백 결 이외에 부족재 1만 4148결 15부 4속을 특별히 허락하여 추가로 획하해 주신다면, 제가 삼가 덕의를 선양하여 맞추어 나누어 주어 저 농사를 농친 백성들 로 하여금 아래에 보태주는 은택을 골고루 입도록 하겠으며, 물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전례를 상고하여 삼가 백성들의 사정이 절실히 급한 것을 집어내는 조건을 아래에 붙여서 진술하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고 임금님의 지시로 분부하게 하소서.

우심 16개 고을과 군영

충주·공주·청풍·면천·서산·태안·아산·평택·직산·신창·목천·진천·제천·석성·부여·평신

지차 29개 고을

홍주·청주·천안·온양·서천·보은·단양·괴산·문의·예산·비인·남포·보령·결성·영동·청산·영 춘·연산·진잠·해미·연기·청안·음성·회덕·정산·회인·연풍·황간·당진

초실 10개 고을

한산·임천·대흥·옥천·청양·덕산·은진·전의·노성·홍산

1. 환곡과 향곡은 바로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 되니, 흉년을 만나 받아들일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어찌 감히 ‘정퇴’ 두 글자를 불쑥 우리러 말씀드리겠습니까? 오직 저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입에 풀칠할 계책이 오히려 없는데 바칠 환곡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회보하는 방법은 동요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마련하여 납부할 형편이 없는데 억지로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정사를 시행한다면 반드시 죽지 않으려고 하면 도망가 끝내 백성과 곡식을 모두 잃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차라리 일찍 분정을 허락하여 전념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고을을 삼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규정에 구애되어 억지로 명목을 세운 것에 불과하니, 그 실상을 따져보면 지차는 이미 우심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른바 초실도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데, 더군다나 그 가운데 빈궁한 부류가 매우 불쌍하니 고을의 차등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년에 환충이 더욱 고갈되어 내년 접제를 미리 깊이 염려해야 하니 또한 감히 눈앞의 민정만을 따라 지난 전례를 끌어당겨 등급에 따라 거론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략 참작하여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우러러 청원합니다. 다만 우심을 가운데 가장 더욱 심하여 마련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가호를 정확하게 뽑아서 당납할 새 환곡과 향곡을 절반만 특별히 내년 가을까지 정퇴를 허락하여 힘을 펴는 은택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각종 군포 가운데 쌀을 바쳐야 할 군인이 가장 불쌍합니다. 대개 1명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비록 6말이라고 하지만, 잡비까지 계산하면 넉넉잡아 10말이 참니다. 비록 풍년에 전포와 비교하더라도 징납하는 것이 배가 많습니다. 또 멀리 시장에서 사서 포소까지 운송해 오는 데 드는 노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진휼함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본색을 책납할 길이 참으로 없으니, 삼군문의 보미 및 악공의 보미, 수어청과 총융청 두 군영의 아병에게 쌀을 걷는 것은 우심읍은 순전으로, 지차읍은 3분의 2만, 초실은 절반만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저 치우치게 고통을 겪는 군민들로 하여금 매우 드문 혜택을 입게 해 주소서.

1. 올해에 해일이 일어난 아산 등 18개 고을 가운데 한산·덕산·해미 등 3개 고을은 바닷가의 토양이 본래 그다지 넓지 않아 해일을 입은 재해가 다른 고을에 비해 조금 얕지만, 그 밖의 아산·평택·직산·신창·면천·서산·태안·홍주·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당진 등 15개 고을은 온 지역의 농사 상황을 통틀어 논하면 비록 우심과 지차의 구별이 있으나 해일로 인한 재해의 손실만을 들면 모두 다 참혹하여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떠내려간 백성 집은 이미 진휼의 은택을 입었으니 비록 집 전체가 떠내려간 것이 아니더라도 논을 전부 버려야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집이 무너지고, 담벽이 기울어 떨어지고, 살림살이가 떠내려가고, 독과 제방이 터진 것은 수리하고 고쳐 쌓느라 형편이 어렵고 힘이

다해 이미 한창 가을부터 짐을 싸들고 떠날 생각을 하니 더욱 특별히 잘 돌봐주는 은택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아산 등 15개 고을이 해일을 입은 마을 가운데 가장 우심호를 별도로 조사해서 뽑아내어 담당할 가을 환곡과 향곡 및 각종 군신의 전을 절반만 특별히 내년 가을까지 정퇴를 허락하여 마음을 편안히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환곡과 향곡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은 진실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만, 이전에도 시행하도록 허락한 예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논밭의 각종 곡식이 모두 흉년이 들었으니 밭곡식이 논곡식에 비교하면 오히려 조금 낮다고 하겠지만, 그 값의 다과와 구무의 난이로써 비교해 볼 때 즉시 대신 받게 하는 것이 또한 조금이나마 힘을 펴는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심읍은 3분의 2만, 지차읍은 절반만, 초실읍은 3분의 1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상당곡을 준절하여 대신 받아들여 내년 가을을 기다려 다시 본색을 만들도록 해 주소서.

1. 각 연조의 옛날 환곡과 향곡은 해가 오래되어 거의 다 도망가거나 죽어 매년 흉년을 당하여 번번이 그대로 정퇴하는 은택을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근년은 바로 임진년 조인데 계사년의 흉년이 거듭되고, 올해 봄의 여역까지 겹쳐 도망가거나 죽은 자가 반을 넘습니다. 비록 현재 있는 사람이더라도 모두 겁을 쥐고 겨우 살아 있는 부류이니 당년의 환곡도 오히려 마련하여 납부하기 어려우니, 구조를 다그쳐 징수할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 각 년조의 옛날 환곡과 향곡은 구근조 삼등읍을 물론하고 특별히 모두 그대로 정퇴를 허락하여 풍년을 기다려 수봉하소서. 상당산성의 기축년 미봉조의 환곡과 향곡은 작년에 이르러 받아들인 뒤 남아있는 각종 곡식이 1,822석 남짓이니, 미봉조는 가을에 도로 거둘 때 일체 받아들이는 것이 본래 당연한 법례입니다만, 이는 모두 해가 오래된 누적된 횡령입니다. 또한 지방 고을인 청주는 지금 등급 중 지차에 들었으나 재형과 민세가 우심과 별로 차이가 없으니, 지징을 이미 할 곳이 없어 인족이 그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상당산성의 기축년 미봉조로 남아있는 각종 곡식 1,822석 남짓도 정퇴를 허락하여 내년 가을을 기다려 다 받아들이소서.

1. 각 년에 정퇴한 군의 마·포·전 가운데 계사년의 정퇴조는 작년 가을에 특별히 구별하여 기한을 연장해 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급하고 가호를 뽑아 더러 당년 세전까지 봉납하고, 더러 올해 가을보리까지, 더러 올해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하였는데,

세전과 맥추까지는 당납할 기한이 벌써 지났으니, 더러 약간 거두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감독해서 준납하게 해야 하고, 올해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발령하여 수봉하려고 하는데, 당초 이미 불쌍한 민호를 뽑아 정퇴에 넣었고, 작년에도 그 가운데 나아가 가장 불쌍한 민호를 뽑아내어 정퇴했으니, 당년의 신포를 오히려 거두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구조를 모두 징수하는 것은 참으로 의논하기 어렵지만, 동 계사년에 정퇴한 군의 미·전 중에 올해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하는 뭇은 삼등을 물론하고 다시 내년 가을까지 그대로 정퇴를 허락하며, 그 밖의 각 년의 정퇴는 모두 오래된 뭇으로 당납할 군민이 거의 다 사망하고 문서상에만 기록되어 있으니 참으로 지정할 곳이 없습니다. 비록 풍년을 만나더라도 그대로 정퇴를 입었는데, 그 각 년 정퇴한 군의 미·포·전 삼등읍은 모두 이전대로 그대로 정퇴를 허락하소서.

1. 어전·염분·배의 세금은 임진년 추등조 및 계사년의 춘등조 가운데 정퇴한 것은 계사년과 갑오년 분등 때 모두 그대로 정퇴를 허락했습니다. 포호의 빈궁하고 쇠잔함이 물에 사는 백성들보다 심하여, 작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지만 또한 그대로 정퇴를 입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받아들일 세금이 없으니, 동 어전·염분·배의 세금을 임진년 추등 및 계사년 춘등의 정퇴조 삼등읍을 모두 그대로 정퇴를 허락하소서.

1. 증열미태를 백성에게 거두어 상납하는 것은 바로 백정한 물건이니, 참으로 뼈에 사무치는 폐막입니다. 그래서 매년 흉년을 당하여 번번이 그대로 정퇴를 허락했더니, 병술년에는 구근조를 허락하지 않아 매년 1백 석씩을 석당 3냥씩 수납하는 일 때문에 정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흉년을 만나면 정퇴하는 예가 많았으니, 올해 같은 해에 구조를 원정하는 것은 마땅히 신축성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증열미태는 당납조가 있는 곳은 모두 내년 가을까지 특별히 그대로 정퇴를 허락하고, 올해에 배가 치패되어 건져 낸 증열미태는 모두 규례대로 다 상납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1. 안흥의 군향이 각 고을에 흩어져 있는 것은 진실로 다시 상납하게 해야 하지만, 멀리 수송하는 것이 폐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본곡이 있는 고을은 곡창이 본래 넉넉하지 못해 환곡을 나눌 때마다 매년 절순을 걱정했습니다. 지금 곡식을 되받는 것은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가까운 사례대로 우선 그대로 보관을 허락하여 풍년을 기다려 차차 수납하게 하소서.

1. 군보 세초는 본래 행해야 할 일입니다만, 추노를 수색하는 것은 소요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세초를 마감하는 것은 기한을 한정하지 말고 봄과 여름 사이에 찾아낸 한정을 몇 번에 나누어 충정하게 하고, 각 진의 편오 군병을 연말에 성책하여 작성해 보고하는 것도 폐단이 많으니 모두 기한을 물려주소서.

1. 바닷가 각 고을과 군영의 전선·귀선·방선·병선을 개조하거나 개삭할 때 재목을 베서 운송하는 것과 물력을 마련하는 것도 민폐가 됩니다. 흉년에 기한을 물린 전례가 많이 있으니, 그 전선·귀선·방선·병선을 개조하거나 개삭하는 것은 모두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물려주소서.

1. 홍주·서산·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평신·안흥·마량·소근·서천포 등 고을과 군영에서 연례로 각사에 전죽을 상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전이 척박하여 근래 번성하지 못해 돈을 거두어 먼 곳에서 사오니 백성들의 폐단이 적지 않았으므로, 수량을 나누어 임시 조치로 줄여주는 것이 매년 근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작년 겨울에 목은 뿌리가 얼어 죽고 올해 여름에 새 떨기가 시들어 감손되었으니, 비록 온 섬을 두루 수색하더라도 화살 재료에 적합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례대로 임시 조치로 줄여달라는 뜻으로 연유를 갖추어 논보하였습니다. 전죽은 이미 수납할 곳이 없으니 원래 수효를 준납할 길이 없습니다. 위의 홍주 등 13개 고을과 군영이 각사에 상납하는 전죽을 알맞게 줄여주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여 불쌍한 백성들에게 징렴하는 폐단을 덜어주소서.

1. 공진창에 속한 고을의 대동미와 전세를 조선에 함께 실어 상납하는 것은 일찍이 계하한 정식이 있었습니다. 대동미가 포구를 떠나는 것이 으레 전세를 다 상납한 뒤에 있으니, 대동미는 가까운 사례대로 추후에 실어서 떠나게 하소서.

1. 정배 죄인을 보수하고 공초를 다그치는 것도 폐단이 되기에 충분하니, 우심과 지차에 해당하는 고을은 내년 가을까지 배소로 정하지 마소서.

1. 추노와 징채도 백성을 소란하게 하는 단서와 관계되니, 내년 가을까지 보류하소서.

0046. 1836년(헌종 2) 2월 20일(양력 4월 5일)

錦營啓錄 1책(1a~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01a~401b)

道內農形及今月十一日戌時量始雨，至翌日寅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分緣由，前道臣金在三在任時，已爲馳啓爲白有在果，□□之路，審察沿路農形，續接各邑所報，則秋牟青色漸新，春牟已盡耕播，間或立苗，築堤修塋，濬沙糞田，次第設施是白乎跡，十一日之雨，青陽得一犁，洪州·大興·新昌·保寧·連山·懷德·沃川·靑山·懷仁·靑安·陰城·忠州·靑風·堤川·丹陽·平薪等十六邑鎮，得一鋤，公州·溫陽·唐津·海美·瑞山·泰安·魯城·黃澗·報恩·燕岐·靑州·鎮川·槐山等十三邑，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待邑報，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이번 달 11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푼인 연유는 전 관찰사 김재삼이 재임할 때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길에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푸른색이 점점 산뜻해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간혹 싹이 돋고, 방죽을 쌓고 논두렁을 손질하고 모래를 파내고 거름을 주는 일 등을 차근차근 시행했습니다. 11일의 비로 청양은 1려가 내렸고, 홍주·대흥·신창·보령·연산·회덕·옥천·청산·회인·청안·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평신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공주·온양·당진·해미·서산·태안·노성·황간·보은·연기·청주·진천·괴산 등 1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7. 1836년(헌종 2) 2월 30일(양력 4월 15일)

錦營啓錄 1책(3b~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02d~402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耔漸次青茂, 春耔幾盡立苗, 畚庫鋤役, 秧坂鰲耕, 方張爲之是如爲白乎跡, 今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四寸一分, 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 向後形止及列邑得雨多寡,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돋았습니다. 논에는 쟁기질하고 못자리는 땅을 갈아엎기를 한창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8. 1836년(헌종 2) 3월 2일(양력 4월 17일)

錦營啓錄 1책(4a~4a) /各司謄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謄錄 1책(402d~403a)

去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三十日卯時以後，間或霏灑，連爲陰翳，至今月初一日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五分，竝計前後，合爲四寸六分是白乎跡，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得三犁，天安·牙山·禮山·石城·鴻山·保寧·定山·青陽·大興·德山·忠州·文義等十二邑，得二犁。淸州·全義·鎭岑·青山等四邑，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4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30일 묘시 이후로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더니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었다가 이번 달 초1일 사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5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총 4치 6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는 3려가 내렸고, 천안·아산·예산·석성·홍산·보령·정산·청양·대흥·덕산·충주·문의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주·전의·진잠·청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9. 1836년(헌종 2) 3월 9일(양력 4월 24일)

錦營啓錄 1책(4b~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03a~403b)

去月二十九日雨澤，公州等十七邑所得分數及臣今月初三日發巡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九日之雨，前啓外，陰城·丹陽·永春等三邑，川渠漲滿，稷山·平澤·新昌·扶餘·結城·洪州·沔川·海美·瑞山·泰安·恩津·燕岐·鎭川·淸安·槐山·延豐·淸風·堤川·平薪等十九邑鎭，得二犁，木川·溫陽·林川·韓山·舒川·庇仁·藍浦·唐津·魯城·連山·懷德·沃川·永同·黃澗·報恩·懷仁等十六邑，得一犁是如爲白乎旡。臣巡行自公州，歷燕岐·淸州·木川·天安·溫陽·新昌·禮山·大興·洪州·結城，方到保寧縣，而沿路農形，詳細看審是白乎則，秋耨日漸向茂，春耨始發青色，畓庫或始初耕，鋤役到處方張，秧坂間間注種是白如乎，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17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제가 이번 달 초3일에 순시하러 출발한 연유는 이미 연이어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음성·단양·영춘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직산·평택·신창·부여·결성·홍주·면천·해미·서산·태안·은진·연기·진천·청안·괴산·연풍·청풍·제천·평신 등 19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목천·온양·임천·한산·서천·비인·남포·당진·노성·연산·회덕·옥천·영동·황간·보은·회인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순시하며 공주로부터 연기·청주·목천·천안·온양·신창·예산·대흥·홍주·결성을 거쳐 막 보령현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니, 가을보리는 날로 점점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비로소 푸른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논은 더러 초벌갈이를 시작하였고, 가래질은 이르는 곳마다 한창이었고, 못자리는 간간이 물을 대고 범씨를 뿌렸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0. 1836년(헌종 2) 4월 9일(양력 5월 2일)

錦營啓錄 1책(5b~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03c~403d)

今月初八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翌日寅時至。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而陰雲四塞，餘意尙多是白如乎，久閔之餘，得此甘澍，爲民事萬幸是白乎旆，嗣後形止及各邑所得多寡，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이튿날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에 꼭 끼어서 더 내릴 조짐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1. 1836년(헌종 2) 4월 10일(양력 5월 24일)

錦營啓錄 1책(5b~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03d~403d)

今月初八日午時量始雨，翌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九日寅時以後，乍霏旋止，至同日未時，仍爲開霽是白乎旆，先接近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得二犁，魯城·鎭岑兩邑，得一犁，全義·禮山·扶餘·林川·連山·沃川等六邑，得一鋤。木川·石城·定山·恩津·懷德·燕岐等六邑，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9일 인시 이후로는 잠깐 부슬부슬 내리다가 바로 그치면서 같은 날 미시에 이르러 이내 갓습니다. 먼저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는 2려가 내렸고, 노성·진잠 두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예산·부여·임천·연산·옥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목천·석성·정산·은진·회덕·연기 등 6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왔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2. 1836년(헌종 2) 4월 12일(양력 5월 26일)

錦營啓錄 1책(6a~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03d~404a)

道內農形及今月初八日雨澤, 公州等九邑所得分數, 木川等六邑始雨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 定山得二犁, 恩津·燕岐兩邑, 得一犁, 木川·石城·懷德等三邑, 得一鋤, 前啓外, 鴻山·海美·泰安等三邑, 得二犁, 藍浦·保寧·青陽·大興·洪州·德山·唐津·瑞山·報恩·鎭川等十邑, 得一犁, 天安·牙山·溫陽·新昌·庇仁·沔川·青山·懷仁·文義·淸州·淸安·陰城·槐山等十三邑, 得一鋤, 稷山·平澤兩邑, 浥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秋麴次第入實, 春麴方張胚胎, 而近因嘆乾, 多致枯損, 畝庫間始再翻耕, 注秧付種, 漸次青茁,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已皆立苗是如爲白乎旅. 又於今月十二日子時量始雨, 或霏或灑, 同日卯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五分, 而見今霏微不止是白如乎, 嗣後形止及列邑所得多寡,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8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9개 고을에 내린 양과 목천 등 6개 고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선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고을 중 정산은 2려가 내렸고, 은진·연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석성·회덕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홍산·해미·태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남포·보령·청양·대흥·홍주·덕산·당진·서산·보은·진천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아산·온양·신창·비인·면천·청산·회인·문의·청안·음성·괴산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평택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고, 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말라서 손상되는 것이 많습니다. 논은 그사이에 두벌 갈아엎기를 시작하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점차 푸른 싹이 나왔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2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묘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고, 현재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의 경위 및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3. 1836년(헌종 2) 5월 7일(양력 6월 20일)

錦營啓錄 1책(44a~4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28d~429a)

去月二十九日驟雨，木川等三十六邑所得分數及今月初三日臣營下驟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九日之雨，前啓外，丹陽·永春兩邑，得一犁，忠州·堤川兩邑，得一鋤。今月初三日之雨，忠州·丹陽等三邑，川渠漲滿，淸風·堤川兩邑，得二犁，新昌·懷德·陰城·槐山·淸安·永春等六邑，得一犁，溫陽·靑山·文義·燕岐等四邑，得一鋤。公州·全義·木川·稷山·定山·鎭岑·沃川·永同·黃澗·淸州·鎭川等十一邑浥塵，而兩次驟雨，近峽稍優，洞谷生水之處，秧役方張，庶無愆期之歎是白乎乃，沿野之僅得鋤浥若而處，殆同沃焦，少無霑潤之益，而往往有初不點滴處，一直嘆乾，移插無望是如爲白有知乎，見今夏至已屆，秧節漸晚，雨澤如是慳閼，民事誠極憂悶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의 소나기로 목천 등 36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이번 달 초3일 저의 감영의 소나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단양·영춘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충주·제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충주·단양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청풍·제천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창·회덕·음성·괴산·청안·영춘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온양·청산·문의·연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직산·정산·진잠·옥천·영동·황간·청주·진천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두 차례 소나기로 산골 근처는 조금 넉넉했고, 동네 골짜기에 물이 나는 곳은 모내기가 한창이니 아마도 시기에 늦는 탄식은 없을 것입니다. 물가 들판은 겨우 1서가 내리거나 먼지만 적실 정도여서 거의 타는 가마솔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으니 축축이 적셔주는 이익은 조금도 없었으며, 이따금 애당초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줄곧 매우 가물어서 모내기할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하지가 이미 닳쳤고 모내기철은 점점 늦어지는데 우택은 이처럼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정말로 걱정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4. 1836년(헌종 2) 5월 9일(양력 6월 22일)

錦營啓錄 1책(44b~4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29a~429b)

道內農形, 被旱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耨方張收穫, 春耨漸次向熟, 而枯損偏甚, 間或有全不掛鎌處, 秧苗付種, 在在乾涸, 未得茁茂. 汚下洞畝之如干旱移者, 弱根未着, 嫩葉旋萎, 早黍粟, 和種豆太, 及木花, 土壤堅垆, 鋤耘多廢, 節候向晚, 群情遑急是如爲白遣, 其中天安一邑, 以祈雨祭設行之意, 先爲請報, 故使之不卜日虔誠祈禱爲白乎旆, 今月初八日戌時量始雨, 間間霏灑, 翌日寅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 而濃雲薰風, 餘意頗緊, 繼此一霽, 方切顙祝是白乎所, 嗣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당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수확하고 있고, 봄보리는 점차 익어가는 데 말라 손상된 것이 매우 심하여 간혹 낫을 델 것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모와 무논에 범씨를 뿌린 것은 곳곳에서 메말라 싹이 무성하지 못했고, 지대가 낮은 동네 논으로 약간 일찍 모내기한 곳은 약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린 잎은 바로 시들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땅이 딱딱하여 김매기를 많이 폐지하였습니다. 절기가 늦어지니 백성의 정황은 허둥지둥 다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천안 1개 고을은 기우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먼저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뿌리면서 이튿날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구름은 짙고 바람은 후덥지근하여 더 내릴 조짐이 자못 농후한데, 이후로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5. 1836년(헌종 2) 5월 11일(양력 6월 24일)

錦營啓錄 1책(45a~4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29b~429c)

道內農形, 被旱遑急, 天安一邑, 祈雨祭請報緣由及今月初八日戌時量始雨, 翌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九日寅時以後, 間或霏微, 更無分數之可論, 而至初十日卯時, 仍爲開霽是白如乎,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青陽·懷德等三邑, 得一鋤. 天安·稷山·溫陽·禮山·扶餘·鴻山·林川·韓山·定山·魯城·恩津·連山·鎭岑·沃川·報恩·文義·燕岐·淸州·淸安等十九邑浥塵, 而旱餘甘雨, 乍始旋止, 已移之秧, 別無霑潤之效. 未移之畚, 尚多乾嘆之憂是如爲白遣, 公州·淸州·石城·木川·禮山·稷山·鴻山等七邑, 亦爲請報祈雨祭, 故使之虔誠設行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당한 황급함과 천안 1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한 연유 및 이번 달 초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5푼인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9일 인시 이후로 간혹 부슬부슬 내렸는데 양을 따질 만한 것은 다시 없었으며, 초10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청양·회덕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직산·온양·예산·부여·홍산·임천·한산·정산·노성·은진·연산·진잠·옥천·보은·문의·연기·청주·청안 등 1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뭄 끝에 단비가 잠깐 내리다가 바로 그쳐서 이미 모내기한 것은 별로 축축이 적셔주는 효과가 없었고, 모내기 못한 논은 아직도 가뭄 걱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공주·청주·석성·목천·예산·직산·홍산 등 7개 고을은 또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6. 1836년(헌종 2) 5월 12일(양력 6월 25일)

錦營啓錄 1책(45b~4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29c~429d)

道內天安等八邑祈雨祭請報緣由及今月初八日公州等二十二邑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忠州·陰城·青山·黃澗·新昌等五邑， 得一鋤。 全義·牙山·洪州·大興·唐津·永同等六邑， 沍塵是如爲白乎旆， 祈雨祭段， 前此請報中， 天安今月十一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報恩·新昌·全義·定山等四邑， 亦爲次第請報， 故使之觀勢設行爲白乎旆， 今月十一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翌日卯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 而見今同雲四低， 霏微不止， 繼此周洽， 方切顙祝是白乎所，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8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한 연유 및 이번 달 초8일의 공주 등 22개 고을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충주·음성·청산·황간·신창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의·아산·황주·대흥·당진·영동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이에 앞서 요청한 보고 가운데 천안은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했다고 하며, 보은·신창·전의·정산 등 4개 고을도 또한 차례로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를 살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달 11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 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고, 현재 먹구름이 사방에 깔린 채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두루 흠뻑 적시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7. 1836년(헌종 2) 5월 14일(양력 6월 27일)

錦營啓錄 1책(45b~4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29d~430a)

道內天安等十二邑，請報祈雨祭，而天安今月十一日爲始設行緣由及今月十一日酉時量始雨，翌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十二日卯時以後，間間霏灑，十三日寅時至，測雨器水深，又爲四分，而乍陰乍陽，仍爲開霽是如乎，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燕岐等三邑，得一犁，天安·平澤·牙山·禮山·靑陽·洪州·德山·扶餘·林川·庇仁·保寧·恩津·連山·淸州·稷山等十五邑，得一鋤，而田種之惱旱焦枯者，少有霑潤之效，畚庫之仰壟高燥者，尙無移插之望是如爲白遣，全義·木川·溫陽·大興·鴻山·石城·海美·韓山·魯城·鎭岑·永同等十一邑，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乎旆，祈雨祭段，前此請報邑中，木川今月十二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溫陽·沃川·燕岐等三邑，亦爲次第請報，故使之觀勢設行爲白乎旆，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12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는데, 천안은 이번 달 11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 및 이번 달 11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2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13일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은 또 4푼이었습니다.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이내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연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평택·아산·예산·청양·홍주·덕산·부여·임천·비안·보령·은진·연산·청주·직산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는데, 가뭄에 시달려 바짝 말라가던 밭곡식은 조금 촉촉이 젖는 효과가 있었고, 높고 메마른 곳의 논은 아직도 옮겨 심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전의·목천·온양·대흥·홍산·석성·해미·한산·노성·진잠·영동 등 11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왔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이에 앞서 요청하는 보고를 한 고을 가운데 목천은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했다고 하고, 온양·옥천·연기 등 3개 고을도 또한 차례로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를 살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8. 1836년(헌종 2) 5월 15일(양력 6월 28일)

錦營啓錄 1책(46b~4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0a~430b)

道內天安等十五邑祈雨祭, 次第設行形止及今月十一日雨澤, 公州等三邑, 得一犁, 天安等十五邑, 得一鋤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鎭岑·懷德·淸安等三邑, 得一犁, 木川·鴻山·韓山·魯城·泰安·舒川·藍浦·結城·沃川·文義·鎭川·槐山·延豐·平薪等十四邑鎭, 得一鋤. 全義·溫陽·大興·海美·石城·永同·瑞山·懷仁等八邑涸塵, 而若其犁雨所得處, 萎枯之田種, 雖有滋潤之益, 乾涸之畝庫, 尙無移插之望, 僅得鋤涸之邑, 便是焦釜點沃. 望覓民情, 轉益遑汲是如爲白乎旆, 祈雨祭段, 前此請報邑中, 石城十三日爲始設行, 淸州十四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大興·牙山·魯城·韓山·德山等五邑, 亦爲次第請報, 故使之觀勢設行爲白乎旆, 今月十五日丑時量始雨, 或霍或灑, 同日辰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九分, 而見今同雲熏風, 霏微不止, 將有優渥之望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1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경위 및 이번 달 11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린 연유를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진잠·회덕·청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홍산·한산·노성·태안·서천·남포·결성·옥천·문의·진천·괴산·연풍·평신 등 1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전의·온양·대흥·해미·석성·영동·서산·회인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려의 비가 내린 곳은 시들어 마른 밭곡식은 비록 촉촉이 젖는 이로움이 있으나, 메마른 논은 아직도 모내기할 가망이 없습니다. 겨우 1서가 내리거나 먼지만 적실 정도인 고을은 바로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격이어서 비를 바라는 백성의 사정은 갈수록 허둥지둥 다급하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이에 앞서 요청하는 보고를 한 고을 가운데 석성은 13일부터 시행하였고, 청주는 14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대흥·아산·노성·한산·덕산 등 5개 고을도 또한 차례로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기에 때문에 형세를 살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달 15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입니다. 현재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후덥지근하며 부슬 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으니, 앞으로 넉넉하게 비가 내릴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9. 1836년(헌종 2) 5월 17일(양력 6월 30일)

錦營啓錄 1책(47a~47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0b~430d)

道內天安等二十邑祈雨祭, 次第請報設行緣由及今月十五日丑時量始雨, 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同日辰時以後, 連爲霏灑, 至十六日辰時乃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五分. 竝計前後, 合爲四寸四分是白乎脉,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定山·石城·魯城·淸州等五邑, 川渠漲滿. 全義·木川·天安·稷山·牙山·溫陽·禮山·鴻山·結城·靑陽·大興·洪州·德山·扶餘·林川·庇仁·恩津·連山·鎭岑·懷德·燕岐等二十一邑, 先以始雨形止報來, 而第以臣營下所見言之, 高低幾皆周洽, 遠近想必均霑, 秧節不至太晚, 民事誠爲萬幸. 發倉助糧, 勸隣借牛, 隨處董飭, 亟圖畢移之意, 另加申飭於列邑爲白乎脉, 祈雨祭段, 前已設行邑中, 石城·淸州兩邑, 得雨之後, 還爲停止, 請報邑中, 公州·定山·魯城等三邑, 仍爲停止, 禮山今月十四日爲始設行, 全義·溫陽·燕岐等三邑, 十五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待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20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요청하는 보고를 하고 시행한 경위 및 이번 달 15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9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진시 이후로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16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5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4치 4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석성·노성·청주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천안·직산·아산·온양·예산·홍산·결성·청양·대흥·홍주·덕산·부여·임천·비인·은진·연산·진잠·회덕·연기 등 21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거의 다 두루 흠족하니, 먼 곳과 가까운 곳도 분명히 골고루 적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내기철이 너무 늦지 않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창고를 열어 식량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소를 빌리도록 권장하는 일을 곳곳마다 감독하고 단단히 지시하여 어서 모내기를 마치도록 도모하라는 내용으로 여러 고을에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이미 시행한 고을 가운데 석성·청주 2개 고을은 비가 내린 뒤 도로 중지하였고,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한 고을 가운데 공주·정산·노성 등 3개 고을은 그대로 중지하였습니다. 예산은 이번 달 14일부터 시행하였고, 전의·온양·연기 등 3개 고을은 15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0. 1836년(헌종 2) 5월 21일(양력 7월 4일)

錦營啓錄 1책(51a~5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2c~432d)

道內天安等二十邑祈雨祭, 次第設行, 而其中石城等五邑鎮停止緣由及今月十五日雨澤, 公州等五邑, 川渠漲滿. 全義等二十一邑, 先以始雨報來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 鴻山·德山·庇仁·恩津·連山·鎮岑·懷德·燕岐等八邑, 川渠漲滿. 全義·青陽·大興·洪州·扶餘·林川·結城等七邑, 得二犁, 木川·天安·稷山·牙山·溫陽·禮山等六邑, 得一犁, 前啓外, 舒川·沃川·永同·黃澗·青山·報恩·懷仁·文義·槐山·延豐·淸風·丹陽·永春等十三邑, 川渠漲滿. 瑞山·海美·新昌·韓山·藍浦·保寧·鎮川·忠州·淸安·陰城·堤川等十一邑, 得二犁, 平澤·沔川·唐津·泰安·平薪等五邑鎮, 得一犁. 川渠諸邑, 雖有優洽之喜, 而若其僅得一犁處, 則汚下之沓, 頗有灌溉之益, 高燥之地, 尙無移插之望是如爲白有在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20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하고, 그 가운데 석성 등 5개 고을과 군영에서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 및 이번 달 15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전의 등 21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고해 온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고을 가운데 홍산·덕산·비인·은진·연산·진잠·회덕·연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청양·대흥·홍주·부여·임천·결성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직산·아산·온양·예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천·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괴산·연풍·청풍·단양·영춘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산·해미·신창·한산·남포·보령·진천·충주·청안·음성·제천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택·면천·당진·태안·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습니다. 여러 고을의 시내와 도랑은 비록 기쁘게도 넉넉하지만, 겨우 1려가 내린 곳의 경우, 지대가 낮은 곳의 논은 자못 물을 대는 이득이 있으나 높고 메마른 곳은 아직도 옮겨 심을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1. 1836년(헌종 2) 5월 24일(양력 7월 7일)

錦營啓錄 1책(53b~5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4a~434b)

今月十五日雨澤, 公州等五十五邑鎭所得分數及祈雨祭, 天安等五邑, 連爲設行. 牙山今月十八日爲始設行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今月二十日臣營下所見, 則陰雲密布, 若將雨下, 風起雲散, 仍卽杲曝是白加尼, 伊日各邑間有得雨報來處, 木川·洪州·海美·延豐等四邑, 得一犁. 鴻山·懷德·庇仁·平澤等四邑, 得一鋤, 而其中木川祈雨祭, 仍爲停止是如爲白乎旆, 瑞山·沔川兩邑段, 十五日雨澤, 較他尤遜, 原野高燥之地, 尙無移秧之望. 故祈雨祭一邊請報, 直爲設行, 而瑞山今月二十日設行, 沔川二十一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天安·禮山·稷山·溫陽·牙山等五邑, 祈雨祭連爲設行是如爲白有在乎, 見今初庚已屆, 秧節太晚, 而沿野諸邑, 尙舉圭壁, 言念民事, 萬萬悶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55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및 기우제를 천안 등 5개 고을에서 연달아 시행하고, 아산은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했다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저의 감영으로 보자면 먹구름이 뽕뽕하게 퍼져 있어서 앞으로 비가 내릴 듯하였는데 바람이 불자 구름은 흩어지고 이내 즉시 햇볕이 쨍쨍하였습니다. 그날 각 고을은 그사이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온 곳이 있었습니다. 목천·홍주·해미·연풍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홍산·회덕·비인·평택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는데, 그 가운데 목천은 기우제를 그대로 중지했다고 합니다. 서산·면천 2개 고을의 경우 15일의 우택은 다른 고을에 비해 유난히 적어서 들판이나 높고 메마른 땅은 아직도 모내기할 가망이 없으므로 기우제를 지내겠다고 한편으로 요청하는 보고를 하고 곧장 시행하였습니다. 서산은 이번 달 20일에 시행하고, 면천은 21일부터 시행하고, 천안·예산·직산·온양·아산 등 5개 고을은 기우제를 연달아 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초복이 이미 닳쳤으니 모내기철이 너무 늦는데, 물가나 들판의 여러 고을은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위와 같이 긴급 보고합니다.

0062. 1836년(헌종 2) 5월 28일(양력 7월 11일)

錦營啓錄 1책(58a~5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6b~436c)

道內天安等五邑祈雨祭, 連爲設行, 瑞山·沔川兩邑次第設行緣由及今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 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同日卯時以後, 陰翳熏蒸是白如可, 二十七日丑時量, 更爲始雨, 或霏或灑, 至同日辰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六分. 竝計前後, 合爲二寸三分是白乎旃, 續接各邑所報, 則二十六日之雨, 懷德得一犁, 公州·全義·定山·青陽·扶餘·鴻山·韓山·魯城·燕岐·文義·永同等十一邑, 得一犁. 木川·天安·牙山·禮山·大興·洪州·德山·石城·林川·藍浦·恩津·連山·清州·報恩等十四邑浥塵, 二十七日之雨, 公州·木川·扶餘·石城·林川·文義·魯城·燕岐·清州等九邑, 得一犁. 全義得一鋤是如爲白遣, 祈雨祭, 上項天安等七邑, 連爲設行, 新昌一邑, 前已請報, 而十五日雨澤後, 姑爲停止是白加尼, 雨旣不足, 秧多未移, 今月二十五日爲始設行是如爲白臥乎所, 今番兩次得雨, 營下所見, 則未始不優洽, 而祈雨諸邑, 尙此慳閔, 節候太晚, 民事可悶是白如乎, 向後形止, 待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5개 고을은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고 서산·면천 2개 고을은 차례로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 및 이번 달 26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7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묘시 이후로 구름이 짙고 후덥지근하더니 27일 축시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6푼입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모두 2치 3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6일 비로 회덕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정산·청양·부여·홍산·한산·노성·연기·문의·영동 등 11개 고을은 1려¹가 내렸고, 목천·천안·아산·예산·대흥·홍주·덕산·석성·임천·남포·은진·연산·청주·보은 등 1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7일의 비로 공주·목천·부여·석성·임천·문의·노성·연기·청주 등 9개 고을

1 원문은 犁이지만 문맥상 鋤의 오자로 보인다.

은 1려가 내렸고, 전의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위 향의 천안 등 7개 고을은 연이어 시행하였고, 신창 1개 고을은 앞서 이미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다가 15일 우택 뒤로 일단 중지하였는데, 비가 이미 부족하여 모내기하지 못한 곳이 많아서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두 차례 비가 내렸는데 감영에서 본 것으로는 애당초 넉넉하게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우제를 시행한 여러 고을은 아직도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절기도 너무 늦어져서 백성들의 사정이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3. 1836년(헌종 2) 5월 30일(양력 7월 13일)

錦營啓錄 1책(58b~5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6c~436d)

道內天安等七邑祈雨祭, 連爲設行, 新昌今月二十五日爲始設行緣由及今月二十六日七日各邑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二十六日之雨, 前啓外, 瑞山·懷仁兩邑得一犁, 泰安·結城·鎭岑·靑山等四邑, 得一鋤, 新昌·海美·舒川·庇仁·保寧等五邑浥塵, 二十七日之雨, 前啓外, 恩津·連山·報恩等三邑, 川渠漲滿, 牙山·瑞山·定山·庇仁·保寧·結城等六邑, 得二犁, 天安·平澤·新昌·禮山·大興·洪州·韓山·舒川·鴻山·懷仁·靑安·陰城·丹陽等十三邑, 得一犁, 稷山·溫陽·靑陽·唐津·海美·泰安·槐山等七邑, 得一鋤, 沔川浥塵是如爲白遣, 祈雨祭段, 牙山·瑞山兩邑, 今番得雨後, 仍爲停止. 前啓外, 唐津又爲請報, 今月二十七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二十九日卯時量始雨, 或霖或灑, 至翌日寅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如乎, 今番則祈雨諸邑, 果皆均霑是白乎喻, 待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7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고 신창은 이번 달 25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 및 이번 달 26일·27일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회인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안·결성·진잠·청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신창·해미·서천·비인·보령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은진·연산·보은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서산·정산·비인·보령·결성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평택·신창·예산·대흥·홍주·한산·서천·홍산·회인·청안·음성·단양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온양·청양·당진·해미·태안·괴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면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아산·서산 2개 고을은 이번에 비가 내린 뒤로 이내 중지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당진은 또 요청하는 보고를 하고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2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이번에 기우제를 지낸 여러 고을은 정말로 모두 비가 골고루 적셨는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4. 1836년(헌종 2) 6월 3일(양력 7월 16일)

錦營啓錄 1책(61b~6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8a~438c)

去月二十七日公州等四十邑雨澤及二十九日卯時量始雨，至翌日寅時，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三十日寅時以後，或陰或陽是白如可，自同日寅時，更爲霏灑，至今月初一日丑時乃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一寸。竝計前後，合爲二寸五分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七日之雨，前啓外，永同·黃澗兩邑，川渠漲滿，沃川·懷德·鎮岑·連山·魯城·庇仁等五邑，川渠漲滿，大興得二犁，公州·全義·禮山·槐山·清安·石城·懷仁·報恩·新昌·韓山·舒川·保寧·文義等十三邑，得一犁，天安·木川·牙山·定山·青陽·扶餘·林川·清州·燕岐等九邑，得一鋤。三十日之雨，全義·連山·魯城等三邑，川渠漲滿，報恩·燕岐兩邑，得二犁，公州·牙山·新昌·溫陽·禮山·石城·懷仁·文義·扶餘等九邑，得一犁，而新昌·禮山兩邑祈雨祭，仍爲停止是如爲白乎旆。農形段，春耨已皆登場，付種乾播，方張苗茂，早移秧漸次初耘，晚移秧方始向青，高燥未移處，得雨後間或移插，而節候太晚，難期食實，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次第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間始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近日雨澤，非不頻仍，而祈雨諸處，終欠優洽，未移之畓，殆過什之三四，而見今中庚將迫，更無移插之望。言念民事，預切憂悶。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에 공주 등 40개 고을의 우택 및 2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30일 인시 이후로 더러 흐리거나 더러 햇별이 나더니 같은 날 인시부터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였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2치 5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이외에 영동·황간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옥천·회덕·진잠·진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남포·연풍·충주·청풍·제천·영춘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29일의 비로 회덕·진잠·연산·노성·비인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대흥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예산·괴산·청안·석성·회인·보은·신창·한산·서천·보령·문의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목천·아산·정산·청양·부여·임천·청주·연기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30일의 비로 전의·연산·노성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보은·연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아산·신창·온양·예산·석성·회인·문의·부여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신창·예산 2개 고을의 기우제는 이내 중지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싹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일찍 모내기한 것은 점차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막 푸르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메마른 곳에 아직 모내기 하지 못한 곳은 비가 내린 뒤 간혹 옮겨 심지만 절기가 너무 늦어서 알맹이 먹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김매기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그사이에 싹이 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즈음 우택이 빈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우제를 지낸 여러 곳은 끝내 비가 넉넉하게 흠족하지 않아서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논이 거의 10분의 3, 4를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복이 닥쳐오는데 다시는 옮겨 심을 가망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미리 절실하게 걱정되고 근심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5. 1836년(헌종 2) 6월 9일(양력 7월 22일)

錦營啓錄 1책(62a~63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8c~439a)

去月三十日全義等三十四邑雨澤及今月初四日卯時量又雨, 其翌日寅時, 測雨器水深, 爲五寸六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初五日寅時以後, 或霏或止, 乍陰乍暘是白如可, 自初七日申時, 更爲驟霏, 至酉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四分, 竝計前後, 合爲七寸. 同日酉時以後, 間間霏微, 連爲陰翳. 續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之雨, 前啓外, 瑞山·延豐·淸風·堤川·丹陽等五邑, 川渠漲滿, 鴻山得二犁, 槐山·平薪兩邑鎮, 得一犁, 稷山·舒川·庇仁·藍浦·保寧等五邑, 得一鋤. 今月初四日之雨, 公州·全義·木川·稷山·平澤·禮山·定山·洪州·石城·扶餘·鴻山·林川·韓山·瑞山·舒川·庇仁·保寧·結城·魯城·恩津·連山·沃川·永同·燕岐·淸州·忠州·槐山·延豐·報恩·懷仁·文義等三十一邑, 川渠漲滿. 天安·溫陽·新昌·青陽·海美·平薪等六邑鎮, 得二犁, 牙山·大興·唐津·淸安等四邑, 得一犁, 而其中公州·定山·石城·扶餘·林川·庇仁·保寧·魯城·恩津·連山·燕岐·忠州等十二邑, 沿浦傍川之地, 多有潰決沈墊之患. 稷山·溫陽兩邑祈雨祭, 亦皆停止, 而若其高燥未移處, 雖趁今移秧, 節候太晚, 而幸得嗣後之雨暘調適, 則尙冀桑榆之收, 故第令董飭移插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30일에 전의 등 34개 고을의 우택 및 이번 달 초4일 묘시쯤 또 비가 내렸는데 이튿날 인시에 측우기 수심이 5치 6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5일 인시 이후로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그치다가 잠깐씩 흐리거나 햇볕이 나더니 초7일 신시부터 다시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4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7치입니다. 같은 날 유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고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이외에 서산·연풍·청풍·제천·단양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산은 2려가 내렸고, 괴산·평신 2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직산·서천·비인·남포·보령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직산·평택·예산·정산·홍주·석성·부여·홍산·임천·한

산·서산·서천·비인·보령·결성·노성·은진·연산·옥천·영동·연기·청주·충주·괴산·연풍·보은·회인·문의 등 3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온양·신창·청양·해미·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아산·대흥·당진·청안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는데, 그 가운데 공주·정산·석성·부여·임천·비인·보령·노성·은진·연산·연기·충주 등 12개 고을은 포구나 시냇가 지역은 독이 터지고 물에 잠길 근심이 많습니다. 직산·온양 2개 고을은 기우제를 또한 모두 중지했습니다.

높고 메마른 곳에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곳은 비록 지금 재빨리 모내기해도 절기가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후 비와 햇볕이 적절하다면 여전히 수확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옮겨심기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6. 1836년(헌종 2) 6월 11일(양력 7월 24일)

錦營啓錄 1책(63a~63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9a~439b)

今月初四日公州等四十一邑鎮雨澤及初八日開霽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初四日之雨，前啓外，藍浦·鎮岑·黃澗·青山·鎮川·陰城·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邑，川渠漲滿，德山·沔川·泰安·懷德等四邑，得二犁，而其中·青山·陰城·淸風·堤川等四邑，依山傍川處，多有潰決汰覆之患。初七日之雨，報恩·燕岐兩邑，川渠漲滿，天安·全義兩邑，得二犁，公州·溫陽·定山·青陽·石城·扶餘·舒川·魯城·連山·鎮岑·懷仁·文義等十二邑，得一犁，韓山·德山·忠州·槐山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初十日酉時量始雨，一直霑灑，翌日卯時至。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而見今霑灑不止，將有成霖之意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에 공주 등 41개 고을과 군영의 우택 및 초8일에 개인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남포·진잠·황간·청산·진천·음성·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덕산·면천·태안·회덕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는데, 그 가운데 청산·음성·청풍·제천 등 4개 고을은 산자락이나 시냇가 지역은 독이 터지거나 사태로 덮일 근심이 많습니다. 초7일의 비로 보은·연기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전의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온양·정산·청양·석성·부여·서천·노성·연산·진잠·회인·문의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한산·덕산·충주·괴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10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렸는데 이튿날 묘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습니다. 현재도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는데 장차 장마가 될 조짐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7. 1836년(헌종 2) 6월 24일(양력 8월 6일)

錦營啓錄 1책(64b~6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39c~439d)

道內農形, 水災極備之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付種乾播, 漸次茁茂, 早移秧已盡再鋤, 晚移秧方張初耘, 而最晚移者未卽着根, 罕見暘曝, 尙帶萎黃, 食實無望, 早黍粟間或胚胎, 和種豆太及木花, 方始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次第初除草, 而田畚之水害最甚處, 潰決汰落, 全無形址, 各穀之脆軟不茁者, 沈墊消澌, 已判全棄. 至於田種, 則鋤耘愆期, 蕪穢居多, 而其中木花, 最忌霖濕, 尤無成就之望是如爲白遣, 前啓中石城等五邑, 愆蠶蹲縮之災, 尙未寢息, 而全義·沔川·瑞山·泰安·藍浦·鎭岑·懷德·懷仁等八邑, 亦多此患. 無論早移晚稻, 受損非細是如爲白有臥乎所, 嗣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으로 그지없이 갖가지 수재를 당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점차 싹이 무성해지고, 일찍 모내기 한 것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햇볕을 쬔 것이 드물어서 여전히 누렇게 시든 빛을 띠어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을 뱉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합니다. 수해가 가장 심한 논밭은 둑이 터지거나 사태가 나서 전혀 형태가 없고, 각종 곡식 중 무르고 연하여 싹이 자라지 않은 것들은 물에 잠기어 녹아 없어져서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판가름했습니다. 밭곡식의 경우, 김매기 시기가 늦어서 잡초만 무성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목화는 장마철 습기를 가장 꺼리는데 더욱 여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석성 등 5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재앙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전의·면천·서산·태안·남포·진잠·회덕·회인 등 8개 고을도 또한 이러한 근심이 많고, 일찍 모내기하거나 늦벼를 따질 것 없이 손상을 입은 것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위와 같이 긴급 보고합니다.

0068. 1836년(헌종 2) 7월 15일(양력 8월 26일)

錦營啓錄 1책(65a~6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40a~440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次第發穗, 中稻方始胚胎, 晚稻漸次茁茂, 而最晚移者, 矮短貼地, 成就無望. 早黍粟及和種豆太, 間始入實, 木花方張結穎, 根耕豆太及晚黍粟, 幾盡除草, 而雨澤久闕, 烈暘連曝, 田種畝稼, 舉皆萎黃. 此卽鋤後之旱, 農家之所忌, 而重以獐風連吹, 涼意隨生, 各穀之方茁者, 披靡挨撲, 發穗者, 白颯徑枯, 無論峽野, 所見愁慘. 其中木花, 始因暎乾, 而立苗稀疏, 繼值霖潦, 而花房腐爛, 節晚後若干結穎者, 又被風損, 尤不成樣是如爲白遣, 前啓中石城等三十邑, 愆蠶蹲縮之患, 一向熾蔓, 種種有全棄處. 沿海諸邑, 去年海溢處之間或耕插, 而鹹氣深透, 秧根腐損, 已無食實之望是如爲白有臥乎所, 旱潦相仍, 災沴迭發, 瘠稼不一, 民事切悶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並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는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점차 싹이 무성해집니다.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찢막하게 땅에 달라붙어 여물 가망이 없습니다.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김매기 하였는데, 우택이 오랫동안 없었고 뜨거운 햇볕이 연이어 내리쬘어 밭곡식과 논곡식이 대부분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김매기 한 뒤의 가뭄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고, 게다가 사나운 바람까지 연이어 불며 서늘한 기운이 생기자 막 싹이 난 각종 곡식은 쓰러지고 뭉개졌으며, 이삭이 뻗 것들도 하얗게 시들고 지레 말라 죽어서 산골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보이는 것은 처참합니다. 그 가운데 목화는 처음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듕성듕성 싹이 돋더니 이어서 장마를 만나 화방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절기가 늦어진 뒤로 다래를 맺은 것도 또 바람에 손상을 입어 더욱 모양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석성 등 30개 고을은 건잠준축 걱정이 줄곧 세차게 번지고 있어서 이따금 전부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바닷가 여러 고을은 작년에 해일이 일어난 곳에 간혹 땅을

갈아 심었으나 소금기가 깊이 침투하여 모 뿌리가 썩어서 이미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가뭄과 장마가 서로 이어지고 재해와 전염병이 번갈아 발생하여 농사를 괴롭히는 것이 한둘이 아니므로 백성들의 사정이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9. 1836년(헌종 2) 7월 21일(양력 9월 1일)

錦營啓錄 1책(65b~6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40b~440c)

今月十七日寅時量，臣營下則始雨霏微是如可，仍卽開霽，初無分數之可論是白遣，伊日驟雨，丹陽·永春得二犁，懷德·沃川·黃澗·報恩·懷仁·淸安·槐山·延豐·淸風等九邑，得一犁。鎭岑·永同·靑山·文義·陰城·忠州·堤川·平薪等八邑鎭，得一鋤，恩津·燕岐·淸州·鎭川等四邑，浥塵是如報來爲白有臥乎所，跨朔亢旱，望霓方切，而不過若而邑，乍雨旋止，僅得霑潤，外他諸邑，俱無所報。言念民事，誠切憂悶是白如乎，向後農形，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 인시쯤 저의 감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내 개었고 애당초 따질만한 양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소나기로 단양·영춘은 2려가 내렸고, 회덕·옥천·황간·보은·회인·청안·괴산·연풍·청풍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진잠·영동·청산·문의·음성·충주·제천·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은진·연기·청주·진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한 달에 걸쳐 가물어서 비가 내리기를 마야흐로 간절히 바랐는데 불과 몇몇 고을만 잠깐 비가 오다가 곧바로 그쳐서 겨우 적시는 정도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0. 1836년(헌종 2) 8월 24일(양력 10월 4일)

錦營啓錄 1책(70a~7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42c~443a)

臣以左道各邑災實巡審事, 今月十九日離發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行自公州, 歷燕岐·清州·鎭川·陰城·忠州, 方到槐山郡, 而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畚穀段, 早稻方始刈取, 而以其成就差早, 瘠損較歇之故, 間或有僅免歉荒處. 早晚稻之被災不甚者, 次第向熟, 而發穗前後, 一直惱旱, 莖葉既甚蕭索, 顆粒從而零星, 雖有如干食實, 而率以常年, 不啻減半, 若其最晚移之被災極備, 未茁旋縮, 不發徑枯者, 在在皆然, 而雖或有千百一發穗者, 亦皆直立不垂, 枯颯殆盡, 未霜之前, 已無餘望. 至於原野高燥畚未移之災, 依山傍川處汰覆之患, 幾乎無坪不有, 亦多全庫永棄是白遣, 田穀段, 黍粟豆太, 無論早晚種, 已判大無, 往往有全不掛鎌者, 與右沿所見, 無甚異同. 至若木花, 則左峽素稱產綿之鄉, 高秋此政吐絮之時, 而終日經過, 尙未見十畝之一絮, 似此綿歉, 挽古所無是白乎跡, 溫陽一邑, 今月二十日雨雹驟下, 田畚各穀, 摧折剝落, 受傷不少是如爲白遣, 陰城·忠州·丹陽·永春·堤川·延豐·槐山等七邑, 二十二日夜霜降報來是白如乎, 晚就之穀, 或冀桑榆之收, 而霜信又此太早, 食實尤無其望, 言念民事, 去益愁悶是白乎所, 前路邑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좌도 각 고을의 재해와 결실을 순행하며 살펴볼 일로 이번 달 19일에 출발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공주에서부터 연기·청주·진천·음성·충주를 거쳐 막 괴산군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니, 논곡식의 경우, 올벼는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는데 여물기에 조금 일러서 손상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간혹 흉작에서 겨우 벗어난 곳이 있습니다.

입은 재해가 심하지 않은 올벼와 늦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이삭이 패기 전후로 줄곧 가뭄에 시달려 줄기와 잎은 이미 심하게 오그라들었고 낱알도 따라서 거의 없습니다. 비록 약간 먹을 낱알이 있더라도 대부분 평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늦게 모내기하여 그지없이 갖가지 재해를 당한 벼는 싹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오그라들었고 이삭은 패지 못하고 지레 말라 죽은 것이 곳곳에서 모두 그러했습니다.

비록 더러 수백, 수천 개 중에 하나의 이삭이 팠더라도 또한 모두 곳곳이 선 채로 고개를

수그리지 않고 거의 다 말라 죽었습니다. 아직 서리가 내리기 전인데도 이미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들판과 높고 메마른 논은 모내기하지 못하는 재해가, 산자락이나 시냇가 지역은 사태로 뒤덮일 근심이 없는 들판이 거의 없고, 논 전체가 영구히 버려진 곳 또한 많았습니다. 밭곡식의 경우, 기장·조·콩·팥은 일찍 심었든 늦게 심었든 따질 것 없이 이미 전혀 없는 것으로 판가름하였습니다. 가끔 낫을 댈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있는데, 우도의 주변 고을에서 본 것과 심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목화의 경우 좌도의 산골짜기는 본래 솜이 생산되는 고장으로 알려졌고, 하늘 높은 이 가을철에는 곧 솜을 토해내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지나다녔는데도 10무의 목화밭에 한 송이의 솜조차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솜이 흉년인 것은 예전부터 없던 일입니다. 온양 1개 고을은 이번 달 20일에 우박이 갑자기 쏟아져 논밭의 각종 곡식이 꺾여 부러지고 벗겨져 떨어져 손상을 입은 것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음성·충주·단양·영춘·제천·연풍·괴산 등 7개 고을은 2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늦게 여우는 곡식이나마 더러 거둘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서리 소식이 또 이렇게 너무 이르니 낱알을 먹을 가망이 더욱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나아가는 길의 고을의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1. 1837년(헌종 3) 3월 10일(양력 4월 14일)

錦營啓錄 1책(101b~10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58c~458d)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參以今番巡路所見是白乎則, 秋牟在在敷青, 春牟方張立苗, 築堤修墜, 濬沙出糞, 畚庫鍤役, 次第爲之, 民析于野, 服事頗勤是白乎旆, 今月初八日申時量始雨, 間間霏微, 至初九日酉時, 仍爲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待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하고, 이번에 순행하는 길에 본 것을 참고하건대, 가을보리는 곳곳에서 푸른 빛을 띠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방죽을 쌓고 두둑을 수리하고, 모래를 파내고 거름을 내고, 논에 가래질을 차례로 하는 등 백성들이 들에 나가 자못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9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2. 1837년(헌종 3) 3월 16일(양력 4월 20일)

錦營啓錄 1책(102a~10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58d~458d)

今月初八日申時量始雨，至初九日酉時開霽，測雨器水深爲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全義·定山·恩津·連山·鎭岑·懷德·文義等七邑，得一鉏。公州·青陽·洪州·扶餘·石城·林川·韓山·舒川·保寧·魯城·沃川·青山·報恩·懷仁·燕岐·淸州·淸安·槐山·陰城等十九邑，浥塵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9일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전의·정산·은진·연산·진잠·회덕·문의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청양·홍주·부여·석성·임천·한산·서천·보령·노성·옥천·청산·보은·회인·연기·청주·청안·괴산·음성 등 1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73. 1837년(헌종 3) 3월 22일(양력 4월 26일)

錦營啓錄 1책(102a~102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58d~459a)

今月十八日申時量始雨,二十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二十日卯時以後,連爲霏灑,至二十一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九分.竝計前後,合爲四寸七分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連山·魯城兩邑,川渠漲滿,公州·恩津兩邑,得三犁,平澤·禮山·洪州·保寧·淸州·大興等六邑,得二犁,木川·石城兩邑,得一犁.天安·牙山·溫陽·新昌·定山·沔川·唐津·扶餘·林川·鴻山·韓山·庇仁·鎭岑·懷德·報恩·懷仁·文義·燕岐等十八邑,皆以始雨形止,爲先報來是白如乎,更待列邑所報,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0일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0일 묘시 이후로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진시에 이르러 겹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9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4치 7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산·노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은진 2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평택·예산·홍주·보령·청주·대흥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석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아산·온양·신창·정산·면천·당진·부여·임천·홍산·한산·비인·진잠·회덕·보은·회인·문의·연기 등 18개 고을은 모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다시 여러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4. 1837년(헌종 3) 3월 26일(양력 4월 30일)

錦營啓錄 1책(102b~103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59a~459b)

今月十八日雨澤, 連山等十二邑所得分數及天安等十八邑, 以始雨形止, 先爲報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 鎭岑川渠漲滿. 扶餘·鴻山兩邑, 得三犁, 新昌·定山·林川·庇仁·報恩·燕岐等六邑, 得三犁, 天安·溫陽·唐津·韓山·懷德·懷仁·文義·牙山·沔川等九邑, 得一犁. 前啓外丹陽, 川渠漲滿, 稷山·靑陽·海美·藍浦·沃川·鎭岑·淸安·陰城·槐山·延豐·忠州·結城·全義·永春·平薪等十五邑鎭, 得二犁, 德山·瑞山·泰安·舒川·黃澗·永同·靑山·堤川·淸風等九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二十四日丑時量始雨, 間間霏灑, 至翌日午時, 仍爲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待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의 우택으로 연산 등 12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천안 등 18개 고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온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고을 가운데 진잠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부여·홍산 2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신창·정산·임천·비인·보은·연기 등 6개 고을은 3²려가 내렸고, 천안·온양·당진·한산·회덕·회인·문의·아산·면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단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직산·청양·해미·남포·옥천·진잠·청안·음성·괴산·연풍·충주·결성·전의·영춘·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덕산·서산·태안·서천·황간·영동·청산·제천·청풍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4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2 문맥상 三은 二의 오자로 보인다.

0075. 1837년(헌종 3) 3월 28일(양력 5월 2일)

錦營啓錄 1책(104b~10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0a~460a)

今月二十四日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全義·定山兩邑，得一犁，公州·天安·稷山·靑陽·洪州·庇仁·保寧·連山·懷德·燕岐·海美·瑞山等十三邑，得一鉏。木川·溫陽·新昌·大興·泰安·扶餘·林川·鴻山·魯城·恩津·報恩·懷仁等十二邑，浥塵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二十七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戌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列邑所得，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4일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전의·정산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천안·직산·청양·홍주·비인·보령·연산·회덕·연기·해미·서산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온양·신창·대흥·태안·부여·임천·홍산·노성·은진·보은·회인 등 1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6. 1837년(헌종 3) 3월 30일(양력 5월 4일)

錦營啓錄 1책(105a~10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0b~460c)

道內農形及今月二十四日雨澤，全義等二十七邑所得分數及二十七日雨澤，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二十四日之雨，前啓外，忠州·槐山·延豐·永春·淸風·陰城·黃澗等七邑，得一犁，淸州·淸安·永同·靑山·文義·堤川·丹陽·鎭川·唐津·平薪·等十邑鎭，得一鉏。二十七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忠州·洪州·禮山·定山·海美·藍浦·恩津·連山·沃川等十三邑，得一犁。稷山·溫陽·靑陽·扶餘·林川·鴻山·保寧·結城·鎭岑·懷德·靑山·文義·淸州·鎭川·燕岐等十五邑，得一鉏。平澤·魯城·報恩·懷仁等四邑，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牟漸次向靑，注秧付種，次第爲之，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張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4일의 우택으로 전의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 및 27일의 우택으로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충주·괴산·연풍·영춘·청풍·음성·황간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주·청안·영동·청산·문의·제천·단양·진천·당진·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27일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충주·홍주·예산·정산·해미·남포·은진·연산·옥천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온양·청양·부여·임천·홍산·보령·결성·진잠·회덕·청산·문의·청주·진천·연기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택·노성·보은·회인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러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 뿌리기는 차례로 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7. 1837년(헌종 3) 4월 10일(양력 5월 14일)

錦營啓錄 1책(106b~10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1a~461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方張胚胎, 春牟漸次茁長, 注秧付種, 間始向靑, 早黍粟, 和種豆太及木花, 耕播幾畢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점차 싹이 자라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그사이에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78. 1837년(헌종 3) 4월 20일(양력 5월 24일)

錦營啓錄 1책(107a~10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1a~461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方張發穗, 春牟日益茁茂, 畚庫間始再耕, 注秧付種, 漸次向長, 早黍粟, 和種豆太及木花, 次第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는 나날이 싹이 무성해졌습니다. 논은 그사이에 두벌갈이를 시작하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자라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9. 1837년(헌종 3) 4월 29일(양력 6월 2일)

錦營啓錄 1책(107a~10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1a~461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次第向熟, 春牟方張胚胎, 注秧付種, 漸次茁茂, 早黍粟, 和種豆太及木花, 間或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싹이 점차 무성해졌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0. 1837년(헌종 3) 5월 10일(양력 6월 12일)

錦營啓錄 1책(114a~11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4c~464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方張黃熟, 春牟舉皆發穗, 注秧付種, 漸就茁茂, 而汚下洞畝有水根處, 間或移插, 早黍粟, 和種豆太, 及木花, 次第初除草是白乎矣, 近因雨澤稍闕, 牟麥多有枯損之患, 秧坂或至乾涸之境, 翻耕鉏役, 亦多愆時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 봄보리는 대부분 이삭이 뻗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점 싹이 무성해졌습니다. 지대가 낮은 동네 논과 물이 나는 데가 있는 곳은 간혹 옮겨심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했습니다. 요즈음 우택이 조금 내려 보리·밀은 말라 손상되는 근심이 많고, 못자리는 더러 마르는 지경에 이르렀고, 갈아엎거나 김매기도 또한 제때를 놓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81. 1837년(헌종 3) 5월 12일(양력 6월 14일)

錦營啓錄 1책(114b~11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4d~464d)

今月十一日亥時量始雨，或霏或灑，翌日寅時至，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分，而仍爲開霽是白如乎，旱餘甘澍，乍始旋止，繼此一霽，方切顙祝是白乎所，嗣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이튿날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푼이었고 이내 개였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잠깐 시작했다가 바로 그쳤습니다. 이후로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2. 1837년(헌종 3) 5월 16일(양력 6월 18일)

錦營啓錄 1책(114b~11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4d~465a)

今月十一日亥時量始雨，翌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扶餘·魯城·燕岐·鴻山·韓山·懷德·保寧·結城等十一邑，浥塵而止是如爲白有臥乎所，久旱渴望之餘，乍雨旋止，一直杲曝，田穀漸多枯損，畚庫舉皆乾涸，而見今夏至迫近，秧節漸晚，言念民事，萬萬憂悶是白如乎，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1일 해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부여·노성·연가·홍산·한산·회덕·보령·결성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망하던 끝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바로 그치고 줄곧 햇볕이 쨍쨍 내리쬘어 밭곡식은 점차 말라 손상되는 것이 많고 논은 대부분 메말랐습니다. 현재 하지가 가까이 닳쳤고 모내기철은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3. 1837년(헌종 3) 5월 20일(양력 6월 22일)

錦營啓錄 1책(115a~11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5a~465b)

道內農形，被旱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牟次第刈穫，春牟方張向熟，而無論兩麥，在在枯損，間多全棄處，注秧付種，舉皆乾涸，不得茁茂，甚至龜坼而焦枯。堤汎灌溉處，如干旱移者，弱根未着，嫩葉先萎，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土壤堅硬，鉏耨停廢是如爲白有臥乎所，見今夏至奄屆，亢旱如此，雲霓之望，轉益如渴，圭璧之舉，不容暫緩乙仍于，列邑祈雨祭，不卜日虔誠設行之意，今方發關申飭爲白乎旆，向後形止及各邑行祭日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당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봄보리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보리와 밀은 따질 것 없이 곳곳에서 말라 손상되어 그사이에 전부 포기한 곳도 많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대부분 메말라서 싹이 무성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거북 등처럼 갈라지거나 햇볕에 타서 마르기도 하였습니다. 방죽이나 보에서 물을 대는 곳에 조금 일찍 옮겨 심은 것은 약한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어린 잎은 먼저 시들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땅이 딱딱해져 김매기를 중지하거나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현재 하지가 닳았는데 가뭄이 이와 같으니 비에 대한 바람은 갈수록 더욱 애가 탑니다. 기우제를 거행하는 일은 잠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여러 고을의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금 막 공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기우제 시행 날짜는 보고가 오면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4. 1837년(헌종 3) 5월 25일(양력 6월 27일)

錦營啓錄 1책(115b~11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5b~465c)

道內農形, 被旱渴悶, 列邑祈雨祭, 不卜日虔誠設行之意, 發關申飭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祈雨祭, 鴻山·沃川·永同·槐山等四邑, 今月二十一日爲始設行. 全義·天安·溫陽·禮山·定山·沔川·唐津·瑞山·扶餘·庇仁·懷德·青山·報恩·懷仁·燕岐·淸州等十六邑, 二十二日爲始設行. 公州·稷山·牙山·靑陽·大興·德山·林川·藍浦·魯城·連山·鎭岑·文義·鎭川等十三邑, 二十三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忠州段, 二十一日初次後, 該牧使申在翼就拿次, 二十二日發行, 而祈雨祭, 該倅有故, 則毋得替行, 曾有定式. 故不得已使之姑停是白乎所, 見今夏至已過, 秧節太晚, 而旱氣益肆, 雨意轉邈, 遍舉圭璧, 靈應尙遲, 言念民事, 萬萬切悶. 更觀數日, 臣亦躬行祈禱.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당해 애타고 걱정스러워 여러 고을의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기우제의 경우 홍산·옥천·영동·괴산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하고, 전의·천안·온양·예산·정산·면천·당진·서산·부여·비인·회덕·청산·보은·회인·연기·청주 등 16개 고을은 22일부터 시행하고, 공주·직산·아산·청양·대흥·덕산·임천·남포·노성·연산·진잠·문의·진천 등 13개 고을은 23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충주의 경우는 21일 1차를 지낸 뒤 해당 목사 신재익이 조사받으려고 22일 출발하였는데, 기우제는 해당 수령에게 사정이 있으면 대신 거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일찍이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일단 중지하게 했습니다. 현재 하지를 이미 지났고 모내기철이 너무 늦어졌는데 가뭄의 낌새는 더욱 심해지고 비 내릴 조짐은 도리어 막연합니다. 두루 기우제를 거행했으나 신령의 감응은 아직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절실하게 걱정입니다. 다시 며칠 살펴보다가 저도 또한 몸소 기도하겠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5. 1837년(헌종 3) 5월 26일(양력 6월 28일)

錦營啓錄 1책(116a~11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5c~465d)

道內鴻山等三十四邑祈雨祭，次第設行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祈雨祭前啓外，洪州·淸風·堤川等三邑，今月二十三日爲始設行，平澤·海美·泰安·結城·恩津·陰城等邑，二十四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旆，今月二十六日卯日[時]量始雨，或霏或灑，同日午時至。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而濃雲薰風，將有霈然之意是如乎，久旱渴望之餘，甘澍伊始，繼此優洽，方切顯祝是白乎旆，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홍산 등 34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기우제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홍주·제천·청풍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23일부터 시행하였고, 평택·해미·태안·결성·은진·음성 등 고을은 24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26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다가 같은 날 오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짙고 바람이 후덥지근하여 장차 퍼부를 조짐이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망하던 끝에 단비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후로 넉넉하게 흡족하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6. 1837년(헌종 3) 5월 27일(양력 6월 29일)

錦營啓錄 1책(116b~11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5d~466a)

道內鴻山等四十三邑祈雨祭, 次第設行緣由及今月二十六日卯時量始雨, 同日午時至, 測雨器水深, 爲一寸一分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午時以後, 或霏或灑, 翌日寅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寸二分. 竝計前後, 合爲四寸三分, 而仍爲開霽是白如乎, 亢旱渴望之餘, 得此甘澍, 誠爲萬幸, 而列邑所得, 姑未報來, 焦土枯壤, 未易生水, 而以臣營下近郊見之, 汚下洞沓, 僅可灌溉移秧, 而高燥之地, 姑無移插之望, 繼此一霽, 更切顯祝爲白乎旆, 祈雨祭前啓外, 韓山今月二十四日爲始設行, 黃澗·保寧兩邑, 二十五日爲始設行是如爲白臥乎所, 向後形止及各邑雨澤多寡,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홍산 등 43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 및 이번 달 26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1치 1푼인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시 이후로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2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4치 3푼이었고 이내 개었습니다.

가뭄이 심해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고을에 내린 것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타들어 가고 메말라서 쉽사리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의 감영 가까운 성 밖으로 보자면 지대가 낮은 동네는 겨우 물을 대고 모내기할 수 있으나 높고 메마른 땅은 아직 옮겨심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후로 한차례 퍼붓기를 다시 간절히 빕니다. 기우제는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한산은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하였고, 황간·보령 2개 고을은 25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7. 1837년(헌종 3) 5월 30일(양력 7월 2일)

錦營啓錄 1책(117a~118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6a~466b)

道內農形及今月二十六日雨澤，翌日寅時至，測雨器水深，合爲四寸三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恩津兩邑，得三犁，全義·牙山·禮山·青陽·洪州·唐津·德山·扶餘·石城·鴻山·燕岐等十一邑，得二犁，木川·天安·稷山·平澤·新昌·定山·大興·沔川·海美·泰安·林川·庇仁·藍浦·保寧·結城·魯城·鎭岑·陰城·忠州·懷德·懷仁·沃川·報恩·文義·瑞山·平薪·槐山等二十七邑鎭，得一犁，溫陽·韓山·舒川·連山·青山·清安·延豐等七邑，得一鋤，而若其所得最優處，除非高燥之地，則次次引溉，僅僅移插，至於但止鋤犁之邑，則向萎之苗，雖有滋潤之益，久乾之土，別無添溉之效是如爲白遣，農形段，秋牟已盡刈獲，春牟幾皆黃熟，付種乾播，方張再鋤，洞畚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次第再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間或耕播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中，公州·恩津·牙山·鴻山·燕岐等五邑，得雨雖未優洽，屢舉還涉瀆褻，姑爲停止，前啓外，清安·延豐·丹陽·永春·平薪等五邑鎭，今月二十五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脉，又於今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翌日寅時至，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而見今同雲薰風，尙此霏灑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6일의 우택으로 이튿날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총 4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은진 2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전의·아산·예산·청양·홍주·당진·덕산·부여·석성·홍산·연기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천안·직산·평택·신창·정산·대흥·면천·해미·태안·임천·비인·남포·보령·결성·노성·진잠·음성·충주·회덕·회인·옥천·보은·문의·서산·평산·괴산 등 27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온양·한산·서천·연산·청산·청안·연풍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내린 것이 가장 넉넉한 곳은 높고 메마른 곳을 제외하면 차례로 물을 끌어대어 겨우겨우 옮겨 심었습니다. 단지 1려나 1서에 그친 고을의 경우, 시들어가던 싹이 비록 촉촉하게 젖는 이득은 있으나 오래 메마른 땅이어서 추가로 물을 대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수확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누렇게 익었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동네 논외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은진·아산·홍산·연기 등 5개 고을은 비가 내린 것이 비록 넉넉하게 흡족하지 않았어도 여러 차례 거행하는 것은 도리어 신령을 모독하는 것이어서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청안·연풍·단양·영춘·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먹구름이 끼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면서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8. 1837년(헌종 3) 6월 3일(양력 7월 5일)

錦營啓錄 1책(118a~11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6b~466d)

去月二十六日雨澤, 公州等四十七邑所得分數及二十九日午時量始雨, 翌日寅時<至>, 測雨器水深, 爲三寸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三十日寅時以後, 暫霏旋止, 陰噎熏蒸是白如可, 自今月初一日辰時以後, 連爲霏灑, 間或滂沱, 至初三日丑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五寸三分, 竝計前後, 合爲九寸一分, 而以臣營下所見言之, 溝澮盈溢, 江川汎漲, 有過中之歎, 而尙無快霽之意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之雨, 前啓外, 淸風得二犁, 淸州·鎭川·堤川·丹陽·永春等五邑, 得一犁, 永同·黃澗兩邑, 得一鋤. 二十九日之雨, 洪州·稷山·定山·靑陽·林川·鴻山·結城·海美·瑞山·泰安·大興·魯城等十二邑, 川渠漲滿, 公州·舒川·鎭岑·禮山等四邑, 得二犁, 全義·天安·平澤·牙山·溫陽·庇仁·保寧·懷德·新昌·文義·連山·淸州·槐山·淸安等十四邑, 得二犁. 扶餘·石城·沃川·恩津·懷仁·韓山等六邑, 得一犁. 而淸風·淸州·洪州·稷山·定山·靑陽·林川·結城·海美·瑞山·泰安·大興·魯城·鎭岑·禮山·全義·天安·平澤·溫陽·庇仁·保寧·懷德·連山·槐山·淸安·扶餘等二十六邑, 祈雨祭亦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久旱之餘, 甘霖連降, 高低已皆優渥, 遠近想必周洽. 節候雖云太晚, 秧役不容暫緩乙仍于, 發倉助糧, 勸隣借牛, 隨處董勵, 亟圖畢移之意, 連加申飭於列邑爲白乎旆.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6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47개 고을에 내린 양 및 29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30일 인시 이후로 잠깐 부슬부슬 내리다가 바로 그치고 짙은 구름이 끼고 후덥지근하게 찌더니 이번 달 초1일 진시 이후로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간혹 콕콕 쏟아지더니 초3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5치 3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9치 1푼이었습니다.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도랑물은 차서 넘치고, 강과 시내는 불어나 범람하여 지나치다는 탄식이 있는데 여전히 말끔하게 겹 조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청풍은 2려가 내렸고, 청주·진천·제천·단양·영춘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동·황간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29일의 비로 홍주·직산·정산·청양·임천·홍산·결성·해미·서산·태안·대흥·노성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서천·진잠·예산 등 4개 고을은 2³려가 내렸고, 전의·천안·평택·아산·온양·비인·보령·회덕·신창·문의·연산·청주·괴산·청안 등 1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부여·석성·옥천·은진·회인·한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청풍·청주·홍주·직산·정산·청양·임천·결성·해미·서산·태안·대흥·노성·진잠·예산·전의·천안·평택·온양·비인·보령·회덕·연산·괴산·청안·부여 등 26개 고을은 기우제를 또한 중지했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연이어 내리니 높고 낮은 곳이 이미 모두 넉넉하게 젖었고,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생각건대 분명 두루 흡족할 것입니다. 절기가 비록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모내기는 잠시라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창고를 열어 양식을 돕고 이웃에게 권하여 소를 빌려주도록 가는 곳마다 독려하여 재빨리 모내기를 마치도록 도모하라는 뜻으로 연이어 여러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3 문맥상 二는 三의 오자로 보인다.

0089. 1837년(헌종 3) 6월 10일(양력 7월 12일)

錦營啓錄 1책(120a~120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7c~467d)

道內農形及今月初一日雨澤, 公州等四十三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一日之雨, 前啓外, 大興·報恩·瑞山·泰安·陰城·延豐·淸風·堤川·丹陽·平薪等十邑鎮, 川渠漲滿. 海美·永春兩邑, 得二犁是如爲白乎跡. 農形段, 春牟幾盡刈穫, 付種乾播, 漸次茁長, 早移秧方張初鋤, 晚移秧間始向青, 高燥未移處, 連加董督, 次第移插, 早黍粟, 和種豆太及木花, 已盡再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始立苗是如爲白乎跡, 今月初八日酉時量始雨, 間間霏灑, 初十日寅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五分, 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4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대흥·보은·서산·태안·음성·연풍·청풍·제천·단양·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미·영춘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점차 싹이 자라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그사이에 푸르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메말라 모내기하지 못한 곳은 연이어 독촉하고 감독하여 차례로 옮겨 심,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싹이 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더니 초10일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고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0. 1837년(헌종 3) 6월 14일(양력 7월 16일)

錦營啓錄 1책(120b~12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7d~467d)

今月初八日雨澤, 至初十日寅時, 測雨器水深爲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十日寅時以後, 間間霏灑, 十二日卯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六分, 竝計前後, 合爲一寸一分, 而同日卯時以後, 或陰或陽, 至十四日辰時, 仍爲開霽是白如乎, 續接各邑所報, 則自初八日至十二日之雨, 連山·懷德兩邑, 川渠漲滿. 扶餘·永同·定山·禮山等四邑, 得二犁, 公州·木川·靑陽·大興·德山·海美·結城·魯城·恩津·鎭岑·沃川·報恩·燕岐·槐山等十四邑, 得一犁. 平澤·牙山·溫陽·新昌·洪州·沔川·唐津·林川·鴻山·韓山·庇仁·藍浦·保寧·懷仁·忠州·陰城·延豐等十七邑, 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의 우택이 초10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10일 인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더니 12일 묘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6푼이고, 지금까지 내린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1치 1푼이었는데, 같은 날 묘시 이후로 더러 흐리거나 더러 별이 나다가 14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부터 12일까지의 비로 연산·회덕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부여·영동·정산·예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목천·청양·대흥·덕산·해미·결성·노성·은진·진잠·옥천·보은·연기·괴산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아산·온양·신창·홍주·면천·당진·임천·홍산·한산·비인·남포·보령·회인·충주·음성·연풍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1. 1837년(헌종 3) 6월 20일(양력 7월 22일)

錦營啓錄 1책(125a~12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69d~470a)

道內農形及自今月初八日至十二日雨澤, 連山等三十七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黃澗·靑山·堤川等三邑, 得二犁, 天安·泰安·淸風·永春·平薪·等五邑鎭, 得一犁, 稷山·全義·瑞山·石城·舒川·文義·淸州·鎭川·淸安·丹陽等十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付種乾播, 方張茁茂, 早移秧漸次再鋤, 晚移<之>秧, 間或初鋤, 最晚移方始着根, 而秧不足力不逮, 仍歸未移者, 間多有之. 早黍粟, 和種豆太及晚黍粟, 已盡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8일부터 12일까지의 우택으로 연산 등 3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황간·청산·제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태안·청풍·영춘·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직산·전의·서산·석성·서천·문의·청주·진천·청안·단양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창 싹이 무성해지고 있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점차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가 부족하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결국 모내기하지 못한 것도 간간히 있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2. 1837년(헌종 3) 6월 29일(양력 7월 31일)

錦營啓錄 1책(129b~130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72a~472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付種乾播, 漸就茁茂, 早移秧已盡再鋤, 晚移秧方張初耘, 而最晚移者, 尙帶秧色, 惱旱不茁, 早黍粟方始胚胎, 和種豆太及木花, 間或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次第初除草, 而近因雨澤久闕, 原野高燥之畚, 舉皆乾涸, 晚移之<秧>, 着根未固者, 纔經初鋤者, 漸至萎黃之境. 田種則枯損尤甚, 鋤耘多廢, 民事極爲悶然是如爲白遣, 恩津·連山·韓山·鴻山·燕岐·魯城等六邑, 洞畚早移之秧, 又多愆蠶蹲縮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점점 싹이 무성해졌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아직 어린 모습을 띠고 있는데 가뭄에 시달려 싹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올기장·올조는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묵화는 간혹 꽃이 피었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택이 오랫동안 없어서 들판이나 높고 메마른 지역의 논은 대부분 메말랐고, 늦게 모내기한 벼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한 것과 방금 초벌 김매기를 한 것은 점점 누렇게 시들어가는 지경입니다. 발곡식은 마른 손상이 더욱 심하여 김매기를 많이 그만두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고 하였습니다. 은진·연산·한산·홍산·연기·노성 등 6개 고을은 동네 논에 일찍 모내기한 벼는 또 건잠준축의 근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3. 1837년(헌종 3) 7월 8일(양력 8월 8일)

錦營啓錄 1책(131b~13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73a~473b)

道內農形, 悶旱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五晦六初之數次雨澤, 非不優洽, 而六月旬望以後, 一直亢旱, 川洑舉皆斷流, 汚濕亦就乾涸, 晚移之秧, 未及着根, 仍帶黃色, 貼地經枯, 已歸全棄者, 什居八九. 雖其如干旱移者, 膏澤未霑, 長養失節, 已無成就之望, 而且多蹲縮之患[患]. 田穀則瘠薄之土, 堅垆如石, 鋤耘久停, 蕪穢居多, 而況其晚播根耕, 則弱苗纔萌, 旋即枯損, 甚至有全無穀形者是如, 遑急之報, 一辭同然. 而其中德山·舒川·連山·恩津·魯城·燕岐·大興等七邑, 請行祈雨祭是白如乎, 鋤後之旱, 卽是農家之所最忌, 而移秧之後, 跨朔嘆乾, 重以淒風連次[吹], 浥露不降, 田畚各穀, 日就萎枯. 目下民情, 萬萬渴悶是白乎所, 圭璧之再舉於節晚之後, 雖有可據已例, 而瀆褻甚悚, 在所難愼是白乎矣, 事關爲民, 亦不可以罕例爲拘, 不思彌災之道乙仍于, 上項德山等七邑祈雨祭, 使之不卜日虔誠設行爲白遣, 外他諸邑段置, 隨其緩急, 觀勢設行之意, 發關知委爲白乎旆, 臣亦姑觀數日, 躬行祈禱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5월 그믐부터 6월 초까지 몇 차례 우택은 넉넉하게 흡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6월 10일과 보름 이후로 줄곧 가물어 시내와 보는 대부분 물줄기가 끊겼고 낮거나 습한 곳도 또한 메말라서 늦게 모내기한 모는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누런빛을 띠었고, 땅에 붙어 말라서 이미 전부 포기한 것이 10분의 8, 9나 되었습니다. 비록 약간 일찍 모내기한 것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적셔주지 못하고 자라날 시기를 잃은 탓에 이미 여물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준축의 근심이 많습니다. 밭곡식은 척박한 땅이 돌처럼 단단하여 김매기를 오랫동안 중지하여 잡초만 무성한 것이 많습니다. 더구나 늦게 씨앗을 뿌리거나 그루같이한 것은 연약한 싹이 겨우 움트자마자 바로 즉시 말라 손상되어 심지어 곡식 모양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급하게 보고한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덕산·서천·연산·은진·노성·연기·대흥 등 7개 고을은 기우제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김매기를 한 뒤의 가뭄은 바로 농가에서 가장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내기한 뒤로 한 달에 걸쳐 매우 메마르고 게다가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고 적시는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논밭의 각종 곡식은 날로 시들어 말라가므로 눈앞의 백성들 사정은 매우 매우 애타게 걱정입니다.

절기가 늦어진 뒤에 기우제를 재차 지내는 것은 비록 근거할 만한 이전 사례가 있지만 신령을 모독하는 것이어서 매우 두려워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하는 일이어서 또한 사례가 드물다는 것에 얽매어서 재앙을 없앨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향의 덕산 등 7개 고을의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우, 다급한 정도에 따라 형세를 살펴 시행하라는 뜻을 공문을 보내 알렸습니다. 저도 또한 일단 며칠 살피고 몸소 기도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4. 1837년(헌종 3) 7월 10일(양력 8월 10일)

錦營啓錄 1책(134b~13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74c~474d)

道內農形, 被旱渴悶, 列邑祈雨祭, 使之不卜日設行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再鋤, 而在在乾涸, 難期成就, 晚移者纔移旋萎, 已歸全棄, 早黍粟方始發穗, 和種豆太及木花, 次第起花, 而鋤耘全廢, 枯損居多. 根耕豆太及晚黍粟, 初耘亦多未了, 而弱苗萎黃, 殆無穀形是如爲白遣, 前啓中恩津等六邑愆蠶蹲縮之患, 尙未寢息, 而前啓外, 牙山·沔川·扶餘·石城·林川·舒川·泰安·庇仁等八邑, 亦多此患, 早移稍苗之禾, 受損不少是如爲白乎旆. 今月初八日亥時量, 興雲釀雨, 若將驟霖, 乍霏旋止, 臣營下則別無所得是白加尼, 伊日驟雨, 定山得一鋤, 謹爲解渴. 全義·木川·天安·扶餘·鴻山·魯城·恩津·燕岐·連山等九邑, 涸塵而止, 殆同焦釜點滴, 少無霑潤之益是如爲白遣, 祈雨<祭>段, 魯城·燕岐兩邑, 初九日爲始設行是如爲白臥乎所, 早旣太甚, 節又漸晚, 而一直呆曝, 雨意轉邈. 言念民事, 萬萬渴悶乙仍于, 臣於今<月>十一日躬自禱雨於公州牧社稷壇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당해 매우 애타고 걱정스러워 여러 고을의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시행하라고 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했는데 곳곳에서 메말라 여물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늦게 옮겨 심은 것은 겨우 옮겨 심자마자 바로 시들어서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올기장·올조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묵화는 차례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김매기를 전부 그만두고 말라 손상된 것이 많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초벌 김매기를 또한 많이 마치지 못했고, 어린쌀은 누렇게 시들어 거의 곡식 형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가운데 은진 등 6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고 이외에 아산·면천·부여·석성·임천·서천·태안·비인 등 8개 고을은 또한 이런 근심이 많습니다. 일찍 모내기하여 조금 자란 벼는 받은 손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8일 해시쯤에 구름이 일고 비를 빔어내어 마치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릴 듯하더니 잠깐 부슬부슬 내리다가 바로 그쳤는데, 저의 감영은 별로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날

소나기로 정산은 1서가 내려 겨우 갈증을 해소하였고, 전의·목천·천안·부여·홍산·노성·은진·연기·연산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리고 그쳤으니,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거의 같아서 조금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노성·연기 2개 고을은 초9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가뭄이 이미 너무 심하고 절기도 점점 늦어지는데 줄곧 햇볕은 쨍쨍 내리쬘고 비올 조짐은 도리어 막연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애타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11일에 몸소 공주목 사직단에서 비를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5. 1837년(헌종 3) 7월 13일(양력 8월 13일)

錦營啓錄 1책(135a~13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74d~475b)

臣於今月十一日，躬自禱雨於公州牧社稷壇緣由及定山等十邑，初八日驟雨形止，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又於今月初九日亥時量，一陣驟雨，乍灑旋止。臣營下則別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加尼，續接各邑所報，則伊日驟雨，禮山·平澤兩邑，得二犁，全義·懷仁·忠州·槐山等四邑，得一犁。各穀之枯損全棄者外，俱有蘇醒之望。大興·定山·泰安·淸風·淸安·陰城·青山·平薪·等八邑鎮，得一鋤，僅有目前之解渴，而其中定山則初八日鋤雨之後，又得一鋤，顯有霑潤之益。稷山·木川·牙山·溫陽·新昌·懷德·堤川·延豐·青陽·德山·扶餘·鴻山·保寧·洪州·藍浦·燕岐等十六邑，浥塵而止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外，全義·木川·稷山·溫陽·青陽·洪州·德山·沔川·泰安·石城·扶餘·鴻山·藍浦·連山·鎭岑·懷德·青山·文義·淸州·淸安等二十邑，初十日爲始設行。大興·林川·舒川·結城·恩津·沃川·陰城等七邑，十一日爲始設行，而其中全義段，初九將事之夜，旣得一犁之雨，故姑爲停祭是如爲白有臥乎所，兩次驟雨，亦不均霑。幸得犁雨者，不過若而邑，其外則或但止鋤浥，或初無點滴，而烈暘仍復杲曝，民事轉益遑悶是白乎等以，臣於今十四日，又爲躬禱于公州牧城隍壇計料爲白乎旆，向後形止，續當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이번 달 11일에 공주목 사직단에서 몸소 비를 기도한 연유 및 정산 등 10개 고을은 초8일에 소나기가 내린 경위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초9일 해시쯤에 한바탕 소나기가 잠깐 내리다가 바로 그쳤는데 저희 감영에 내린 양은 별로 따질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소나기로 예산·평택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회인·충주·괴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는데, 각종 곡식은 말라 손상되어 전부 포기한 것 이외는 모두 되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대흥·정산·태안·청풍·청안·음성·청산·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려 겨우 눈앞의 갈증은 해소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산은 초8일에 1서의 비가 내린 뒤에 또 1서가 내려 촉촉이 적셔준 이익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직산·목천·아산·온양·신창·회덕·제천·연풍·청양·덕산·부여·홍산·보령·홍주·

남포·연기 등 1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전의·목천·직산·온양·청양·홍주·덕산·면천·태안·석성·부여·홍산·남포·연산·진잠·회덕·청산·문의·청주·청안 등 20개 고을은 초10일부터 시행하였고, 대흥·임천·서천·결성·은진·옥천·음성 등 7개 고을은 1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의의 경우, 초9일 기우제를 준비하던 밤에 이미 1려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일단 기우제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2차례 소나기도 또한 골고루 적시지 않았지만, 다행히 1려의 비가 내린 곳은 위와 같은 고을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더러 단지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에 그쳤거나 더러 애당초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뜨거운 햇볕이 이내 다시 내리쬘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더욱 다급하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4일에 또 공주목 성황단에서 몸소 기도할 계획입니다. 이후 경위는 마땅히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6. 1837년(헌종 3) 7월 15일(양력 8월 15일)

錦營啓錄 1책(143b~14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79a~479b)

道內魯城等二十九邑, 祈雨祭次第設行, 臣於今月十四日, 又爲躬禱于公州牧城隍壇緣由及禮山等三十邑, 初九日驟雨形止, 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九日驟雨, 前啓外, 瑞山·文義·永春等三邑, 得一鋤, 丹陽泥塵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啓外, 黃潤今月十一日爲始設行, 庇仁·延豐兩邑, 十二日爲始設行. 保寧十三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旆, 今月十四日戌時量始雨, 或灑或霏, 翌日寅時至,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八分, 而見今陰雲不解, 餘意尙多是白如乎, 亢旱渴望之餘, 得此甘霖, 高低幾皆優洽, 遠近想必均霑, 爲民事不勝萬幸, 臣營祈雨祭, 仍爲停止是白乎旆, 向後形止及各邑雨澤,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노성 등 29개 고을은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하였고 저는 이번 달 14일에 또 몸소 공주목 성황단에서 기도한 연유 및 예산 등 30개 고을은 초9일에 소나기가 내린 경위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소나기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문의·영춘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단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황간은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하였고, 비인·연풍 2개 고을은 12일부터 시행하였고, 보령은 13일부터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튿날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현재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더 올 조짐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거의 다 넉넉하게 흡족했고,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생각건대 분명 골고루 적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이라는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의 감영 기우제는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7. 1837년(헌종 3) 7월 18일(양력 8월 18일)

錦營啓錄 1책(144b~14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79c~479d)

今月十四日戌時始雨,翌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而臣營祈雨祭停止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五日寅時以後,陰噎薰蒸是白如可,十七日丑時量又爲始雨,或灑或霖,翌日卯時至,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續接各邑所報,則十四日之雨,鴻山·永同·陰城·黃澗等四邑,川渠漲滿.公州·定山·靑陽·庇仁等三邑,得三犁,木川·平澤·大興·藍浦·結城·洪州·恩津·鎭川·槐山·延豐·報恩等十一邑,得二犁,全義·天安·稷山·牙山·溫陽·新昌·禮山·德山·沔川·唐津·扶餘·林川·韓山·保寧·鎭岑·懷德·沃川·靑山·懷仁·文義·燕岐·靑州·靑安等二十三邑,得一犁.海美·石城·魯城·連山·泰安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中,鴻山·陰城·靑陽·庇仁·木川·大興·藍浦·結城·洪州·延豐·溫陽·靑山·德山·扶餘·林川·保寧·文義·燕岐·靑州·靑安·連山·泰安·黃澗等二十三邑,次第停止.前啓外,永同今月十二日設行,新昌十四日設行,而得雨仍停是如爲白遣,瑞山·平薪兩邑鎭,十三日爲始設行,唐津十四日爲始設行,海美十六日爲始設行是如乙仍于,隨其雨澤所得,詳審農形,量宜停祭,毋或瀆褻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이고 저의 감영의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5일 인시 이후로 짙은 구름이 끼고 후덥지근하게 찌다가 17일 축시쯤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튿날 묘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4일의 비로 홍산·영동·음성·황간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정산·청양·비인 등 4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목천·평택·대흥·남포·결성·홍주·은진·진천·괴산·연풍·보은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덕산·면천·당진·부여·임천·한산·보령·진잠·회덕·옥천·청산·회인·문의·연기·청주·청안 등 2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미·석성·노성·연산·태안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 것 가운데 홍산·음성·청양·비인·목천·대흥·남포·결성·홍주·연풍·온양·청산·덕산·부여·임천·보령·문의·연기·청주·청안·연산·태안·황간 등 23개 고을은 차례로 중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은 이번 달 12일에 시행했고, 신창은 14일에 시행했는데, 비가 내리자 이내 중지했다고 합니다. 서산·신평 2개 고을과 군영은 13일부터 시행하였고, 당진은 14일부터 시행하였고, 해미는 16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우택이 내린 것에 따라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피고 적절하게 기우제를 중지하여 혹시라도 신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8. 1837년(헌종 3) 7월 21일(양력 8월 21일)

錦營啓錄 1책(145a~14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79d~480b)

今月十四日雨澤，鴻山等四十七邑所得分數及十七日丑時始雨，翌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八日卯時以後，或灑或霏，十九日寅時至，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二寸一分。竝計前後，合爲五寸，而同日寅時以後，乍陰乍陽，至二十日午時，始乃開霽是白如乎，續接各邑所報，則十四日之雨，前啓外，忠州·瑞山·舒川·平薪等四邑鎮，得二犁，淸風·堤川·丹陽·永春等四邑，得一犁。十七日之雨，公州·洪川·稷山·平澤·定山·靑陽·石城·魯城·恩津·懷德·淸州等十一邑，川渠漲滿，唐津·泰安·結城·海美·扶餘·林川·舒川·連山·鎭岑·槐山等十邑，得二犁，全義·木川·牙山·禮山·大興·德山·沔川·鴻山·沃川等九邑，得一犁。瑞山·舒川·稷山·石城·魯城·恩津·懷德·唐津·海美·鎭岑·沃川·沔川·平薪等十三邑鎮，祈雨祭亦皆停止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及早黍粟，幾盡發穗，中稻方始胚胎，晚稻漸次茁茂，而最晚移者，惱旱萎黃，成就無望，和種豆太，方張結殼，木花間或結顆，根耕豆太及晚黍粟，次第再除草。而田畝各穀之枯損全棄者，已無可論，而若其被災不甚者，庶有蘇醒之望。恩津等十四邑愆蠶蹲縮之患，亦漸寢息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의 우택으로 홍산 등 47개 고을에 내린 양 및 17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2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8일 묘시 이후로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면서 19일 인시까지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1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5치입니다. 같은 날 인시 이후로 잠깐씩 흐리거나 햇볕이 나더니 20일 오시에 이르러 비로소 이내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충주·서천·평신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청풍·제천·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17일의 비로 공주·홍천·직산·평택·정산·청양·석성·노성·은진·회덕·청주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당진·태안·결성·해미·부여·임천·서천·연산·진잠·

괴산 등 10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아산·예산·대흥·덕산·면천·홍산·옥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산·서천·직산·석성·노성·은진·회덕·당진·해미·진잠·옥천·면천·평신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기우제를 또한 모두 중지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중벼는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점차 싹이 무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가뭄에 시달려 누렇게 시들어서 여물 가망이 없습니다.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꼬투리가 맺고 있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논밭의 각종 곡식 중에 말라 손상되어 전부 포기한 것은 이미 따질 것도 없고, 입은 재해가 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살아날 가망이 있고, 은진 등 14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 또한 점차 그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9. 1837년(헌종 3) 7월 24일(양력 8월 24일)

錦營啓錄 1책(146a~14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80b~480c)

自今月十七日, 至十九日雨澤, 公州等三十邑所得分數, 前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新昌·藍浦·保寧·報恩·懷仁·文義·燕岐·鎭川·淸安·陰城·忠州·延豐·永春等十三邑, 川渠漲滿, 天安·瑞山·淸風·堤川·丹陽·平薪等六邑鎭, 得二犁. 溫陽·韓山·庇仁·永同·黃澗·靑山等六邑, 得一犁是如爲白有在乎, 向後農形, 待邑報,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부터 19일까지의 우택으로 공주 등 3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신창·남포·보령·보은·회인·문의·연기·진천·청안·음성·충주·연풍·영춘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서산·청풍·제천·단양·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온양·한산·비인·영동·황간·청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고을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0. 1837년(헌종 3) 7월 28일(양력 8월 28일)

錦營啓錄 1책(147a~147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80d~480d)

今月二十五日戌時始雨，翌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伊日寅時以後，間間霏灑是白如可，自二十七日丑時，一直霪下，至同日亥時乃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三寸。竝計前後，合爲六寸是白如乎，續接各邑所報，則二十五日之雨，文義·魯城兩邑，川渠漲滿，公州·禮山·燕岐等三邑，得二犁，溫陽·石城·扶餘·鴻山·林川·連山·懷仁等七邑，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待邑報，農形，竝以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5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인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7일 축시부터 줄곧 주룩주룩 내리더니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3치였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6치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5일의 비로 문의·노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예산·연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온양·석성·부여·홍산·임천·연산·회인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고을 보고를 기다려 농사 상황과 아울러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1. 1837년(헌종 3) 8월 1일(양력 8월 31일)

錦營啓錄 1책(148b~14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81c~481d)

去月二十五日七日雨澤，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全義·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大興·洪州·德山·海美·瑞山·鴻山·藍浦·保寧·恩津·永同·報恩·文義·燕岐·淸州·淸安·槐山·延豐等二十五邑，川渠漲滿，依山沿江處，間或有潰決沈墊之患，公州·木川·定山·靑陽·石城·扶餘·魯城·懷德·黃澗·靑山等十一邑，得二犁。林川·舒川兩邑，得一犁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及早黍粟，漸次入實，中稻方張發穗，晚稻及晚黍粟，間或胚胎，和種豆太，幾盡結殼，根耕豆太，方張起花，木花次第結顆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5일·27일의 우택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전의·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대흥·홍주·덕산·해미·서산·홍산·남포·보령·은진·영동·보은·문의·연기·청주·청안·괴산·연풍 등 2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산자락이나 강변 지역은 간혹 터지거나 잠길 근심이 있었습니다. 공주·목천·정산·청양·석성·부여·노성·회덕·황간·청산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임천·서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들고, 중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간혹 알을 났고,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2. 1837년(헌종 3) 8월 11일(양력 9월 10일)

錦營啓錄 1책(149b~149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82a~482a)

道內農形，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早稻及早黍粟，幾盡向熟，中稻間或入實，晚稻及晚黍粟，方張發穗，而無論早晚稻，若其最晚移，而被旱全棄者，更無桑榆之望。和種豆太，漸次入實，根耕豆太，次第結穀，木花方始吐絮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고 있고, 중벼는 간혹 알이 들었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는 중입니다. 올벼와 늦벼를 따질 것 없이 가장 늦게 모내기를 해 가뭄으로 전부 포기한 것은 다시 늦게나마 수확할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알이 들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가 맺는 중이고, 목화는 막 솜을 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3. 1837년(헌종 3) 8월 21일(양력 9월 20일)

錦營啓錄 1책(151b~151b) /各司謄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謄錄 1책(482d~483a)

道內農形, 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及早黍粟, 次第黃熟, 中稻方張垂穎, 晚稻及晚黍粟, 幾盡發穗, 和種豆太, 漸次向熟, 根耕豆太, 間或入實, 木花方始摘取. 而今月旬望以後, 淒風連吹, 日候過涼, 田畝各穀之成就差晚者, 多有受損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 중벼는 한창 이삭이 고개를 수그리는 중이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알이 들었고, 목화는 막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0일과 보름 이후로 싸늘한 연달아 불고 날씨가 지나치게 서늘하여 논밭의 각종 곡식 중에 조금 늦게 익는 것은 손상을 받을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4. 1837년(헌종 3) 8월 28일(양력 9월 27일)

錦營啓錄 1책(152a~152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83a~483c)

臣以右道各邑災實巡審事, 今月二十五日離發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行自公州, 歷魯城·連山·恩津·林川·韓山, 方到舒川郡, 而沿路農形, 詳細看審, 臣行未到處, 則分遣徧裨, 逐邑摘奸是白如乎, 早稻及早黍粟, 間或刈穫, 中稻方始向熟, 晚稻及晚黍粟, 漸次垂穎, 和種豆太, 幾盡向熟, 根耕豆太, 次第入實, 而畚穀則無論早晚稻, 饒水之地, 早移善就者, 舉皆登稔. 若其高燥處, 晚移之被旱孔酷, 枯萎偏甚者, 已判全棄. 至於污下畚之愆蠹蹲縮, 受損較深者, 成就差遲, 難期食實, 而又或有力不逮秧不足而未移者. 隔壟之間, 災實判異, 一坪之間, 笑咷懸殊是白遣, 田種則分而言之, 雖有優劣之別, 統而論之, 可期均登之望. 木花本非右沿業種, 所耕尠少, 而蓋自立苗之初, 惱旱未茁, 及其開花之際, 得雨始茂, 結穎稀疎, 綻絮差晚是白如乎乃, 從此陽曝適宜, 則庶可免歉是白如乎, 前路邑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우도 각 고을의 재해 실상을 돌아다니며 살피는 일로 이번 달 25일에 길을 떠나 출발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공주로부터 출발하여 노성·연산·은진·임천·한산을 거쳐 막 서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고 제가 이르지 못한 곳에는 비서를 나누어 보내어 고을마다 캐보게 하였습니다.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수확하였고, 중벼는 막 익기 시작하였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점차 이삭이 고개를 수그리고,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익어가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고 있습니다. 논곡식은 올벼와 늦벼를 따질 것 없이 물이 넉넉한 곳은 일찍 모내기를 하고 잘 자란 것은 거의 모두 잘 여물었습니다. 높고 메마른 곳은 늦게 모내기를 하여 혹독한 가뭄으로 마르고 시든 것이 매우 심해서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잠준축의 피해를 입은 낮은 곳의 논인 경우, 비교적 심해 것은 여무는 것이 늦어지고 낱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러 힘이 미치지 못하거나 모가 부족해 모내기를 못한 곳도 있습니다. 논두렁 사이를 두고 재해와 결실이 완전히 다르고 한 땅에서도 기쁨과

슬픔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밭곡식은 나누어서 말하면 비록 우열의 구별은 있지만 통틀어서 따지면 풍년일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화는 본디 우도 주변에서 생업으로 하는 식물이 아니어서 경작하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싹이 나기 시작한 초기부터 가뭄에 시달려 싹이 자라지 못하였고 꽃이 필 무렵에야 비가 내려 비로소 무성해졌는데 다래를 맺은 것이 듬성듬성하고 숨이 터진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로부터 적절하게 햇볕을 쬐이면 아마도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는 고을의 경위는 잇따라 아뉘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5. 1837년(헌종 3) 9월 11일(양력 10월 10일)

錦營啓錄 1책(153a~153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1책(483c~484a)

道內農形及臣以左道各邑災實巡審事, 今月初七日離發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公州·天安·溫陽·文義·禮山·牙山·陰城·結城·扶餘·鴻山·鎮岑·魯城·懷德·定山·恩津·燕岐·石城等十七邑, 今月初四日夜霜降, 忠州·淸州·槐山·大興·木川·延豐·新昌·鎭川等八邑, 初五日夜霜降是如爲白乎旆, 臣巡行自公州, 歷燕岐·淸州·淸安·陰城, 方到忠州牧, 而沿路農形, 詳細審察是白乎則,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幾盡收穫, 中稻間或刈取, 晚稻漸次成熟, 而若其早移而惱旱偏甚者, 晚移而仍就萎枯者, 或初不發穗而直立不垂, 已判全棄. 根耕豆太及晚黍粟, 次第向熟, 木花連爲摘取, 而霜信差早, 田畝各穀之晚就者, 多有徑枯之患是白如乎, 前路邑形止, 待看審,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제가 좌도 각 고을의 재해 실상을 돌아다니며 살피는 일로 이번 달 초7일에 길을 떠나 출발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천안·온양·문의·예산·아산·음성·결성·부여·홍산·진잠·노성·회덕·정산·은진·연기·석성 등 17개 고을은 이번 달 초4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충주·청주·괴산·대흥·목천·연풍·신창·진천 등 8개 고을은 초5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며 공주에서부터 연기·청주·청안·음성을 거쳐 막 충주목에 도착했습니다.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올벼·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수확하였고, 중벼는 간혹 베어냈고 늦벼는 점차 익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찍 모내기를 했는데 매우 심하게 가뭄에 시달린 것과 늦게 모내기를 했는데 이내 시들거나 말라 죽은 것은 더러 애당초 이삭이 패지 않은 채 곳곳이 선채로 고개를 수그리지 않아서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익어 가고 있고, 목화는 연달아 따고 있습니다. 된서리가 일찍 내려 논밭의 각종 곡식 중에 늦게 여문 것은 지레 말라 죽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는 고을의 경위는 살피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6. 1844년(헌종 10) 2월 14일(양력 4월 1일)

錦營啓錄 2책(14a~1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498d~498d)

今月十三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而陰雲不解，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도 더 내릴 조짐이 많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위와 같이 긴급 보고합니다.

0107. 1844년(헌종 10) 2월 17일(양력 4월 4일)

錦營啓錄 2책(14a~1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498d~499a)

今月十三日午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四日卯時以後，間或霏微，連爲陰翳，至十六日午時，仍爲開霽，而更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乎旂，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燕岐得三犁，公州·平澤·大興·唐津·平薪等六邑鎮，得二犁，溫陽·牙山·定山·洪州·海美·鴻山·保寧·魯城·鎭岑·懷德·淸安等十一邑，得一犁，石城·林川·韓山·恩津·連山·淸州等六邑，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4일 묘시 이후로 간혹 부슬부슬 내리다가 연달아 구름이 짙게 끼었는데 16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고 양을 따질 만큼 다시 내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기는 3려가 내렸고, 공주·평택·대흥·당진·평신 등 6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온양·아산·정산·홍주·해미·홍산·보령·노성·진잠·회덕·청안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석성·임천·한산·은진·연산·청주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8. 1844년(헌종 10) 2월 22일(양력 4월 9일)

錦營啓錄 2책(14b~1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499a~499b)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雨澤, 燕岐等二十四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黃澗得三犁, 天安·新昌·瑞山·忠州·鎭川等五邑, 得二犁, 稷山·靑陽·沔川·泰安·扶餘·結城·永同·靑山·報恩·懷仁·文義·陰城·堤川等十三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秋耨靑色漸新, 春耨已盡耕播, 間始立苗, 糞田鋤役, 次第爲之是如爲白乎旃, 又於今月二十一日丑時量始雨, 間間霏灑, 至翌日辰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各邑所得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의 우택으로 연기 등 24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황간은 3려가 내렸고, 천안·신창·서산·충주·진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청양·면천·태안·부여·결성·영동·청산·보은·회인·문의·음성·제천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른빛이 점차 뚜렷해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간간이 싹이 나기 시작하였고, 밭에 거름주는 일과 가래질은 차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날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7푼입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9. 1844년(헌종 10) 2월 28일(양력 4월 15일)

錦營啓錄 2책(23a~23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3a~503a)

今月二十一日丑時量始雨，至翌日辰時開霽，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木川·沃川·懷仁·淸州·槐山·延豐等七邑，得一犁。公州·天安·平澤·溫陽·新昌·靑陽·大興·保寧·結城·連山·懷德·永同·靑山·文義·燕岐·鎭川·淸安·陰城·丹陽等十九邑得一鋤，牙山·定山·恩津等三邑，沍塵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날이 갠고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목천·옥천·회인·청주·괴산·연풍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천안·평택·온양·신창·청양·대흥·보령·결성·연산·회덕·영동·청산·문의·연기·진천·청안·음성·단양 등 1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아산·정산·은진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압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0. 1844년(헌종 10) 2월 30일(양력 4월 17일)

錦營啓錄 2책(24a~2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3c~503c)

今月二十八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기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으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1. 1844년(헌종 10) 3월 4일(양력 4월 21일)

錦營啓錄 2책(25b~2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4b~504c)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八日辰時量始雨，至翌日午時開霽，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燕岐得一犁，公州·天安·溫陽·保寧·魯城·連山·沃川·報恩等八邑，得一鋤。牙山·定山·洪州·沔川·唐津·林川·韓山·淸州·恩津等九邑，溫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甦漸次青茂，春甦幾皆立苗，畚庫方始初耕，秧坂間或始役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初三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8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갓으며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기는 1려가 내렸고, 공주·천안·온양·보령·노성·연산·옥천·보은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아산·정산·홍주·면천·당진·임천·한산·청주·은진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거의 모두 싹이 났고, 논은 비로소 초벌갈이를 시작하였고, 못자리는 간혹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3일 측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고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2. 1844년(헌종 10) 3월 7일(양력 4월 24일)

錦營啓錄 2책(26a~2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4c~504d)

今月初三日丑時量始雨，至翌日辰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永同得二犁，公州·溫陽·新昌·禮山·牙山·定山·靑陽·石城·保寧·連山·懷德·沃川·懷仁·淸州·淸安·陰城·忠州·丹陽等十八邑，得一犁，全義·天安·平澤·洪州·林川·韓山·恩津·文義·堤川等九邑，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동은 2려가 내렸고, 공주·온양·신창·예산·아산·정산·청양·석성·보령·연산·회덕·옥천·회인·청주·청안·음성·충주·단양 등 1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평택·홍주·임천·한산·은진·문의·제천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3. 1844년(헌종 10) 3월 10일(양력 4월 27일)

錦營啓錄 2책(26b~2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4d~504d)

今月初三日雨澤，永同等二十八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沔川·鴻山·黃澗等三邑，得二犁，大興·唐津·瑞山·結城·槐山·延豐·淸風等七邑，得一犁，稷山·海美·泰安·平薪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初八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十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의 우택으로 영동 등 2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면천·홍산·황간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대흥·당진·서산·결성·괴산·연풍·청풍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해미·태안·평신 등 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초10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위와 같이 긴급 보고합니다.

0114. 1844년(헌종 10) 3월 15일(양력 5월 2일)

錦營啓錄 2책(27a~2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4d~505a)

道內農形及今月初八日戌時量始雨，至初十日辰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牙山·定山·靑陽·瑞山·泰安·結城·庇仁·連山·懷德·沃川·永同·報恩·陰城·靑風等十五邑，得一犁，全義·平澤·新昌·大興·洪州·沔川·唐津·海美·石城·扶餘·鴻山·保寧·魯城·恩津·懷仁·文義·燕岐·淸州·忠州·德山·鎭川等二十一邑，得一犁，林川·韓山兩邑泥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甦漸次茁茂，春甦次第向靑，注秧付種，方張爲之，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間始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8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10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아산·정산·청양·서산·태안·결성·비인·연산·회덕·옥천·영동·보은·음성·청풍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평택·신창·대흥·홍천·면천·당진·해미·석성·부여·홍산·보령·노성·은진·회인·문의·연기·청주·충주·덕산·진천 등 2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임천과 한산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점차 싹이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차례로 푸르러졌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 뿌리기를 하는 일은 한창 하고 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5. 1844년(헌종 10) 3월 22일(양력 5월 9일)

錦營啓錄 2책(27b~27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5a~505b)

今月二十一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而陰雲未解，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고도 하고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아직도 내릴 조짐이 많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와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6. 1844년(현종 10) 3월 24일(양력 5월 11일)

錦營啓錄 2책(27b~28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5b~505b)

今月二十一日卯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二十二日卯時以後，間或霏微，載陰載陽，至二十三日辰時，仍爲開霽，而更無分數之可論是白乎旂，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連山兩邑，得二犁。天安·新昌·禮山·定山·石城·扶餘·魯城·恩津·靑山·靑州等十邑，得一犁，全義·牙山·林川·韓山·瑞山·沃川·懷仁·報恩·燕岐等九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2일 묘시 이후로 간혹 부슬부슬 내리면서 잠깐 흐리다가 잠깐 햇볕이 들기도 하더니 23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였습니다. 다시 양을 따질 만큼 내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연산의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신창·예산·석성·부여·노성·은진·청산·청주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아산·임천·한산·서산·옥천·회인·보은·연기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7. 1844년(헌종 10) 3월 27일(양력 5월 14일)

錦營啓錄 2책(28a~28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5c~505c)

道內農形及今月二十一日雨澤, 公州等二十一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永同·黃澗兩邑, 川渠漲滿, 洪州·唐津·保寧·懷德·鎭岑等五邑, 得二犁, 木川·稷山·平澤·溫陽·青陽·大興·德山·沔川·海美·泰安·鴻山·舒川·庇仁·藍浦·結城·鎭川·淸安·陰城·槐山·忠州·淸風·堤川·平薪等二十三邑鎭. 得一犁, 文義·延豐兩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耨方張胚胎, 春耨日益青茂, 注秧付種, 方始立苗,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耕播幾畢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1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21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황간의 두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주·당진·보령·회덕·진잠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직산·평택·온양·청양·대흥·덕산·면천·해미·태안·홍산·서천·비인·남포·결성·진천·청안·음성·괴산·충주·청풍·제천·평신 등 23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문의·연풍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매는 중이고, 봄보리는 나날이 더욱 푸르고 무성해졌습니다.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막 싹이 나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울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와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18. 1844년(헌종 10) 4월 3일(양력 5월 19일)

錦營啓錄 2책(28a~2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5c~505d)

今月初一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酉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
乎，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
니다.

0119. 1844년(헌종 10) 4월 5일(양력 5월 21일)

錦營啓錄 2책(28b~2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5d~505d)

今月初五日午時量始雨，至翌日酉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木川·天安·禮山·定山·靑陽·瑞山·鴻山·韓山·保寧·魯城·報恩·燕岐·淸州等十四邑，得一犁，全義·牙山·溫陽·扶餘·恩津·懷德·鎭岑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又於今初四日辰時量始雨，至翌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而陰雲未解，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오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목천·천안·예산·정산·청양·서산·홍산·한산·보령·노성·보은·연기·청주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아산·온양·부여·은진·회덕·진잠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초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아직 더 내릴 조짐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0. 1844년(헌종 10) 4월 8일(양력 5월 24일)

錦營啓錄 2책(28b~2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5d~506b)

今月初一日雨, 公州等二十一邑所得分數及初四日辰時量始雨, 至翌日午時, 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五日午時以後, 間間霏微, 乍陰乍陽, 至初六日申時, 始乃快霽, 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初一日之雨, 前啓外, 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舒川·庇仁·藍浦·結城·鎭川·清安等十二邑, 得一犁. 稷山·平澤·新昌·石城·林川·連山·沃川·黃澗·槐山·忠州·堤川·丹陽·永春等十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初四日之雨, 定山·保寧·連山等三邑, 川渠漲滿, 公州·鴻山·燕岐等三邑, 得三犁, 青陽·大興·恩津·鎭岑·懷德·清州等六邑, 得二犁, 牙山·洪州·石城·扶餘·魯城·懷仁·清安等七邑, 得一犁是如爲白有如乎, 未報邑所得分數,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 비로 공주 등 21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초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4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5일 오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면서 언뜻 흐리다가 언뜻 햇별이 나기도 하면서 초6일 신시에 이르러 비로소 이내 활짝 개었고 다시 따질 만한 양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천·비인·남포·결성·진천·청안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평택·신창·석성·임천·연산·옥천·황간·괴산·충주·제천·단양·영춘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4일 비로 정산·보령·연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홍산·연기 등 3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청양·대흥·은진·진잠·회덕·청주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아산·홍주·석성·부여·노성·회인·청안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1. 1844년(헌종 10) 4월 9일(양력 5월 25일)

錦營啓錄 2책(33a~33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08c~508c)

道內農形及今月初四日雨澤, 定山等十九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稷山·舒川兩邑, 川渠漲溢, 全義·木川·海美·禮山·瑞山·林川·韓山·庇仁·藍浦·結城·沃川·永同·報恩·陰城·忠州等十五邑, 得二犁, 天安·溫陽·新昌·德山·沔川·唐津·泰安·文義·鎭川·丹陽·平薪等十一邑鎭,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粃幾盡發穗, 春粃方始胚胎, 注秧付種. 次第向青,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間間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4일의 우택으로 정산 등 1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직산과 서천 두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해미·예산·서산·임천·한산·비인·남포·결성·옥천·영동·보은·음성·충주 등 1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온양·신창·덕산·면천·당진·태안·문의·진천·단양·평신 등 11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막 이삭이 배기 시작하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간이 싹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2. 1844년(헌종 10) 4월 19일(양력 6월 4일)

錦營啓錄 2책(40a~40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2d~512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次第入實, 春麴已盡發穗, 畚庫間始再翻耕, 注秧付種, 漸次青茁,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間或初除草是如爲白遣, 今月十八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卯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各邑所得分數,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했더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논농사는 비로소 다시 갈아엎기를 시작하였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파랗게 무성해지고 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1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3. 1844년(헌종 10) 4월 22일(양력 6월 7일)

錦營啓錄 2책(41a~4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3b~513c)

今月十八日寅時量始雨，至翌日卯時開霽，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木川·天安·溫陽·禮山·靑陽·洪州·淸州等七邑，得一犁，公州·全義·平澤·牙山·定山·大興·沔川·唐津·海美·瑞山·扶餘·鴻山·藍浦·保寧·結城·連山·沃川·報恩·懷仁·燕岐·鎭川·陰城·堤川·平薪等二十四邑鎭，得一鉏是如爲白乎旆，又於今二十日戌時量始雨，或灑或霏，至二十二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목천·천안·온양·예산·청양·홍주·청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평택·아산·정산·대흥·면천·당진·해미·서산·부여·홍산·남포·보령·결성·연산·옥천·보은·회인·연기·진천·음성·제천·평신 등 24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0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고도 하고 더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며 22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4. 1844년(헌종 10) 4월 26일(양력 6월 11일)

錦營啓錄 2책(41b~4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3d~514a)

今月二十日戌時量始雨，至二十二日卯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木川·天安·稷山·牙山·溫陽·新昌·禮山·大興·洪州·海美·鴻山·保寧·結城·靑山·燕岐·靑州·鎭川·陰城·延豐·忠州等二十一邑，川渠漲溢，公州·平澤·靑陽·全義等四邑，得一犁，槐山·沔川·唐津·瑞山·懷德·沃川·定山·藍浦等八邑，得二犁，泰安·石城·扶餘·林川·韓山·舒川·庇仁·魯城·恩津·連山·鎭岑·永同·黃澗·報恩·懷仁·文義·靑安·靑風·堤川·平薪等二十邑鎭，得一犁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2일 묘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목천·천안·직산·아산·온양·신창·예산·대흥·홍주·해미·홍산·보령·결성·청산·연기·청주·진천·음성·연풍·충주 등 2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평택·청양·전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괴산·면천·당진·서산·회덕·옥천·정산·남포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태안·석성·부여·임천·한산·서천·비인·노성·은진·연산·진잠·영동·황간·보은·회인·문의·청안·청풍·제천·평신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5. 1844년(헌종 10) 4월 29일(양력 6월 14일)

錦營啓錄 2책(42b~42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4c~514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方張成熟, 春麴漸次入實, 注秧付種, 日就茁茂,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次第初除草是如爲白有在乎,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봄보리는 점차 알이 들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나날이 무성해지고 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에 대해서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6. 1844년(헌종 10) 5월 5일(양력 6월 20일)

錦營啓錄 2책(44a~4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5b~515b)

今月初三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戌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白如
乎，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고도 하고 더러 뿌리
기도 하며 이튿날 술시에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의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
다.

0127. 1844년(헌종 10) 5월 8일(양력 6월 23일)

錦營啓錄 2책(44a~4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5b~515c)

今月初三日辰時量始雨，至翌日戌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稷山·平澤·新昌·禮山·定山·德山·石城·鴻山·庇仁·結城·連山·懷德·沃川·報恩·懷仁·燕岐·陰城等十九邑，得一犁。木川·天安·牙山·溫陽·青陽·大興·洪州·沔川·唐津·海美·泰安·扶餘·藍浦·保寧·魯城·恩津·鎭岑·永同·黃澗·青山·文義·淸州·鎭川·淸安·槐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三十一邑，得一鉏，瑞山·林川·韓山·舒川·平薪等五邑鎭，沍塵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술시에 날이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직산·평택·신창·예산·정산·덕산·석성·홍산·비인·결성·연산·회덕·옥천·보은·회인·연기·음성 등 1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천안·아산·온양·청양·대흥·홍주·면천·당진·해미·태안·부여·남포·보령·노성·은진·진잠·영동·황간·청산·문의·청주·진천·청안·괴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3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산·임천·한산·서천·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28. 1844년(헌종 10) 5월 16일(양력 7월 1일)

錦營啓錄 2책(44b~4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5c~515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粃幾皆刈穫, 春粃次第向熟, 秧苗付種, 日就茁茂, 而間始移插,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連爲除草是如爲白遣, 忠州·文義·懷仁·溫陽·木川等五邑段, 間有蟲災, 忽發於田野, 其形如蠶, 有毛微黃, 長近一寸, 而遍煥[滋]蔓於畦墜之間, 木花與黍粟·豆·太, 蝕盡莖<莖>葉, 或有全棄之處, 始甚悶, 而近因雨澤之頻仍, 漸有寢息之望, 誠爲多幸是如爲白有在乎,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거의 모두 베어 수확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있고 못자리에 어린 모를 기르고 무논에 범씨앗을 뿌린 것은 나날이 무성해졌는데 간간이 옮겨 심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달아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문의·회인·온양·목천 등 5개 고을의 경우, 간혹 벌레 재앙이 들판에서 발생했는데, 생김새는 누에와 같고 누르스름한 털이 있고 길이는 1치에 가까우며 논두렁 사이마다 번져나 목화와 기장·조·콩·팥의 줄기와 잎새를 거의 다 갉아 먹어 더러 전부 포기한 곳도 있어서 처음에는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택이 빈번해져 점차 그칠 가망이 있으니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29. 1844년(헌종 10) 5월 20일(양력 7월 5일)

錦營啓錄 2책(44b~4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15c~515d)

今月十五日寅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六日卯時以後，間間霏灑，載陰載暘，至二十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八分是白遣，續接各邑所報，伊日之雨，公州得三犁，全義·天安·德山·瑞山·鴻山·懷德·沃川·靑山等八邑，得二犁，木川·禮山·新昌·稷山·定山·靑陽·大興·洪州·沔川·唐津·海美·石城·扶餘·林川·韓山·保寧·結城·魯城·連山·鎭岑·報恩·文義·燕岐·靑州·平薪等二十五邑鎭，得一犁，延豐·靑風·泰安·永同·黃澗·鎭川·靑安·槐山·陰城·堤川·丹陽·永春·牙山·平澤·溫陽·舒川·庇仁·藍浦·恩津·懷仁·忠州等二十一邑，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乎旃。見今雲陰點綴，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4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6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뿌리기도 하다가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나기도 하면서 20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8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는 3려가 내리고, 전의·천안·덕산·서산·홍산·회덕·옥천·청산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리고, 목천·예산·신창·직산·정산·청양·대흥·홍주·면천·당진·해미·석성·부여·임천·한산·보령·결성·노성·연산·진잠·보은·문의·연기·청주·평신 등 2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연풍·청풍·태안·영동·황간·진천·청안·괴산·음성·제천·단양·영춘·아산·평택·온양·서천·비인·남포·은진·회인·충주 등 21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왔습니다. 지금은 검은 구름이 죽 이어져 비올 조짐이 아직 많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0. 1844년(헌종 10) 5월 23일(양력 7월 8일)

錦營啓錄 2책(55a~5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2c~522d)

今月十五日寅時以後，至二十日卯時得雨形止及公州等二十四邑鎮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二十日卯時以後，連爲陰翳，間間霏灑，至二十三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二寸八分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前啓始雨邑中，延豐·淸風·永同·黃澗·鎭川·淸安·槐山·丹陽等八邑，得二犁，牙山·平澤·溫陽·泰安·舒川·庇仁·藍浦·恩津·懷仁·陰城·忠州·堤川·永春等十三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牟[秋甞]已皆登場，春牟[春甞]幾盡刈穫，畚庫方張移秧，而早移者間間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根耕豆太，次第耕播，忠州·文義·懷仁·溫陽·木川等五邑蟲災，竝已寢息是如爲白乎旆，見今陰雲屯結，霏微不止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인시 이후로 20일 묘시까지 비가 내린 경위와 공주 등 24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0일 묘시 이후로 연달아 구름이 짙게 끼고 간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뿌리기도 하다가 23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 고을 중에 연풍·청풍·영동·황간·진천·청안·괴산·단양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리고, 아산·평택·온양·태안·서천·비인·남포·은진·회인·음성·충주·제천·영춘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모두 타작을 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벼농사는 한창 모내기를 하고 있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간히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달아 김매기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충주·문의·회인·온양·목천 등 5개 고을의 벌레 재앙은 모두 이미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 짙은 구름이 뭉친 채이고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1. 1844년(헌종 10) 5월 29일(양력 7월 14일)

錦營啓錄 2책(56a~5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3a~523b)

今月二十三日辰時以後雨澤，至二十五日卯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青陽·大興·洪州·青山·報恩·鎭川·淸安·槐山·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石城·扶餘·韓山·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沃川·林川·鴻山·平薪等四十四邑鎭，川渠漲溢，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永同·黃澗·懷仁·文義·燕岐·淸州等十一邑，得三犁，而以其連日添漲之故，各穀間多沈墊，至若依山傍川之處，田畝或至潰決是如爲白乎旆，又於今二十八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而尙此陰霏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진시 이후 우택이 25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청산·보은·진천·청안·괴산·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석성·부여·한산·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옥천·임천·홍산·평신 등 44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영동·황간·회인·문의·연기·청주 등 11개 고을은 3려가 내렸습니다.

여러 날을 추가로 물이 불어난 까닭에 각종 곡식은 그사이에 물에 잠긴 것이 많았습니다. 산자락이나 시내 옆인 곳에 있는 논밭은 더러 독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흐리고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2. 1844년(헌종 10) 6월 4일(양력 7월 18일)

錦營啓錄 2책(56b~5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3b~523c)

道內農形及去月二十八日寅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去月二十九日以後，連爲陰噎，間或霏微，至今月初四日卯時，始乃開霽，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溫陽·新昌·牙山·禮山·林川·魯城·恩津·連山·懷仁·文義·淸州等十七邑，川渠漲溢，扶餘·定山·石城·鴻山·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鎭岑·懷德·沃川·燕岐·報恩·靑山·鎭川·淸安等十八邑，得三犁，靑陽·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永同·黃澗·槐山·延豐·陰城·忠州等十五邑，得二犁是如爲白乎旆。農形段，付種間始再鋤，早移秧，方張初除草，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耘役，根耕豆太及晚黍粟，幾皆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8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로 연달아 흐리면서 간혹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달 초4일 묘시에 이르러 왔는데 다시 따질 만한 양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온양·신창·아산·예산·임천·노성·은진·연산·회인·문의·청주 등 1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부여·정산·석성·홍산·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진잠·회덕·옥천·연기·보은·청산·진천·청안 등 18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청양·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영동·황간·괴산·연풍·음성·충주 등 15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달아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갈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모두 싹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3. 1844년(헌종 10) 6월 14일(양력 7월 28일)

錦營啓錄 2책(57a~5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3c~523d)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付種乾播及早移秧，早黍粟·和種豆太木花，耘役方張，根耕豆太及晚黍粟，方始向青是如爲白乎旅。又於今十三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而陰雲未解，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무논에 범씨 뿌리기와 밭에 씨앗 뿌리기 및 일찍 모내기한 것과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푸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입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이 아직 풀어않아 아직 더 내릴 조짐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4. 1844년(헌종 10) 6월 19일(양력 8월 2일)

錦營啓錄 2책(57b~57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3d~524a)

今月十三日寅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二寸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四日卯時以後，載陰載陽是白如可，自十七日午時量，更爲霏灑，間或暴霍，至十九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三寸六分，通計前後，合爲五寸六分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三日之雨，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洪州·石城·連山·淸安·槐山·延豐等十三邑，川渠漲溢，定山·靑陽·大興·德山·沔川·唐津·海美等七邑，得三犁，泰安·扶餘·韓山·舒川·靑山·報恩·鎭川·陰城·忠州等九邑，得二犁，公州·全義·瑞山·鴻山·庇仁·藍浦·保寧·結城·魯城·恩津·鎭岑·懷德·沃川·永同·黃澗·文義·懷仁·燕岐·淸州等十九邑，得一犁是如爲白遣，見今陰雲未解，雨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4일 묘시 이후로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났다가 17일 오시쯤부터 다시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렸고 간혹 주룩주룩 세차게 내리면서 1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3치 6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5치 6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홍주·석성·연산·청안·괴산·연풍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정산·청양·대흥·덕산·면천·당진·해미 등 7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태안·부여·한산·서천·청산·보은·진천·음성·충주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서산·홍산·비인·남포·보령·결성·노성·은진·진잠·회덕·옥천·영동·황간·문의·회인·연기·청주 등 19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짙은 구름이 풀어지지 않아 비내릴 조짐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5. 1844년(헌종 10) 6월 24일(양력 9월 7일)

錦營啓錄 2책(58a~5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4a~524b)

道內農形及今月十七日午時以後雨澤, 至十九日卯時,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十九日卯時以後, 間間霏微, 載陰載陽, 至二十三日戌時, 始乃開霽, 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青陽·大興·洪州·德山·魯城·連山·鎮岑·懷德·沃川·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燕歧·清州·鎮川·清安·陰城·槐山·恩津等二十七邑, 川渠漲溢,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平薪等十三邑鎮, 得三犁, 藍浦·保寧·結城·永同·黃澗·青山·報恩·懷仁·文義·延豐·忠州·清風·堤川·丹陽·永春等十五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早移秧, 日漸茁茂, 晚移秧, 幾盡再鋤, 早黍粟間或胚胎, 和種豆太及木花, 方始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間間初耘, 而霖雨連綿, 田疇泥濘, 鋤役多致愆期是如爲白遣, 連山·牙山·魯城·文義·新昌·燕歧·恩津等七邑段, 洞畚早茁之秧, 愆蠶蹲縮不少是如乙仍于, 詳審摘奸, 續卽更報之意, 申飭題送爲白乎旆,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7일 오시 이후 우택이 1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또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9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면서 잠깐 흐리다가 잠깐 햇볕이 났는데 23일 술시에 비로소 개었고 다시 따질 만한 양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덕산·노성·연산·진잠·회덕·옥천·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연기·청주·진천·청안·음성·괴산·은진 등 2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평신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3려가 내렸고, 남포·보령·결성·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문의·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5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일찍 모내기한 것은 나날이 점차 삭이 무성해졌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으며, 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이 배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꽃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길게 이어져 밭고랑이 질척거려 김매는 일은 대부분
때를 놓쳤다고 합니다.

연산·아산·노성·문의·신창·연기·은진 등 7개 고을의 경우 동네 논·밭의 일찍 자란 벼에 건잠
준축이 적지 않다고 하므로 상세히 살피고 캐보아 계속해서 즉시 다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
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6. 1844년(헌종 10) 7월 4일(양력 8월 17일)

錦營啓錄 2책(58b~5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4c~524d)

今月初二日戌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二日卯時以後，連爲霏灑，間或暴霑，至初三日申時，始乃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六寸，竝計前後，合爲八寸五分是白乎旆。先接近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石城·魯城·燕岐·連山·恩津等六邑，川渠漲滿，鎭岑·鴻山·報恩·文義等四邑，得二犁是如爲白有臥乎所，外此各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 술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2일 묘시 이후로 연달아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거나 간혹 주룩주룩 세차게 내리기도 하더니 초3일 신시에 이르러 갠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6치였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8치 5푼이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석성·노성·연기·연산·은진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잠·홍산·보은·문의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7. 1844년(헌종 10) 7월 6일(양력 8월 19일)

鎭營啓錄 2책(59a~59b) /各司謄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謄錄 2책(524d~525a)

道內農形及今月初一日雨澤, 至初三日申時開霽, 測雨器水深合爲八寸五分, 而公州等六邑, 川渠漲滿. 鎭岑等四邑, 得二犁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全義·木川·天安·牙山·溫陽·禮山·定山·唐津·扶餘·林川·韓山·舒川·懷德·沃川·淸州·鎭川·淸安·槐山等十八邑, 川渠漲滿, 沿江傍川之地, 多有潰決沈墊之患. 洪州·結城兩邑, 得三犁, 平澤·靑陽·沔川·海美·瑞山·泰安·庇仁·延豐·大興·新昌等十邑, 得二犁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方張發穗, 中稻間或胚胎, 晚稻漸次茁茂, 和種豆太及木花, 或始結穎, 晚黍粟及根耕豆太, 連爲除草. 前啓中連山等七邑, 愆蠶蹲縮, 尙不寢息, 而前啓外, 公州·洪州·天安·庇仁·禮山等五邑, 亦有愆蠶蹲縮之災, 洞畚早移之禾, 痒損不少是如爲白有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일의 우택이 초3일 신시에 이르러 갠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5푼이었고 공주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진잠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전의·목천·천안·아산·온양·예산·정산·당진·부여·임천·한산·서천·회덕·옥천·청주·진천·청안·괴산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 주변과 시내 옆 지역은 둑이 터지거나 물에 잠길 걱정이 많았으며, 홍주와 결성 2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평택·청양·면천·해미·서산·태안·비인·연풍·대흥·신창 등 10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은 올벼·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는 중이고, 중벼는 간혹 이삭이 배고, 늦벼는 점차 싹이 무성해졌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연달아 김매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중 연산 등 7개 고을은 건잠준축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공주·홍주·천안·비인·예산 등 5개 고을도 또한 건잠준축 재해가 있으며, 동네 논이 일찍 모내기한 벼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0138. 1844년(헌종 10) 7월 13일(양력 8월 26일)

錦營啓錄 2책(59b~59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5a~525a)

今月十二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辰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2일 축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39. 1844년(헌종 10) 7월 16일(양력 8월 29일)

錦營啓錄 2책(59b~60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5a~525b)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丑時量始雨, 至同日辰時開霽,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洪州·恩津·連山·鎭岑·淸安·槐山等七邑, 得一犁, 溫陽·牙山·忠州·定山·靑陽·大興·魯城·懷德·沃川·陰城等十邑, 得一鋤. 藍浦·保寧·結城等三邑, 沍塵是如爲白遣. 農形段, 早黍粟及和種豆太, 方始入實, 中稻間或發穗, 晚稻連爲茁茂, 晚黍粟及根耕豆太, 幾盡除草, 木花方張結顆. 前啓中, 連山等十二邑, 愆蠶蹲縮之患, 除非瘥損偏甚已判全棄者外, 幸有寢息之漸, 庶期蘇醒之望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五日寅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 而尙爲不止是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홍주·은진·연산·진잠·청안·괴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온양·아산·충주·정산·청양·대흥·노성·회덕·옥천·음성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남포·보령·결성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중벼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는 연달아 무성해졌고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거의 다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는 중입니다. 앞서 보고한 것 중 연산 등 12개 고을은 건잠준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손상이 매우 심해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것 아니라면 다행히 점차 그치게 되어 마아도 살아날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5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뿌리기도 하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고,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0. 1844년(헌종 10) 7월 18일(양력 8월 31일)

錦營啓錄 2책(60a~60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5b~525c)

今月十五日寅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六日卯時以後，間間霏灑，至十七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竝計前後，合爲三寸四分是白乎旆，先接近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得三犁，扶餘得二犁，定山·木川·燕岐·恩津·鎭岑·報恩·韓山·庇仁·保寧等九邑，得一犁，牙山·連山·懷仁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外此各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6일 묘시 이후로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7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3치 4푼입니다.

먼저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는 3려가 내렸고, 부여는 2려가 내렸고, 정산·목천·연가·은진·진잠·보은·한산·비인·보령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아산·연산·회인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1. 1844년(헌종 10) 7월 22일(양력 8월 4일)

錦營啓錄 2책(61a~6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5d~526a)

今月十五日雨澤，至十七日辰時開霽，測雨器水深，合爲三寸四分緣由及公州等十四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溫陽·新昌·禮山·大興·洪州·瑞山·泰安·唐津·鴻山·林川·結城·魯城·黃澗·靑山·靑州·鎭川·槐山·延豐·忠州等十八邑，川渠漲滿，全義·天安·稷山·平澤·靑陽·藍浦·懷德·靑風·等八邑，得二犁。海美·石城·舒川·沃川·永同·文義·靑安·陰城·堤川·平薪等十邑鎭，得一犁，而非時冷雨，挾風急霍，各穀之發穗者胚胎者，舉多摧偃而剝落，至於川漲諸邑，傍川沿浦之地，多有潰決沈墊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의 우택이 17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3치 4푼인 연유 및 공주 등 14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신창·예산·대흥·홍주·서산·태안·당진·홍산·임천·결성·노성·황간·청산·청주·진천·괴산·연풍·충주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천안·직산·평택·청양·남포·회덕·청풍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미·석성·서천·옥천·영동·문의·청안·음성·제천·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습니다.

때아닌 찬비가 내리고 바람을 끼고 급하게 주룩주룩 내려서 각종 곡식 중 이삭이 패거나 이삭이 배는 것들은 거의 다 부러져 쓰러지고 벗겨져 떨어졌습니다. 시내가 불어난 여러 고을의 경우 시내 옆이나 포구 주변 지역은 독이 터지거나 물에 잠길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2. 1844년(헌종 10) 7월 27일(양력 8월 9일)

錦營啓錄 2책(61b~6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6a~526b)

道內農形，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漸次向熟，中稻幾盡發穗，晚稻及晚黍粟，方始胚胎，根耕豆太，間或結殼，木花連爲結穎，而累經潦雨，輒又過霖，近水之田畝，已多成川覆沙之患，各穀之含縮腐消無望食實者，亦種種有之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있고, 중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막 한창 이삭이 배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연달아 다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장맛비를 겪고 번번이 또 주룩주룩 지나치게 내려 물에 가까운 논밭은 이미 시내를 이루거나 모래로 덮일까 하는 걱정이 많았고 각종 곡식 중 오그라들거나 썩어서 알맹이를 먹을 가망이 없는 것들도 또한 이따금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3. 1844년(헌종 10) 8월 9일(양력 9월 20일)

錦營啓錄 2책(62a~62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6c~526d)

道內農形及臣以右道各邑災實巡審事, 今初三日, 離發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行自公州, 歷扶餘·石城·恩津·林川·韓山·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洪州, 方到海美縣, 而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早稻及早黍粟, 次第向熟, 中稻及和種豆太, 幾皆入實, 晚稻及晚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 已盡結穀, 木花間間摘取是白如乎, 無論田畝, 各穀早鋤, 在路所見, 概是穰穰, 固可謂均熟是白乎乃, 至於晚穀諸種, 或因生涼之太驟, 或因淒風之甚乖, 遂至含縮而未得發穗, 亦有發穗而直立不曲. 至若沿江傍川之處, 潰決沈覆, 已屬全棄者, 種種有之, 又或有力不逮秧不足, 而未移者是白遣, 木花本非右沿之所業, 種者鮮少, 而亦爲受傷於積潦, 初不能茁茂, 從或綻絮, 而見甚零星是白乎所, 前路邑農形, 待看審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제가 우도 각 고을의 재해 실상을 돌아다니며 살펴볼 일로 이번 달 초3일에 길을 떠나 출발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행차가 공주에서 부여·석성·은진·임천·한산·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홍주를 거쳐 막 해미현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있고, 중벼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모두 알이 찼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는 중이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간간이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과 밭을 따질 것 없이 일찍 김매기한 각종 곡식은 길에서 본 것으로는 대체로 풍작이었으며 참으로 골고루 익었다고 할 만합니다. 각종 늦곡은 더러 서늘한 기운이 너무 빠르게 닳치거나 더러 싸늘한 바람이 절기와 매우 어긋나서 마침내 오그라들고 이삭이 패지 못하며 또한 이삭이 뻗어도 꽃꽂이 선 채 고개를 수그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강 주변과 시내 곁인 곳의 경우, 독이 터지거나 물에 잠기어 이미 전부 포기한 것도 이따금 있습니다.

또 더러 힘이 미치지 못하거나 모가 부족하여 모내기하지 못한 곳도 있었고, 목화는

본래 우도 주변 고을에서 생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거의 드물고 또한 오랜 장맛비에 손상을 입어 애당초 싹이 무성해지지 않아서 간혹 숨이 터지더라도 보기에 매우 엉성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고을의 농사 상황은 살펴보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4. 1844년(헌종 10) 8월 19일(양력 9월 30일)

錦營啓錄 2책(63a~63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7a~527a)

今月十七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酉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에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며 이튿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5. 1844년(헌종 10) 8월 25일(양력 10월 6일)

錦營啓錄 2책(63b~63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7b~527b)

今月十七日戌時量始雨，至翌日酉時開霽，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韓山·舒川·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燕岐·靑州等九邑，得一犁，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定山·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懷仁·文義·鎭川·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等二十一邑，得一鋤，溫陽·新昌·禮山·靑陽·大興·洪州·德山·石城·扶餘·鴻山·林川·庇仁·藍浦·保寧·結城·靑安·槐山·延豐·陰城·忠州·靑風·堤川等二十二邑，涸塵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7일에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한산·서천·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연기·청주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정산·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회인·문의·진천·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 등 2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온양·신창·예산·청양·대흥·홍주·덕산·석성·부여·홍산·임천·비인·남포·보령·결성·청안·괴산·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 등 2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6. 1844년(헌종 10) 8월 29일(양력 10월 10일)

錦營啓錄 2책(63b~6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7b~527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及早黍粟·和種豆太, 間或刈取, 中稻幾皆黃熟, 晚稻及晚黍粟·根耕豆太, 次第向熟, 而若其發穗之最晚者, 一向直立, 終不垂頭, 更無食實之望是白遣, 木花段, 始因潦水之連仍, 結蒂既甚稀疏, 終值涼氣之太促, 顆房且多枯落, 雖或有間間吐絮者, 亦甚瘦薄, 全不成樣, 目下所見, 未免判歎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베었고, 중벼는 거의 모두 누렇게 익었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이삭이 켜 것들은 줄곧 곳곳이 선 채로 끝내 고개를 수그리지 않아서 다시 낱알을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목화의 경우, 처음에 연달아 장맛비가 내린 까닭에 꼭지 맺는 것이 이미 매우 드물었고, 끝내는 너무 일찍 서늘한 기운을 만나서 다래가 또 대부분 말라서 떨어졌습니다. 비록 더러 간간이 숨을 토해 낸 것이 있지만 또한 매우 비쩍 말라서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눈으로 보자면 흉년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7. 1844년(헌종 10) 9월 9일(양력 10월 20일)

錦營啓錄 2책(64a~6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7c~527d)

道內農形及臣以左道各邑災實巡審事, 今月初一日, 離發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臣行自公州, 歷燕岐·淸州·淸安·陰城·忠州·堤川·丹陽, 方到淸風府, 而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早稻及早黍粟·和種豆太, 幾盡收穫, 中稻方張刈取, 晚稻及晚黍粟·根耕豆太, 次第向熟, 而各穀之晚就者, 累被風雨之損, 又值涼氣之促, 隴有未曲之穗, 田多不實之穀, 未免全棄者, 間間有之, 而田種則尤遜於畚穀, 至於木花, 則結顆始既甚疎, 吐絮終又無多, 雖以峽土之宜綿, 而所經無非判歉, 晚顆雖或略存, 殘絮亦無可摘, 到處一樣, 更無餘望, 所見有甚於所聞是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天安·文義·淸安·槐山·鴻山·全義·延豐·丹陽·木川等九邑, 今月初一日夜霜降, 永春·靑山·定山·鎭川·稷山等五邑, 初二日夜, 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 前路農形, 待看審麟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제가 좌도 각 고을의 재해 실상을 돌아다니며 살펴볼 일 때문에 이번 달 초1일에 길을 떠나 출발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가 공주에서 연기·청주·청안·음성·충주·제천·단양을 거쳐 막 청풍부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수확하였고, 중벼는 한창 베는 중이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 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곡식 중 늦게 여우는 것은 여러 번 바람과 비의 상해를 입고 또 빠르게 서늘한 기운을 만나 논두렁에는 아직 고개를 수그리지 않은 벼 이삭이 있고 밭에는 알이 들지 않은 곡식이 많아서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이 간간이 있습니다. 밭곡식이 논곡식보다 더 흉년입니다. 목화의 경우 처음에는 다래 맺은 것이 이미 매우 드물었는데 결국에 솜을 토해낸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록 골짜기 땅에 적절한 솜일지라도 지나온 곳은 흉년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늦게 맺힌 다래가 비록 더러 약간 남아 있긴 하지만 보잘것없는 솜이라서 또한 따낼 것이 없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똑같은 모습이어서 다시 남은 가망이 없고 눈으로 본 것이 얘기로 들은 것보다 더 심하였습니다. 연달아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천안·

문의·청안·괴산·홍산·전의·연풍·단양·목천 등 9개 고을은 이번 달 초1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영춘·청산·정산·진천·직산 등 5개 고을은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는 고을의 농사 상황은 살펴보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8. 1844년(헌종 10) 9월 17일(양력 10월 28일)

錦營啓錄 2책(64b~6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27d~528b)

臣巡到淸風府，所經各邑農形及天安等十四邑霜降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行自淸風，又歷延豐·槐山·靑山·報恩·沃川·懷德，今月十六日還營，而沿路農形，連加詳審是白乎則，中稻幾盡收穫，晚稻及晚黍粟，刈取亦爲過半，而若其發穗之最晚者，仍不曲垂，終歸全棄。根耕豆太亦方刈取，而未及成熟，經被涼促，多有未能入實者。至於木花段，早顆既無所收，晚花又致失望，沿路所見，在在如此，可謂罕前之慘歉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公州·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靑陽·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等十五邑，今月初十日夜霜降。扶餘·石城·林川·連山·韓山·舒川·庇仁·懷仁·永同·黃澗·報恩·燕岐·淸州等十三邑，十一日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大抵今年穡事，統而論之，固可謂康年，而詳審裏許，亦未免實災之互錯是白如乎，各邑分等酌量磨鍊，迫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순행하며 청풍부에 도착했는데 지나온 각 고을의 농사 상황 및 천안 등 14개 고을에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가 청풍부에서 또 연풍·괴산·청산·보은·옥천·회덕을 거쳐 이번 달 16일에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연달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중벼는 거의 다 수확하였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베어낸 것 또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이삭이 팬 것은 이내 고개를 수그리지 않아 끝내 전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도 막 베고 있고 아직 익지 않은 것들은 서늘한 날씨가 빠르게 닥쳐 대부분 제대로 알이 들지 못했습니다.

목화의 경우 일찍 다래를 맺었으나 이미 거둔 것이 없고, 늦게 꽃이 핀 것 또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는 길 주변에서 본 것이 곳곳마다 이와 같으니 전에 보기 드문 참혹한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청양·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 등 15개 고을은 이번 달 초10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부여·석성·임천·연산·한산·서천·비인·회인·영동·황간·보은·연기·청주 등 13개 고을은 11일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대체로 올해의 농사는 통틀어 따지자면 진실로 풍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사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또한 재앙과 결실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에서 면하지 못합니다. 각 고을의 등급은 참작해 마련하고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9. 1845년(헌종 11) 2월 22일(양력 3월 29일)

錦營啓錄 2책(86b~8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39d~539d)

勸農一事，歲首綸綍，既墾且墾，其所奉行，尤宜警惕乙仍于，助給種糧，勸借農器，俾各服勤，期有實效之意，另加申飭於列邑守宰處是白有加尼，近接各邑所報，則農形，秋牟[秋麴]始發青色，春牟[麴]間間耕播，治墜修堤，次第經紀是如爲白乎旆。今月十九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至二十一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而霏微不止，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농사를 권장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연초에 내리신 임금님의 말씀이 매우 간절하였습니다. 받들어 행함에 더욱 마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므로, 종자와 양식을 도와주고 농기구를 빌려주도록 권하여 각각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여 기어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라는 뜻으로 별도로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요즈음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밭두둑을 고치고 방죽을 수리하는 일을 차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1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고,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더 내릴 조짐이 아직 많습니다. 이후의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0. 1845년(헌종 11) 2월 24일(양력 3월 31일)

錦營啓錄 2책(87a~87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0a~540b)

今月十九日卯時量始雨，至二十一日卯時，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二十一日卯時以後，間間霏微，載陰載暘，至二十三日午時，始乃快霽，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牙山·瑞山兩邑，得三犁，公州·全義·木川·定山·鴻山·燕岐·清州等八邑，得二犁，天安·溫陽·禮山·大興·泰安·藍浦·魯城·恩津·連山·鎮岑·懷德·青山·文義·懷仁·平薪等十五邑鎮，得一犁，海美·林川·韓山·唐津·舒川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未報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1일 묘시 이후 간간히 부슬부슬 내리다가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3일 오시에 이르러 비로소 이내 말끔하게 개었는데, 다시 따질만한 양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아산·서산 2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정산·홍산·연기·청주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온양·예산·대흥·태안·남포·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청산·문의·회인·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해미·임천·한산·당진·서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1. 1845년(헌종 11) 2월 29일(양력 4월 5일)

錦營啓錄 2책(88a~8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0c~540d)

今月十九日雨澤，至二十三日午時，開霽緣由，牙山等三十邑鎮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平澤·鎭川·槐山·延豐·丹陽·永春等六邑，川渠漲滿。稷山·新昌·沔川·扶餘·石城·沃川·陰城·忠州·淸風·堤川·洪州等十一邑，得二犁，青陽·庇仁·保寧·結城·沃川·陰城·黃澗·永同·報恩·淸安等八邑，得一犁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의 우택이 23일 오시에 이르러 갠 연유와 아산 등 30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이전에 아된 것 이외에 평택·진천·괴산·연풍·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물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직산·신창·면천·부여·석성·옥천·음성·충주·청풍·제천·홍주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양·비인·보령·결성·황간·영동·보은·청안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2. 1845년(헌종 11) 3월 2일(양력 4월 8일)

錦營啓錄 2책(89a~8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1a~541b)

道內農形及臣以左右道各邑巡審事, 去月二十五日, 離發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臣行自公州, 歷文義·懷仁·報恩·淸州·木川·天安·牙山, 方到溫陽郡, 而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秋牟[秋耨]青色漸新, 春牟[春耨]幾盡耕播, 築堤修墜, 鍾役方張是白乎旆. 去月二十九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今月初一日午時開霽, 所得洽爲一犁是白遣, 先接近邑所報, 則伊日之雨, 溫陽·天安·牙山·全義·木川·公州·平澤·稷山·新昌·禮山·燕岐等十一邑, 得一犁是如爲白臥乎所, 外他各邑所得分數,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제가 좌도·우도의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살펴볼 일로 지난달 25일 길을 떠나 출발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공주에서 문의·회인·보은·청주·목천·천안·아산을 거쳐 막 온양군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니, 가을보리는 푸른빛이 점점 산뜻해졌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제방을 쌓고 논두렁을 수리하였고, 가래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내린 것은 넉넉히 1려가 됩니다. 먼저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온양·천안·아산·전의·목천·공주·평택·직산·신창·예산·연기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의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3. 1845년(헌종 11) 3월 15일(양력 4월 21일)

錦營啓錄 2책(90a~90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1d~541d)

道內農形, 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漸次青茂, 次第立苗, 畚庫
鍤役, 幾盡爲之, 秧坂間或始役是如爲白有在乎, 向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
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차례로 싹이 돋고, 논이 가래질
은 거의 다 하였고, 못자리 일을 간혹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4. 1845년(헌종 11) 3월 19일(양력 4월 25일)

錦營啓錄 2책(90b~90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1d~542a)

今月二十二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2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슬 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5. 1845년(헌종 11) 3월 25일(양력 5월 1일)

錦營啓錄 2책(90b~9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2a~542b)

道內農形及今月二十二日寅時量始雨，至二十三日卯時，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二十三日卯時以後，連爲陰噎，至二十四日酉時，始乃快霽，而續接各邑所報，則公州·禮山·藍浦·定山·青陽·大興·德山·海美·泰安·魯城·連山·鎭岑·懷德·燕岐·清州·忠州等十六邑，得一鋤。稷山·牙山·溫陽·新昌·林川·保寧·恩津·文義等八邑，浥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牟[秋麴]漸次苗茂，春牟[春麴]次第向青，注秧付種，方張爲之，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間始耕播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2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3일 묘시 이후 연이어 검은 구름이 끼었다가 24일 유시에 이르러 비로소 이내 말끔하게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예산·남포·정산·청양·대흥·덕산·해미·태안·노성·연산·진잠·회덕·연기·청주·충주 등 1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아산·온양·신창·임천·보령·은진·문의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차례로 푸르러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 뿌리기는 한창 하고 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6. 1845년(헌종 11) 4월 3일(양력 5월 8일)

錦營啓錄 2책(91a~9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2b~542b)

今月初三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初六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九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9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7. 1845년(헌종 11) 4월 6일(양력 5월 11일)

錦營啓錄 2책(91a~9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2b~542c)

今月初三日戌時量始雨，至初六日卯時，測雨器水深爲四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三日卯時以後，間或霏微，載陰載陽，至初五日酉時，始乃快霽，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牙山等三邑，得三犁，溫陽·新昌·大興等三邑，得二犁，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禮山·靑陽·扶餘·石城·鴻山·林川·韓山·藍浦·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永同·靑山·燕岐·淸州·淸安等二十三邑，得一犁是如爲白有在乎，外他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4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3일 묘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리다가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5일 유시에 이르러 비로소 이내 말끔하게 개었는데, 다시 따질 만한 양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아산 등 3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온양·신창·대흥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예산·청양·부여·석성·홍산·임천·한산·남포·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영동·청산·연기·청주·청안 등 2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에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8. 1845년(헌종 11) 4월 7일(양력 5월 12일)

錦營啓錄 2책(91b~9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2c~542d)

道內農形及今月初二日雨澤, 至初五日酉時, 開霽緣由, 公州等二十九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德山·瑞山·平薪三邑鎮, 川渠漲滿. 洪州·沔川·唐津·海美·泰安·舒川·庇仁·保寧等八邑, 得二犁. 結城·沃川·報恩·黃澗·懷仁·文義·鎮川·槐山·延豐·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五邑, 得一犁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牟[秋耨]方張胚胎, 春牟[春耨]日益青茂, 注秧付種, 方始立苗,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耕播既畢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의 우택은 초5일 유시에 이르러 갯 연유와 공주 등 2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덕산·서산·평신 3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주·면천·당진·해미·태안·서천·비안·보령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결성·옥천·보은·황간·회인·문의·진천·괴산·연풍·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봄보리는 날로 더욱 푸르게 무성해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59. 1845년(헌종 11) 4월 17일(양력 5월 22일)

錦營啓錄 2책(92a~92a) /各司謄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謄錄 2책(542d~542d)

道內農形, 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已皆發穗, 春牟[春麴]間間
胚胎, 畚庫方張初耕, 注秧付種, 次第向青,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幾盡立苗是如爲白有臥
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모두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간간이 알을 배고,
논은 한창 초벌갈이하고 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0. 1845년(헌종 11) 4월 28일(양력 6월 2일)

錦營啓錄 2책(93a~93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3b~543c)

道內農形, 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麴]次第入實, 春牟[春麴]方張發穗, 畓庫間或再翻耕, 注秧付種, 漸次青苗,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方始初除草, 而近因雨澤之慳閼, 沙石田牟[麴]麥, 多有萎損, 短源處秧坂, 漸至乾涸是如爲白有等以,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논은 간혹 두벌갈이하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택이 내리지 않아서 모래밭과 돌밭의 보리와 밀은 대부분 시들었고 물이 근원이 짧은 못자리는 점점 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1. 1845년(헌종 11) 5월 5일(양력 5월 9일)

錦營啓錄 2책(93b~93b) /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3c~543c)

今月初四日酉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而陰雲未解，餘霏不止是白如乎，惜乾之餘，甘澍及時，爲民事誠爲多幸。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부슬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든 나머지 단비가 때맞춰 내리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2. 1845년(헌종 11) 5월 7일(양력 6월 11일)

錦營啓錄 2책(93b~9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3c~543d)

今月初四日酉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五日卯時以後，間或霏微，連爲陰翳，至初七日辰時，仍爲開霽，而更無分數之可論是白乎旃，先接近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德山·文義等三邑，得三犁，平澤·溫陽·青陽·大興·洪州·海美·保寧·懷德·燕岐等九邑，得二犁，全義·木川·定山·唐津·石城·扶餘·林川·藍浦·魯城·恩津·連山·鎭岑·天安等十三邑，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之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4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5일 묘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렸고 연이어 흐리다가 초7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였는데, 다시 따질 양은 없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덕산·문의 등 3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평택·온양·청양·대흥·홍주·해미·보령·회덕·연기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정산·당진·석성·부여·임천·남포·노성·은진·연산·진잠·천안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3. 1845년(헌종 11) 5월 10일(양력 6월 14일)

錦營啓錄 2책(96a~9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5a~545b)

道內農形及今月初四日雨澤，公州等二十五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瑞山川渠漲滿，忠州得三犁，稷山·牙山·新昌·沔川·泰安·庇仁·鴻山·報恩·淸安·平薪等十邑鎮，得二犁，韓山·禮山·結城·沃川·淸州·鎭川·陰城·槐山·延豐·淸風·堤川等十一邑，得一犁。舒川·永同·黃澗·靑山·懷仁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秋牟[秋耨]間或刈取，春牟[春耨]幾皆入實，注秧付種，漸就茁茂，畚庫隨其水生，方始移秧，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4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2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서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충주는 3려가 내렸고, 직산·아산·신창·면천·태안·비인·홍산·보은·청안·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한산·예산·결성·옥천·청주·진천·음성·괴산·연풍·청풍·제천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천·영동·황간·청산·회인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베었고,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점 우거지고, 논은 물이 생기는 곳에 따라 막 모내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달아 김매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4. 1845년(헌종 11) 5월 21일(양력 6월 25일)

錦營啓錄 2책(98b~9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6b~546c)

道內農形, 悶旱緣由及今月二十日寅時量始雨, 至二十一日卯時,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一日卯時以後, 間或霏微, 載陰載陽, 至二十二日卯時, 仍爲開霽, 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大興兩邑, 得一犁, 全義·靑陽·洪州·保寧·結城等五邑, 得一鋤. 鴻山·稷山·牙山·溫陽·禮山·定山·石城·扶餘·魯城·恩津·鎭岑等十一邑, 先以始雨形止報來是白如乎, 久旱之餘, 甘雨未洽, 焦萎之苗, 雖暫霑潤, 高燥之地, 無以移插, 根耕未遍, 鋤役亦艱, 言念民事, 萬萬憂悶, 向後形止, 更待各邑所報, 隨續陳聞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한 연유 및 이번 달 20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인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1일 묘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리고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다시 따질만한 양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대흥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청양·홍주·보령·결성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홍산·직산·아산·온양·예산·정산·석성·부여·노성·은진·진잠 등 11개 고을은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왔습니다.

오래 가뭄 끝에 단비가 넉넉하지 못했지만 타들어 가고 시들던 모는 비록 잠시 촉촉이 젖었지만 높고 마른 땅은 옮겨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루갈이를 아직 두루 하지 못하고 호미질도 또한 어려우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각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그에 따라 계속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5. 1845년(헌종 11) 5월 22일(양력 6월 26일)

錦營啓錄 2책(99a~99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6c~546d)

道內農形, 悶旱緣由及今月二十日雨澤, 公州等七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 稷山·牙山·鎭岑等三邑, 得一鋤, 溫陽·禮山·定山·石城·扶餘·鴻山·魯城·恩津等八邑浥塵, 前啓外, 木川·泰安·燕岐等三邑, 得一犁. 平澤·新昌·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庇仁·懷仁·沃川·懷德·文義·淸州·鎭川·淸安·陰城·槐山·延豐等十八邑, 得一鋤, 天安·林川·韓山·舒川·藍浦·連山·永同·黃澗·靑山·報恩·忠州等十一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參互列邑所報, 惜乾到處同然, 雖或有犁雨所得, 未見滋潤之效, 尙無移插之望, 至若僅得鉏浥之處, 無異焦釜之沃, 民情轉益遑汲, 迨今一霏, 方切顒望爲白乎旆,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한 연유 및 이번 달 20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선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한 고을 가운데 직산·아산·진잠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온양·예산·정산·석성·부여·홍산·노성·은진 등 8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목천·태안·연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신창·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비인·회인·옥천·회덕·문의·청주·진천·청안·음성·괴산·연풍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임천·한산·서천·남포·연산·영동·황간·청산·보은·충주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보고를 비교하여 참조하면 가뭄 걱정은 가는 곳마다 같았습니다. 비록 더러 1려가 내렸지만 축축하게 젖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직 옮겨 심을 가망이 없으며, 겨우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가 내린 곳의 경우,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없어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더욱 황급해져 지금에 이르러 한차례 주룩주룩 내려주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6. 1845년(헌종 11) 5월 25일(양력 6월 29일)

錦營啓錄 2책(99b~100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6d~547a)

道內農形, 閏旱緣由及今月二十日雨澤, 公州等七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始雨邑中, 稷山·牙山·鎭岑等三邑, 得一鋤, 溫陽·禮山·定山·石城·扶餘·鴻山·魯城·恩津等八邑浥塵, 前啓外, 木川·泰安·燕歧等三邑, 得一鋤. 平澤·新昌·德山·沔川·唐津·海美·瑞山·庇仁·懷德·沃川·懷仁·文義·淸州·鎭川·淸安·陰城·槐山·延豐等十八邑, 得一鋤, 天安·林川·韓山·舒川·藍浦·連山·永同·黃澗·靑山·報恩·忠州等十一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參互列邑所報, 惜乾到處同然. 雖或有犁雨所得, 未見滋潤之效, 尙無移挿之望, 至若僅得鋤浥之處, 無異焦釜之沃, 民情轉益遑汲, 迨今一霈, 方切顯祝爲白乎旆,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한 연유 및 이번 달 20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선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 고을 가운데 직산·아산·진잠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온양·예산·정산·석성·부여·홍산·노성·은진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앞서 보고한 곳 이외에 목천·태안·연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택·신창·덕산·면천·당진·해미·서산·비인·회덕·옥천·회인·문의·청주·진천·청안·음성·괴산·연풍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임천·한산·서천·남포·연산·영동·황간·청산·보은·충주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보고를 참조하면 가뭄 걱정은 가는 곳마다 같았습니다. 비록 더러 1서가 내렸지만 축축하게 젖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직 옮겨 심을 가뭄이 없으며, 겨우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가 내린 곳의 경우,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없어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더욱 황급해져 지금에 이르러 한차례 주룩주룩 내려주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7. 1845년(헌종 11) 5월 27일(양력 7월 1일)

錦營啓錄 2책(100a~100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7a~547b)

道內農形, 被旱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牟[秋粃]已皆登場, 春牟[春粃]幾盡刈穫,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連爲耘鋤,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始耕播, 而若其被旱偏甚處, 土壤堅硬, 或多停役, 汚下洞畝之幸得早移者, 間或初鋤, 而久被曝曬, 枯萎者居多. 至若傍川近洑之坪, 雖或掘地懸槁, 艱辛移插, 而移手仍枯, 旋踵便涸, 徒費人力, 無望成就者, 比比有之, 外他原濕平衍之郊, 仰水高燥之畝, 一望枯壤, 移插無期, 秧節看看向晚, 民情不啻如渴是如爲白遣, 其中天安·青陽·舒川·沃川·槐山·延豐·恩津·鎭岑·稷山·石城等十邑, 以祈雨祭設行之意, 先爲請報. 故使之不卜日虔誠祈禱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으로 상해를 입은 연유를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모두 타작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둬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달아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뭄의 피해가 특히 심한 곳은 땅이 딱딱해져 더러 대부분 일을 중지하였고 다행히 일찍 옮겨 심을 수 있었던 땅이 낮은 동네 논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뜨거운 햇볕에 쪼여 말라 시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내 옆이나 보 근처의 땅의 경우 비록 더러 땅을 파고 두레박을 매달아서 간신히 옮겨 심었지만 옮겨 심자마자 이내 시들고 곧바로 말라버려서 한갓 사람 힘만 쓰고 익을 가망이 없는 것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옮겨 심을 기약은 없고 모내기철은 볼수록 늦어가니 백성들의 정황은 목마른 듯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밖에 성 밖의 메마르거나 축축한 널따란 땅과 빗물만 기다리는 높고 메마른 땅의 논은 한눈에 보기에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 가운데 천안·청양·서천·옥천·괴산·연풍·은진·진잠·직산·석성 등 10개 고을은 기우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먼저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8. 1845년(헌종 11) 5월 28일(양력 7월 2일)

錦營啓錄 2책(100b~100b) /各司謄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謄錄 2책(547b~547c)

道內農形, 被旱遑汲, 天安等十邑, 祈雨請報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請報邑中, 天安·恩津兩邑, 今月二十八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前啓外, 連山·懷德·永同等三邑, 亦爲請報祈雨, 故使之虔誠設行爲白乎旆. 今月二十七日戌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辰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 而陰雲未散, 餘意頗緊, 繼此霈霖, 方切顯祝爲白遣, 向後形止, 各邑〈所〉得雨分數,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으로 황급함과 천안 등 10개 고을에서 기우제 요청 보고를 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요청하는 보고를 한 고을 가운데 천안·은진 2개 고을은 이번 달 28일에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연산·회덕·영동 등 3개 고을도 또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달 27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아직 흩어지지 않아 더 내릴 조짐이 매우 짙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로 주룩주룩 내리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69. 1845년(헌종 11) 5월 30일(양력 7월 4일)

錦營啓錄 2책(101a~10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7c~548a)

道內農形被旱遑汲天安等十三邑祈雨祭, 次第請報緣由及今月二十七日戌時量始雨, 至翌日辰時, 測雨器水深爲八分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二十八日辰時以後, 連爲陰噎, 至二十九日戌時, 仍爲快霽, 所得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定山·魯城·鴻山等三邑, 得一犁, 公州·木川·牙山·禮山·洪州·沔川·海美·扶餘·藍浦·保寧·鎭岑·燕岐·清安·唐津等十四邑, 得一鋤. 全義·溫陽·青陽·石城·林川·韓山·結城·稷山·懷德·清州等十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旱旣太甚, 圭璧遍舉, 而今番雨澤, 又未周洽, 出日旋復杲杲, 言念民事, 萬萬遑悶是白遣, 祈雨祭段, 前此請報邑中, 青陽, 今月二十八日爲始設行, 石城, 今月二十九日爲始設行. 前啓外, 韓山·燕岐·黃澗等三邑, 亦爲請報祈雨祭, 故使之虔誠設行爲白乎旆,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으로 황급함과 천안 등 13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요청하는 보고를 한 연유 및 이번 달 27일 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8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8일 진시 이후 연이어 흐리다가 29일 술시에 이르러 이내 말끔하게 개었는데 내린 것은 다시 따질 만한 양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정산·노성·홍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목천·아산·예산·홍주·면천·해미·부여·남포·보령·진잠·연기·청안·당진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의·온양·청양·석성·임천·한산·결성·직산·회덕·청주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뭄이 이미 너무 심하여 기우제를 두루 거행하였지만, 이번 우택은 또한 두루 적시지 못하고 곧 해가 나 바로 다시 내리쬘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기우제의 경우 이전에 요청 보고 한 고을 가운데 청양은 이번 달 28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석성은 이번 달 29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한산·연기·황간 등 3개 고을도 또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0. 1845년(헌종 11) 6월 3일(양력 7월 7일)

錦營啓錄 2책(101b~10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48a~548b)

道內天安等十六邑, 祈雨祭次第設行緣由, 去月二十七日雨澤, 定山等二十七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庇仁·沃川·文義·槐山·延豐·忠州·淸風·丹陽·永春等九邑, 得一鋤, 瑞山·舒川·堤川·恩津·鎭川·大興·德山·平澤·新昌·泰安等十邑, 浥塵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此請報邑中, 舒川·稷山兩邑, 去月二十九日爲始設行, 懷德·鎭岑·連山等三邑, 去月三十日爲始設行, 燕岐, 今月初一日爲始設行. 公州段, 一邊請報, 直爲設行, 而今月初二日爲始設行, 靑山·魯城·藍浦·文義等四邑, 亦爲請報祈雨祭, 故使之虔誠祈禱爲白乎旆. 今月初二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 而同雲未解, 餘霏不止, 繼此霈霖, 方切顯祝爲白遣,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천안 등 16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와 지난달 27일의 우택으로 정산 등 2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곳 이외에 비인·옥천·문의·괴산·연풍·충주·청풍·단양·영춘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산·서천·제천·은진·진천·대흥·덕산·평택·신창·태안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이전에 요청 보고한 고을 가운데 서천·직산 두 고을은 지난달 29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회덕·진잠·연산 등 3개 고을은 지난달 30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연기는 이번 달 초1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공주의 경우 한편으로는 요청하는 보고를 하면서 곧바로 시행하였는데 이번 달 초2일에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청산·노성·남포·문의 등 4개 고을도 또한 기우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기우제를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2일 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이 아직 풀어지지 않고 부슬부슬 더 내리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로

주룩주룩 내리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1. 1845년(헌종 11) 6월 6일(양력 7월 10일)

錦營啓錄 2책(108b~10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52a~552b)

今月初二日雨澤，至初四日辰時，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緣由，公州等五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四日辰時以後，乍陰乍陽，至初六日酉時，仍爲快霽，所得更無分數之可論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始雨邑中，燕岐·鎮岑·文義等三邑，川渠漲滿，恩津得二犁，林川·懷仁·定山·全義·稷山等五邑，得二犁。魯城·連山·懷德等三邑，前報一犁之後，更爲霏下，至於川渠漲溢，前啓外，溫陽·新昌·石城·沃川等四邑，川渠漲滿，平澤·扶餘兩邑，得三犁，青陽·沔川·舒川·淸州·青山·黃澗等六邑，得二犁，木川·禮山·大興·洪州·瑞山·鴻山·韓山·藍浦·保寧·結城·淸安等十一邑，得一犁。而青陽·石城·舒川·魯城·恩津·連山·鎮岑·懷德·沃川·文義·燕岐等十一邑祈雨祭，次第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旱餘甘霖，幾皆周洽，言念民事，誠切多幸。今方申飭列邑，使之先從未移處而各別董勸，期於不日畢移之地爲白乎旃，向後農形及未報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의 우택은 초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5치 5푼인 연유와 공주 등 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진시 이후로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초6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활짝 개었는데, 내린 것은 다시 따질 만한 양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고을 가운데 연기·진잠·문의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은진은 2려가 내렸고, 임천·회인·정산·전의·직산 등 5개 고을도 2려가 내렸고, 노성·연산·회덕 등 3개 고을은 앞서 보고에서 1려가 내렸다고 한 뒤에 다시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온양·신창·석성·옥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택·부여 두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청양·면천·서천·청주·청산·황간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예산·대흥·홍주·서산·홍산·한산·남포·보령·결성·청안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양·석성·서천·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문의·연기 등

11개 고을은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했다고 합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주룩주룩 내려 거의 모두 두루 적셨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제 막 여러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여 우선 아직 모내기하지 않은 곳부터 각별히 감독하고 권하여 기어이 하루빨리 모내기를 마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2. 1845년(헌종 11) 6월 9일(양력 7월 13일)

錦營啓錄 2책(117a~117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57a~557b)

道內農形及今月初二日雨澤，至初五日酉時開霽緣由，公州等三十七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青山·黃澗兩邑，前啓二犁之外，更得一犁，稷山·藍浦·韓山等三邑，前啓一犁之外，更得二犁，前啓外，永同·鎭川·陰城·槐山·延豐等五邑，川渠漲滿，牙山·報恩·忠州等三邑，得二犁。德山·唐津·海美·泰安·庇仁·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邑鎭，得一犁，而青山·黃澗·稷山·藍浦·永同·槐山·延豐·韓山等八邑祈雨祭，亦爲停止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及早黍粟和種豆太，木花，耘役方張，根耕豆太及晚黍稷，已盡立苗，近洑洞畚之早移者，間始初鉏。若其仰水高燥之畚，今番雨後始乃移插，而初庚只隔，節已晚晚，難保其善就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農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2일의 우택이 초5일 유시에 이르러 개었던 연유와 공주 등 37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청산·황간 두 고을은 앞서 보고에서 2려라고 한 것 이외에 다시 1려가 내렸고, 직산·남포·한산 등 3개 고을은 앞서 보고에서 1려라고 한 것 이외에 다시 2려가 내렸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진천·음성·괴산·연풍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보은·충주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덕산·당진·해미·태안·비인·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0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청산·황간·직산·남포·영동·괴산·연풍·한산 등 8개 고을은 기우제를 또한 중지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 뿌리기와 밭에 씨앗 뿌리기 및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과 목화는 김매기가 한창이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습니다. 보에 가까운 동네 논에 일찍 옮겨 심은 것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지만, 빗물만 기다리는 높고 메마른 논은 이번 비가 내린 뒤에 비로소 옮겨심기 시작하였는데 초복이 단지 하루 건너이고 절기는 이미 늦어서 잘 여무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3. 1845년(헌종 11) 6월 19일(양력 7월 23일)

錦營啓錄 2책(119a~119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58a~558b)

道內農形, 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連爲耘役,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始向青, 付種乾播, 間或再鋤, 早移秧方張初除草, 而至於最晚移者, 尙帶秧色, 未見茁茂是如爲白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푸르기 시작하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과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일찍 옮겨 심은 모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모내기한 것의 경우 아직 모의 모습을 띠고 있어 무성해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4. 1845년(헌종 11) 6월 29일(양력 8월 2일)

錦營啓錄 2책(125b~12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61c~561d)

道內農形及今月二十四日雨澤, 至二十六日戌時開霽緣由, 全義等十三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禮山·懷德·淸安等三邑得一犁, 木川·新昌·唐津·槐山等四邑, 得一鋤. 天安·大興·文義等三邑溫塵, 而久旱渴望之餘, 雨澤猶未周洽, 萎損各穀, 未見蘇醒是如爲白遣. 農形段, 早移秧方始再鋤, 晚移秧漸次向茂, 最晚移者尙帶秧色, 貼地未茁, 早黍粟間或胚胎, 和種豆太及木花, 次第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間間初耘是如爲白乎旆. 稷山·庇仁兩邑段, 今月二十四日海潮汎濫, 堰堤潰決, 沿浦面里, 多被沈墊, 方將摘奸, 更報計料是如乙仍于, 遍加審察, 續卽詳報之意, 申飭題送是白遣, 舒川·庇仁·藍浦·燕岐·魯城·石城等六邑段, 洞畚早出之秧, 愆蠶蹲縮, 爲害不少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이번 달 24일의 우택이 26일 술시에 이르러 개인 연유와 전의 등 1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예산·회덕·청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신창·당진·괴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대흥·문의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가뭄으로 비를 갈망하던 끝에 우택이 여전히 두루 적시지 못하여 시들어 손상된 각종 곡식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일찍 모내기한 것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점차 무성해지고,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아직 모의 모습을 띠면서 땅에 붙어 아직 자라지 못했으며, 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이 배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묵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산·비인 두 고을의 경우, 이번 달 24일 바닷물이 범람하고 독과 제방이 터져 포구 주변 마을이 많이들 물에 잠겨서 막 캐보고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 살피고 조사하고 계속하여 즉시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는 결정문

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천·비인·남포·연기·노성·석성 등 6개 고을의 경우, 일찍 모내기
한 동네 논외 모에 건잠준축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5. 1845년(헌종 11) 7월 7일(양력 8월 9일)

錦營啓錄 2책(128b~12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62d~563a)

今月初四日寅時量始雨，至同日午時，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初四日以後，連爲霏灑，間或暴霏，至初六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七寸一分。竝計前後，合爲八寸七分是白乎所，列邑形止，姑無所報，似然阻水之致，而第以臣營下所見言之，高低源濕[原隰]，無不周洽，惜乾之際，得此霏澤，言念民事，誠極多幸是白乎乃，兩日之間，近尺之雨，已涉過中，恐或有傷稼，而見今陰雲屯結，霏微不止，將有更霏之慮。慰滿之餘，還切憂悶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分數，鱗次陳聞計料，緣由竝爲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이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간혹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면서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7치 1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8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일단 보고한 것이 없는데 아마도 물에 막힌 탓인 듯합니다.

다만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높고 낮거나 마르거나 축축한 땅에 두루 적시지 않은 데가 없으며, 가뭄을 걱정하던 즈음에 주룩주룩 내리는 은택을 얻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이기 그지없습니다. 이틀 사이에 1자 가까운 비가 내렸으니 이미 걱정한 것을 넘어서서 더러 농사에 피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먹구름이 뭉쳐있고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으니 다시 주룩주룩 내릴 염려가 있어 위로하던 나머지 도리어 매우 근심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6. 1845년(헌종 11) 7월 30일(양력 9월 1일)

錦營啓錄 2책(150b~15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75a~575a)

道內農形, 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及早黍粟和種豆太, 幾皆入實, 中稻已盡發穗, 晚稻及晚黍粟, 次第胚胎, 根耕豆太, 方始起花, 木花連爲結顆, 而冷雨連綿之餘, 繼又涼意早動, 田畚各種, 或致徑枯. 若其晚移之禾, 舉多含縮之患是如爲白遣, 永春段, 今月十七日, 雨雹忽作, 大者如柚子, 小者如鳥卵, 東面四洞, 酷被災傷, 長爲十餘里, 廣爲三四里, 而各穀無不摧折, 殆同蹂躪是如爲白有臥乎所, 非時雹災, 極爲驚心. 另飭該倅, 被災民人等, 各別慰撫, 另加顧恤, 以爲安意奠接之地爲白乎旆,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중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습니다. 그런데 찬비가 연달아 이어진 나머지 계속해서 또한 서늘한 조짐이 일찍 들어 논밭의 각종 곡식은 더러 지레 마르고 늦게 모내기한 벼는 거의 다 오그라들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영춘의 경우 이번 달 17일의 우박이 갑자기 내렸는데 큰 것은 유자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했습니다. 동면 4개 동네에 혹독하게 재해를 입었는데, 길이는 10여 리, 너비는 3, 4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곡식은 꺾이지 않은 것이 없어 거의 밭로 짓밟아 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 때아닌 우박의 재해는 깜짝 놀라기 그지없어서 별도로 해당 수령에게 지시하여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각별히 위로하며 어루만지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어 안심하고 편안히 머물러 살 바탕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7. 1845년(헌종 11) 8월 20일(양력 9월 21일)

錦營啓錄 2책(159a~15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79c~579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黍粟和種豆太, 間或刈取, 中稻幾皆黃熟, 晚稻及晚黍粟, 根耕豆太, 次第向熟, 木花方張摘取, 而至若晚稻中含縮而未發者, 直立而不垂者, 日候如或調和, 成熟庶有其望是白加尼, 近因淒風連吹, 涼氣太驟, 徑自枯白, 難期食實者, 種種有之是如爲白有如乎,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기장·올조와 섞여 짓는 콩·팥은 간혹 베어 거두고, 중벼는 거의 모두 누렇게 익었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한창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벼 중 오그라들어 아직 싹이 트지 않은 것과 곳곳이 선 채 수그리지 않는 것의 경우, 날씨가 만약 더러 조화로우면 아마도 익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고 차가운 기운이 매우 빨라서 지레 저절로 하얗게 시들어, 알맹이 먹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이따금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78. 1845년(헌종 11) 9월 1일(양력 10월 1일)

錦營啓錄 2책(172b~173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85d~586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及早黍粟和種豆太, 已盡收穫中稻方始刈取, 晚稻及晚黍粟, 根耕豆太, 次第成熟, 木花連爲摘取, 而至若晚稻之含縮未發者, 仍皆枯白, 更無餘望. 且其發穗之最晚者, 一向直立, 終不垂頭, 而奄值晚秋, 無復食實之望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이미 다 수확했고, 중벼는 막 베기 시작하였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연이어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그라들어 아직 싹이 트지 못한 늦벼의 경우 그대로 모두 하얗게 메달라 다시 가망이 없습니다. 또 가장 늦게 이삭이 팬 늦벼는 줄곧 꽃꽂이 선 채 끝내 고개를 수그리지 않았고 바로 늦가을이 되었으니 다시 알맹이를 먹을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79. 1845년(헌종 11) 9월 7일(양력 10월 7일)

錦營啓錄 2책(175b~17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2책(587b~587b)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公州·木川·牙山·溫陽·新昌·禮山·定山·靑陽·扶餘·石城·林川·韓山·藍浦·保寧·結城·魯城·恩津·連山·鎭岑·沃川·燕岐·淸州·槐山·延豐等二十四邑，今月初三日夜霜降。田畝各穀之晚就者，無望入實是如爲白有臥乎所，晚穀諸種，未盡成就，此際顚望，惟在於霜候之稍退是白加尼，肅霜遽隕，受損者多，言念穡事，誠甚悶然。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목천·아산·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부여·석성·임천·한산·남포·보령·결성·노성·은진·연산·진잠·옥천·연기·청주·괴산·연풍 등 24개 고을은 이번 달 초3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논밭 각종 곡식 중 늦게 여문 것은 알이 들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늦곡은 아직 다 익지 못했는데, 이즈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서리가 내리는 절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된서리가 갑자기 내려 재해를 입은 것이 많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0. 1852년(철종 3) 2월 14일(양력 4월 3일)

錦營啓錄 3책(4a~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599a~599b)

今月十四日辰時量，始雨，間間霏灑，至翌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의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1. 1852년(철종 3) 2월 18일(양력 4월 7일)

錦營啓錄 3책(6a~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0a~600a)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辰時量, 始雨, 至翌日午時, 開霽, 測雨器水深爲八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庇仁·槐山·丹陽等四邑, 得一犁, 全義·天安·溫陽·定山·大興·洪州·瑞山·韓山·鴻山·新昌·藍浦·保寧·連山·鎭岑·青山·報恩·文義·燕岐·清州·鎭川·淸安·延豐·忠州·淸風等二十四邑, 得一鋤. 牙山·平澤·唐津·海美·石城·舒川·恩津·陰城等九邑, 浥塵是如爲白遣. 農形段, 秋甦青色漸新, 春甦耕播幾畢, 糞田鍤役, 方始爲之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8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비인·괴산·단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온양·정산·대흥·홍주·서산·한산·홍산·신창·남포·보령·연산·진잠·청산·보은·문의·연기·청주·진천·청안·연풍·충주·청풍 등 2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아산·평택·당진·해미·석성·서천·은진·음성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른빛이 점점 산뜻해지고, 봄보리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밭에 거름을 주고 가래질이 막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2. 1852년(철종 3) 2월 28일(양력 4월 17일)

錦營啓錄 3책(6b~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0a~600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甞漸次青茂, 春甞已盡耕播, 間始立苗, 糞田鍤役, 次第爲之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사이에 싹이 돋기 시작했고, 밭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가래질을 차례로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3. 1852년(철종 3) 3월 9일(양력 4월 27일)

錦營啓錄 3책(14b~1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4a~604a)

道內農形，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麴漸次向茂，春麴幾皆立苗，鍤役方張爲之，秧板間或翻耕，而雨澤近頗慳闕，麴麥多致昂藏，各種之播植，畚庫之注秧，亦不無愆時之慮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에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거의 모두 싹이 돋았고, 가래질은 한창 하고 있고, 못자리는 간혹 땅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택은 요즈음 상당히 내리지 않아서 보리와 밀은 대부분 엉성하게 되었고, 각종 씨앗을 뿌리고 심고 논에 볍씨를 뿌리는 일은 또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4. 1852년(철종 3) 3월 16일(양력 5월 4일)

錦營啓錄 3책(14b~1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4a~604b)

今月十五日未時量，始雨，間間霏灑，至翌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而見今陰雲不解，餘意頗緊是白如乎，久旱渴悶之餘，甘澍伊始，繼此優洽，方切顒望爲白乎旃，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풀어지지 않아 자못 내릴 조짐이 많습니다. 오랜 가뭄에 애가 타고 걱정하던 끝에 단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넉넉히 적셔주기를 막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5. 1852년(철종 3) 3월 18일(양력 5월 6일)

錦營啓錄 3책(15a~1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4b~604b)

今月十五日未時量, 始雨, 至翌日午時, 測雨器水深爲四分,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六日午時以後, 載陰載暘, 至十七日辰時, 仍爲開霽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林川·韓山·鴻山·魯城·連山·懷德·文義·鎭岑·燕岐·報恩·靑山·懷仁等十三邑, 皆止溫塵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麰麥漸長, 注秧向晚之時, 旱餘甘雨, 旣始旋止. 言念民事, 轉益悶然是白如乎, 雨澤未報邑形止, 待報來, 竝農形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6일 오시 이후로는 잠깐씩 흐리거나 햇볕이 나다가 17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임천·한산·홍산·노성·연산·회덕·문의·진잠·연기·보은·청산·회인 등 13개 고을은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리와 밀이 점점 자라고, 벼씨를 뿌리는 시기가 늦어지던 때에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쳤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더 걱정입니다. 우택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농사 상황과 아울러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6. 1852년(철종 3) 3월 20일(양력 5월 8일)

錦營啓錄 3책(15a~15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4c~604c)

道內農形及今月十五日，雨澤公州等十三邑，浥塵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淸安得一鉏，定山·舒川·扶餘·恩津·沃川·槐山·延豐等七邑，僅爲浥塵而止，別無霑潤之益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自初惱旱，不得苗茂無成就，春麴雖已立苗，尙未敷青。畚庫間或初耕，秧板漸次始役，而除非防川戴汎處，則水涸土乾，未由設施，春序垂盡，民事切悶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13개 고을에 먼지만 적실 정도 내린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이전에 아팠 곳 이외에 청안은 1서가 내렸고, 정산·서천·부여·은진·옥천·괴산·연풍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는데, 별달리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익은 없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처음부터 가뭄에 시달리다 보니 무성하게 자라날 수 없어 익을 것이 없었고, 봄보리는 비록 이미 싹이 돋았지만, 아직도 푸른빛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논은 간혹 초벌갈이하였고, 못자리는 점차 일을 시작했지만, 방죽이나 보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물은 마르고 땅은 건조해서 시행할 길이 없습니다. 봄 계절이 다 지났는데 백성들의 사정은 매우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7. 1852년(철종 3) 3월 21일(양력 5월 9일)

錦營啓錄 3책(16a~16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4d~605a)

今月二十日辰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翌日辰時, 仍爲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如乎, 久旱渴望之餘, 得此甘澍, 誠亦多幸, 而終靳洽霖, 還覺悶然是白乎所, 各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내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비를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정말로 또한 다행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넉넉히 주룩주룩 내리지 못하고 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8. 1852년(철종 3) 3월 23일(양력 5월 11일)

錦營啓錄 3책(16b~1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5a~605b)

今月二十日辰時量, 始雨, 至翌日辰時, 開霽, 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全義·木川·天安·溫陽·禮山·定山·扶餘·鴻山·結城·燕岐·淸安等十三邑, 得一犁, 平澤·稷山·牙山·靑陽·大興·德山·沔川·唐津·海美·石城·林川·韓山·庇仁·藍浦·保寧·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永同·報恩·淸州·懷仁·文義等二十六邑, 得一鉏是如爲白乎旣. 又於今月二十三日寅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同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 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 前雨僅爲救急, 而今霏庶望周洽, 爲民事誠爲多幸是白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진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내 개었으며,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온양·예산·정산·부여·홍산·결성·연기·청안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직산·아산·청양·대흥·덕산·면천·당진·해미·석성·임천·한산·비인·남포·보령·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영동·보은·청주·회인·문의 등 2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린 비로 위급함을 겨우 구해냈고 지금은 주룩주룩 내려 거의 두루 적셔줄 가망이 있어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89. 1852년(철종 3) 3월 25일(양력 5월 13일)

錦營啓錄 3책(17a~17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5b~605c)

今月二十日, 公州等三十九邑, 雨澤所得分數及二十三日寅時量, 始雨, 至同日午時, 測雨器水深, 爲一寸七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三日午時以後, 間或霏灑, 連爲陰翳, 至二十五日辰時, 始乃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分, 竝計前後, 合爲二寸是白乎跡. 續接各邑所報, 則二十日之雨, 前啓外, 洪州·舒川·槐山·延豐·新昌·瑞山·泰安·黃澗·青山·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六邑鎮, 得一鉏, 二十三日之雨, 公州·全義兩邑, 得二犁, 天安·定山·洪州·扶餘·懷德·淸州·淸安等七邑, 得一犁, 青陽·大興·沔川·林川·舒川·魯城·藍浦·恩津·連山·鎭岑·燕岐等十一邑, 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0일 공주 등 39개 고을의 우택으로 내린 양 및 2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23일 오시 이후로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다가 연이어 먹구름이 끼어 25일 진시에 이르러 비로소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3푼이었고,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2치였습시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0일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홍주·서천·괴산·연풍·신창·서산·태안·황간·청산·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6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23일 비로 공주·전의 두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정산·홍주·부여·회덕·청주·청안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양·대흥·면천·임천·서천·노성·남포·은진·연산·진잠·연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0. 1852년(철종 3) 3월 29일(양력 5월 17일)

錦營啓錄 3책(17b~18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5c~605d)

道內農形, 及今月二十三日, 雨澤, 公州等二十邑所得分數,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槐山·延豐兩邑, 得二犁, 木川·稷山·溫陽·牙山·禮山·德山·海美·鴻山·庇仁·靑山·報恩·懷仁·文義·鎭川·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二十邑, 得一犁, 平澤·新昌·唐津·瑞山·泰安·石城·韓山·保寧·結城·沃川·永同·黃澗·平薪等十三邑鎭,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秋耨次第胚胎, 而初未茁長, 終難蘇醒. 目下所見, 已爲判歎, 春耨得雨之後, 方始向茂, 注秧付種, 漸次爲之, 早黍粟和種豆太, 及木花, 方張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3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2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괴산·연풍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직산·온양·아산·예산·덕산·해미·홍산·비인·청산·보은·회인·문의·진천·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2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신창·당진·서산·태안·석성·한산·보령·결성·옥천·영동·황간·평신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배었는데 처음에 싹이 자라지 못했고 결국에는 살아나기 어려워서 눈앞에 본 바로는 이미 흉년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봄보리는 비가 내린 뒤로 막 비로소 무성해졌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범씨 뿌리기를 점차 하였습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1. 1852년(철종 3) 4월 4일(양력 5월 22일)

錦營啓錄 3책(18a~18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5d~605d)

今月初三日卯時量，始雨，間間霏灑，至同日酉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各邑雨澤，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2. 1852년(철종 3) 4월 6일(양력 5월 24일)

錦營啓錄 3책(18a~1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5d~606a)

今月初三日卯時量, 始雨, 至同日酉時, 開霽, 測雨器水深爲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牙山·德山·扶餘·懷德·沃川·靑山·懷仁·文義·燕岐·靑安·陰城等十一邑, 得一鉏, 公州·木川·新昌·禮山·定山·靑陽·大興·洪州·石城·鴻山·保寧·結城·魯城·恩津·連山·報恩·靑州·鎭川·瑞山·平薪等二十邑鎭, 沍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아산·덕산·부여·회덕·옥천·청산·회인·문의·연기·청안·음성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공주·목천·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석성·홍산·보령·결성·노성·은진·연산·보은·청주·진천·서산·평신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93. 1852년(철종 3) 4월 8일(양력 5월 26일)

錦營啓錄 3 (18b~1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 (606a~606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間或發穗, 春麴日漸茁茂, 注秧付種, 方始立苗, 早黍粟和種, 豆太及木花, 幾盡耕播是如爲白遣, 今月初七日寅時量, 始雨, 或霏或霨, 至翌日卯時, 仍爲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二分是白如乎, 向後農形及各邑得雨多寡,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무성해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의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과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4. 1852년(철종 3) 4월 11일(양력 5월 29일)

錦營啓錄 3 (18b~19a) /各司謄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謄錄 3 (606a~606b)

今月初七日寅時量, 始雨, 至翌日卯時, 開霽, 測雨器水深, 爲三寸二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溫陽·靑陽·洪州·德山·扶餘·林川·韓山·藍浦·保寧·恩津·連山·懷德·燕岐·淸州·鎭川等十六邑, 得二犁. 天安·牙山·定山·大興·海美·鴻山·結城·魯城·鎭岑·文義等十邑, 得一犁, 唐津·石城·報恩·懷仁等四邑, 得一鉏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온양·청양·홍주·덕산·부여·임천·한산·남포·보령·은진·연산·회덕·연기·청주·진천 등 1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아산·정산·대흥·해미·홍산·결성·노성·진잠·문의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당진·석성·보은·회인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5. 1852년(철종 3) 4월 14일(양력 6월 1 일)

錦營啓錄 3 (19a~19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 (606b~606c)

今月初七日, 雨澤, 公州等三十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永同·黃澗·延豐等三邑, 川渠漲滿, 全義·木川·庇仁·淸安·槐山等五邑, 得二犁, 稷山·平澤·新昌·禮山·沔川·瑞山·泰安·舒川·沃川·靑山·陰城·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平薪等十七邑鎮,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三日卯時量, 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寅時, 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是白如乎, 各邑所得,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7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3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동·황간·연풍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전의·목천·비인·청안·괴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평택·신창·예산·면천·서산·태안·서천·옥천·청산·음성·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평신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6. 1852년(철종 3) 4월 16일(양력 6월 3일)

錦營啓錄 3 (19b~19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 (606c~606d)

今月十三日卯時量, 始雨, 至翌日寅時, 開霽, 測雨器水深, 爲一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德山·懷仁·槐山等三邑, 得二犁, 公州·全義·溫陽·禮山·定山·青陽·洪州·扶餘·鴻山·結城·懷德·報恩·文義·燕岐·淸安·堤川等十六邑, 得一犁. 木川·稷山·新昌·大興·泰安·石城·林川·韓山·魯城·恩津·連山等十一邑, 得一鉏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묘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덕산·회인·괴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온양·예산·정산·청양·홍주·부여·홍산·결성·회덕·보은·문의·연기·청안·제천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직산·신창·대흥·태안·석성·임천·한산·노성·은진·연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7. 1852년(철종 3) 4월 20일(양력 6월 7일)

錦營啓錄 3책(19b~20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6d~606d)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雨澤，德山等三十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忠州·延豐兩邑，得二犁，海美·瑞山·庇仁·藍浦·青山·淸州·鎭川·陰城·淸風·丹陽·永春等十一邑，得一犁，天安·平澤·牙山·沔川·唐津·舒川·保寧·鎭岑·沃川·永同·黃澗·平薪等十二邑鎭，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間始入實，春麴幾皆胚胎，注秧付種，次第向青，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張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의 우택으로 덕산 등 3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연풍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미·서산·비인·남포·청산·청주·진천·음성·청풍·단양·영춘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평택·아산·면천·당진·서천·보령·진잠·옥천·영동·황간·평신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그사이에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을 뻗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8. 1852년(철종 3) 4월 28일(양력 6월 15일)

錦營啓錄 3책(21a~2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7b~607c)

今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間間霏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而見今陰雲不解，餘意頗緊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더 내릴 조짐이 자못 강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9. 1852년(철종 3) 4월 30일(양력 6월 17일)

錦營啓錄 3책(21a~2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7c~607d)

道內農形及今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二十八日卯時以後，間間霏微，連爲陰翳，至二十九日酉時，仍爲開霽，更無所得分數之可論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二十七日之雨，淸州·沃川·大興·懷德·禮山·結城·永同等七邑，得一犁，公州·木川·平澤·牙山·新昌·溫陽·定山·靑陽·鴻山·庇仁·保寧·連山·鎭峇·報恩·懷仁·燕岐·鎭川·陰城等十八邑，得一鋤，天安·全義·石城·扶餘·林川·魯城·恩津等七邑，沍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幾皆成熟，春麴次第發穗，注秧付種，漸次茁茂，汚下洞畓，間或移秧，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始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8일 묘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연이어 질은 구름이 끼더니 29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양은 다시 따질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7일의 비로 청주·옥천·대흥·회덕·예산·결성·영동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목천·평택·아산·신창·온양·정산·청양·홍산·비인·보령·연산·진잠·보은·회인·연기·진천·음성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전의·석성·부여·임천·노성·은진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익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점차 싹이 무성해지고, 지대가 낮은 동네 논은 간혹 모내기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0. 1852년(철종 3) 5월 초9일(양력 6월 26일)

錦營啓錄 3책(22a~22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7d~608a)

道內農形及今月初六日未時量始雨，至翌日辰時，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初七日辰時以後，雲蒸風薰，載陰載暘是白如可，至初九日寅時，又爲始雨，一場驟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而仍卽開霽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初六日之雨，公州·定山·扶餘等三邑，得一犁，德山·保寧·懷仁·大興·鴻山·魯城·庇仁等七邑，得一鋤，恩津·禮山·石城·林川·懷德·韓山·青陽·燕岐等八邑，浥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耨方始刈穫，春耨次第入實，畚庫漸次移秧，付種乾播，間或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方張再除草，而去月二十七日以後，數次雨澤，一未浹洽，除非污下洞畚及川汙引漑處外，原野高燥之地，姑難移插，秧節不無晚時之慮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6일 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7일 진시 이후 구름과 바람이 찌는 듯이 후덥지근하고 언뜻언뜻 흐리거나 별이 나타나 초9일 인시에 이르러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으며 이내 즉시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의 비로 공주·정산·부여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덕산·보령·회인·대흥·홍산·노성·비인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은진·예산·석성·임천·회덕·한산·청양·연기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막 베어 수확하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고, 논에는 점차 모내기하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이후 몇 차례 우택이 있었는데 한 번도 두루 흡족하지 않아, 낮은 지대의 동네 논 및 시내나 보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 별판이나 높고 메마른 땅에는 아직 옮겨심기 어려워, 모내기 철은 시기에 늦을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1. 1852년(철종 3) 5월 13일(양력 6월 30일)

錦營啓錄 3책(22b~22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8a~608b)

今月初九日雨澤，公州等十一邑，所得分數及平澤祈雨祭，今月初十日爲始，直爲設行，天安·稷山兩邑，請行祈雨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初九日之雨，前啓外，青山·懷仁·扶餘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遣，祈雨祭段，前啓外，全義·禮山·石城等三邑，亦爲請報，故使之觀勢設行爲白乎旆，又於今月十三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午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而見方細霏不止，繼此沛然，方切顚望爲白乎旆，向後形止及各邑得雨多寡，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우택으로 공주 등 11개 고을에 내린 양 및 평택의 기우제는 이번 달 초10일부터 곧장 시행하고, 천안·직산 2개 고을에서 기우제 시행을 요청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산·회인·부여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전의·예산·석성 등 3개 고을도 보고로 요청하였으므로 형세를 보아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1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 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늘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는데, 이후로도 세차게 내려주 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2. 1852년(철종 3) 5월 15일(양력 7월 2일)

錦營啓錄 3책(22b~23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8b~608d)

今月初九日雨澤, 公州等十四邑, 所得分數, 平澤祈雨祭, 今月初十日爲始, 直爲設行, 天安等五邑, 亦以祈雨請報緣由及今月十三日寅時量始雨, 至同日午時, 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十三日午時以後, 間間霏灑, 連爲陰翳, 至十五日辰時, 仍爲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分, 竝計前後, 合爲二寸六分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初九日之雨, 前啓外, 忠州·槐山·延豐等三邑, 得一犁, 洪州·瑞山兩邑, 得一鋤, 十三日之雨, 公州·定山兩邑, 得二犁, 溫陽·林川·全義·青陽·燕岐·扶餘等六邑, 得一犁, 木川·天安·稷山·石城·韓山·連山等六邑, 以始雨形止, 先爲報來是白遣. 祈雨祭前啓請報邑中, 全義段, 今番得雨, 雖未優洽, 足爲解渴, 且有餘意, 祈雨祭姑不設行是如爲白乎旆. 天安·溫陽·禮山等三邑段, 近日以來, 蟲災忽發, 黑質赤頭, 形似松蟲, 長如二眠之蠶, 而遍蔓原野, 田種畚秧, 處處剝蝕, 爲害不少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待各邑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우택으로 공주 등 14개 고을에 내린 양과 평택의 기우제는 이번 달 10일부터 곧장 시행하고, 천안 등 5개 고을도 기우제를 보고로 요청한 연유 및 이번 달 13일 인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오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3일 오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더니 15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2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총 2치 6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괴산·연풍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홍주·서산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13일의 비로 공주·정산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온양·임천·전의·청양·연기·부여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목천·천안·직산·석성·한산·연산 등 6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요청하는 보고를 하였다고 앞서 보고한 고을 가운데 전의의 경우 이번에 내린 비가 비록 넉넉히 흠족하지는 못했지만 해갈하기에는 충분하며, 또 더 내릴 조짐이 있어 기우제는 일단 시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천안·온양·예산 등 3개 고을의 경우,

요즈음 벌레 재해가 갑자기 발생하였는데, 검은 바탕에 붉은 머리이고 모양은 송충이와 비슷하며 길이는 두잠누에 만합니다. 벌판에 두루 퍼져서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논에 모내기한 것을 곳곳에서 갉아 먹어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각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3. 1852년(철종 3) 5월 19일(양력 7월 6일)

錦營啓錄 3책(24a~24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9a~609c)

今月十三日雨澤，公州等三十七邑所得分數，祈雨祭平澤·禮山兩邑，次第設行，天安等三邑，不卜日計料，新昌亦爲請報，天安等八邑，蟲災熾盛緣由及今月十六日申時量始雨，至翌日辰時，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形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十七日辰時以後，間間霏灑，至十九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一寸七分，竝計前後，合爲四寸一分，而尙此霏灑不止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三日之雨，前啓外，泰安·延豐兩邑，川渠漲滿，唐津·文義·淸安·槐山等四邑，得二犁，舒川·魯城·保寧·結城·永同·靑山·沃川·平薪等八邑，得一犁，十六日之雨，公州·溫陽兩邑，川渠漲滿，天安·定山·石城·燕岐等四邑，得二犁，木川·牙山·稷山·禮山·扶餘等五邑，以始雨形止，先爲報來是白遣。祈雨祭段，前啓不卜日設行計料邑中，天安今月十六日設行，而仍爲停止，稷山十六日爲始設行，石城今番得雨之後，仍不設行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粳幾皆刈穫，春粳漸次黃熟，畚庫隨其生水，次第移秧，付種乾播，已盡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而天安等八邑，蟲災尙不寢熄，爲害轉甚，前啓外，公州·稷山·恩津·文義等四邑，亦發蟲災，而蟲形微玄有潤，長過一寸，到底熾蔓，田種畚秧及蔬菜之屬，剝食莖葉，多至全棄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우택으로 공주 등 37개 고을에 내린 양과 기우제를 평택·예산 2개 고을은 차례로 시행하고 천안 등 3개 고을은 날짜를 가리지 않을 계획이며 신창도 또한 보고로 요청한 것과 천안 등 8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세차게 번지는 연유 및 이번 달 16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이 2치 4푼인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7일 진시 이후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1치 7푼이었으며, 지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총 4치 1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며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태안·연풍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당진·문의·청안·괴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서천·노성·보령·결성·영동·청산·옥천·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16일의 비로 공주·온양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정산·석성·연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아산·직산·예산·부여 등 5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날짜를 가리지 않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천안은 이번 달 16일에 시행하였으나 이내 중지하였고, 직산은 1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석성은 이번 비가 내린 후 이내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봄보리는 점차 누렇게 익고, 논에는 물이 생기는 대로 차례로 모내기하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합니다. 천안 등 8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아직 그치지 않고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공주·직산·은진·문의 등 4개 고을도 벌레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벌레의 모양은 거무스레하며 윤기가 있고 길이는 1치가 넘는데 곳곳에서 세차게 번져,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논에 모내기한 것 및 채소 따위의 줄기와 잎을 갉아 먹어 전부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4. 1852년(철종 3) 5월 20일(양력 7월 7일)

錦營啓錄 3책(24b~25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9c~609d)

今月十六日雨澤, 至十九日卯時, 測雨器水深, 合爲四寸一分, 而公州·溫陽兩邑, 川渠漲滿, 天安等四邑, 得二犁, 木川等五邑, 以始雨形止, 先爲報來, 平澤等三邑, 祈雨祭次第設行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十九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至戌時, 連爲滂沱, 間雖少歇, 旋又暴霖, 至二十日午時,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尺三分, 竝計前後, 合爲一尺四寸三分, 而尙此霏灑不止是白乎旆. 以臣營下所見言之, 江川汎濫, 溝澮盈溢, 道路亦難通涉, 而間接各邑所報, 則十六日之雨, 前啓始<雨>邑中, 禮山川渠漲滿, 祈雨祭仍爲停止, 前啓外, 韓山得二犁, 林川·靑陽兩邑, 得一犁是如爲白遣, 外他諸邑, 俱無所報, 似緣於阻水之致是白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우택으로 19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총 4치 1푼이었으며, 공주·온양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 등 5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으며, 평택 등 3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9일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연이어 퍼붓듯이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사이에 비록 조금 그쳤지만, 곧바로 또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20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자 3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총 1자 4치 3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면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도랑물이 차서 넘쳤으며 도로 또한 지나다니기 어렵습니다. 그사이에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비로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예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차자 기우제를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한산은 2려가 내렸고, 임천·청양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의 다른 여러 고을은 모두 보고한 것이 없는데, 아마도 물에 막힌 탓인 듯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5. 1852년(철종 3) 5월 21일(양력 7월 8일)

錦營啓錄 3책(25b~26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09d~610a)

今月十六日雨澤，至十九日卯時，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自十九日戌時，至二十日午時，測雨器水深，又爲一尺二分形止及十六日〈之〉雨，公州等十邑所得分數，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二十日午時以後，間間霏灑，至二十一日申時，始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六分，通計前後，合爲一尺四寸九分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十六日之雨，前啓始雨邑中，木川川渠漲滿，前啓外，平澤·全義·連山·鎭岑·鎭川等五邑，川渠漲滿，而平澤祈雨祭，仍爲停止，藍浦·保寧·結城·淸州·魯城等五邑，得一犁是如爲白遣。十九日之雨，公州·定山·燕岐等三邑，江川汎濫，全義·石城·魯城·連山等四邑，大少川渠，舉皆漲溢，沿江傍川之地，多有潰決沈覆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우택으로 19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4치 1푼이고, 19일 술시부터 20일 오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또 1자 2푼인 경위와 16일의 비로 공주 등 10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0일 오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신시에 이르러 비로소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6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4치 9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비로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목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평택·전의·연산·진잠·진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택은 기우제를 이내 중지하였고, 남포·보령·결성·청주·노성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19일의 비로 공주·정산·연기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석성·노성·연산 등 4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대부분 불어나 넘쳤고, 강 주변이나 시냇가 지역은 독이 터져 잠기거나 흩에 덮일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6. 1852년(철종 3) 5월 28일(양력 7월 15일)

錦營啓錄 3책(26a~27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10b~610c)

道內農形及今月十九日雨水, 公州等四十四邑鎮被災形止, 今月二十四日申時量始雨, 至翌日辰時,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二十五日辰時以後, 間間霏灑, 至二十七日酉時乃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一寸三分, 竝計前後, 合爲二寸五分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九日之雨, 前啓外, 忠州·槐山·丹陽·永春等四邑, 江川汎濫, 泰安·唐津·藍浦·永同·黃澗·淸安·陰城·堤川等八邑, 大小川渠, 無不漲溢, 田畓之潰決汰落, 永失區域者, 種種有之是如爲白遣. 自二十四日, 至二十七日之雨, 林川川渠漲滿, 公州得二犁, 溫陽·新昌·定山·青陽·魯城·扶餘·鴻山·淸州·淸安等九邑, 以始雨形止, 先爲報來是白乎旆. 農形段, 秋粳幾盡收穫, 春粳亦皆成熟, 而初因曠乾, 舉皆昂藏, 終值潦雨, 久被蒸濕, 已熟者不得及時刈取, 已穫者未由趁即曬曝, 或登場而爛傷, 或在田而生芽, 春秋兩麥, 竟未免慘歉, 畓庫之未移處, 次第移秧, 而節晚力窘, 又患秧乏, 仍爲未移者亦多. 若其晚移者, 纔得移插, 未及着根, 蕩漚而漂流, 淳滯而消灑, 與未移無異者, 殆居其半, 早移秧方張初鋤, 付種乾播, 間或再鋤,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連爲除草, 而田濤泥濘, 多致停役, 根耕豆太及晚黍粟, 高燥之田, 方始耕播是如爲白遣. 前啓中, 天安等十二邑, 蟲災, 十九日大雨之後, 始有寢息漸, 前啓外, 忠州·沔川·德山·唐津等四邑, 亦發蟲患, 積雨之餘, 猶未洗滌, 不無熾蔓之慮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9일 빗물로 공주 등 44개 고을과 군영의 피해 경위와 이번 달 24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5일 진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7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3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총 2치 5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괴산·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태안·당진·남포·영동·황간·청안·음성·제천 등 8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지 않은 곳이 없고, 논과 밭은 두둑이 터지거나 사태로 떨어져 나가

영영 없어진 구역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의 비로 임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는 2려가 내렸고, 온양·신창·정산·청양·노성·부여·홍산·청주·천안 등 9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수확했고, 봄보리도 다 익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뭄으로 인해 대부분 앙상하더니 끝내는 장맛비를 만나 오래도록 찌는 듯한 습기를 만나 이미 익은 것은 때맞춰 베어 거둘 수 없었고 이미 수확한 것은 진작 햇볕을 쬔 길이 없어 더러 타작하면 부스러지거나 더러 밭에서 썩어 나니, 가을보리와 봄보리는 끝내 참혹한 흉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옮겨심지 못한 논에는 차례로 모내기하는데 때는 늦고 힘은 부족하며 또 모가 부실한 것을 걱정하여 이내 모내기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늦게 모내기하는 경우 겨우 옮겨 심을 수는 있겠지만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겨 녹아버려, 모내기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일찍 모내기한 것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무논에 범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합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지만 질퍽질퍽한 흙구덩이 밭에서는 일을 중지한 곳이 많고, 그루같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와 늦고 메마른 지역의 밭에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천안 등 12개 고을은 벌레 재해가 19일 큰비가 내린 뒤 비로소 점점 그치지만,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면천·덕산·당진 등 4개 고을도 벌레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쌓인 비 끝에 여전히 씻어 내지 못하여 세차게 번질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07. 1852년(철종 3) 6월 초3일(양력 7월 19일)

錦營啓錄 3책(33b~34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14c~614d)

去月二十四日雨水, 至二十七日酉時乃霽, 測雨器水深, 合爲二寸五分, 而林川川渠漲滿, 公州得二犁, 溫陽等九邑, 以始雨形止, 先爲報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四日, 至二十七日之雨, 前啓始雨邑中, 溫陽川渠漲滿, 新昌得二犁, 扶餘·鴻山·淸州等三邑, 得一犁, 定山·靑陽·魯城·淸安等四邑, 得一鉏. 前啓外, 稷山·瑞山·沔川·唐津·保寧等五邑, 川渠漲滿, 牙山·平澤·大興·燕岐·槐山·延豐等六邑, 得一犁, 禮山·洪州·懷德·懷仁·鎭川等五邑, 得一鉏, 全義·木川·海美·沃川等四邑, 沍塵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4일 빗물은 27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2치 5푼이며, 임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는 2려가 내렸고, 온양 등 9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온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의 비로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온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창은 2려가 내렸고, 부여·홍산·청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산·청양·노성·청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직산·서산·면천·당진·보령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평택·대흥·연기·괴산·연풍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예산·홍주·회덕·회인·진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의·목천·해미·옥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8. 1852년(철종 3) 6월 19일(양력 8월 4일)

錦營啓錄 3책(41b~4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19c~619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付種乾播及早移秧, 幾皆再鋤, 晚移秧間始初鋤,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連爲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張立苗, 而公州·德山·新昌·恩津·牙山等六邑, 洞畝過茁之禾, 多發愆蠹蹲縮之患, 痒損不少是如爲白遣. 今月十六日, 各邑間有驟雨所得報來處, 溫陽得二犁, 淸州·文義·黃澗·靑山·懷德等五邑, 得一犁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 鱗次陳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하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그사이에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싹이 돋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덕산·신창·은진·아산 등 5개 고을은 동네 논의 지나치게 자란 벼는 건잠준축의 근심이 많이 발생하여 손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 각 고을은 그사이에 소나기가 내렸다는 보고가 들어온 곳이 있는데 온양은 2려가 내렸고, 청주·문의·황간·청산·회덕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09. 1852년(철종 3) 7월 초1일(양력 8월 15일)

錦營啓錄 3책(48a~48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23c~623d)

去月二十七日申時量始雨, 或霏或灑, 至翌日卯時, 仍爲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是白如乎. 各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더니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0. 1852년(철종 3) 7월 초4일(양력 8월 18일)

錦營啓錄 3책(48a~48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23d~624a)

去月二十九日申時量始雨, 至翌日卯時, 仍爲開霽, 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洪州·溫陽·永同·淸安等五邑, 得一犁, 全義·木川·稷山·牙山·定山·大興·海美·藍浦·保寧·鎭岑·懷德·燕岐等十二邑, 得一鉏, 天安·石城·扶餘·鴻山·魯城·恩津·連山·文義等八邑, 浥塵, 而惜乾之餘, 乍雨旋止, 雖其犁鉏所得之邑, 不過爲目前解渴, 至若浥塵之處, 殆同沃焦, 原野高燥之地, 田畝各種, 漸多萎枯, 所見極甚悶然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홍주·온양·영동·청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직산·아산·정산·대흥·해미·남포·보령·진잠·회덕·연기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석성·부여·홍산·노성·은진·연산·문의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고, 비록 1려·1서의 비가 내린 고을도 눈앞의 해갈에 불과하니,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린 곳의 경우 뜨거운 술에 물방울을 뿌리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별관과 높고 메마른 지역에 있는 논밭의 각종 곡식은 점점 시들고 마르는 것이 많으니 보기에 그지없이 매우 걱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1. 1852년(철종 3) 7월 초8일(양력 8월 22일)

錦營啓錄 3책(49a~49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24b~624b)

去月二十九日雨澤，公州等二十五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德山·瑞山·鎭川·結城等四邑，得一犁，平澤·新昌·禮山·靑陽·沔川·泰安·沃川·黃澗·靑山·淸州·陰城·槐山·平薪等十三邑鎭，得一鉏，唐津·林川·韓山·舒川·庇仁·報恩·懷仁等七邑，浥塵是如爲白遣。又於今月初七日亥時量始雨，一直霑下，至翌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寸三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 우택으로 공주 등 2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덕산·서산·진천·결성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택·신창·예산·청양·면천·태안·옥천·황간·청산·청주·음성·괴산·평신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당진·임천·한산·서천·비인·보은·회인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7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곧장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5치 3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뢰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2. 1852년(철종 3) 7월 초10일(양력 8월 24일)

錦營啓錄 3책(49a~49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24b~624d)

道內農形及今月初七日亥時量始雨，至翌日辰時，測雨器水深爲五寸三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初八日辰時以後，間間霏微，載陰載暘，至初九日午時，仍爲開霽，別無所得分數之更論是白乎旃。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林川·懷德等三邑，川渠漲滿，牙山·禮山·鴻山·燕岐等四邑，得二犁，天安·石城·扶餘·魯城·連山·報恩·文義·永同·藍浦·唐津等十邑，得一犁，恩津·懷仁兩邑，得一鉏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及早黍粟，方張胚胎，中稻漸次茁茂，晚稻幾盡再鉏，而若其最晚移者，初因潦水，多致消灑，繼值嘆乾，又多枯萎，難望其成就，和種豆太及木花，間始起花，根耕豆太及晚黍粟，次第再除草，而鉏耘愆時，蕪穢居多是如爲白乎旃。前啓中，公州等十六邑，愆蠶蹲縮之患，尚未寢息，洞畚過茁之禾，其害偏甚，已多全棄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7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5치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8일 진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초9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양은 다시 따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임천·회덕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예산·홍산·연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석성·부여·노성·연산·보은·문의·영동·남포·당진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진·회인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중벼는 점차 무성해지고 있으며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처음에는 장마로 인해 많이 녹아 없어졌고 계속해서 가뭄을 만나 또 많이 시들고 말라 여물기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그사이에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그루갈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하고 있는데, 김매기 때를 놓쳐 잡초가 무성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16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동네 논이 싹이 지나치게 자란 벼는 재해가 특히 심하여 이미 전부 포기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3. 1852년(철종 3) 7월 20일(양력 9월 3일)

錦營啓錄 3책(49b~50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24d~625a)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雨澤，公州等十四邑所得分數，十五日戌時量始雨，至翌日午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十三日之雨，前啓外，禮山·平薪兩邑鎮，得一犁，洪州·德山·藍浦·黃澗·青山等五邑，得一鉏，舒川·石城·清安等三邑溫塵，十五日之雨，清州·燕歧·懷德·文義·槐山·延豐等六邑，川渠漲滿，公州·木川·溫陽·青山·清安等五邑，得二犁，稷山·牙山·新昌·洪州·瑞山·泰安·扶餘·鴻山·藍浦·保寧·連山·報恩·鎮川等十三邑，得一犁，天安·大興·德山·韓山·舒川·魯城·恩津·鎭岑·懷仁等九邑，得一鉏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及早黍粟，幾皆發穗，中稻間間胚胎，晚稻漸次茁茂，和種豆太，方張結穀，木花漸次結穎，根耕豆太及晚黍粟，連爲除草，而前啓中，公州等十六邑，愆蠶蹲縮之患，除非最爲偏甚，已屬全棄者外，漸至寢息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 우택으로 공주 등 14개 고을에 내린 양과 15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1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예산·평신 2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홍주·덕산·남포·황간·청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천·석성·청안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렸고, 15일의 비로 청주·연기·회덕·문의·괴산·연풍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목천·온양·청산·청안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직산·아산·신창·홍주·서산·태안·부여·홍산·남포·보령·연산·보은·진천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대흥·덕산·한산·서천·노성·은진·진잠·회인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중벼는 간간이 알을 배고, 늦벼는 점차 무성해지고, 섞어 짓는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목화는 점차 다래를 맺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김매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16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특히 매우 심하여

이미 전부 포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점차 그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14. 1852년(철종 3) 7월 29일(양력 9월 12일)

錦營啓錄 3책(50a~50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25a~625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漸次入實, 中稻方張發穗, 晚稻及晚黍粟, 間始胚胎, 根耕豆太, 次第起花, 木花連爲結顆, 而扶餘·石城·恩津等三邑, 忽發蟲災, 形似蟋蟀, 細若蜉蝣, 而有翼能飛, 漸至熾盛, 聚着禾稻, 稍食如蠹, 既發之穗, 方胚之莖, 輒皆枯黃, 多至全棄是如爲白乎旆. 今月二十七日酉時量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九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 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 非時冷雨, 連日過霏, 田畝各種, 想多受損,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알이 들고, 중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그사이에 알을 배기 시작하였으며,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꽃이 피고 목화는 연이어 다래가 맺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석성·은진 등 3개 고을은 갑자기 벌레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벌레의 모습은 흡사 귀뚜라미 같고 크기는 하루살이만큼 작으며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는데, 점점 세차게 번지기에 이르러 벼에 다닥다닥 붙어 누에같이 조금씩 갉아 먹으니 이미 팬 이삭과 막 알을 뺀 줄기가 삼시간에 모두 누렇게 말라서 전부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달 27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아닌 찬비가 연일 지나치게 주룩주룩 내리니 논밭의 각종 곡식이 손상을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5. 1852년(철종 3) 7월 30일(양력 9월 13일)

錦營啓錄 3책(52b~52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26c~626d)

今月二十七日酉時量始雨，至二十九日卯時，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二十九日卯時以後，暫霪旋止，載陰載暘，至同日戌時，仍爲開霽，別無所得分數之更論是白乎旆。先接近邑所報，則伊日雨，公州·恩津兩邑，得三犁，溫陽得二犁，牙山·大興·扶餘·鴻山·連山等五邑，得一犁，韓山·林川兩邑，得一鉏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7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9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9일 묘시 이후 잠깐 주룩주룩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고,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양은 다시 따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가까운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은진 2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온양은 2려가 내렸고, 아산·대흥·부여·홍산·연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한산·임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6. 1852년(철종 3) 8월 초10일(양력 9월 23일)

錦營啓錄 3책(60b~61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31c~631d)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次第入實，中稻方張受辛，晚稻及晚黍粟，幾皆胚胎，間間發穗，根耕豆木，漸次結殼，木花方始綻絮是如爲白遣。前啓中，扶餘等三邑蟲災，尙不寢息，而前啓外，公州·林川·燕岐·舒川·定山·鴻山·天安等七邑，亦發蟲災，蟲形似蟻而有翼，或躍而或飛，聚着禾稻，剝蟲穗莖，輒至萎枯，無望成實，而汚下洞畓，其害尤甚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고, 중벼는 한창 고통을 겪고 있으며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알을 배고, 간간이 이삭이 팬 것도 있으며, 그루같이한 콩과 팥은 점차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막 숨이 터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부여 등 3개 고을의 벌레 재해는 아직 그치지 않았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공주·임천·연기·서천·정산·홍산·천안 등 7개 고을도 벌레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벌레의 형상은 개미와 흡사하고 날개가 있는데 뛰어오르거나 날아서 벼에 다닥다닥 붙어 이삭과 줄기를 갉아 먹어 순식간에 시들어 말라버려서 알이 영글 가망이 없으며 지대가 낮은 동네 논은 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7. 1852년(철종 3) 8월 20일(양력 10월 3일)

錦營啓錄 3책(61a~61b)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31d~632a)

道內農形及扶餘等十邑蟲災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次第向熟, 中稻漸次垂穎, 晚稻及晚黍粟, 根耕豆太, 方始入實, 木花間或摘取是如爲白遣. 蟲災段, 前啓中, 恩津·鴻山·燕岐等三邑, 少有寢息之漸, 扶餘·石城·公州·林川·舒川·定山·天安等七邑, 一向熾蔓, 終不止息. 前啓外, 瑞山·泰安·唐津·沔川·德山·海美·結城·青陽·韓山等九邑, 亦有是災, 無論早晚各穀, 剝蝕莖葉, 向熟之實, 自致振落, 已發之穗, 輒皆枯黃, 甚或有舉一坪全棄者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부여 등 10개 고을의 벌레 재해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중벼는 점차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늦벼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간혹 솜을 따서 거둔다고 합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은진·홍산·연기 등 3개 고을은 조금씩 점차 그치고 있으며, 부여·석성·공주·임천·서천·정산·천안 등 7개 고을은 줄곧 세차게 번지며 끝내 그치지 않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산·태안·당진·면천·덕산·해미·결성·청양·한산 등 9개 고을도 벌레 재해가 있는데, 올곡·늦곡을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의 줄기와 잎을 갉아 먹어서 익어가던 알맹이가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이미 췌 이삭은 순식간에 다 누렇게 마르는데, 더러 온 벌판이 전부 포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8. 1852년(철종 3) 8월 29일(양력 10월 12일)

錦營啓錄 3책(61b~62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32b~632c)

道內農形及扶餘等十九邑, 蟲災形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間或刈穫, 中稻漸次黃熟, 晚稻及晚黍粟, 根耕豆太, 方始向熟, 木花連爲摘取是如爲白遣. 蟲災前啓中, 恩津·鴻山·燕岐等三邑, 雖漸寢息, 扶餘·石城·公州·林川·舒川·定山·天安·瑞山·泰安·唐津·沔川·德山·海美·結城·青陽·韓山等十六邑, 終不消滅, 漸加熾蔓. 前啓外, 大興·洪州·保寧·藍浦·溫陽·新昌等六邑, 亦發是災, 群如蝟虻, 飛如蚊虻, 聚着禾稻, 則莖輒萎枯, 實自剝落, 汚下洞畚, 其害尤甚, 無望食實, 將未免判歉, 言念民事, 誠甚憂悶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부여 등 19개 고을의 벌레 재해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간혹 베어 수확하고, 중벼는 점차 누렇게 익어가고 있으며 늦벼 및 늦기장·늦조와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익어가기 시작했고 목화는 연이어 솜을 따서 거둔다고 합니다. 벌레 재해는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은진·홍산·연기 등 3개 고을은 비록 점차 그치고 있지만, 부여·석성·공주·임천·서천·정산·천안·서산·태안·당진·면천·덕산·해미·결성·청양·한산 등 16개 고을은 끝내 소멸하지 않고 점점 세차게 번진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대흥·홍주·보령·남포·온양·신창 등 6개 고을도 역시 벌레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고슴도치나 나무굼벵이처럼 무리 지어 모기나 등에처럼 날아서 벼에 다닥다닥 붙으면 줄기가 순식간에 시들어 말라서 알맹이가 자연히 꺾여서 떨어지고, 지대가 낮은 동네 논은 피해가 더욱 심하여 먹을 열매를 가망이 없어 장차 흉년이라는 판가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과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19. 1852년(철종 3) 9월 초8일(양력 10월 20일)

錦營啓錄 3책(62b~63a) /各司臚錄 6책 忠淸道監營狀啓臚錄 3책(632d~633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鎭川·陰城·延豐·堤川·丹陽·永春等六邑, 去月二十八日夜, 霜降, 忠州·〈清州·〉淸風·槐山·淸安·公州·燕岐·全義·木川·稷山·平澤·新昌·魯城·恩津·連山·懷德·沃川·報恩·靑山·永同·黃澗·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保寧·結城·德山等二十八邑, 今月初二日夜, 霜降是如爲白乎旆. 農形段, 田畚各種之酷被水患, 初無穀形者, 偏受蟲損, 全不掛鎌者外, 無論早晚, 舉皆成熟, 次第收穫, 木花則夏間巨浸, 根莖旣多靡爛, 秋後久嘆, 枝葉亦皆萎枯, 如干晚顆, 含縮而不發, 及夫霜信遽促, 仍爲飄零無餘, 甫田所收, 不盈傾筐. 今年綿歉之畢竟至此, 果非始料之所及是如爲白有臥乎所. 一邑之中, 災實不齊, 全省之內, 沿峽各異, 分而言之, 或近穴農, 統而計之, 已判歉歲是白如乎. 列邑分等酌量磨鍊,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진천·음성·연풍·제천·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지난달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충주·청주·청풍·괴산·청안·공주·연기·전의·목천·직산·평택·신창·노성·은진·연산·회덕·옥천·보은·청산·영동·황간·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보령·결성·덕산 등 29개 고을은 이번 달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은 혹독하게 수해를 입어 애당초 곡식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벌레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어 전혀 낫을 댈 것도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올곡·늦곡을 따질 것 없이 대부분 잘 익어 차례로 수확하고 있으며, 목화는 여름 동안 크게 잠겨서 뿌리와 줄기가 이미 많이 썩어 문드러지고 가을 이후에는 오래 가물어가지와 잎이 또 다 시들고 말라 어지간히 늦게 맺은 다래는 쭈그러져서 피어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서리가 내려서 이내 바람에 떨어지고 남은 것이 없으니 큰 밭에서 거둔 것이 기울어진 광주리도 채우지 못합니다. 올해 목화의 흉작이 끝내 여기에 이르니 정말로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한 고을에서도 재해와 결실이 고르지 않고 충청도 내 전체로도 해안과 산골짜기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해 말하자면 더러 풍흉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 가깝고 통틀어 계산하더라도 이미 흉년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을 참작하고 마련하여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0. 1853년(철종 4) 2월 18일(양력 3월 27일)

忠淸監營啓錄 4책(1b~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b~1c)

近接各邑所報，則農形秋耨始發青色，春耨間或耕播，治塋修堤，次第經紀是如爲白乎跡。今月十六日卯時量始雨，或霏或灑，至十七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요즘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비로소 푸른색을 띠고 봄보리는 간혹 갈아 씨를 뿌리며, 두둑과 방죽을 수리하는 일을 차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9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1. 1853년(철종 4) 2월 23일(양력 4월 1일)

忠淸監營啓錄 4책(2a~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c~1d)

今月十六日卯時量始雨，至十七日午時開霽，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連山·槐山等三邑，得三犁，扶餘·鴻山·恩津·燕岐·淸州·沃川等六邑，得二犁，全義·木川·天安·溫陽·靑陽·定山·石城·林川·韓山·鎭岑·魯城·懷德·鎭川·淸安·陰城·報恩·懷仁·文義等十八邑，得一犁，牙山·新昌·禮山·洪州·德山·海美等六邑，得一鋤，大興·沔川兩邑，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7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3치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연산·괴산 등 3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부여·홍산·은진·연기·청주·옥천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온양·청양·정산·석성·임천·한산·진잠·노성·회덕·진천·청안·음성·보은·회인·문의 등 1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아산·신창·예산·홍주·덕산·해미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대흥·면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2. 1853년(철종 4) 2월 29일(양력 4월 7일)

忠淸監營啓錄 4책(6a~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3d~4a)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雨澤，公州等三十五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永同·黃澗·永春等三邑，得三犁，舒川·庇仁·藍浦·青山·延豐·忠州·淸風·堤川·丹陽等九邑，得一犁，稷山·平澤·唐津·瑞山·泰安·保寧·結城·平薪等八邑，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秋麴青色漸新，春麴幾盡耕播，糞田鋤役，方張伊始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 우택으로 공주 등 3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동·황간·영춘 등 3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서천·비인·남포·청산·연풍·충주·청풍·제천·단양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직산·평택·당진·서산·태안·보령·결성·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른빛이 점점 짙어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갈아서 씨를 뿌렸으며 밭에 거름을 주고 가래질하는 일은 한창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3. 1853년(철종 4) 3월 초2일(양력 4월 9일)

忠淸監營啓錄 4책(15a~15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9a~9a)

去月二十九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至今月初一日戌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寸八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6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4. 1853년(철종 4) 3월 초5일(양력 4월 12일)

忠淸監營啓錄 4책(15b~16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9b~9c)

去月二十九日戌時量始雨, 至今月初一日戌時開霽, 測雨器水深, 爲六寸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淸州·平澤·溫陽·天安·沔川·瑞山·鴻山·韓山·藍浦·保寧·魯城·鎭岑·懷德·永同·靑山·全義·淸安·定山·泰安·林川·庇仁·結城·恩津等二十六邑, 川渠漲滿, 忠州·木川·稷山·牙山·新昌·禮山·靑陽·大興·德山·唐津·海美·扶餘·石城·舒川·報恩·懷仁·文義·燕岐·鎭川·平薪等二十邑鎭, 得二犁是如爲白遣. 又於今月初四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未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是白如乎. 各邑所得分數及去月二十九日雨澤未報邑形止, 待其報未[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9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번 달 초1일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6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청주·평택·온양·천안·면천·서산·홍산·한산·남포·보령·노성·진잠·회덕·영동·청산·전의·청안·정산·태안·임천·비인·결성·은진 등 2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충주·목천·직산·아산·신창·예산·청양·대흥·덕산·당진·해미·부여·석성·서천·보은·회인·문의·연기·진천·평신 등 20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4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 및 지난달 29일 우택으로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5. 1853년(철종 4) 3월 초10일(양력 4월 17일)

忠淸監營啓錄 4책(16a~1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c~9d)

道內農形及去月二十九日雨澤, 公州等四十六邑鎭所得分數, 今月初四日丑時量始雨, 至同日未時開霽,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之雨, 前啓外, 沃川·黃澗·陰城·延豐等四邑, 川渠漲滿, 槐山得二犁, 淸風·堤川·丹陽·永春等四邑, 得一犁是如爲白遣, 今月初四日之雨, 永同·黃澗兩邑, 川渠漲滿, 懷德·延豐兩邑, 得二犁, 公州·天安·溫陽·定山·鴻山·藍浦·魯城·恩津·報恩·懷仁·鎭川<等>十一邑, 得一犁, 忠州·淸州·洪州·淸風·淸安·燕岐·木川·稷山·平澤·牙山·禮山·大興·沔川·唐津·海美·泰安·林川·舒川·庇仁·連山·文義等二十一邑, 得一鋤, 全義·德山·石城·堤川等四邑, 涸塵是如是白遣. 又於今月初八日丑時量始雨, 間間霏灑, 至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 而連爲陰翳, 尙有餘意是白乎旃. 農形段, 秋甦漸次向茂, 春甦已盡耕播, 或始立苗, 糞畚鍤墾之役, 見今方張, 秧坂間又翻耕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及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9일 우택으로 공주 등 46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이번 달 초4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옥천·황간·음성·연풍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괴산은 2려가 내렸고, 청풍·제천·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영동·황간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회덕·연풍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천안·온양·정산·홍산·남포·노성·은진·보은·회인·진천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충주·청주·홍주·청풍·청안·연기·목천·직산·평택·아산·예산·대흥·면천·당진·해미·태안·임천·서천·비인·연산·문의 등 2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의·덕산·석성·제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8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9푼이었습니다. 그러

나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니 아직도 비가 더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갈아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논에는 거름을 내고 논두렁에 가래질하는 일이 현재 한창이
며, 못자리는 그사이에 또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6. 1853년(철종 4) 3월 12일(양력 4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16b~1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9d~10a)

今月初四日雨澤, 永同等四十邑所得分數及初八日丑時量始雨, 至翌日卯時, 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五日卯時以後, 或雨或雪, 載陰載陽, 至十一日酉時, 始乃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三分, 竝計前後, 合爲一寸二分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初四日之雨, 前啓外, 沃川·靑山·丹陽等三邑, 得一犁, 靑陽·扶餘·鎭岑·新昌·韓山·保寧·結城·陰城·槐山·永春·瑞山·平薪等十二邑鎭, 得一鋤, 初八日之雨, 黃澗·天安·牙山·溫陽等四邑, 得二犁, 公州·全義·木川·禮山·沔川·唐津·鴻山·舒川·庇仁·藍浦·保寧·鎭岑·懷德·靑山·報恩·文義·淸州·瑞山·平薪等二十一邑鎭, 得一犁, 稷山·定山·靑陽·大興·扶餘·林川·結城·魯城·恩津·連山·海美·燕岐等十二邑, 得一鋤, 石城·韓山兩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4일의 우택으로 영동 등 40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초8일 측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5일 묘시 이후 더러 비가 내리거나 누이 내리고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11일 유시에 이르러 비로소 개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3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1치 2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옥천·청산·단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양·부여·진잠·신창·한산·보령·결성·음성·괴산·영춘·서산·평신 등 12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초8일의 비로 황간·천안·아산·온양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예산·면천·당진·홍산·서천·비인·남포·보령·진잠·회덕·청산·보은·문의·청주·서산·평신 등 21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직산·정산·청양·대흥·부여·임천·결성·노성·은진·연산·해미·연기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석성·한산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7. 1853년(철종 4) 3월 17일(양력 4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17a~1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a~10b)

今月初八日雨澤, 至十一日酉時開霽, 測雨器水深, 合爲一寸二分, 而黃澗等三十九邑鎭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平澤·沃川·淸安·陰城·延豐等五邑, 得二犁, 洪州·新昌·懷仁·鎭川·忠州·淸風·丹陽等七邑, 得一犁, 泰安·永同·堤川·永春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의 우택은 11일 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2푼인 것과 황간 등 39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평택·옥천·청안·음성·연풍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홍주·신창·회인·진천·충주·청풍·단양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태안·영동·제천·영춘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28. 1853년(철종 4) 3월 20일(양력 4월 27일)

忠淸監營啓錄 4책(17b~1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b~10c)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耨漸向茁茂，春耨始發青色，畚庫間或初耕，秧板次第始役是白乎旃。今月十九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辰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푸른색을 띠기 시작했으며, 논은 간혹 초벌갈이하고 못자리는 차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달 1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6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9. 1853년(철종 4) 3월 22일(양력 4월 29일)

忠淸監營啓錄 4책(18a~1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c~10c)

今月十九日午時量始雨，至翌日辰時開霽，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木川·天安·沃川·永同等四邑，得一犁，公州·全義·溫陽·新昌·禮山·青陽·洪州·唐津·藍浦·保寧·鎭岑·懷德·懷仁·文義·燕岐·清州·清安·陰城等十八邑，得一鋤，稷山·牙山·定山·大興·德山·扶餘·石城·鴻山·韓山·魯城·恩津等十一邑，沕塵是如爲白有等以。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목천·천안·옥천·영동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온양·신창·예산·청양·홍주·당진·남포·보령·진잠·회덕·회인·문의·연기·청주·청안·음성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직산·아산·정산·대흥·덕산·부여·석성·홍산·한산·노성·은진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0. 1853년(철종 4) 3월 27일(양력 5월 4일)

忠淸監營啓錄 4책(18a~1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c~10d)

今月十九日雨澤，天安等三十三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槐山·延豐·忠州等三邑，得一犁，沔川·海美·結城·黃澗·報恩·靑山·鎭川·淸風·堤川·丹陽·永春等十一邑，得一鋤，平澤·瑞山·泰安·林川·舒川·庇仁·連山·平薪等八邑鎭，浥塵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의 우택으로 천안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괴산·연풍·충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면천·해미·결성·황간·보은·청산·진천·청풍·제천·단양·영춘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택·서산·태안·임천·서천·비인·연산·평신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1. 1853년(철종 4) 4월 초1일(양력 5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18b~1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d~10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粳間或胚胎, 春粳漸次茁茂, 注秧付種, 已皆了畢, 黍粟·和種豆太方始耕播是如爲白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봄보리는 점차 무성해지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는 것은 이미 다 마쳤으며, 기장·조와 섞어 짓는 콩·팥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2. 1853년(철종 4) 4월 초7일(양력 5월 14일)

忠淸監營啓錄 4책(18b~1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0d~11a)

今月初五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九分，而乍陰乍暘，同日戌時仍爲開霽是白如乎。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9푼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씩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3. 1853년(철종 4) 4월 11일(양력 5월 18일)

忠淸監營啓錄 4책(19a~19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1a~11b)

道內農形及今月初五日申時始雨，至翌日辰時，測雨器水深爲九分緣由，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大興·德山·唐津·海美·瑞山·泰安·藍浦·鎭川·陰城·槐山·堤川等二十邑，得一犁，公州·洪州·定山·青陽·沔川·扶餘·庇仁·保寧·結城·恩津·連山·懷德·文義·燕岐·清安·忠州·丹陽·平薪等十八邑鎭，得一鋤，石城·林川·韓山·魯城·鎭岑·沃川·懷仁·清州·延豐·永春等十邑，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秋甦方張發穗，春甦間間胚胎，注秧付種，次第立苗，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已盡耕播是如爲白遣。又於今月初八日戌時量始雨，或霏或灑，連爲陰翳，至初十日午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及初五日雨澤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5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9푼인 연유는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대흥·덕산·당진·해미·서산·태안·남포·진천·음성·괴산·제천 등 2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홍주·정산·청양·면천·부여·비인·보령·결성·은진·연산·회덕·문의·연기·청안·충주·단양·평신 등 1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석성·임천·한산·노성·진잠·옥천·회인·청주·연풍·영춘 등 10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간간이 알을 배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벼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이미 다 갈아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8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더니 초10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 및 초5일 우택으로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4. 1853년(철종 4) 4월 14일(양력 5월 21일)

忠淸監營啓錄 4책(19b~2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1b~11d)

今月初五日雨澤, 全義等四十八邑鎭所得分數, 今初八日戌時量始雨, 至初十日午時開霽, 測雨器水深, 爲一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五日之雨, 前啓外, 淸風·舒川·鴻山等三邑, 得一鋤, 永同·黃澗·靑山·報恩等四邑, 浥塵是如爲白遣, 初八日之雨, 溫陽·黃澗·鎭川等三邑, 得二犁, 公州·定山·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新昌·禮山·扶餘·鴻山·林川·藍浦·靑陽·德山·沔川·海美·唐津·鎭岑·懷德·沃川·永同·靑山·丹陽·槐山·延豐·燕岐等二十七邑, 得一犁, 洪州·大興·結城·保寧·庇仁·舒川·牙山·魯城·恩津·報恩·懷仁·文義·淸州·忠州·陰城等十五邑, 得一鋤, 石城·韓山·連山等三邑, 浥塵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十二日亥時量始雨, 間間霏灑, 至翌日午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各邑所得分數及初八日雨澤未報邑形止, 隨其所報,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 우택으로 전의 등 48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이번 달 초8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10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풍·서천·홍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동·황간·청산·보은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8일의 비로 온양·황간·진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정산·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신창·예산·부여·홍산·임천·남포·청양·덕산·면천·해미·당진·진잠·회덕·옥천·영춘·청산·단양·괴산·연풍·연기 등 2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홍주·대흥·결성·보령·비인·서천·아산·노성·은진·보은·회인·문의·청주·충주·음성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석성·한산·연산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2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 및 초8일을 우택으로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하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5. 1853년(철종 4) 4월 17일(양력 5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20b~2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1d~12a)

今月初八日雨澤, 溫陽等四十八邑所得分數, 〈及〉十二日亥時量始雨, 至翌日午時開霽, 測雨器水深爲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前啓外, 瑞山·泰安·淸安·永春等四邑, 得一犁, 淸風·堤川·平薪等三邑鎮, 得一鋤是如爲白遣, 十二日之雨, 天安·溫陽·禮山·鎮川·永同·黃澗等六邑, 得一犁, 公州·木川·稷山·牙山·定山·淸陽·大興·德山·海美·扶餘·林川·藍浦·鎮岑·懷德·沃川·燕岐·淸州·淸安等十八邑, 得一鋤, 新昌·洪州·瑞山·石城·鴻山·韓山·舒川·庇仁·魯城·恩津·連山·報恩·懷仁·文義等十四邑, 溫塵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8일 우택으로 온양 등 48개 고을에 내린 양 및 12일 해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산·태안·청안·영춘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풍·제천·평신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12일의 비로 천안·온양·예산·진천·영동·황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목천·직산·아산·정산·청양·대흥·덕산·해미·부여·임천·남포·진잠·회덕·옥천·연기·청주·천안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신창·홍주·서산·석성·홍산·한산·서천·비인·노성·당진·연산·보은·회인·문의 등 1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6. 1853년(철종 4) 4월 23일(양력 5월 30일)

忠淸監營啓錄 4책(21a~2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a~12b)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雨澤，天安等三十八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青山·槐山·延豐·丹陽等四邑，得一犁，沔川·唐津·泰安·陰城·忠州·淸風·堤川·永春等八邑，得一鋤，全義·平澤·保寧·結城·平薪等五邑鎭，得[浥]塵是如爲白乎。農形段，秋麴漸次入實，春麴方張發穗，注秧付種，次第向青，早黍稷，和種豆太木花，間間立苗是如爲白遣。又於今月十九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載陰載陽，至二十二日丑時，始乃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 우택으로 천안 등 38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산·괴산·연풍·단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면천·당진·태안·음성·충주·청풍·제천·영춘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의·평택·보령·결성·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알이 들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간이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9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22일 축시에 이르러 비로소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7. 1853년(철종 4) 4월 26일(양력 6월 2일)

忠淸監營啓錄 4책(21b~2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b~12c)

今月初九日雨澤，大興等四十二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黃澗·靑山·忠州·淸風·堤川等五邑，得一犁，瑞山·泰安·木川·平澤·報恩·丹陽·永春·平薪等八邑鎮，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우택으로 대흥 등 4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황간·청산·충주·청풍·제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산·태안·목천·평택·보은·단양·영춘·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38. 1853년(철종 4) 4월 29일(양력 6월 5일)

忠淸監營啓錄 4책(22a~2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2c~12d)

今月十九日申時量始雨，至二十二日丑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大興·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永同等七邑，得二犁，公州·全義·牙山·禮山·靑陽·洪州·魯城·懷仁·文義·扶餘·石城·林川·鴻山·韓山·舒川·藍浦·保寧·結城·燕岐·淸州·鎭川·淸安·槐山·延豐等二十四邑，得一犁，天安·稷山·溫陽·新昌·定山·德山·沔川·唐津·海美·庇仁·陰城等十一邑，得一鋤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9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2일 축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대흥·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영동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아산·예산·청양·홍주·노성·회인·문의·부여·석성·임천·홍산·한산·서천·남포·보령·결성·연기·청주·진천·청안·괴산·연풍 등 2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천안·직산·온양·신창·정산·덕산·면천·당진·해미·비인·음성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39. 1853년(철종 4) 5월 초3일(양력 6월 9일)

忠淸監營啓錄 4책(22a~22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2d~12d)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次第向熟, 春麴方張入實, 注秧付種, 漸次茁茂,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間或初除草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점차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0. 1853년(철종 4) 5월 11일(양력 6월 17일)

忠淸監營啓錄 4책(23a~23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3a~13a)

今月初九日辰時量始雨，間間霏灑，至十一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而陰雲未解，餘意尙多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1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서 아직 더 내릴 조짐이 많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1. 1853년(철종 4) 5월 13일(양력 6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23a~2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3a~13b)

道內農形及今月初九日辰時量始雨，至十一日卯時，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十一日卯時以後，載陰載暘，至十二日寅時，仍爲開霽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燕岐·青陽·沃川·報恩·鎭川·淸安等七邑，得一犁，全義·天安·溫陽·禮山·定山·大興·洪州·德山·沔川·藍浦·保寧·結城·扶餘·石城·魯城·恩津·懷德·淸州等十八邑，得一鋤，林川·鴻山·韓山·連山·鎭岑·懷仁·文義等七邑，浥塵是如爲白遣。農形段，秋耨次第刈穫，春耨幾皆入實，畚庫漸次移秧，付種乾播，方始初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間或再除草是白如乎。去月二十二日以後，雨澤一直慳閼，膏腴洞畚，堰底汎下，雖早移秧而間間有乾涸處，原野高燥之地，無以移插，漸有晚時之慮，而今番之雨，仍不周洽而止，言念民事，誠爲悶然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及未報邑雨澤所得，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9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1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1일 묘시 이후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12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연기·청양·옥천·보은·진천·청안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온양·예산·정산·대흥·홍주·덕산·면천·남포·보령·결성·부여·석성·노성·은진·회덕·청주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임천·홍산·한산·연산·진잠·회인·문의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이 찼으며, 논에는 점차 모내기하고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우택은 줄곧 비가 내리지 않아 비옥한 동네 논과 뚝 밑이나 보 아래는 비록 일찍 모내기했지만, 간간이 물이 마른 곳이 있고, 벌판과 높고 메마른 지역은 옮겨 심을 수가 없어서 점점 시기가 늦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그대로 두루 흡족하게 내리지 않고 그쳐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으로 내린 것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2. 1853년(철종 4) 5월 16일(양력 6월 22일)

忠淸監營啓錄 4책(23b~2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3b~13c)

今月初九日雨澤，公州等三十二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木川·槐山·延豐等三邑，得一犁，新昌·靑山·黃澗·堤川等四邑，得一鋤，牙山·平澤·海美·瑞山·舒川·永同·陰城·忠州·平薪等九邑鎭，浥塵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四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寅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而惜乾之餘，終未優洽，言念民事，尤極悶然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9일 우택으로 공주 등 32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목천·괴산·연풍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창·청산·황간·제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아산·평택·해미·서산·서천·영동·음성·충주·평신 등 9개 고을과 군영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7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끝내 흠족하게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3. 1853년(철종 4) 5월 18일(양력 6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24a~2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3c~13d)

今月十四日辰時量始雨，至翌日寅時開霽，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新昌·禮山·大興·洪州·德山·扶餘·連山·懷德·懷仁·淸州·鎭川·淸安等十八邑，得一鋤，溫陽·牙山·定山·靑陽·石城·林川·鴻山·韓山·魯城·恩津·沃川·文義·燕岐等十三邑，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신창·예산·대흥·홍주·덕산·부여·연산·회인·청주·진천·청안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온양·아산·정산·청양·석성·임천·홍산·한산·노성·은진·옥천·문의·연기 등 1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4. 1853년(철종 4) 5월 20일(양력 6월 26일)

忠淸監營啓錄 4책(24b~2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3d~14a)

今月十四日雨澤，公州等三十一邑所得分數，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保寧·結城·永同·黃澗·靑山·報恩·陰城·忠州·淸風·堤川·平薪等十八邑鎮，得一鋤，藍浦·鎭岑·槐山·延豐·丹陽·永春等六邑，沍塵是如爲白遣。近日數次之雨，既未均霑，終斬霈霖，傍川之畚，猶難灌溉，近峽之處，尤爲乾涸，夏至已過，未移尙多，見今穡事，實爲悶然是如，列邑所報，一辭同然，而其中連山段，請行祈雨祭，故使之不卜日虔誠祈禱，行祭日字，待其報來，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31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보령·결성·영동·황간·청산·보은·음성·충주·청풍·제천·평신 등 18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남포·진잠·괴산·연풍·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 몇 차례 비가 내렸지만 이미 고루 적시지 못했고 끝내 쏟아붓지도 주룩주룩 내리지도 않아 냇가의 논도 여전히 물을 끌어대기 어렵고 산골짜기와 가까운 곳은 더욱 메말랐으며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모내기 못한 곳이 아직 많습니다. 현재 농사는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에서 보고한 내용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연산의 경우 기우제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하였으므로 날짜를 가리지 말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라고 하였습니다. 기우제 시행 날짜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야 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5. 1853년(철종 4) 5월 22일(양력 6월 28일)

忠淸監營啓錄 4책(24b~2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4a~14a)

道內農形，燠旱之由，連山縣祈雨祭請行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麴幾盡刈穫，春麴已皆成熟，注秧付種，漸至乾涸，未得茁長，洞畝之早移者，間或向青，而原野高燥之畝，尙未移秧，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而以其土壤之乾燥，或致鋤耘之愆期是如爲白乎旆。祈雨祭段，前啓中，請行之連山，今月二十一日爲始設行，扶餘亦爲請行祈雨祭，故使之齋誠虔禱，嗣後形止，待〈其〉報來，續當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연산현에서 기우제 시행을 요청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익었으나,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점점 물이 말라 싹이 자라지 못하고, 동네 논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혹 푸르러 가고 있지만 벌판과 높고 메마른 논은 아직 모내기를 못했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고, 토양이 건조하여 더러 김매기가 때를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시행을 요청한 연산은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하였고, 부여도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6. 1853년(철종 4) 5월 26일(양력 7월 2일)

忠淸監營啓錄 4책(25b~2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4b~14c)

道內連山縣祈雨祭設行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啓中請行之扶餘, 今月二十五日爲始設行, 前啓外, 新昌·魯城·牙山, 以其民事之難緩, 纔有修報, 仍卽設行, 新昌今月二十三日爲始設行, 魯城·牙山, 二十四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陰城·懷德·恩津·石城·庇仁·藍浦·保寧·青陽·禮山·燕岐·永同等十一邑, 亦爲請行, 故使之虔誠祈禱. 而一直亢旱, 雨意邈然, 言念穡事, 尤爲渴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산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시행을 요청한 부여는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신창·노성·아산은 백성들의 사정상 늦추기 어렵다고 작성해 보고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였으며, 신창은 이번 달 23일부터 시행하고, 노성·아산은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회덕·은진·석성·비인·남포·보령·청양·예산·연기·영동 등 11개 고을도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줄곧 가뭄이 심한데 비가 올 조짐은 막연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7. 1853년(철종 4) 5월 28일(양력 7월 4일)

忠淸監營啓錄 4책(26a~2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4c~14c)

道內連山等五邑，祈雨祭次第設行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祈雨祭前此請行邑中，靑陽·藍浦，今月二十六日爲始設行，懷德·恩津，二十七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公州·全義·鴻山·舒川·靑山·大興等六邑，亦爲請行，故使之虔誠設行，而嘆乾太甚，雲霓愈邈，民情遑汲，去益渴悶。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산 등 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기우제 시행을 이에 앞서 요청한 고을 가운데 청양·남포는 이번 달 26일부터 시행하고, 회덕·은진은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전의·홍산·서천·청산·대흥 등 6개 고을도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 심하고 비가 내릴 조짐은 더욱 막연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황급하여 갈수록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8. 1853년(철종 4) 6월 초1일(양력 7월 6일)

忠淸監營啓錄 4책(26a~26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4c~14d)

道內連山等九邑, 祈雨祭次第設行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此請行邑中, 禮山·燕岐·石城·庇仁等四邑, 去月二十八日爲始設行, 公州二十九日爲始設行是如爲白遣. 定山·淸州·鎭川·韓山·黃澗·泰安等六邑, 亦爲請行, 故使之齋誠虔禱爲白乎旃. 今月初一日子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寅時, 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分, 而陰雲不解, 猶有餘意, 繼此霈然, 方切願望, 向後形止及各邑所得,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산 등 9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에 앞서 시행을 요청한 고을 가운데 예산·연기·석성·비인 등 4개 고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였고, 공주는 29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산·청주·진천·한산·황간·태안 등 6개 고을도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1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더러 뿌리기도 하더니 같은 날 인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가 더 내릴 조짐이 있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세차게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49. 1853년(철종 4) 6월 초4일(양력 7월 9일)

忠淸監營啓錄 4책(26b~2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4d~15b)

道內農形燭旱之由, 連山等十四邑, 祈雨祭次第設行事及今月初一日子時量始雨, 至同日寅時, 測雨器水深爲三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初一日寅時以後, 至同日辰時, 乍陰乍陽, 仍爲開霽. 而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公州·全義·木川·天安·定山·青陽·扶餘·石城·鴻山·魯城·恩津·連山·燕岐等十三邑涸塵. 農形段, 秋麴已皆登場, 春麴幾盡刈穫, 付種乾播, 間或再鋤, 而連被嘆乾, 不得茁長,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鋤耘失時, 間多荒蕪, 汙下洞畝之早移者, 未及敷青, 漸致萎黃, 秧坂[板]在在乾涸, 仍多枯損,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始耕播, 而土壤燥堅, 耒耜不入, 亦多愆期是如爲白乎旆. 祈雨祭段, 前啓請行邑中, 陰城去月二十八日爲始設行, 舒川·大興·保寧·鴻山·泰安等五邑, 二十九日爲始設行, 定山·全義·清州·韓山·青山·永同等六邑, 今月初一日爲始設行, 黃潤初二日爲始設行, 槐山·忠州兩邑, 纔有請行之報, 繼有設行之報, 而槐山去月二十九日爲始設行, 忠州今月初一日爲始設行, 文義·木川·平澤·鎭岑·德山·沔川·海美等七邑, 亦爲請行, 故使之虔誠設行, 而久旱渴望之餘, 所得雨澤, 不過涸塵而止, 穡事民情, 尤不勝萬萬憂悶.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과 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연산 등 14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일 및 이번 달 초1일 자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인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3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1일 인시 이후 같은 날 진시까지 잠깐씩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이내 개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정산·청양·부여·석성·홍산·노성·은진·연산·연기 등 1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봄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으며,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간혹 두벌 김매기하지만 연이어 가뭄을 만나서 싹이 자라지 못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김매기 시기를 놓쳐서 그사이에 황폐해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은 동네 논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아직 푸르름이 퍼지지 않은 채 점차 누렇게 시들고 있으며, 못자리는

곳곳에서 물이 마르고 그대로 말라 죽는 손상이 많습니다. 그루갈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으나 흙이 마르고 단단하여 쟁기가 들어가지 않으니 또한 많이 때를 놓친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시행을 요청한 고을 가운데 음성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였고, 서천·대흥·보령·홍산·태안 등 5개 고을은 29일부터 시행하였고, 정산·전의·청주·한산·청산·영동 등 6개 고을은 이번 달 초1일부터 시행하였고, 황간은 초2일부터 시행하였고, 괴산·충주 2개 고을은 시행을 요청하는 보고를 하자마자 이어서 시행한다고 보고하였고, 괴산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였고, 충주는 이번 달 초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의·목천·평택·진잠·덕산·면천·해미 등 7개 고을도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가뭄으로 간절히 바라던 끝에 내린 우택이 불과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으니, 농사와 백성들의 심정이 더욱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0. 1853년(철종 4) 6월 초6일(양력 7월 11일)

忠淸監營啓錄 4책(27b~27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b~15b)

道內連山等二十九邑, 祈雨祭次第設行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此請行邑中, 鎭川今月初二日爲始設行, 德山初三日爲始設行, 文義·鎭岑初四日爲始設行, 結城初五日爲始設行, 洪州·天安·懷仁·延豐·淸風等五邑, 亦爲請行, 故使之虔誠祈禱, 而見今節序, 已迫初庚, 雨澤終靳一霽, 三農有卒瘁之慮, 言念民情, 萬萬罔措,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산 등 19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시행을 요청한 고을 가운데 진천은 이번 달 초2일부터 시행하였고, 덕산은 초3일부터 시행하였고, 문의·진잠은 초4일부터 시행하였고, 결성은 초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홍주·천안·회인·연풍·청풍 등 5개 고을도 시행을 요청하였으므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도록 했습니다. 현재 절기는 이미 초복이 닥쳤는데 우택은 끝내 한 번도 주룩주룩 내려주지 않으니 3차례 농사일에 흉년이 들 우려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도무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1. 1853년(철종 4) 6월 초9일(양력 7월 14일)

忠淸監營啓錄 4책(27b~2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b~15c)

道內連山等三十四邑, 祈雨祭次第設行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此請行邑中, 洪州·沔川兩邑, 今月初五日爲始設行, 木川·懷仁·延豐等三邑, 初六日爲始設行, 天安初八日爲始設行, 唐津·溫陽兩邑, 纔請仍行, 唐津今月初六日爲始設行, 溫陽初七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圭壁[璧]遍舉, 靈應尙遲, 農節漸愆, 民情愈急是白乎等以. 臣亦於今月十二日, 躬行祈禱于公州牧社稷壇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산 등 34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에 앞서 시행을 요청한 고을 가운데 홍주·면천 2개 고을은 이번 달 초5일부터 시행하였고, 목천·회인·연풍 등 3개 고을은 초6일부터 시행하였고, 천안은 초8일부터 시행하였고, 당진·온양 2개 고을은 요청하자마자 이내 시행하였고, 당진은 이번 달 초6일부터 시행하였고, 온양은 초7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두루 거행하는데도 신령의 감응은 아직도 지체되고 있으니 농사철은 점차 늦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다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 12일에 몸소 공주목 사직단에서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52. 1853년(철종 4) 6월 12일(양력 7월 17일)

忠淸監營啓錄 4책(28a~2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c~15d)

道內連山等四十二邑，祈雨祭次第設行形止及臣於今月十二日躬行祈禱于公州牧社稷壇計料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是白如乎。姑未知各邑雨澤之如何，而營下所得，可曰優洽，見今霏微，猶有霈霑之望是白乎等以，臣營下祈雨祭，姑爲觀勢舉行計料爲白乎旆。各邑祈雨祭段，前啓請行邑中，海美·淸風今月初八日爲始設行，前啓設行邑中，槐山段，該郡守金曾鉉，移拜慶尙道順興府使，再次設行後，仍發赴任之行，而祈雨祭該倅有故，則不得替行，曾有定式，故不得已使之姑倅爲白乎旆。向後形止及各邑雨澤所得，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산 등 42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경위 및 제가 이번 달 12일에 몸소 공주목 사직단에서 빌졌다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묘시에 이르렀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5푼이었습니다. 아직 각 고을의 우택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감영에 내린 것은 흡족하게 내렸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부슬부슬 약하게 내리는데 여전히 쏟아붓거나 주룩주룩 내릴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감영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살펴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각 고을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에서 시행을 요청한 고을 가운데 해미·청풍은 이번 달 초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시행을 보고한 고을 가운데 괴산은 해당 군수 김증현이 경상도 순흥 부사로 옮겨 배정되어 기우제를 재차 시행한 뒤 부임하는 길을 출발하였습니다. 기우제는 해당 수령에게 사고가 있으면 대신 거행할 수 없도록 일찍이 정해진 규정이 있으므로 부득이 일단 중지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으로 내린 것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3. 1853년(철종 4) 6월 14일(양력 7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28b~2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5d~16b)

道內農形及今月初十日辰時量始雨，至翌日卯時，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臣營祈雨祭，姑爲觀勢舉行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自十一日卯時以後，或霏或霽，至十三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二寸四分，竝計前後，合爲六寸九分是白乎旆。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木川·天安·牙山·平澤·溫陽·新昌·禮山·定山·德山·沔川·海美·鴻山·結城·魯城·連山·鎮岑·懷德·文義·鎮川·陰城等二十二邑，川渠漲滿，大興·扶餘·石城·庇仁·藍浦·保寧·燕岐·清州等八邑，得二犁，青陽·洪州·唐津·林川·韓山·沃川·永同·青山·報恩·懷仁等十邑，先以始雨形止報來，而其中連山·新昌·牙山·溫陽·禮山·魯城·鎮岑·懷德·公州·定山·大興·燕岐·鎮川·鴻山·全義·陰城·德山·石城·庇仁·藍浦·結城·沔川·木川·天安等二十四邑，祈雨祭次第停止。前啓請行之平澤，今月初十日設行後，仍卽停止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及早移秧，除非酷被暎乾，已判全棄者外，庶有蘇醒之望，方張再鋤，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得雨之後，始爲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連爲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久旱渴望之餘，幸得優渥而鋤草降種，俱以失時，或望桑榆之有收，難期黍稷之俱多，言念民事，實爲憧憧，勸課移秧之節，連加申飭於列邑守宰處，臣營祈雨祭，仍爲停止是白如乎。向後形止及未報邑雨澤，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0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4치 5푼이었고 제 감영의 기우제는 일단 형세를 보아 거행하겠다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1일 묘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다가 13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2치 4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6치 9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목천·천안·아산·평택·온양·신창·예산·정산·덕산·면천·해미·홍산·결성·노성·연산·진잠·회덕·문의·진천·음성 등 2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대흥·부여·석성·비인·남포·보령·연기·청주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양·홍주·당진·임천·한산·옥천·영동·청산·보은·회인 등 10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연산·신창·아산·온양·예산·노성·

진잠·회덕·공주·정산·대흥·연기·진천·홍산·전의·음성·덕산·석성·비인·남포·결성·면천·목천·천안 등 24개 고을은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하였고, 앞서 보고에서 시행을 요청한 평택은 이번 달 초10일에 시행한 후 곧바로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하고 가뭄을 혹독하게 당하였거나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판가름 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되살아날 가망이 있어서 한창 두벌 김매기하고 있으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비가 내린 뒤에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망하던 끝에 다행히 넉넉하게 비가 내렸고, 김을 매고 씨를 뿌리는 것이 모두 시기를 놓쳐서 더러 늦게나마 거둘 것이 있기를 바라지만 기장과 찰벼가 모두 많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농사를 권장하고 모내기철에 연이어 여러 고을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제 감영의 기우제는 그대로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4. 1853년(철종 4) 6월 17일(양력 7월 22일)

忠淸監營啓錄 4책(29b~3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6b~16c)

今月初十日雨澤, 公州等二十二邑, 川渠漲滿, 大興等八邑, 得二犁, 青陽等十邑, 先以始雨形止報來, 連山等二十五邑, 祈雨祭次第停止, 臣營祈雨祭, 仍爲停止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稷山·瑞山·舒川·恩津·忠州·延豐·丹陽等七邑, 川渠漲滿, 泰安·淸安·淸風·永春·平薪等五邑鎮, 得二犁, 槐山·堤川兩邑, 得一犁, 黃澗得一鋤, 前啓始雨邑中, 洪州·唐津·沃川·報恩·懷仁等五邑, 川渠漲滿, 大興·林川·韓山等三邑, 得二犁, 青山·永同兩邑, 得一犁, 而其中青陽·扶餘·恩津·舒川·保寧·淸州·韓山·泰安·唐津·洪州·懷仁·文義·延豐·海美·忠州·淸風等十六邑, 祈雨祭亦爲停止. 前啓外, 林川段, 今月十二日爲始設行, 得雨仍停是如爲白遣. 黃澗·青山·永同等三邑, 今番鋤犁之雨, 猶未足解渴, 圭璧之舉, 姑不得停撤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0일 우택으로 공주 등 2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대흥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양 등 10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먼저 보고해 왔고, 연산 등 2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한 것과 제 감영의 기우제를 그대로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직산·서산·서천·은진·충주·연풍·단양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태안·청안·청풍·영춘·평신 등 5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괴산·제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앞서 보고한 고을 가운데 홍주·당진·옥천·보은·회인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대흥·임천·한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산·영동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청양·부여·은진·서천·보령·청주·한산·태안·당진·홍주·회인·문의·연풍·해미·충주·청풍 등 16개 고을도 또한 기우제를 중지하였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임천은 이번 달 12일부터 시행하였으나 비가 내리자 그대로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황간·청산·영동 등 3개 고을은 이번에 1서·1려(鋤犁)의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해결하기에 부족하여 기우제 거행은 일단 중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5. 1853년(철종 4) 6월 24일(양력 7월 29일)

忠淸監營啓錄 4책(30a~31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6c~17a)

道內農形及連山等四十二邑, 祈雨祭次第停止, 黃澗等三邑, 姑不得停止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乾播及移秧之稍早者, 幾盡再鋤, 漸次茁長, 晚移者未及着根, 仍復乾涸, 舉皆萎黃, 未移之畝, 以其節晚, 方將代播,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連爲除草, 而間間有久愆鋤役, 成就無望者,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始立苗. 公州·魯城·定山·恩津·鴻山·藍浦·韓山等七邑, 膏腴之畝, 種種有愆蠶蹲縮之患, 其中恩津·韓山·藍浦等三邑, 兼發蟹損, 爲害不少是如爲白乎旆. 今月初十日雨澤, 旣未均洽, 仍又慳閔, 黃澗等三邑, 祈雨祭連次設行是如爲白遣. 今月二十三日酉時量, 一陣驟雨, 或霏或灑, 至亥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是白如乎, 旱餘驟灑, 雖近數寸, 乾燥之土, 未及霑洽, 仍爲開霽, 言念民事, 誠極憂悶是白乎旆, 向後形止及各邑所得多寡, 隨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연산 등 42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하고 황간 등 3개 고을이 일단 중지하지 못하는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조금 일찍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하고 점차 싹이 자라고 있으며, 늦게 모내기한 것은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다시 말라 버려 대부분 누렇게 시들고, 모내기하지 못한 논은 제철에 늦어서 한창 대체해 씨를 뿌리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 하는데 간간이 김매는 일이 많이 늦어서 여물 가망이 없는 것이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주·노성·정산·은진·홍산·남포·한산 등 7개 고을의 비옥한 논에는 이따금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은진·한산·남포의 3개 고을은 계에 의한 손해가 함께 발생하여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10일에 내린 우택은 이미 고루 흡족하지 못하는데, 그대로 또 비가 오지 않으므로 황간 등 3개 고을은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23일 유시쫄 한바탕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해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염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소나기가 뿌려서 비록 몇 치 가까이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흡족히 적시기에는 미치지 못한 채 그대로 개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6. 1853년(철종 4) 6월 27일(양력 8월 1일)

忠淸監營啓錄 4책(31a~3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a~17a)

今月二十三日酉時量, 一陣驟雨, 或霏或灑, 至亥時乃止, 測雨器水深, 爲一寸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驟雨, 公州·全義·燕岐·溫陽·靑陽等五邑, 得一犁, 大興·石城·鎭川·新昌等四邑, 得一鋤, 木川·扶餘·林川·恩津·懷德等五邑, 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若而邑所得, 雖爲犁鋤, 暫時驟過, 無延救急, 其餘五邑, 僅爲浥塵而止是白岔除良. 外此各邑, 今月十三日以後, 一直慳閼, 穡事民情, 萬萬罔措是如爲白有在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 유시쯤 한바탕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소나기로 공주·전의·연기·온양·청양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대흥·석성·진천·신창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목천·부여·임천·은진·회덕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라고 합니다. 약간의 고을에 내린 것이 비록 1려·1서 정도이지만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로는 급한 것을 구제하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나머지 5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외의 각 고을은 이번 달 13일 이후 줄곧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와 백성들의 심정은 도무지 어찌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7. 1853년(철종 4) 7월 초1일(양력 8월 5일)

忠淸監營啓錄 4책(31b~3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a~17b)

去月二十三日驟雨，公州等十四邑所得分數及外此各邑，一直惜乾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鋤後之旱，尤是農家之最憂，而日前若而邑驟雨，或浥塵或一鋤是白乎乃，既無足濡，況其餘各邑遑汲之狀，尤無可論，見今夏序已盡，立秋只隔，田畝各穀，舉皆萎枯，邑邑同然，而其中魯城·庇仁，更請祈雨祭設行是白乎所。圭璧之再舉，雖或有例，瀆褻甚悚，在所難愼是白乎矣。事關爲民，亦不可拘於罕例，或忽於弭災之道乙仍于，上項兩邑，祈雨祭使之不卜日虔誠設行爲白遣。外他諸邑段置，隨其緩急，觀勢設行之意，發關知委爲白乎旆。臣亦姑觀數日，躬行祈禱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3일 소나기로 공주 등 14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이밖에 각 고을에 줄곧 가뭄을 걱정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김매기를 한 뒤의 가뭄은 더욱이 농사짓는 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인데 일전에 약간의 고을에 소나기가 내려서 더러 땅의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더러 1서가 내렸으나 이미 흙속히 적시기에는 부족하고, 더구나 그 나머지 각 고을의 황급한 상황은 더욱 따질 것이 없습니다. 현재 여름철이 이미 다하고 곧 입추가 되는데 논과 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시들어 말라죽은 꼴이 고을마다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노성과 비인은 다시 기우제 시행을 요청하였는데, 기우제를 다시 거행하는 것이 비록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신령을 모독하여 매우 두려우므로 어렵게 여기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는 데 관계되는 일이므로 또한 전례가 드물다는 것에 구애될 수 없으며, 혹은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에 소홀히 하는 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에 말한 2개 고을의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즉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고을도 그 중요도에 따라 형세를 살펴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알렸습니다. 저도 일단 며칠 살펴보다가 몸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8. 1853년(철종 4) 7월 초3일(양력 8월 7일)

忠淸監營啓錄 4책(32a~3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b~17c)

道內農形被旱之狀及祈雨祭設行計料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農形段, 付種乾播及早移秧之不至乾涸者, 漸次向茂, 晚移秧除非枯萎永棄者外, 間或初鋤,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鋤耘幾畢, 而至若愆時未鋤者, 難望成就, 根耕豆太及晚黍粟或始而初除草, 未移畝連爲代播, 而前啓中, 公州等七邑, 愆蠶蹲縮及恩津等三邑, 蟹損尙不寢息, 前啓外, 燕岐·扶餘兩邑, 亦發愆蠶蹲縮之患, 痒損不少是如爲白有臥乎所. 旱旣太甚, 節又漸晚, 而一直杲杲, 雲霓愈邈, 言念民事, 轉益罔措乙仍于, 臣於今月初三日, 躬自禱雨于公州牧社稷壇,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으로 가뭄을 당한 상황 및 기우제 시행 계획의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 및 일찍 모내기했으나 마르기에 이르지 않은 것은 점차 무성해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마르고 시들어 영영 포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김매기가 거의 끝났는데, 때를 놓쳐 김매기를 하지 못한 것은 여물기를 바라기 어려우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더러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모내기하지 못한 논에는 연이어 대체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7개 고을의 건잠준축의 근심 및 은진 등 3개 고을의 계로 인한 재해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연기와 부여 2개 고을도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고 병으로 인한 손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뭄이 이미 매우 심하고 절기도 점차 늦어지는데 줄곧 햇볕만 내리쬘고 비가 내릴 조짐은 더욱 막연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초3일에 공주목 사직단에서 몸소 비오기를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59. 1853년(철종 4) 7월 초5일(양력 8월 9일)

忠淸監營啓錄 4책(32b~3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c~17d)

今月初三日躬自禱雨于公州牧社稷壇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靑山·永同·黃澗等三邑, 祈雨祭自去月至今, 連次設行是如爲白遣. 定山·靑陽·大興·扶餘·木川·魯城·連山·禮山·新昌·德山·泰安·結城·藍浦等十三邑, 又自今月初三日爲始設行, 洪州·林川·淸安·懷仁·鎭岑·報恩·舒川等七邑, 初四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見今立秋已過, 一直亢旱, 穡事民情, 去益罔涯乙仍于, 臣於今初六日, 又爲躬禱于公州牧城隍壇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3일 몸소 공주목 사직단에서 비오기를 빈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청산·영동·황간 등 3개 고을은 기우제를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연이어 시행한다고 하고, 정산·청양·대흥·부여·목천·노성·연산·예산·신창·덕산·태안·결성·남포 등 13개 고을은 이번 달 초3일부터 시행하며, 홍주·임천·청안·회인·진잠·보은·서천 등 7개 고을은 초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입추가 이미 지났는데도 줄곧 가물고 있으니 농사와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끝이 없으므로 제가 이번 달 초6일에 또 공주목 성황단에서 몸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0. 1853년(철종 4) 7월 초7일(양력 8월 11일)

忠淸監營啓錄 4책(33a~3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7d~18a)

道內靑山等二十三邑，祈雨祭設行及今月初六日又將躬禱于公州牧城隍壇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前啓外，鴻山·海美·牙山·平澤·天安·稷山·鎭川等七邑，今月初四日爲始設行，石城·庇仁·燕岐等三邑，初五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旆。臣於今初六日，已爲躬禱于城隍壇，而又於今初九日，躬禱于公州牧熊津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청산 등 23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 및 이번 달 초6일에 또 장차 공주목 성황단에서 몸소 빌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홍산·해미·아산·평택·천안·직산·진천 등 7개 고을은 이번 달 초4일부터 시행하고, 석성·비인·연기 등 3개 고을은 초5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달 초6일에 몸소 성황단에서 빌었는데 또 이번 초9일에 공주목 웅진에서 몸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1. 1853년(철종 4) 7월 11일(양력 8월 15일)

忠淸監營啓錄 4책(33a~33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8a~18a)

道內靑山等三十三邑, 祈雨祭設行事及今月初九日, 又將躬禱于公州牧熊津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前啓外, 忠州·陰城·槐山·延豐·沔川·保寧等六邑, 今月初四日爲始設行, 平薪初五日爲始設行, 懷德·唐津兩邑, 初六日爲始設行, 沃川初八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旅. 臣於今<月>初九日, 已爲躬禱于熊津, 而又以今十二日, 躬禱于公州地鷄龍山神院計料是白乎等以. 今十一日自臣營離發,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청산 등 33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일 및 이번 달 초9일에 또 장차 몸소 공주목 웅진에서 빌려는 연유를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음성·괴산·연풍·면천·보령 등 6개 고을은 이번 달 초4일부터 시행하고, 평신은 초5일부터 시행하고, 회덕·당진 2개 고을은 초6일부터 시행하고, 면천은 초8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달 초9일에 이미 웅진에서 몸소 빌었으며, 또 이번 달 12일에 공주지역 계룡산 신원에서 몸소 빌 계획이므로 이번 달 11일에 저의 감영에서 출발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2. 1853년(철종 4) 7월 12일(양력 8월 16일)

忠淸監營啓錄 4책(33b~3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a~18b)

道內靑山等四十三邑，祈雨祭設行事及今月十二日又將躬禱于公州地鷄龍山神院，十一日自臣營離發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前啓外，淸風今月初五日爲始設行，永春初九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旆，臣於今十二日，已爲躬禱于神院，當日還營，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청산 등 43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일 및 이번 달 12일에 또 장차 공주지역 계룡산 신원에서 몸소 빌려고 11일에 저의 감영에서 출발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풍은 이번 달 초5일부터 시행하고, 영춘은 초9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달 12일에 이미 몸소 신원에서 빌고 그날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3. 1853년(철종 4) 7월 14일(양력 8월 18일)

忠淸監營啓錄 4책(34a~34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18b~18c)

道內農形被旱之狀, 靑山等四十五邑, 祈雨祭設行事及今月十二日躬禱于公州地鷄龍山神院, 當日還營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田畚各穀之偏被嘆災, 萎枯難蘇者, 已無可論, 而外此早穡[稻]及早黍粟, 方張胚胎, 中稻漸次茁茂, 晚稻幾盡再鋤, 和種豆太及木花, 間間起花, 根耕豆太及晚黍粟, 次第再除草, 未移畚代播各穀, 方始立苗, 而前啓中, 恩津等三邑, 蟹損近因乾涸, 比前少減, 公州等九邑, 愆蠶蹲縮, 終未寢息. 前啓外, 文義·連山兩邑, 亦發愆蠶蹲縮之患, 爲害不少是如爲白有臥乎所. 月餘亢旱, 雨意猶邈, 屢舉圭璧, 冥應尙遲, 言念民事, 轉益罔措是白如乎. 臣於今十五日, 又爲躬禱于連山地龍湫計料乙仍于, 今十四日自臣營離發,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으로 가뭄을 당한 상황과 청산 등 4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일 및 이번 달 12일 공주지역 계룡산 신원에서 몸소 빌고 그날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논과 밭의 각종 곡식이 두루 가뭄 피해로 시들어 말라서 되살아나기 어려움은 따질 것도 없지만, 이밖에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중벼는 점차 무성해지며,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했고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못한 논에 대체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막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은진 등 3개 고을의 계로 인한 피해는 요즘 물이 마른 까닭에 이전에 비하여 조금 줄어들었고, 공주 등 9개 고을의 벼들은 건잠준축의 근심이 끝내 그치지 않았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문의와 연산 2개 고을도 벼들이 건잠준축의 근심이 발생했는데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달 남짓 심하게 가뭄인데 비가 내릴 조짐은 여전히 막연하고 누차 기우제를 거행했으나 신령의 감응은 아직도 지체되고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15일에 또 연산지역 용추에서 몸소 빌 계획이므로 이번 달 14일에 저의 감영에서 출발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4. 1853년(철종 4) 7월 15일(양력 8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34b~3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c~18d)

道內靑山等四十五邑，祈雨祭設行事及今月十五日，又將躬禱于連山地龍湫，十四日自臣營離發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全義·溫陽兩邑，又自今月十三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旃，臣於今十五日，已爲躬禱于龍湫，當日還營，而沿路農形，詳細看審是白乎則，早中稻之不甚被旱者，方張胚胎，頗有成實之望，至若最晚後如干移插者，貼土仍枯，已無餘望，早晚黍粟豆太及木花，被旱雖有淺深，莖葉幾皆萎黃，難望蘇醒是白遣，今月十四日申時量始雨，間間霏灑，至亥時乃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白如乎，姑未知各邑所得之如何，而目下所見，足可解渴，爲民事誠甚萬幸，臣營祈雨祭，仍爲停止，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청산 등 45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일 및 이번 달 7월 15일에 또 연산지역 용추에서 몸소 빌려고 14일에 저의 감영에서 출발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전의와 온양 2개 고을은 또 이번 달 13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달 15일에 이미 용추에서 몸소 빌고 그날 감영으로 돌아오면서 길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뭄의 피해가 심하지 않은 올벼와 중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어서 알이 영글 가망이 상당히 많고, 어지간히 옮겨 심은 최고 늦벼는 땅에 달라붙은 채 그대로 말라버려서 이미 가망의 여지가 없으며, 올기장·올조와 늦기장·늦조, 콩·팥 및 목화는 가뭄 피해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줄기와 잎이 거의 모두 누렇게 시들어서 되살아나기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 14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다가 해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1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가 얼마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눈앞에 본 것으로는 해갈하기에 충분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위해서는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저의 감영 기우제는 그대로 중지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5. 1853년(철종 4) 7월 17일(양력 8월 21일)

忠淸監營啓錄 4책(35a~35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8d~19a)

道內靑山等四十七邑祈雨祭設行事及臣於今十五日躬禱于連山地龍湫，當日還營緣由，今月十四日申時量始雨，至亥時，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德山·林川等三邑，得二犁，木川·溫陽·禮山·靑陽·洪州·瑞山·扶餘·鴻山·庇仁·藍浦·恩津·連山·沃川·報恩·燕岐·靑安·平薪等十七邑鎮，得一犁，全義·新昌·定山·石城·韓山·保寧·魯城·鎭岑·懷德·文義·靑州·鎭川·陰城·槐山·大興等十五邑，得一鋤，天安·稷山·牙山·沔川等四邑浥塵，而其中木川·溫陽·靑陽·德山·扶餘·鴻山·林川·庇仁·藍浦·燕岐·連山·報恩·平薪等十三邑鎮，祈雨祭次第停止。前啓外，瑞山今月十三日爲始設行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六日戌時量，一陣驟雨，暫霏旋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청산 등 47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일 및 제가 15일에 몸소 연산지역 용추에서 빌고 그날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와 이번 달 14일 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해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덕산·임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목천·온양·예산·청양·홍주·서산·부여·홍산·비인·남포·당진·연산·옥천·보은·연기·청안·평신 등 17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고, 전의·신창·정산·석성·한산·보령·노성·진잠·회덕·문의·청주·진천·음성·괴산·대흥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천안·직산·아산·면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가운데 목천·온양·청양·덕산·부여·홍산·임천·비인·남포·연기·연산·보은·평신 등 13개 고을과 군영은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산은 이번 달 13일부터 기우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6일 술시쯤 한바탕 소나기가 잠깐 주룩주룩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6. 1853년(철종 4) 7월 21일(양력 8월 25일)

忠淸監營啓錄 4책(35b~3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9a~19c)

今月十四日雨澤, 公州等三十九邑鎭所得分數, 木川等十三邑鎭祈雨祭次第停止, 今月十六日戌時量, 一陣驟雨, 測雨器水深, 爲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四日之雨, 前啓外, 泰安·結城兩邑, 得一犁, 海美·舒川·黃澗·靑山·延豐·堤川·丹陽·永春等八邑, 得一鋤, 忠州·懷仁等兩邑涸塵. 十六日之雨, 稷山川渠漲滿, 新昌·洪州·沔川等三邑, 得二犁, 平澤·禮山·定山·大興·海美·結城·懷仁等七邑, 得一犁, 公州·全義·木川·溫陽·牙山·石城·德山·韓山·舒川·保寧·連山·鎭岑·瑞山·靑安·平薪等十五邑鎭, 得一鋤, 靑陽·唐津·恩津·靑山等四邑涸塵, 而其中泰安·結城·稷山·新昌·洪州·沔川·全義·平澤·禮山·定山·大興·海美·瑞山·懷仁·牙山·石城·鎭岑·靑安·舒川等十九邑, 祈雨祭次第停止, 靑山·黃澗·永同等三邑段, 設禱已準十二次, 使之停撤爲白遣. 堤川今月十六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未報邑形止, 待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의 우택으로 공주 등 39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목천 등 13개 고을과 군영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한 것, 이번 달 16일 술시쯤 한바탕 소나기가 내려 측우기 수심이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태안·결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미·서천·황간·청산·연풍·제천·단양·영춘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충주·회인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내렸고, 16일의 비로 직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창·홍주·면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택·예산·정산·대흥·해미·결성·회인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온양·아산·석성·덕산·한산·서천·보령·연산·진잠·서산·청안·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고, 청양·당진·은진·청산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가운데 태안·결성·직산·신창·홍주·면천·전의·평택·예산·정산·대흥·해미·서산·회인·아산·석성·진잠·청안·서천 등 19개 고을은 기우제를 차례로 중지하였고, 청산·황간·영동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기우제를 이미 12차례 시행했으므로 중지하게 했으며, 제천은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7. 1853년(철종 4) 7월 25일(양력 8월 29일)

忠淸監營啓錄 4책(37a~3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19d~20b)

道內農形及今月十六日雨澤, 稷山等三十邑鎮所得分數, 木川等三十五邑鎮祈雨祭停止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天安·鴻山·黃澗·永同·鎭川·陰城·忠州等七邑, 得一犁, 魯城·懷德·沃川·槐山·延豐·淸風·堤川·永春等八邑, 得一鋤, 燕岐·淸州·丹陽等三邑沍塵是如爲白遣. 今月二十日驟雨, 臣營下無測雨器水深之可論是白遣. 稷山·大興·沔川·唐津·保寧等五邑, 得一犁, 全義·木川·天安·牙山·禮山·定山·洪州·德山·海美·泰安·懷德等十一邑, 得一鋤, 恩津·永同·靑山·黃澗·懷仁·文義·燕岐·淸州等十八邑沍塵, 祈雨祭段, 前啓外, 天安·唐津·懷德·鎭川·陰城·忠州·槐山·延豐·淸風·堤川等十邑, 亦爲停止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早稻及早黍粟, 次第發穗, 中稻方張胚胎, 晚稻雖或蘇醒, 無望食實, 最晚移貼土萎黃, 漸看枯損, 和種豆太, 連爲結殼, 木花間或結顆, 根耕豆太及晚黍粟, 已盡除草, 代播各穀, 方始鋤耘, 而前啓中公州等十一邑, 愆蠶蹲縮之患, 自得雨澤, 漸至寢息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6일 우택으로 직산 등 30개 고을과 군영에 내린 양, 목천 등 35개 고을과 군영에서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천안·홍산·황간·영동·진천·음성·충주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노성·회덕·옥천·괴산·연풍·청풍·제천·영춘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연기·청주·단양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 20일 소나기의 경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따질 만한 것이 없으나, 직산·대흥·면천·당진·보령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아산·예산·정산·홍주·덕산·해미·태안·회덕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은진·영동·청산·황간·회인·문의·연기·청주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천안·당진·회덕·진천·음성·충주·괴산·연풍·청풍·제천 등 10개 고을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중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으며, 늦벼는 비록 더러 되살아났으나 열매를 먹을 가망은 없습니다. 가장 늦게 모내기
한 것은 땅에 달라붙은 채 누렇게 시들었는데 점점 말라 죽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섞어 짓는 콩·팥은 연이어 꼬투리를 맺고 있으며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있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김매기했고 대체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막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 등 11개 고을의
건잠준축 근심은 단비가 내리면서 점차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보고
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8. 1853년(철종 4) 8월 초6일(양력 9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38a~38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0b~20b)

道內農形及木川等四十五邑鎮祈雨祭停止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 和種豆太, 漸次入實, 中稻連爲發穗, 晚稻及晚黍粟, 方張胚胎, 最晚移仍爲全棄, 根耕豆太及代播各穀, 間或起花, 木花次第綻絮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啓外, 魯城·保寧·沃川·永春等四邑, 亦爲停止是如爲白如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목천 등 45개 고을과 군영에서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알이 들고, 중벼는 연이어 이삭이 패며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알을 배고, 가장 늦게 모내기한 것은 그대로 전부 포기하게 됐으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대체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간혹 꽃이 피고 목화는 차례로 솜이 터진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노성·보령·옥천·영춘 등 4개 고을도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69. 1853년(철종 4) 8월 16일(양력 9월 18일)

忠淸監營啓錄 4책(38b~3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0c~20c)

道內農形及公州等十一邑愆蠶蹲縮，漸至寢息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農形段，早稻·早黍稷及和種豆太，方始向熟，中稻漸次垂穎，晚稻及晚黍粟，次第發穗，間多入實，根耕豆太，代播各穀，連爲結穀，木花方張摘取，而一直亢旱之餘，終闕霑潤之澤，涼候頗促，東風連吹，無論田畝各穀，難望善，就是如爲白遣，愆蠶蹲縮之患段，前啓中，連山尙不止息，痒稼太甚，藍浦愆蹲雖寢，蟲災尙熾，一向受損，前啓外，新昌近有蟲災，爲害亦多是如爲白有在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공주 등 11개 고을의 건잠준축 근심이 점차 그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막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중벼는 점차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그사이 알이 들은 것이 많으며, 그루같이한 콩·팥과 대체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연이어 꼬투리를 맺고 묵화는 한창 숨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곧 심한 가뭄 끝에 끝내 비가 내려 적셔주는 은택이 없고 서늘한 기운이 일찍 닳치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서 논과 밭을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이 잘 익기를 바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건잠준축 근심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연산은 아직도 그치지 않아 벼농사의 손상이 매우 심하고 남포는 건잠준축 근심은 비록 그쳤으나 벌레 재해가 아직도 세차게 번져 줄곧 손해를 입고 있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신창은 요즘에 벌레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0. 1853년(철종 4) 8월 24일(양력 9월 26일)

忠淸監營啓錄 4책(39a~3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0d~20d)

今月二十四日丑時量始雨，一陣驟下，間或霏微，至同日卯時，仍爲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隨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4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더니 간혹 부슬부슬 내리다가 같은 날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7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1. 1853년(철종 4) 8월 26일(양력 9월 28일)

忠淸監營啓錄 4책(39b~3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0d~21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稷及和種豆太, 次第黃熟, 中稻方始向熟, 晚稻及晚黍稷, 已皆垂穎, 根耕豆太及代播各穀, 方張入實, 木花連爲摘取, 而最晚移中, 當初或有餘望者, 秋後仍又被旱, 尙之以淒風, 苗而不秀, 秀而還枯, 更無一分食實之望是如爲白遣. 前啓中, 連山愆蠶蹲縮, 今幸寢息, 藍浦·新昌, 蟲災終不消滅, 尙多爲害是如爲白有在乎.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중벼도 막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늦벼 및 늦기장·늦조는 이미 모두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그루갈이한 콩·팥 및 대체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한창 알이 들고 있으며, 목화는 연이어 솜을 따서 거두는데, 가장 늦게 모내기한 벼 중 당초에 더러 가망이 남은 것이 있었으나 가을이 된 뒤 그대로 또 가뭄을 당하고 서늘한 바람이 더하니 싹이 나도 이삭이 패지 않고 이삭이 패도 도로 말라 죽어서 더이상 한 톨이라도 먹을만한 열매를 바랄 수 없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연산의 건잠준축 근심은 지금 다행히 그쳤으나 남포와 신창의 벌레 재해는 끝내 소멸하지 않고 아직도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2. 1853년(철종 4) 8월 29일(양력 10월 1일)

忠淸監營啓錄 4책(39b~4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1a~21b)

今月二十四日丑時量驟雨，至同日卯時，測雨器水深爲七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驟灑，延豐得一犁，公州·靑山兩邑，得一鋤，報恩·永同兩邑，沍塵是如爲白遣。又於今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或霏或灑，仍爲霏微，至翌日申時乃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六合[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4일 축시쯤 소나기가 같은 날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7푼이었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소나기의 경우, 연풍은 1려가 내렸고, 공주·청산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보은·영동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7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3. 1853년(철종 4) 9월 초6일(양력 10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40a~4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1b~21c)

去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至翌日申時，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沔川·瑞山·鎭川等五邑，得二犁，天安·稷山·平澤·溫陽·新昌·禮山·靑陽·大興·洪州·德山·唐津·海美·扶餘·鴻山·舒川·藍浦·保寧·結城·懷德·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燕岐·靑安·陰城·槐山·延豐·平薪等三十一邑鎭，得一犁，忠州·靑州·全義·木川·牙山·石城·林川·韓山·庇仁·魯城·恩津·連山·鎭岑·文義等十四邑，得一鋤是如爲白遣。又於今月初一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至同日亥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如乎。各邑所得分數，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7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신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면천·서산·진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직산·평택·온양·신창·예산·청양·대흥·홍주·덕산·당진·해미·부여·홍산·서천·남포·보령·결성·회덕·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연기·청안·음성·직산·연풍·평신 등 3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충주·청주·전의·목천·아산·석성·임천·한산·비인·노성·은진·연산·진잠·문의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초1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4. 1853년(철종 4) 9월 초6일(양력 10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40b~4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21c~21d)

道內農形及今月初一日寅時量始雨,至同日亥時,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全義·牙山·定山·大興·沔川·瑞山·鴻山·林川·韓山·庇仁·魯城·連山·文義等十四邑,川渠漲滿,天安·稷山·平澤·溫陽·洪州·德山·青陽·扶餘·石城·藍浦·保寧·恩津·懷德·永同·鎭川·延豐·海美·陰城等十八邑,得二犁,忠州·淸州·淸風·木川·新昌·禮山·結城·黃澗·鎭岑·報恩·燕岐·淸安·平薪等十三邑鎭,得一犁是白遣.去月二十七日之雨,非無霑濡之益,而繼此連霖,旋復爲害,傍水處之間多潰覆,猶屬細故,禾之熟者盡偃,胚者皆沈,因而被損者,又此不少是如爲白遣.農形段,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次第刈穫,中稻方張黃熟,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代播各穀,漸次向熟,木花幾盡摘取,連山之愆蠹蹙縮,藍浦·新昌之蟲蝕,今雖止息,受害各穀,已判全棄是如爲白有在乎.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1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해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전의·아산·정산·대흥·면천·서산·홍산·임천·한산·비인·노성·연산·문의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직산·평택·온양·홍주·덕산·청양·부여·석성·남포·보령·은진·회덕·영동·진천·연풍·해미·음성 등 1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충주·청주·청풍·목천·신창·예산·결성·황간·진잠·보은·연기·청안·평신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의 비로 축축이 적셔주는 유익함이 없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면 곧바로 다시 재해가 되니, 물가에 있는 곳은 그사이에 둑이 무너지고 흙에 덮이는 것은 오히려 자잘한 사고에 속하고, 익은 벼가 다 쓰러지고 이삭 뻗 것이 모두 잠김으로 인한 손해는 또 이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베어서 수확하고 중벼는 한창 누렇게 익어가고 있으며,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 대체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거의 다 솜을 따서 거두었다고 합니다. 연산의 건잠준축 근심, 남포·신창의 벌레 재해는 지금 비록 그쳤으나 상해를 입은 각종 곡식은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이미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5. 1853년(철종 4) 9월 초8일(양력 10월 10일)

忠淸監營啓錄 4책(41a~41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21d~22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及早黍粟, 和種豆太, 已盡收穫, 中稻方張刈取, 晚稻及晚黍粟, 根耕豆太, 代播各穀, 次第成熟, 木花已皆摘取, 別無晚穀之所收是如爲白遣. 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牙山·平澤·溫陽·定山·靑陽·洪州·德山·扶餘·石城·鴻山·結城·魯城·恩津·連山·懷德·文義·燕岐等二十二邑, 今月初三日夜霜降, 林川·鎭岑·沃川·永同·報恩·懷仁·淸州·鎭川·淸安·陰城·槐山·延豐等十二邑, 初四日夜霜降, 而大抵今年穡事, 春後雨澤, 一直慳闕, 迨夫夏至以後, 再舉圭璧, 其所得雨, 既不周洽, 先後多寡, 又相不齊, 除非水源素裕之地, 則幾皆晚移未移, 而未移者已無更論, 晚移者亦多全棄, 分劑各邑, 雖有穴農之可論, 統論全省, 未免災荒之孔慘是白如乎. 列邑分等, 酌量磨鍊, 追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및 올기장·올조, 섞어 짓는 콩·팥은 이미 다 수확하였고, 중벼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으며 늦벼 및 늦기장·늦조, 그루같이한 콩·팥, 대체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이미 솜을 모두 따서 거뒀는데 늦게 달린 다래는 별로 거둘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아산·평택·온양·정산·청양·홍주·덕산·부여·석성·홍산·결성·노성·은진·연산·회덕·문의·연기 등 22개 고을은 이번 달 초3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임천·진잠·옥천·영동·보은·회인·청주·진천·청안·음성·직산·연풍 등 12개 고을은 초4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대체로 올해 농사는 봄이 된 후 우택이 줄곧 적어서 하지 이후까지 거듭 기우제를 거행했으나 내린 비는 이미 두루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앞뒤로 내린 비의 양도 고르지 않아 수원이 본래 넉넉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늦게 모내기하거나 모내기하지 못했는데, 모내기하지 못한 것은 이미 다시 따질 것도 없지만 늦게 모내기한 것도 전부 포기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각 고을로 나누어 가늠하면 비록 풍흉이 일정치 않다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충청도 전체를 통틀어 따지더라도 재해가 매우 처참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은 참작해서 마련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6. 1854년(철종 5) 3월 27일(양력 4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83a~8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4c~44c)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耨漸次青茂，春耨方張立苗，鍤役幾盡了畢，秧坂[板]間或翻耕是如爲白乎旆。今月二十五日午時量始雨，間間霏灑，載陰載陽，至二十六日戌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向後農形及列邑得雨多寡，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하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가래질은 거의 다 끝나고 못자리는 간혹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 25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26일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7. 1854년(철종 5) 4월 초2일(양력 4월 28일)

忠淸監營啓錄 4책(89b~90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48d~48d)

去月二十五日午時量始雨，至二十六日戌時開霽，測雨器水深爲四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懷德·沃川·淸安·永同等五邑，得一鋤。全義·木川·天安·新昌·禮山·定山·靑陽·大興·德山·唐津·石城·扶餘·鴻山·林川·藍浦·魯城·恩津·連山·鎭岑·文義·燕岐·淸州·報恩·靑山等二十四邑，溫塵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5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 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회덕·옥천·청안·영동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전의·목천·천안·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덕산·당진·석성·부여·홍산·임천·남포·노성·은진·연산·진잠·문의·연기·청주·보은·청산 등 2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8. 1854년(철종 5) 4월 14일(양력 5월 10일)

忠淸監營啓錄 4책(93b~9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0d~51a)

今月十二日酉時量始雨，至翌日酉時，側雨器[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三日酉時以後，間或霏微，連爲陰翳[翳]，至十四日卯時，仍爲開霽是白遣。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木川·平澤·牙山·新昌·禮山·定山·青陽·大興·洪州·德山·沔川·唐津·藍浦·保寧·結城·鎭岑·懷德·沃川·永同·青山·燕岐·淸安·陰城等二十四邑，得一犁。全義·天安·石城·扶餘·魯城·恩津·連山·報恩·懷仁·淸州等十邑，得一鋤是如爲白乎旃。又於今十五日午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辰時乃止，臣營下側雨器[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如乎。各邑所得多寡，待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2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유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2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3일 유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리다가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더니 14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목천·평택·아산·신창·예산·정산·청양·대흥·홍주·덕산·면천·당진·남포·보령·결성·진잠·회덕·옥천·영동·청산·연기·청안·음성 등 2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전의·천안·석성·부여·노성·은진·연산·보은·회인·청주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15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튿날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79. 1854년(철종 5) 4월 22일(양력 5월 18일)

忠淸監營啓錄 4책(94a~94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1a~51b)

今月十五日雨澤, 沃川等三十三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永同·靑山·延豐·丹陽等四邑, 川渠漲滿, 忠州·陰城·槐山等三邑 得二犁, 天安·溫陽·德山·海美·瑞山·庇仁·藍浦·保寧·黃澗·淸風·堤川·永春·平薪等十三邑鎭 得一犁, 林川·舒川兩邑, 得一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5일의 우택으로 옥천 등 33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동·청산·연풍·단양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충주·음성·괴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온양·덕산·해미·서산·비인·남포·보령·황간·청풍·제천·영춘·평신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임천·서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0. 1854년(철종 5) 4월 29일(양력 5월 25일)

忠淸監營啓錄 4책(96a~9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2a~52a)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秋麴已皆入實，春麴方張胚胎，注秧付種，次第向青，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미 다 여물어 가고 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싹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1. 1854년(철종 5) 5월 초9일(양력 6월 4일)

忠淸監營啓錄 4책(97a~97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2b~52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麴次第黃熟, 春麴已盡發穗, 注秧付種, 漸次青茂,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幾盡立苗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점차 푸르게 무성하며,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2. 1854년(철종 5) 5월 19일(양력 6월 14일)

忠淸監營啓錄 4책(97a~97a)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52c~52c)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秋耨次第刈穫, 春耨幾盡向熟, 注秧付種, 間或初鋤,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亦爲除草. 而去月十六日以後, 一直亢旱, 田畝各穀, 多致枯損, 汚下洞畝及川汙引漑處, 雖或移秧, 旋即乾涸, 原野高燥之畝, 土壤堅硬, 無以移插, 秧節差晚, 民事切悶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어 수확하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있으며 못자리에 물을 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린 것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도 또한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이후 줄곧 몹시 가물어서 논밭의 각종 곡식은 말라서 손해를 보기에 이른 것이 많고, 지대가 낮은 동네 논 및 시내나 보에서 물을 끌어대는 곳은 비록 간혹 모내기하였으나 곧바로 바짝 마르고 벌판과 높고 메마른 논은 토양이 굳고 딱딱하여 모를 옮겨 심을 수가 없어서 모내기철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 백성들의 사정이 절실히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83. 1854년(철종 5) 6월 초5일(양력 6월 29일)

忠淸監營啓錄 4책(103a~10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5c~56a)

去月二十八日雨澤, 至今月初一日申時開霽, 測雨器水深, 合爲五寸八分, 而公州等二十六邑所得分數及定山等九邑祈雨祭, 竝爲停止, 瑞山等十一邑鎮祈雨祭, 次第設行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沔川·魯城·懷德·靑山·報恩·文義·延豐等七邑, 川渠漲滿, 牙山·靑陽·藍浦·黃澗·懷仁·淸風·堤川等七邑, 得二犁, 唐津·海美·瑞山·泰安·石城·扶餘·韓山·保寧·結城·淸安·陰城·忠州·丹陽·永春·平薪等十五邑鎮, 得一犁. 祈雨祭段, 前啓設行邑中, 公州·全義·文義·魯城·沃川·靑山·沔川·報恩·懷仁·延豐·槐山·黃澗等十二邑, 得雨之後, 竝皆停止, 前啓外, 永春, 去月二十八日爲始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今此雨澤, 通論全省, 元不均洽是白乎中, 一邑之中, 東西或殊, 全坪之內, 高低不同, 隨彼壤埴之燥濕, 異此溝洫之蓄泄. 故祈雨祭或行或停, 邑報各異是白乎旂. 今月初五日辰時量始雨, 或霍[霏]或灑, 至同日未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五分是白如乎. 各邑得雨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달 28일의 우택은 이번 달 초1일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총 5치 8푼이었고, 공주 등 26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정산 등 9개 고을의 기우제를 아울러 중지하고 서산 등 11개 고을과 군영에서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면천·노성·회덕·청산·보은·문의·연풍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아산·청양·남포·황간·회인·청풍·제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당진·해미·서산·태안·석성·부여·한산·보령·결성·청안·음성·충주·단양·영춘·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1려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공주·전의·문의·노성·옥천·청산·면천·보은·회인·연풍·괴산·황간 등 12개 고을은 비가 내린 후 아울러 모두 중지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춘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의 우택은 충청도 내 전체를 통틀어 따지자면 원래 골고루 흠족하지는 않은 가운데 한 고을 안에서도 동쪽과 서쪽이 더러 다르기도 하고, 별관 전체적으로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같지

않으며 그 토양이 메마른지 습한지에 따라 도랑에 물이 쌓이기도 하고 새어 나가기도 하는 것이 이처럼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우제를 더러 시행하고 더러 중지하였으며 고을의 보고도 각각 달랐습니다. 이번 달 초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2치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4. 1854년(철종 5) 6월 초9일(양력 7월 3일)

忠淸監營啓錄 4책(103b~10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6a~56b)

道內農形及公州等十二邑祈雨祭得雨停止, 永春祈雨祭, 去月二十八日爲始設行事, 今月初五日辰時量始雨, 至同日未時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五分緣由,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溫陽·永同·靑山·陰城等四邑, 川渠漲滿, 公州·全義·淸州·稷山·牙山·新昌·禮山·定山·靑陽·洪州·連山·鎭岑·文義·淸州·鎭川·淸安等十六邑 得二犁, 天安·大興·德山·沔川·唐津·石城·扶餘·林川·鴻山·韓山·結城·懷德·燕岐·平澤等十四邑 得一犁, 保寧·恩津·報恩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遣. 祈雨祭段, 前啓設行邑中, 石城·禮山·木川·淸州·扶餘·天安·稷山·靑陽·新昌·淸安·恩津·林川·唐津·韓山·洪州·淸風·堤川·牙山·永春·平澤·平蘄等二十一邑鎭 次第停止. 農形段, 春甿幾盡收穫, 付種乾播, 方始再鋤, 洞畚已移之秧, 僅得向蘇, 未移之處, 次第移秧, 而秧或患小, 力有未逮, 移插之節, 隨處不齊, 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 連爲除草, 根耕豆太及晚黍粟, 方張耕播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農形及未報邑雨澤,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공주 등 12개 고을은 기우제를 비가 내리자 중지하고 영춘은 기우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번 달 초5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온양·영동·음성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공주·전의·청주·직산·아산·신창·예산·정산·청양·홍주·연산·진잠·문의·청주·진천·청안 등 1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천안·대흥·덕산·면천·당진·석성·부여·임천·홍산·한산·결성·회덕·연기·평택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보령·은진·보은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석성·예산·목천·청주·부여·천안·직산·청양·신창·청안·은진·임천·당진·한산·홍주·청풍·제천·아산·영춘·평택·평신 등 21개 고을과 군영은 차례로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거의 다 수확하였고 무논에 볍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동네 논에 이미 모내기한 것은 겨우 되살아나고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곳은 차례로 모내기하고 있지만 간혹 모가 부실한 것이 걱정이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옮겨 심는 절기가 곳에 따라 고르지 못합니다. 올기장·올조와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하고, 그루같이하는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한창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5. 1854년(철종 5) 6월 14일(양력 7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108a~108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8c~58c)

今月初五日雨澤，溫陽等三十七邑所得分數及石城等二十一邑鎮祈雨祭停止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外，泰安·黃澗·槐山·延豐·淸風·丹陽·永春等七邑 川渠漲滿，忠州·堤川·平薪等三邑鎮 得二犁，海美·瑞山·藍浦·沃川·懷仁等五邑 得一犁，舒川·庇仁·魯城等三邑 得一鋤。祈雨祭段，前啓設行邑中，連山·泰安·藍浦·忠州等四邑 亦爲停止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二日寅時量始雨，或霏或灑，載陰載陽，至翌日巳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如乎。各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5일의 우택으로 온양 등 37개 고을에 내린 양 및 석성 등 21개 고을과 진에서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태안·황간·괴산·연풍·청풍·단양·영춘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충주·제천·평신 등 3개 고을과 군영은 2려가 내렸고, 해미·서산·남포·옥천·회인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천·비인·노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앞서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고을 가운데 연산·태안·남포·충주 등 4개 고을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2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더니 이튿날 사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6. 1854년(철종 5) 6월 17일(양력 7월 11일)

忠淸監營啓錄 4책(108b~10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8c~59a)

道內連山等四邑祈雨祭停止事及今月十二日寅時量始雨，至翌日巳時開霽，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溫陽·連山·鎮岑·懷德·沃川·報恩·懷仁·文義·陰城等九邑 川渠漲滿，定山·瑞山·韓山·結城·恩津·淸州·淸安等八邑 得二犁，公州·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新昌·禮山·青陽·洪州·德山·鴻山·藍浦·保寧·燕岐·鎮川等十六邑 得一犁，大興·沔川·海美·扶餘·舒川等五邑 得一鋤，陰城·瑞山·結城等三邑 祈雨祭竝爲停止，舒川·保寧·海美等三邑 雖得數次之雨，地多高燥，霑未周洽，尙多未移之秧。故祈雨祭連爲設行是如爲白乎旆。又於今月十六日辰時量始雨，或霏或灑，至翌日巳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二分，而見今同雲四低，霏微不止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연산 등 4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중지한 일 및 이번 달 12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튿날 사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온양·연산·진잠·회덕·옥천·보은·회인·문의·음성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정산·서산·한산·결성·은진·청주·청안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신창·예산·청양·홍주·덕산·홍산·남포·보령·연기·진천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대흥·면천·해미·부여·서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음성·서산·결성 등 3개 고을은 기우제를 아울러 중지하였고, 서천·보령·해미 등 3개 고을은 비록 몇 차례 비가 내렸으나 높고 메마른 지역이 많아 두루 흡족하게 적시지는 못하여 아직 모내기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6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였는데 이튿날 사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2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먹구름이 사방에 낮게 깔리고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7. 1854년(철종 5) 6월 19일(양력 7월 13일)

忠淸監營啓錄 4책(109a~109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9a~59b)

道內農形及今月十二日雨澤，溫陽等三十七邑所得分數，十六日辰時量始雨，至翌日巳時，測雨器水深，爲四寸二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十二日之雨，前啓外，永同·黃澗·靑山·魯城·延豐等五邑 川渠漲滿，槐山·忠州·淸風·堤川·丹陽·永春等六邑 得二犁，牙山·泰安·石城·林川·庇仁等五邑 得一犁，唐津·平薪兩邑鎮，得一鋤是如爲白乎旆，農形段，付種乾播，漸次向茂，早移秧間或初鋤，晚移秧隨其移插之先後，次第着根，而高燥之畝，或有未移處，早黍粟·和種豆太及木花，連爲除草，根耕豆太及晚黍粟，幾盡立苗是如爲白乎旆，十七日巳時以後，連爲霏灑，至十九日辰時，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一尺五寸，統計前後，合爲一尺九寸二分，不過三日，幾近二尺，而東風連吹，陰雲猶密，方有大注之意，實多成霖之慮是白如乎，各邑所得，雖姑未知，以臣營下所見言之，江川汎濫，溝渠橫決，道路則行旅莫通，田畝則汰覆已多是白乎所，向後形止及列邑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2일의 우택으로 온양 등 37개 고을에 내린 양과 16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7일 사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4치 2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동·황간·청산·노성·연풍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괴산·충주·청풍·제천·단양·영춘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아산·태안·석성·임천·비인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당진·평신 2개 고을과 군영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벼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점차 무성해지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옮겨 심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뿌리를 내리고, 높고 메마른 논은 더러 아직 모내기 못한 곳이 있으며, 올기장·올조, 섞어 짓는 콩·팥 및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하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17일 사시 이후 연이어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였는데 19일 진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1자 5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1자 9치 2푼이 되는데 불과 사흘 동안 거의 2자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풍이 연이어 불고 먹구름이 여전히 뻥뻥하니 바야흐로 크게 쏟아부을 조짐이 있으며 정말로 장마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비록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강과 시내가 범람하고 도랑은 옆으로 터져 도로는 다니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고 논과 밭은 사태로 흠에 덮인 곳이 이미 많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8. 1854년(철종 5) 6월 22일(양력 7월 16일)

忠淸監營啓錄 4책(109b~110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59b~59c)

今月十六日雨水, 至十九日辰時, 測雨器水深, 爲一尺九寸二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辰時以後, 間或霏微, 乍陰乍暘, 自二十一日戌時量, 又爲大霑, 至二十二日卯時,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是白如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九日以前, 數日之雨, 公州·定山·石城·扶餘·懷德·燕岐等六邑 江川汎濫, 全義·木川·天安·溫陽·禮山·鴻山·庇仁·藍浦·舒川·保寧·魯城·恩津·連山·鎭岑·文義·淸州等十六邑 川渠漲滿, 而沿江傍川之地, 田畓之汰覆, 各穀之沈墊, 在在皆然. 民戶既多頽壓, 人命亦或淪沒, 庇仁·藍浦·舒川·保寧等四邑段, 今月十六日潮水汎濫, 堤塍多致橫決, 禾苗爲鹹水所墊, 無望蘇醒, 舒川·保寧兩邑, 祈雨祭仍爲停止是如爲白有臥乎所. 潰決之田畓, 申飭修築, 頽壓之民戶, 別加顧恤, 待水退一一摘奸報來之意, 措辭題飭爲白乎旆.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빗물이 19일 진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자 9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진시 이후 간혹 부슬부슬 내리고 잠깐씩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21일 술시쯤 또 크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9일 이전 며칠간 내린 비로 공주·정산·석성·부여·회덕·연기 등 6개 고을의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온양·예산·홍산·비인·남포·서천·보령·노성·은진·연산·진잠·문의·청주 등 16개 고을의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강가와 시냇가 지역은 논과 밭이 사태로 뒤덮이고 각종의 곡식은 물에 잠겼는데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며, 백성 집은 이미 무너진 곳이 많고 사람도 간혹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비인·남포·서천·보령 등 4개 고을의 경우 이번 달 16일 바닷물이 범람하여 방죽과 두둑이 옆으로 터지기에 이른 것이 많고 벼의 싹은 짙 바닷물에 잠기어 되살아날 가망이 없으며, 서천과 보령 2개 고을은 기우제를 이내 중지했다고 합니다. 독이 터진 논밭은 독을 쌓도록 단단히 지시하였고 무너진 백성 집은 별도로 보살피 주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캐내서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89. 1854년(철종 5) 6월 25일(양력 7월 19일)

忠淸監營啓錄 4책(110b~111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59c~60a)

今月十六日雨水, 至十九日, 公州等二十二邑被災形止及二十一日戌時量, 又爲霖下, 至二十二日卯時, 測雨器水深, 爲三寸五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二日卯時以後, 或霏或灑, 載陰載陽, 至二十四日卯時, 始乃開霽, 臣營下測雨器水深, 又爲二寸二分, 統計二十日以後所得, 合爲五寸七分是白乎旆. 續接各邑所報, 則十九日以前, 數日之雨, 前啓外, 林川·槐山·牙山·新昌·靑陽·德山·洪州·沔川·唐津·海美·瑞山·泰安·韓山·結城·鎭川·淸安·陰城·沃川·永同·靑山等十九邑 川渠漲溢, 而依山近水之地, 田畝汰覆, 汚下停滯之處, 各穀沈墊, 民家在在漂頽, 丘壟往往汰落. 其中瑞山·泰安兩邑段, 今月十七日潮水汎濫, 堤塍潰決, 禾穀沈傷, 海美祈雨祭亦爲停止是如爲白遣. 二十一日以後, 數日之雨, 公州·燕岐兩邑, 江川大漲, 石城·扶餘兩邑, 以始雨形止報來, 而其他各邑, 姑無所報, 似緣阻水之致是白如乎. 漂頽戶改構之方, 潰決畚修築之節, 各別申飭舉行之意, 連加題飭於各邑守宰處爲白乎旆. 未報邑形止,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빗물이 19일에 이르러 공주 등 22개 고을의 재해 경위 및 21일 술시쯤 또 주룩주룩 내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3치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2일 묘시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더러 뿌리기도 하면서 언뜻언뜻 흐렀다 별이 났다 하다가 24일 묘시에 이르러 비로소 이내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2치 2푼이었으며, 20일 이후 내린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 총 5치 7푼입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9일 이전 며칠 동안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임천·괴산·아산·신창·청양·덕산·홍주·면천·당진·해미·서산·태안·한산·결성·진천·청안·음성·옥천·영동·청산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산자락이나 물에 가까운 지역은 논밭이 사태로 뒤덮이고 지대가 낮고 물이 고인 곳은 각종 곡식이 물에 잠겼고, 백성 집도 곳곳에서 떠내려가고 무너졌으며 언덕은 종종 사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서산·태안 2개 고을의 경우 이번 달 17일 바닷물이 범람하여 방죽과 두둑이 터지고 벼가 잠겨 손해가 발생했고 해미는 기우제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21일 이후에 며칠 동안의 비로 공주·연기 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크게 불어났고, 석성·부여 2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왔으나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없는데 아마도 물에 막힌 탓인 듯합니다.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을 고쳐 짓는 방도와 무너진 논·의둑을 쌓는 사항은 각별하게 단단히 지시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연이어 각 고을의 수령에게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0. 1854년(철종 5) 6월 27일(양력 7월 21일)

忠淸監營啓錄 4책(112a~113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60c~61a)

今月十六日雨水, 至十九日, 林川等二十一邑被災形止及二十一日戌時量又爲霖下, 至二十四日卯時, 測雨器水深, 合爲五寸七分, 而公州·燕岐兩邑, 江川大漲, 石城·扶餘兩邑, 以始雨形止報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十九日以前, 數日之雨, 前啓外, 忠州·淸風·丹陽·永春等四邑 江川汎濫, 平澤·大興·黃澗·報恩·懷仁·延豐·堤川·平薪等八邑鎭 川渠漲滿, 而依山近水之地, 田畝之汰覆, 穀苗之沈沒, 在在皆然. 韓山段, 十七八兩日潮水, 三次汎濫, 各邑尤多傷損是如爲白遣. 自二十二日, 至二十四日之雨, 前啓始雨之石城·扶餘兩邑及前啓外林川·懷德兩邑 江川汎濫, 木川·新昌·禮山·定山·大興·鴻山·韓山·庇仁·恩津·連山·沃川·永同·青山·文義·淸州·淸安等十六邑 大小川渠, 無不漲溢. 全義·懷仁兩邑 得二犁, 而舊水未退, 新被連添, 畦塍則潰者益潰, 禾稼則沈者愈沈, 平野轉成溝洫, 良田多爲川沙, 甚於山崩而人塚汰落, 波橫而全村墊頽者, 往往有之是如爲白乎旆. 又於今月二十五日巳時量, 更爲霖灑, 至二十七日辰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八寸. 而公州·定山兩邑, 以始雨形止報來, 外他各邑, 姑無所報是白如乎. 自今月十六日以後, 連爲滂沱, 三次大霖, 前後所得, 合爲三尺二寸六分, 而其間雖或有止歇之時, 乍霽旋霖, 暫泄復漲. 統而論之, 一句之間, 無日不雨, 一道之內, 無邑不災. 而見今風薰雲濕, 尙無快霽之意, 來頭民事, 誠爲悶然是白乎所. 決潰之堤塍, 董飭修築, 漂壓之民家, 摘奸詳報之意, 更爲關飭於列邑守宰處爲白遣. 向後形止及未報邑雨水多寡, 待其報來,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6일 빗물이 19일에 이르러 임천 등 21개 고을의 재해 경위 및 21일 술시쯤 또 주룩주룩 내리다가 24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총 5치 7푼이 되었고, 공주·연기 2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크게 넘쳤으며, 석성·부여 2개 고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온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9일 이전 며칠 동안 내린 비는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청풍·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평택·대흥·황간·보은·회인·연풍·제천·평신 등 8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산자락이나 물에 가까운 지역은 논밭이 사태로 뒤덮이

고 곡식의 싹은 물에 잠겼는데 곳곳에서 모두 그러합니다. 한산의 경우, 17·18일 이틀간 바닷물이 3차례 범람하였으며, 각 고을은 더욱 손해가 많다고 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비로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석성·부여 2개 고을 및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임천·회덕 2개 고을이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목천·신창·예산·정산·대흥·홍산·한산·비인·은진·연산·옥천·영동·청산·문의·청주·청안 등 16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지 않은 곳이 없고, 전의·회인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이전의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새로 연이어 더해지니 밭두둑은 터진 곳이 더욱 터지고 벼는 물에 잠긴 것이 더욱 잠겼으며 평평한 들은 점차 도랑이 되고 좋은 밭은 시내와 모래밭이 된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지고 무덤이 사태가 나기도 하였으며 물결이 옆으로 흘러들어 온 마을이 잠기고 무너진 곳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5일 사시쯤 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7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8치였습니다. 공주와 정산 2개 고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왔으나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없습니다. 이번 달 16일 이후 연이어 콕콕 쏟아졌는데 세 차례 크게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내린 것은 총 3자 2치 6푼이나 됩니다. 그 사이에 비록 간혹 비가 멈춘 때가 있지만 잠깐 개었다가 곧바로 주룩주룩 내리니 잠깐 물이 빠져나가다가 다시 넘쳤습니다. 통틀어 말하자면 열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없었고 충청도 내에 재해를 입지 않은 고을이 없습니다. 현재 바람이 후덥지근하고 구름이 축축하여 아직도 말끔히 개일 조짐이 없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터진 방죽과 두둑을 고쳐 쌓도록 단단히 지시하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을 상세히 캐내서 보고하라는 뜻으로 다시 여러 고을의 수령들에게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1. 1854년(철종 5) 6월 30일(양력 7월 24일)

忠淸監營啓錄 4책(113a~114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61a~61d)

今月二十一日雨水,至二十四日,石城等二十二邑被災形止及二十五日巳時量更爲霖灑,至二十七日辰時乃止,測雨器水深爲八寸,而公州·定山兩邑,以始雨形止報來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自二十一日,至二十四日之雨,前啓外,槐山·忠州·淸風·丹陽·永春等五邑 江川汎濫,天安·槐山·平澤·牙山·溫陽·洪州·舒川·保寧·結城·鎭岑·黃澗·報恩·鎭川·陰城·延豐·堤川等十六邑 川渠漲滿,青陽·德山·海美·瑞山·魯城·藍浦·沔川·唐津·泰安·平薪等十邑鎭 得二犁,而極備爲咎,沿峽同然.舟棹通於原野,道路俱成棧梯,人命湔沒,或有漂失而未拯,家舍頽壓,竝與服食而都沒,蓋是均值劫運.而或有偏遭酷禍,上雨而無以庇身,下濕而舉皆塗足,兼之以掩肚無物,糊口沒策,怨咨呼號,愁絕悲慘.結城·平澤·唐津·天安等四邑,今月十八日潮水,隨風汎濫,各穀透鹹傷損.二十五六七日之雨,前啓始雨之公州·定山兩邑及前啓外,石城·扶餘·林川·懷德·燕岐等五邑 江川汎濫,全義·木川·天安·稷山·平澤·牙山·溫陽·新昌·禮山·大興·鴻山·魯城·庇仁·恩津·連山·鎭岑·懷仁·淸州·鎭川·淸安等二十邑 川渠漲溢,青陽·德山·韓山等三邑 得二犁.而旣漲之溝渠更溢,久墊之畎畝益沈,四面積水,一望如海,山崩而沙石頽於郊野,隴決而江川橫於田畝,疆界莫辨,區域全沒,永無起墊之望者,種種有之是如爲白遣.農形段,付種乾播,摧敗委靡,在在皆然.而被墊不甚之地,次第青茂,早移秧隨其泄退,間或再鋤,旋因漲滿,幾皆停役,而洞畚淳滯旣久.或致蹲縮,或致消泯,晚移秧軟根纔着,暴霖旋盪,披靡消泐,善就者幾希.而就其高燥處,方始初鋤,黍粟及和種豆太,無論早晚,淤泥之中,鋤耘莫施,阡陌之間,蕪穢不治.而其中根耕豆太,出土未幾,積雨旋沈,泥土所被,莖葉漸腐,木花最是惡濕之種,而着在泥中,多有全棄是如爲白有臥乎所.湔死屍身,搜拯掩埋,漂頽家舍,顧助結構,另加慰撫,俾得奠接之意,這這題飭於各邑守宰處爲白乎脉.又於今月二十九日寅時量始雨,或霖或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而雲陰不解,餘意尙濃是白如乎.見今溝洫盈溢,高低灑解,過此以往,雖添分寸之雨,便作丈尺之漲,而一直興雲,快霽尙遲,言念民事,萬萬悶然.各邑形止及未報邑雨水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1일 빗물이 24일에 이르러 석성 등 22개 고을의 재해 경위 및 25일 사시쫓 다시 주룩주룩 쏟아지다가 27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이 8치였고, 공주·정산 2개 고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경위를 보고해 온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비는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괴산·충주·청풍·단양·영춘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홍주·서천·보령·결성·진잠·황간·보은·진천·음성·연풍·제천 등 1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청양·덕산·해미·서산·노성·남포·면천·당진·태안·평신 등 10개 고을은 2려가 내렸으며, 그지없이 내린 비가 재앙이 된 것은 물가나 산골짜기가 똑같습니다. 배가 벌판에 떠다니고 도로는 모두 사다리가 되었으며 사람이 물에 빠져 죽거나 혹은 떠내려갔는데 건지지 못했습니다. 집이 무너져 의복과 식량이 아울러 모두 잠겼으니 대체로 고르게 재난의 운을 만났지만 간혹 유난히 혹심한 재앙을 만나 위로는 비가 와도 몸을 의지할 곳이 없고 아래로는 습기가 가득하여 대부분 발이 빠지며, 게다가 배를 가릴 물건도 없고 입에 풀칠할 대책도 없어서 원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매우 근심스럽고 비참합니다. 결성·평택·당진·천안 등 4개 고을은 이번 달 18일 바닷물이 바람이 부는 대로 범람하여 각종 곡식에 소금물이 스며들어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25·26·27일에 내린 비는 앞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공주·정산 2개 고을 및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석성·부여·임천·회덕·연기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진잠·회인·청주·진천·청안 등 2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청양·덕산·한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어난 도랑은 다시 넘치고 오랫동안 잠긴 이랑은 더욱 잠겼으며, 사방에 고인 물은 얼핏 바라보면 바다 같고 산이 무너져 교외의 들에 모래와 돌이 쌓였으며 둔덕이 터져 논밭에 강과 시내가 가로지르니 경계를 관별할 수 없고 구역이 완전히 침몰하여 영원히 개간할 가망이 없는 곳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무논에 범씨를 뿌리거나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것은 꺾여서 시들고 쓰러졌는데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것이 심하지 않은 지역은 차례로 푸르게 무성해지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물이 빠지는 대로 간혹 두벌 김매기하였으나 곧바로 불어나 가득 찬 물로 인하여 거의 다 일을 멈추고 동네 논은 물이 고인 지 이미 오래되어 주저앉거나 녹아버렸습니다. 늦게 모내기한 연약한 뿌리는 겨우 뿌리를 내렸으

나 세차게 쏟아지는 비로 곧바로 물에 잠겨 힘없이 쓰러지거나 녹아버려 잘 자란 것은 거의 드뭅니다. 높고 메마른 곳에서는 비로소 초벌 김매기를 하는데, 기장과 조, 섞어 짓는 콩·팥은 이른 것이나 늦은 것을 막론하고 진흙 속에 묻혀 김매기를 하지 못하며 밭두둑 사이에 잡초가 무성한데 손을 쓰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그루같이한 콩과 팥은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누적된 비에 곧바로 잠겨 진흙에 덮이고 줄기와 잎은 점차 썩어갑니다. 목화는 가장 습기를 꺼리는 종류인데 진흙 속에 묻혀서 온전히 포기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는 건져내어 매장하고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은 도와서 집을 짓고 별도로 위로하고 어루만져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을 결정문으로 날날이 각 고을 수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달 29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였는데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2치 5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짙게 끼어 흠어지지 않고 비가 더 올 조짐이 오히려 농후합니다. 현재 도랑이 차서 넘치고 높고 낮은 곳이 모두 사라져서 앞으로 이보다 지나치면 비록 한 푼 한 치의 비라도 더하면 곧 엄청나게 많은 물이 불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줄곧 구름이 끼고 말끔히 개는 것은 오히려 지체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답답합니다. 각 고을의 경위 및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빗물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2. 1854년(철종 5) 7월 15일(양력 8월 8일)

忠淸監營啓錄 4책(121a~121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65d~66a)

今月十三日酉時量始雨，連爲滂沱，十四日申時以後，挾風暴霖，至十五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尺，而見今霏微不止，尙無開霽之意是白如乎。二旬長霖之餘，各穀已多消澁，餘苗尙未蘇醒，又有此盈尺之雨，各邑形止，雖姑未知，以臣營下所見言之，溝渠漲溢，田畝沈墊，言念民事，誠甚悶然。向後形止及列邑雨水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짹짹 쏟아졌고, 14일 신시 이후 바람과 더불어 세차게 쏟아졌는데 15일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1자였습니다. 현재도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20일 동안이나 길게 장마진 나머지 각종 곡식은 이미 녹아 버린 것이 많고 남은 싹은 아직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1자나 되는 비가 내리니 각 고을의 경위는 비록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저의 감영에서 본 것으로 말하자면 도랑이 불어나 넘치고 논밭이 물에 잠겼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 빗물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3. 1854년(철종 5) 7월 17일(양력 8월 10일)

忠淸監營啓錄 4책(123a~123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67a~67b)

今月十三日酉時量始雨，至十五日卯時，測雨器水深爲一尺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十五日卯時以後，間間霏灑，載陰載暘，至十六日卯時開霽，臣營下測雨器水深，又爲三分，竝計前後，合爲一尺三分是白乎跡。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公州·定山·扶餘等三邑，江川汎濫，全義·木川·天安·平澤·溫陽·新昌·禮山·靑陽·洪州·德山·唐津·林川·韓山·恩津·連山·懷德·報恩·文義·等十八邑 川渠漲溢，鴻山等〈邑〉得二犁，石城·魯城·燕岐·懷仁等四邑 得一犁。而積水纔退，新漲又添，汰覆沈墊，無損於前。而其中全義·木川·平澤·溫陽·新昌·禮山·定山·扶餘·恩津·連山·報恩等十一邑段，田畝之潰決，各穀之傷損，比前尤甚是如爲白有臥乎所。未報邑形止，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자이었다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5일 묘시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면서 언뜻언뜻 흐렸다 별이 났다 하다가 16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또 3푼이었으며, 지금까지 것을 아울러 계산하면 총 1자 3푼이 됩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공주·정산·부여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전의·목천·천안·평택·온양·신창·예산·청양·홍주·덕산·당진·임천·한산·은진·연산·회덕·보은·문의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홍산 등은 2려가 내렸고, 석성·노성·연기·회인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고인 물이 빠지자마자 새로 불어난 물이 또 보태니 사태로 덮이고 물에 잠기니 손해가 이전보다 덜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전의·목천·평택·온양·신창·예산·정산·부여·은진·연산·보은 등 11개 고을은 논밭의 두둑이 무너지고 각종 곡식의 손해는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아직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4. 1854년(철종 5) 7월 17일(양력 8월 10일)

忠淸監營啓錄 4책(123b~125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67b~68a)

道內各邑，酷被水災，民家漂頽，人命渰壓緣由，前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公州段，民家漂失爲十五戶，頽壓爲四十二戶；清州段，民家頽壓爲八戶；天安段，民家漂失爲二戶，頽壓爲五十戶，人命渰死爲一名；瑞山段，民家頽壓爲十四戶，人命渰死爲三名；結城段，民家漂失爲一戶，頽壓爲十九戶，人命渰死爲三名；石城段，民家漂失爲十三戶，頽壓爲二十八戶；扶餘段，民家漂失爲九戶，頽壓爲十五戶，人命渰死爲二名，壓死爲一名；魯城段，民家漂失爲九戶，頽壓爲四十三戶；恩津段，民家漂失爲十四戶，頽壓爲一百八十六戶，人命渰死爲一名；連山段，民家頽壓爲九戶，人命渰死爲二名；林川段，民家漂失爲二戶，頽壓爲六十三戶，人命渰死爲二〈名〉，壓死爲十名；禮山段，民家漂壓爲一戶，頽壓爲六十九戶，人命渰死爲一名；牙山段，民家頽壓爲二十四戶，人命壓死爲一名；德山段，民家漂失爲二戶，頽壓爲二十一戶，人命壓死爲二名；文義段，民家漂失爲九戶，頽壓爲十四戶；懷仁段，民家漂失爲二戶，頽壓爲十戶，人命渰死爲一名；報恩段，民家漂失爲十六戶，頽壓爲四十五戶，人命渰死爲三名；稷山段，民家頽壓爲二十八戶，人命渰死爲一名；木川段，民家頽壓爲三十三戶；青陽段，民家頽壓爲二十一戶；新昌段，民家漂壓爲二十二戶，人命渰死爲一名；海美段，民家漂失爲四戶，頽壓爲四戶；溫陽段，民家漂失爲二戶，頽壓爲五戶；鎭川段，人命渰死爲二名；庇仁段，民家頽壓爲七戶；永春段，民家漂失爲七戶；燕岐段，人命渰死爲一名；黃澗段，人命渰死爲一名；青山段，人命渰死爲一名。而統計各邑所報之數，則民家之漂失，爲一百八戶，漂壓爲十一戶，頽壓爲八百八十四戶，人命渰死爲二百六戶[名]，壓死爲十四名是白乎所。今番水災，實是挽近罕有，而民家〈之〉漂頽，人命之渰壓，若是夥多，棲屑哀號之狀，萬萬慘惻。屍身掩埋之節，家舍結構之方，連加申飭，元恤典爲先依式題給，仍令別般顧助，期於從速改構入處之地爲白遣。漂壓民戶，渰壓死人等役姓名，一一開錄，修成冊子，上送于常賑廳爲白去乎，令該廳會減施行爲白乎旅。上項諸邑之所抄報者，只是全家漂〈失〉者是白遣，至於半頽之戶，並不舉論是白乎矣。其所慘〈惻〉，與全家頽壓無異焉是如乙苻[仍]于，亦令慰撫顧恤，俾卽修改奠接爲白乎旅。諸邑所報之未免遲滯，由於淹雨連仍，摘奸未易之致。外此未報之邑，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각 고을이 혹심하게 수해를 당하여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연유는 며칠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공주는 경우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15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42가구, 청주는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8가구, 천안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2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50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서산은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14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 결성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1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19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 석성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13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28가구, 부여는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9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15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1명, 노성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9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43가구, 은진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14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1백 86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연산은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9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임천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2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63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10명, 예산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1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69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아산은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24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1명, 덕산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2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21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문의는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4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14가구, 회인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2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10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보은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16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45가구이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 직산은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28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목천은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33가구, 청양은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21가구, 신창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22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해미는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4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4가구, 온양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2가구이고 무너진 것이 5가구, 진천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비인은 백성 집이 무너진 것이 7가구, 영춘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7가구, 연기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황간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청산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각 고을이 보고한 수를 통틀어 계산하면 백성 집이 떠내려가 버린 것이 108가구, 백성 집이 떠내려가

거나 깔린 것이 11가구, 무너진 것이 884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06명, 깔려 죽은 사람이 14명입니다. 이번 수해는 정말로 근래에 드문 일입니다.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이처럼 상당히 많고, 초라하게 거처하며 슬피 울부짖는 상황은 매우 매우 참담하고 측은합니다. 시체를 매장하는 절차와 집을 짓는 방도는 연이어 단단히 지시했으나, 원흉전은 우선 규정대로 결정문으로 공급하고 이내 특별히 돕도록 하여 기어이 빨리 고치고 지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떠내려갔거나 깔린 백성 집과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의 성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책자를 만들어 상진청에 올려보내니 해당 청에 지시하여 회감해서 시행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위의 여러 고을에서 뽑아 보고한 것은 단지 완전히 떠내려가 버린 것이고, 반쯤 무너져버린 집의 경우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 참담하고 측은하기는 완전히 무너지거나 깔린 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돌봐주어 즉시 수리하고 고쳐서 머물러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보고가 시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연이어 오랫동안 큰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캐내기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밖에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5. 1854년(철종 5) 7월 20일(양력 8월 13일)

忠淸監營啓錄 4책(125a~126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68a~68c)

道內農形及今月十三日酉時量始雨，至十六日卯時，測雨器水深爲一尺三分，而公州等二十六邑被災形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前啓中，石城·燕歧兩邑初有一犁之報，而連爲霖灑，江川汎濫，魯城·懷仁兩邑川渠漲溢，前啓外，槐山·忠州·淸風·丹陽·永春等五邑江川汎濫，稷山·牙山·大興·沔川·海美·瑞山·泰安·舒川·庇仁·藍浦·保寧·結城·鎭岑·沃川·永同·黃澗·靑山·淸安·鎭川·淸安[淸州]·陰城·延豐·堤川·平薪等二十四邑鎭川渠漲溢，而積水纔退，新漲更急，改築之堤堰，無不再潰，欲蘇之穀苗，因以重損，不辨畦塍，全沒穀形。而其中稷山·牙山·沔川·瑞山·泰安·石城·舒川·燕歧·淸州·淸安·槐山·竝豐[延豐]等十二邑段，田畚潰決，比前尤甚，家舍頽壓，踵後相續是如爲白遣。農形段，被災最酷全庫川沙者，更無餘望，而外此高燥處，早黍粟方張胚胎，間或發穗，早移秧次第茁茂，晚移秧幾皆再鋤，和種豆太，漸次起花，木花潦雨所侵，花房腐落，結顆無幾，根耕豆太及晚黍粟，方始再除草。前啓中，連山等四邑，愆蠶蹲縮，終不寢息，前啓外，恩津·扶餘·燕歧·忠州·新昌·木川·定山·鎭岑·陰城·沔川·鴻山等十一邑，亦有愆蠶蹲縮之患，而其中木川·陰城兩邑段，非但愆蹲，又有蟲損，早移禾稼，多有全棄是如爲白乎旃。又於今月十七日巳時以後，或暴霖或霏灑，至二十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而東南風日夜大至，陰雲連又密布，霽意邈然，言念民事，萬萬罔措是白如乎。向後形止及各邑雨水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13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6일 묘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이 1자 3푼이고, 공주 등 26개 고을의 재해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석성·연기 2개 고을은 처음에 1려가 내렸다고 보고했는데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고 뿌려서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노성·회인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괴산·충주·청풍·단양·영춘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직산·아산·대흥·면천·해미·서산·태안·서천·비인·남포·보령·결성·진잠·옥천·영동·황간·청산·청주·진

천·청주·음성·연풍·제천·평신 등 24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고였던 물이 겨우 빠지자 새로 불어난 물이 다시 다급하여 고쳐 쌓은 방죽과 두둑은 다시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되살아나던 곡식의 싹은 그 때문에 거듭 손상을 입고 두둑은 분별할 수 없으며 곡식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직산·아산·면천·서산·태안·석성·서천·연기·청주·청안·괴산·연풍 등 12개 고을의 경우 논밭의 독이 무너진 정도가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하고 가옥도 무너지고 깔리는 일이 뒤를 따라 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수해를 입은 것이 가장 혹심하여 전부 시내와 모래밭이 된 것은 더 이상 남은 가마가 없으며, 이밖에 높고 메마른 곳의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는데 간혹 이삭이 패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차례로 무성해지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거의 다 두벌 김매기하였으며, 섞어 짓는 콩·팥은 점차 꽃이 피고 목화는 장맛비에 침해되어 꽃봉우리가 썩어 떨어져 다래를 맺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비로소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연산 등 4개 고을은 건잠준축 근심은 끝내 그치지 않았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은진·부여·연기·충주·신창·목천·정산·진잠·음성·면천·홍산 등 11개 고을도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으며, 그 가운데 목천과 음성 2개 고을은 건잠준축의 근심뿐 아니라 또 벌레 재해도 있어서 일찍 모내기한 벼는 전부 포기하게 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17일 사시 이후 세차게 쏟아지기도 하고 부슬부슬 내리며 뿌리기도 하였는데 20일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3치 8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남풍이 밤낮으로 크게 불어 닥치고 먹구름이 연이어 또 뻥뻥하게 덮고 있어 개일 조짐이 막연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 빗물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6. 1854년(철종 5) 7월 30일(양력 8월 23일)

忠淸監營啓錄 4책(126a~126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68c~69a)

道內農形及今月二十三日戌時量始雨，至二十五日巳時開霽，側雨器[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緣由，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牙山·禮山·大興·沔川·唐津·保寧·鎭川·陰城·槐山等〈九邑〉川渠漲滿，天安·平澤·洪州·德山·淸州等五邑 得二犁，公州·全義·木川·稷山·溫陽·新昌·定山·海美·瑞山·鴻山·林川·藍浦·靑山·報恩等十四邑 得一犁，靑陽·石城·扶餘·舒川·魯城·恩津·連山·鎭岑·懷德·沃川·懷仁·燕岐等十二邑 得一鋤是如爲白遣。農形段，田畝之汰覆，穀苗之消灑者，已無可論，而外他水災穀淺之地，早稻及早黍粟，方張發穗，中稻間或胚胎，晚稻次第茁茂，和種豆太，方始結穀，木花或開花或結穀，而腐落殆盡，無望成就，根耕豆太及晚黍粟，連爲除草，前啓中，連山等十五邑 愆蠶蹲縮及木川·陰城兩邑 蟲損尙不寢息，前啓外，公州·唐津·藍浦·石城·魯城·靑陽等六邑，亦有愆蠶蹲縮之患是如爲白乎跡。又於今月二十九日午時量始雨，連爲霏灑，至翌日卯時，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而尙此霏微不止是白如乎。連月長霏，已經極備，乍霽又霏，霏輒飜盆，隄防旋潰，汰覆更甚，又尙之以暴風，餘存之穀，受病且多，頽壓之戶，結構未畢，更被沈墊，民情憂悶，去而益深，向後形止及各邑雨水多寡，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23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5일 사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이 1치 8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아산·예산·대흥·면천·당진·보령·진천·음성·괴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천안·평택·홍주·덕산·청주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공주·전의·목천·직산·온양·신창·정신·해미·서산·홍산·임천·남포·청산·보은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양·석성·부여·서천·노성·은진·연산·진잠·회덕·옥천·회인·연기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이 사태로 덮이거나 곡식의 싹이 녹아 버린 것은 이미 따질 것도 없고, 그 밖에 조금 적게 수해를 입은 곳의 올벼 및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중벼는 간혹 알을 배고, 늦벼는 차례로 무성해져 갑니다. 섞어 짓는 콩과 팔은 비로소

꼬투리를 뺏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거나 다래를 뺏기도 하는데 거의 다 썩어 떨어져 제대로 여물 가망이 없으며, 그루같이한 콩·팥 및 늦기장·늦조는 연이어 감매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연산 등 15개 고을의 건잠준축 근심 및 목천·음성 2개 고을의 벌레 재해는 아직 그치지 않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공주·당진·남포·석성·노성·청양 등 6개 고을도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29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고 뿌렸는데 이튿날 묘시에 이르러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이 4치 7푼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내리는 긴 장마로 이미 그지없이 내렸는데 잠깐 개었다가 또 주룩주룩 내리며 주룩주룩 내릴 땐 동이를 엮을 듯하니 방죽이 곧바로 무너지고 다시 심하게 사태로 덮였으며, 또 폭풍까지 더하여 남아있던 곡식들이 병든 것이 또 많고 허물어져 깔린 집은 아직 다 짓지도 못했는데 다시 잠겼으니 백성들의 근심스럽고 딱한 사정은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이후 경위 및 각 고을의 빗물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7. 1854년(철종 5) 윤7월 22일(양력 9월 14일)

忠淸監營啓錄 4책(130b~130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71a~71b)

自今月十四日至十六日雨水, 公州等三十五邑所得分數,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前啓外, 忠州·淸風·丹陽·永春等四邑 江川汎濫, 鎭川·陰城·延豐·堤川·鴻山·舒川·靑陽·沃川·永同·黃澗·靑山·報恩·懷仁·泰安·平薪等十五邑鎭 川渠漲溢, 淸安等 得二犁, 而非時冷雨連日暴霖, 堤堰復潰, 禾稼更沈, 民情穡事, 去益悶然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빗물이 공주 등 35개 고을에 내린 양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충주·청풍·단양·영춘 등 4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였고, 진천·음성·연풍·제천·홍산·서천·청양·옥천·영동·황간·청산·보은·회인·태안·평신 등 15개 고을과 군영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청안 등은 2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찬비가 연일 세차게 쏟아져 방죽과 둑이 다시 무너지고 벼가 다시 잠겨 백성들의 마음과 농사는 갈수록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298. 1854년(철종 5) 8월 초6일(양력 9월 27일)

忠淸監營啓錄 4책(130b~132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71b~72a)

道內列邑連被水災形止及公州等三十二邑漂頽民戶淹壓死人等役姓名，修成冊上送常賑廳，而外此未報邑，待其報來，鱗次陳聞計料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前啓中，公州段，民家漂失，又爲十戶，頽壓又爲十五戶，人命淹死爲二名；淸州段，民家漂失爲二戶，頽壓又爲二十九戶，人命淹死爲二名；木川段，民家頽壓，又爲三十三戶，人命壓死，爲一名；天安段，民家頽壓，又爲三十二戶，人命淹死，又爲一名；稷山段，民家頽壓，又爲三十戶；平澤段，民家頽壓，又爲二十一戶；牙山段，民家頽壓，又爲二十七戶；溫陽段，民家漂失，又爲一戶，頽壓又爲十四戶，人命淹死爲二名；新昌段，民家頽壓，又爲十五戶；韓山段，民家頽壓，又爲二十三戶，人命淹死，又爲二名；海美段，民家漂失，又爲二戶，頽壓又爲十四戶；恩津段，民家頽壓，又爲十六戶，人命淹死，又爲二名；鎭川段，民家頽壓，爲三十四戶；永春段，民家漂失，又爲五戶，頽壓爲十戶；文義段，民家頽壓，又爲十戶；連山段，人命淹死，又爲一名；林川段，民家[人命]淹死，又爲二名。前啓外，洪州段，民家頽壓，爲一百三十四戶，人命淹死爲一名，壓死爲一名；忠州段，民家漂失，爲十六戶，頽壓爲四十三戶；大興段，民家頽壓，爲二十六戶；沔川段，民家頽壓，爲十六戶；康津段，民家頽壓，爲二十三戶；全義段，民家頽壓，爲十戶；淸安段，民家頽壓，爲十三戶；槐山段，民家頽壓，爲十三戶，人命淹死爲一名；堤川段，民家頽失爲六戶，頽壓爲八戶，人命淹死爲七名；保寧段，民家頽壓爲二十二戶；藍浦段，民家頽壓爲三十四戶；懷德段，民家頽壓爲三戶。而統計各邑所報，則數則民家之漂失，爲四十二戶，頽壓爲六百六十八戶，人命之淹死，爲十六名，壓死爲九名是白如乎。夏秋恒雨，雨輒〈暴〉霍，漂頽淹壓之患，自初已多。而前水未退，後漲又添，家舍之始也半頽者，終歸全頽，人命之初焉免死者，竟被淹壓，厥數至此之多是白乎所。淹壓死人，漂頽民戶元恤典，爲先以精實穀，使之依式題給，屍身助需掩埋之節，家舍結構入處之方，別加顧恤，勸借慰撫，期於安心奠接之意，連加申飭於各該邑守宰處爲白遣。漂頽民戶，淹壓死人等役姓名，更爲一一開錄，修成冊子，上送于常賑廳爲白去乎，令該廳會減施行爲白乎旅。上項諸邑所報遲滯，實由於潦雨連仍，而或緣其晚時摘奸，屢煩關飭，自致啓聞之稽滯。揆以舉行，萬萬駭然，各該邑首吏鄉，自臣營從重科治。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여러 고을이 연이어 수해를 입은 경위 및 공주 등 32개 고을이 떠내려가고 무너져 깔린 집·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의 성명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상진청에 올려보낸 것, 이밖에 아직 보고하지 않은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이라는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공주는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또 10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또 15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청주는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2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또 29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목천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33가구·깔려 죽은 사람이 1명, 천안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32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또 1명, 직산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30가구, 평택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21가구, 아산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27가구, 온양은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또 1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또 14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신창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15가구, 한산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23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또 2명, 해미는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또 2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또 14가구, 은진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16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또 2명, 진천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34가구, 영춘은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또 5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10가구, 문의는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또 10가구, 연산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또 1명, 임천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또 2명입니다.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홍주는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134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충주는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16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43가구, 대흥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26가구, 면천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16가구, 강진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23가구, 전의는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10가구, 청안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13가구, 괴산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13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제천은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6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8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7명, 보령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22가구, 남포는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34가구, 회덕은 백성 집이 무너져 깔린 것이 3가구입니다.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통틀어 계산한 수는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42가구·무너져 깔린 것이 668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6명·깔려 죽은 사람이 9명입니다. 여름과 가을 동안 항상 비가 내렸고 비가 오면 번번이 세차게 쏟아졌으니 백성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져 깔리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을 걱정이 애초부터 이미 많았습니다. 앞서 내린 빗물이 미처 빠지지 않았는데 뒤에 불어난 물이 또 더하니 가옥이 처음에는 반쯤 무너졌던 것이 끝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처음에 죽음을 면했던 사람이 마침내 빠져 죽거나 깔려 죽으니 그 수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과 떠내려 갔거나 무너져 깔린 가구는 원홀전에서 우선 알찬 곡식을 규정에 따라 결정문으로 내주게 하고, 시체는 물품을 보조해 매장하는 절차와 집을 지어 살도록 하는 방도는 별도로 돌보아주어 빌려주도록 권장하며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어 기어코 안심하고 머물러 살게 하라는 뜻으로 연이어 각 해당 고을 수령에게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의 성명은 다시 하나하나 기록하고 성책을 작성하여 상진청에 올려보내니 해당 청에 지시하여 회감해서 시행하도록 하여주시옵소. 위 향의 여러 고을에서 보고가 지체된 것은 정말로 장맛비가 연이어 내린 데서 말미암았고 더러 때늦게 캐본 탓인데, 누차 번거롭게 공문으로 지시하다 보니 자연히 보고가 지체되었습니다. 살펴보건대 거행하는 도리상 매우 놀라우므로 각각 해당 고을의 우두머리 아전과 향임을 저의 감영에서 무거운 규정을 따라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99. 1854년(철종 5) 8월 초10일(양력 10월 1일)

忠淸監營啓錄 4책(132a~132b)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72a~72a)

道內農形，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方始〉刈取，中稻幾盡向熟，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次第入實。而屢朔潦水，旣多傷損，晚節東風，未免卒痒，或苗而不秀，或發而不穎，半實黃枯是如爲白乎旃。前啓中，連山等二十二邑，愆蠶蹲縮，木川等四邑，蟲損之災，或有寢息之漸，而前啓外，林川又發愆蹲，石城繼有蟲損之〈患是〉如爲白〈有〉臥乎所。向後形止，鱗次陳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막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중벼는 거의 다 익어가고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여물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달의 장맛비로 이미 손상이 많고 때늦은 동풍으로 끝내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더러 싹이 났으나 이삭이 패지 못하고 더러 이삭이 뻗으나 제대로 영글지 못하여 절반은 정말로 누렇게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연산 등 22개 고을의 건잠준축의 근심, 목천 등 4개 고을의 벌레 재해의 재해가 더러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임천에서 또 건잠준축 근심이 발생하고 석성에서 계속 벌레 재해의 재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00. 1854년(철종 5) 8월 20일(양력 10월 11일)

忠淸監營啓錄 4책(132b~132b) /各司謄錄 7책 忠淸道篇 2책(72b~72b)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及和種豆太, 幾盡收穫, 中稻方張刈取, 晚稻·晚黍粟及和種豆太, 次第向熟, 木花晚顆略存, 摘花無幾. 前啓中, 連山等二十三邑, 愆蠹蹲縮, 木川等五邑, 蟲損之災, 幾至寢息, 而前啓外, 舒川繼有愆蹲, 青陽又發蟲損是如爲白有臥<乎所>. 向後形止, 鱗次陳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와 올기장·올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거의 다 수확하고 중벼는 한창 베어 거두며, 늦벼와 늦기장·늦조 및 섞어 짓는 콩·팥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늦게 맺힌 다래가 약간 남아있는데 꽃을 따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앞서 보고한 것 가운데 연산 등 23개 고을의 건잠준축의 근심, 목천 등 5개 고을의 벌레 재해의 재해는 거의 사라지기에 이르렀고,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서천은 계속 건잠준축의 근심이 있으며 청양은 또 벌레 재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01. 1854년(철종 5) 8월 24일(양력 10월 15일)

忠淸監營啓錄 4책(138b~139a) /各司臚錄 7책 忠淸道篇 2책(75d~76a)

道內農形, 已爲連次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木川·稷山·溫陽·新昌·禮山·定山·青陽·洪州·鴻山·韓山·藍浦·保寧·魯城·恩津·連山·沃川·青山·報恩·懷仁·鎭川·槐山·堤川等二十二邑 今月十九日夜霜降, 公州·平澤·大興·德山·石城·扶餘·結城·黃澗(石城·扶餘·結城·黃澗)等八邑 今月二十日夜霜降是如爲白乎旡. 農形段, 田畝各穀之重被水災, 全無穀形者外, 餘存各穀, 次第收穫, 而愆蹲比甚, 霜信遽促, 不發含蓄, 未熟先枯者, 在在皆然. 災多而實少, 善就者幾希, 木花始因久旱, 既不善苗, 終被長霖, 且鮮結顆, 甫田所收, 不盈傾筐, 到處所見, 已判歉荒是如爲白有臥乎所. 列邑分等的[酌]量磨鍊,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충청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목천·직산·온양·신창·예산·정산·청양·홍주·홍산·한산·남포·보령·노성·은진·연산·옥천·청산·보은·회인·진천·괴산·제천 등 22개 고을은 이번 달 19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공주·평택·대흥·덕산·석성·부여·결성·황간 등 8개 고을은 이번 달 20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논밭의 각종 곡식이 거듭 수해를 입어 곡식의 모습이 온전한 것이 없는 것 외에 남아 있는 각종 곡식은 차례대로 수확하는데 건잠준축 근심은 비교적 심하며, 서리가 내리면서 급작스럽게 촉진하여 피지도 않은 채 오므라들고 익지도 않고 먼저 말라 버리는데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재해가 많은 곳은 열매가 적고 잘 여문 것이 거의 드물며, 목화는 시작부터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이미 싹이 잘 자라지 못한 데다가 끝내 긴 장마로 또 다래를 맺은 것이 드물고, 큰 밭에서 거둔 것이 한 광주리도 채우지 못하니 이르는 곳마다 본 바로는 이미 흉년으로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풍흉 등급은 참작하고 마련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71-01
ISBN	979-11-6988-370-2(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